

농촌 토지이용
유형으로 본
우리나라
농촌 공간

한수경 변기영 여혜진

(auri)

여는 글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농촌정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농촌정책이 주로 개별 사업 중심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이제는 지역 전체를 하나의 공간 단위로 바라보며 체계적으로 관리·계획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 지역 간 불균형, 농촌소멸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협력하여 농촌공간의 미래상을 함께 그려가고, 이에 맞는 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조화로운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촌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이용은 인간이 땅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식이자, 농촌공간의 구조와 성격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농경지, 마을, 생산시설, 임야 등 다양한 공간 요소가 어떻게 배치되고 활용되는지를 살펴보면, 그 지역의 생활방식과 역사, 나아가 미래의 발전 방향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의 토지이용 연구는 대체로 도시 중심의 시각에서 이루어져, 농촌의 실제 토지이용 실태나 공간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앞으로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농촌의 토지이용 특성과 지역별 차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농촌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파악하고, 균형 잡힌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을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농촌공간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농촌공간을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지도, 드론촬영 사진 등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전국 읍·면과 법정리 단위의 토지이용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권역별, 시·군별 특성을 정리함으로써 농촌공간의 토지이용 특성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책이 농촌공간계획을 연구하거나 수립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무적 참고자료로, 일반 독자에게는 농촌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창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농촌공간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쌓아온 삶의 공간이자 미래를 설계할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되는 데 이 책이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일러두기

이 책은 건축공간연구원에서 2024년 발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방안 연구(Ⅰ) - 농촌 토지이용 개편 검토기준」과 2025년 발간한 「농촌 토지이용 유형과 유형별 공간관리 방향」(auri brief 299)을 수정·보완하고 발전시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지도는 저자가 직접 작성하였으며, 사진 자료는 건축공간연구원 농촌공간연구센터가 2024년과 2025년에 수행한 일반사업의 일환으로 (사)영남지역발전연구원에서 드론 촬영한 결과물입니다.

아울러 모든 분석 결과는 공공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도출되었으며, 관련 정보가 없는 경우 분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읍·면과 법정리 단위 지표를 시각화한 지도의 범례는 전체 자료(전국 1,402개 읍·면과 14,965개 법정리 자료) 분포를 분석하여 자연스러운 구분점을 찾아 주는 내추럴 브레이크(Natural Breaks) 방식을 사용해 5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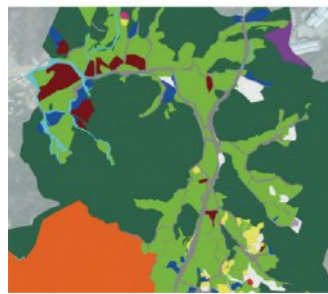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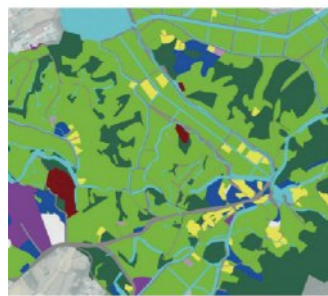
<p>01</p> <p>농촌 토지이용 유형으로 공간 읽기</p> <p>왜 농촌공간을 토지이용 유형으로 읽어야 할까 08</p> <p>농촌 토지이용 유형 분석하기 09</p>	<p>02</p> <p>전국 농촌 토지이용 유형 개관</p> <p>농촌 토지이용 유형 분류 14</p> <p>읍·면 단위 정주여건 특성 16</p> <p>법정리 단위 토지이용 특성 22</p> <p>읍·면소재지와 농촌 토지이용 유형 28</p>	<p>03</p> <p>광역별 농촌 토지이용 유형 비교</p> <p>인천·경기 32</p> <p>강원 38</p> <p>세종·충청 44</p> <p>대구·부산·울산·경상 50</p> <p>제주·전라 56</p>	<p>04</p> <p>시·군별 농촌 토지이용 유형 사례</p> <p>대표 10개 시·군 선정 64</p> <p>성장형 거점도시: 평택 66</p> <p>성숙안정형 거점도시: 청주 76</p> <p>성숙안정형 강소도시: 순천, 당진 90</p> <p>성숙안정형 자립도시: 횡성, 순창 114</p> <p>감소형 강소도시: 철곡 136</p> <p>감소형 자립도시: 고성, 부여, 상주 150</p>	<p>05</p> <p>지도와 하늘에서 본 농촌 토지이용 유형별 모습</p> <p>도시형 농촌 184</p> <p>점이·혼합형 농촌 186</p> <p>농업중심형 농촌 192</p> <p>자연우세형 농촌 198</p>	<p>06</p> <p>농촌공간 관리 방향</p> <p>농촌 토지이용 유형을 활용한 공간 관리 방향 탐색 204</p> <p>참고문헌 208</p>
--	--	---	--	---	--

01

농촌 토지이용 유형으로 공간 읽기

왜 농촌공간을 토지이용 유형으로 읽어야 할까
농촌 토지이용 유형 분석하기

왜 농촌공간을
토지이용 유형으로
읽어야 할까



우리나라 농촌은 그동안 용도지역제에 따른 체계적인 토지이용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 다른 용도의 토지가 뒤섞인 채 유지되어 왔다. 국토의 약 82%를 차지하는 농촌지역은 일부 도시화된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도시와 달리 세부 용도가 정교하게 나뉘어 있지 않아, 주거 공간과 생산용지, 그리고 자연환경이 한데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모습은 오랜 세월 쌓여온 농촌 고유의 복합적 생활양식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토지이용 간의 부조화나 정주여건 악화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생활·생산·자연환경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어 정부는 2025년~2034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주거와 산업의 기능별 배치'를 주요 세부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내 주거와 산업 기능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수단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농촌에서 토지이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서로 다른 기능이 어떤 형태로 얽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은 필지나 블록 단위로 명확히 계획되지 않고 용도 혼재의 양상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패턴을 파악하거나 유형화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농촌 토지이용의 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1,402개 읍·면의 정주여건 특성과 14,965개 법정리 단위의 토지이용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의 토지이용이 지역별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농촌 토지이용의 특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지역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계획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출처: 여혜진 외(2024, p.32)

출처: 여혜진 외(2025, p.2) 재구성

농촌 토지이용 유형
분석하기

분석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9개 시·군 - 1,402개 읍·면 / 14,965개 법정리

인구가 없는 면 지역과 법정리, 생활·생산·자연환경 비중이 80% 미만인 법정리는 분석에서 제외

데이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종사자, 생활서비스시설, 토지 특성, 건축물 특성 관련 18가지 데이터 정제 활용

분석 지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 단위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 여건(지역 위계, 생활환경, 생산환경, 자연환경) 관련 8개 지표 법정리 단위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 특성(토지이용분포, 토지이용 혼재) 관련 8개 지표

읍·면 단위 지표는 '지역 위계'(인구 밀도, 고용밀도), '생활환경'(생활인프라 접근성, 행정복지센터 접근성), '생산환경'(생산가능인구 비율, 제조업종사자 비율, 농가 비율), '자연환경'(자연관련 토지이용률)으로, 법정리 단위 지표는 '토지이용 분포'(생활가능 토지이용률, 농업용지비율, 공업용지비율, 관광 휴양용지비율)와 '토지이용 혼재도'(주거-생활기능, 주거-농업, 주거-공업-태양광-축산업, 주거-임야 근접지수)로 구성하였다.

분석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분석 및 GIS 공간분석을 바탕으로 분석 지표 값 산출 분석 지표 값의 Z-score 표준화 K-평균 군집분석(1·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집분석 1단계 : 읍·면 단위 지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수립의 최소 단위인 읍·면을 대상으로 하여, 농촌의 정주 여건을 중심으로 농촌 유형 구분 · 군집분석 2단계 : 법정리 단위 지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에서 도출된 읍·면 단위 농촌 유형의 세부 토지이용 특성을 마을 수준에서 파악하기 위해 법정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 유형 구분 최적 유형 도출(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 특성이 반영된 법정리 단위 「농촌 토지이용 유형」 도출

통계분석과 GIS 공간분석을 바탕으로 읍·면 및 법정리 단위 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표준화(z-score)하여 두 단계의 군집분석(1단계 읍·면 단위, 2단계 법정리 단위)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이 형성되는 읍·면 수준의 환경과 마을 단위 토지이용 구성을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출처: 여혜진 외(2024, pp.56-58); 여혜진 외(2025, p.4) 재구성

1단계 군집분석 지표 - 읍·면 단위

지표	산출식	자료
지역 위계	인구밀도 (명/km ²)	인구밀도 = $\frac{\text{총 인구수}}{\text{행정구역면적}}$ 주민등록인구('24.2) 읍·면 경계('24.2)
	고용밀도 (명/km ²)	고용밀도 = $\frac{\text{총 종사자수}}{\text{행정구역면적}}$ 전국사업체조사('22) 읍·면 경계('24.2)
생활 환경	생활인프라 접근성(m)	- 교육, 학습, 돌봄, 의료, 체육, 문화, 휴식시설의 인구 1인당 접근성을 산출한 후 모든 시설 접근성의 평균을 읍·면 단위에서 산출 $A_i = \frac{\sum p_{ij} \times d_{\min}}{P_i}$ A_i : 세생활권(200m×200m) i 의 공간적 접근성, P_i : i 의 상주인구수, p_{ij} : i 에 속한 격자(100m×100m) j 의 상주인구수, d_{\min} : j 의 중심점에서 생활SOC 시설까지의 최소거리 시설별 주소정보('21) ※ 아래표 참고
	행정복지센터 접근성(m)	- 생활인프라 접근성과 동일한 방법을 활용하여 산출 $A_i = \frac{\sum p_{ij} \times d_{\min}}{P_i}$ A_i : 세생활권(200m×200m) i 의 공간적 접근성, P_i : i 의 상주인구수, p_{ij} : i 에 속한 격자(100m×100m) j 의 상주인구수, d_{\min} : j 의 중심점에서 행정복지센터까지의 최소거리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22)
생산 환경	생산가능인구 비율(%)	생산가능인구 비율 = $\frac{\text{만15-64세 이하 인구수}}{\text{총 인구수}} \times 100$ 주민등록인구('24.2)
	제조업종사자 비율(%)	제조업종사자 비율 = $\frac{\text{제조업 종사자수}}{\text{총 종사자수}} \times 100$ 전국사업체조사('22)
	농가 비율(%)	농가 비율 = $\frac{\text{총 농가수}}{\text{총 가구수}} \times 100$ 농림어업종조사('20) 인구주택총조사('20)
자연 환경	자연관련 토지이용률(%)	자연관련 토지이용률 = $\frac{(\text{임야+하천}) \text{필지면적}}{\text{전체 필지면적}} \times 100$ 토지특성공간정보 ('24.2) ※ 임야 필지: 필지의 토지이용상황이 임야인 경우 ※ 하천 필지: 필지의 토지이용상황이 하천인 경우

출처: 여혜진 외(2024, p.63)

※ 생활인프라 접근성 지표 산출 시 활용한 자료 목록

구분	시설	분석대상	자료 출처	소관부처	연도
교육(2)	유치원	공립유치원	교육기본통계(유초중등통계)	교육부	'21
	초등학교	초등학교			
학습(2)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전국도서관통계(공공도서관)	문화체육 관광부	
	작은도서관	공공/민간 작은도서관	전국도서관통계(작은도서관)		
돌봄(2)	유아(1)	어린이집	보육통계(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보건 복지부	
	노인(1)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현황		
의료(1)	보건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 현황		
체육(2)	수영장	수영장	공공체육시설 현황	문화체육 관광부	
	생활체육관	생활체육관			
문화(3)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시민-예술회관	문예회관			
	미술관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휴식(2)	도시공원	묘지공원과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제외	전국 도시공원 정보 표준데이터	국토 교통부	
	도시지역권-광역권공원	근린공원(10만㎡ 이상)			

출처: 여혜진 외(2024, p.64)

주1. 전국도시공원정보 표준데이터에서 오류가 확인된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공원 및 근린공원자료 구축
주2. 도시공원은 생활권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및 주제공원을 포함. 단, 공원 성격을 고려하여 묘지공원은 제외하고 구축

2단계 군집분석 지표 - 법정리 단위

지표	산출식	자료
토지 이용 분포	생활기능 토지이용률 (%)	생활기능 토지이용률 = $\frac{(\text{주거용} + \text{상업} \text{업무용} + \text{공공} \text{기타용}) \text{필지면적}}{\text{전체 필지면적}} \times 100$ ※ 주거용 필지: 필지의 토지이용상황이 단독, 연립, 다세대, 아파트 ※ 상업 업무용 필지: 필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용, 업무용, 주상용 ※ 공공·기타용 필지: 필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거기타, 상업기타, 주상기타, 공업 기타, 전기타, 담기타, 임야기타 → '기타'는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 토지특성정보('24.2)
	농업용지비율 (%)	농업용지 비율 = $\frac{\text{농업용 필지 면적}}{\text{전체 필지면적}} \times 100$ ※ 농업용 필지: 필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 담, 과수원인 경우 토지특성정보('24.2)
	공업용지비율 (%)	공업용지 비율 = $\frac{\text{공업용 필지 면적}}{\text{전체 필지면적}} \times 100$ ※ 공업용 필지: 필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용인 경우 토지특성정보('24.2)
	관광·휴양용지 비율(%)	관광·휴양용지 비율 = $\frac{\text{관광·휴양용 필지 면적}}{\text{전체 필지면적}} \times 100$ ※ 관광·휴양용 필지: 필지의 토지이용상황이 유원지, 화원제·대중제·간이 골프장, 스키장, 경마장, 승마장, 콘도인 경우 토지특성정보('24.2)
토지 이용 혼재도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 = $\frac{\sum_i (\sum_j L_{ij}) / S_i}{N}$ L_{ij} : 주거용 필지 i 의 경계로부터 250m 내 위치한 생활기능(주거용+상업·업무용 +공공·기타용) 필지 j 의 면적 S_i : 주거용 필지 i 의 경계로부터 250m 버퍼 경계 사이의 면적 N : 주거용 필지의 개수 → 0~1 사이 값(1에 가까울수록 주거용 필지 주변에 생활기능 필지가 많음) 토지특성공간정보 ('24.2)
	주거-농업 근접지수	주거-농업 근접지수 = $\frac{\sum_i (\sum_j A_{ij}) / S_i}{N}$ A_{ij} : 주거용 필지 i 의 경계로부터 250m 내 위치한 농업용 필지(토지이용상황이 전, 담, 과수원) j 의 면적 → 0~1 사이 값(1에 가까울수록 주거용 필지 주변에 농업용 필지가 많음) 토지특성공간정보 ('24.2)
	주거-공업· 태양광·축산업 근접지수	주거-공업·태양광·축산업 근접지수 = $\frac{\sum_i (\sum_j I_{ij}) / S_i}{N}$ I_{ij} : 주거용 필지 i 의 경계로부터 250m 내 위치한 공업용·태양광·축산업 필지(토지 이용상황이 공업용, 태양광, 전축사·담축사·목장용지) j 의 면적 → 0~1 사이 값(1에 가까울수록 주거용 필지 주변에 공업·태양광·축산업 필지가 많음) 토지특성공간정보 ('24.2)
주거-임야 근접지수	주거-임야 근접지수 = $\frac{\sum_i (\sum_j F_{ij}) / S_i}{N}$ F_{ij} : 주거용 필지 i 의 경계로부터 250m 내 위치한 임야 필지(토지이용상황이 조림, 자연림, 토지임야) j 의 면적 → 0~1 사이 값(1에 가까울수록 주거용 필지 주변에 임야 필지가 많음) 토지특성공간정보 ('24.2)	

출처: 여혜진 외(2024, pp.70-71)

02

전국 농촌 토지이용 유형 개관

농촌 토지이용 유형 분류
읍·면 단위 정주여건 특성
법정리 단위 토지이용 특성
농촌 토지이용 유형과 읍·면소재지

농촌 토지이용 유형 분류

전국 농촌은 읍·면 단위 정주여건 특성에 따라 도시형 농촌, 점·혼합형 농촌, 농업중심형 농촌, 자연우세형 농촌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농업중심형 농촌이 절반 가까이(47.6%)를 차지해, 우리 농촌이 여전히 농업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점·혼합형 농촌(24.2%)과 자연우세형 농촌(23.6%)이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하며, 도시형 농촌(4.6%)은 드물게 관찰된다.

이러한 네 가지 농촌 유형의 토지이용을 법정리 단위에서 살펴보면, 농업중심형 농촌 중에서는 임야와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C3)이 가장 많고(25.6%), 농경지가 넓게 펼쳐진 지역(C2)도 많이 관찰된다(16.1%). 자연우세형 농촌에서는 넓은 임야와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고 주거가 점(點)적 분포하는 지역(D2)이 두드러지며(13.2%), 점·혼합형 농촌에서는 농경지와 임야·관광·공업·축사 등이 혼재된 지역(B3, B2)의 비중이 높다(12.1%, 10.3%). 반면, 도시적 토지이용이 뚜렷한 법정리(A1)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1.0%), 생활기능이나 공업 기능이 중심이 되는 유형(A2, B1, C1, D1) 역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농촌은 농경지와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소규모 마을과 주거가 형성되어 있고, 공업, 축사, 관광 등이 혼재된 모습이 일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농촌 토지이용 유형별 주요 특성

농촌 유형(읍·면)	토지이용 유형(읍·면 내 법정리)
A 도시형 인구·고용이 집중되어 있으며 생활편의성이 우수해 도시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읍·면 (4.6%)	A1 도시형_고밀 생활기능중심지역 도시형 농촌 내 주거·상업·공공기능 등 생활 기능이 집중된 지역 152개 (1.0%)
	A2 도시형_공업·농지집중지역 도시형 농촌 내 농업 또는 공업이 집중된 지역 565개 (3.8%)
B 점·혼합형 생산가능인구와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높고, 생활·생산·자연환경 여건이 도시와 농촌의 중간적 특성을 보이는 읍·면 (24.2%)	B1 점·혼합형_생활기능중심지역 점·혼합형 농촌 내 주거 등 생활기능이 집중된 지역 493개 (3.3%)
	B2 점·혼합형_농지·공업·축사혼재지역 점·혼합형 농촌 내 대체로 농경지가 많고 일부 지역에 공업과 축사가 혼재된 지역 1,544개 (10.3%)
	B3 점·혼합형_임야·농지·관광혼재지역 점·혼합형 농촌 내 임야와 농경지가 많고 일부 지역에 관광 기능이 혼재된 지역 1,814개 (12.1%)
C 농업중심형 농가 비중이 높고 임야·하천이 어우러진 전통적 농업기반의 읍·면 (47.6%)	C1 농업중심형_생활기능·농지조화지역 농업중심형 농촌 내 농경지와 함께 주거 등 생활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877개 (5.9%)
	C2 농업중심형_농지집중지역 농업중심형 농촌 내 대체로 넓게 농경지가 펼쳐져 있는 지역 2,413개 (16.1%)
	C3 농업중심형_임야·농지혼재지역 농업중심형 농촌 내 임야와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 3,830개 (25.6%)
D 자연우세형 인구·고용밀도가 낮고 생활편의 여건이 취약하나, 농가가 종종 관찰되며 임야·하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읍·면 (23.6%)	D1 자연우세형_저밀 생활기능·농지조화지역 자연우세형 농촌 내 농경지와 함께 주거 등 생활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1,301개 (8.7%)
	D2 자연우세형_과소·임야집중지역 자연우세형 농촌 내 넓은 임야와 함께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마을을 형성하지 못하고 주거가 점적으로 존재하는 지역 1,976개 (13.2%)
전체	1,402개 14,965개

출처: 여혜진 외(2024, pp.135-136) 재구성

A1 도시형_고밀 생활기능중심지역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C1 농업중심형_생활기능·농지조화지역

당진시 우강면 창리



A2 도시형_공업·농지집중지역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C2 농업중심형_농지집중지역

부여군 구룡면 죽교리



B1 점·혼합형_생활기능중심지역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C3 농업중심형_임야·농지혼재지역

횡성군 공근면 부창리



B2 점·혼합형_농지·공업·축사혼재지역

칠곡군 북삼읍 울리



D1 자연우세형_저밀 생활기능·농지조화지역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B3 점·혼합형_임야·농지·관광혼재지역

고성군 고성읍 월평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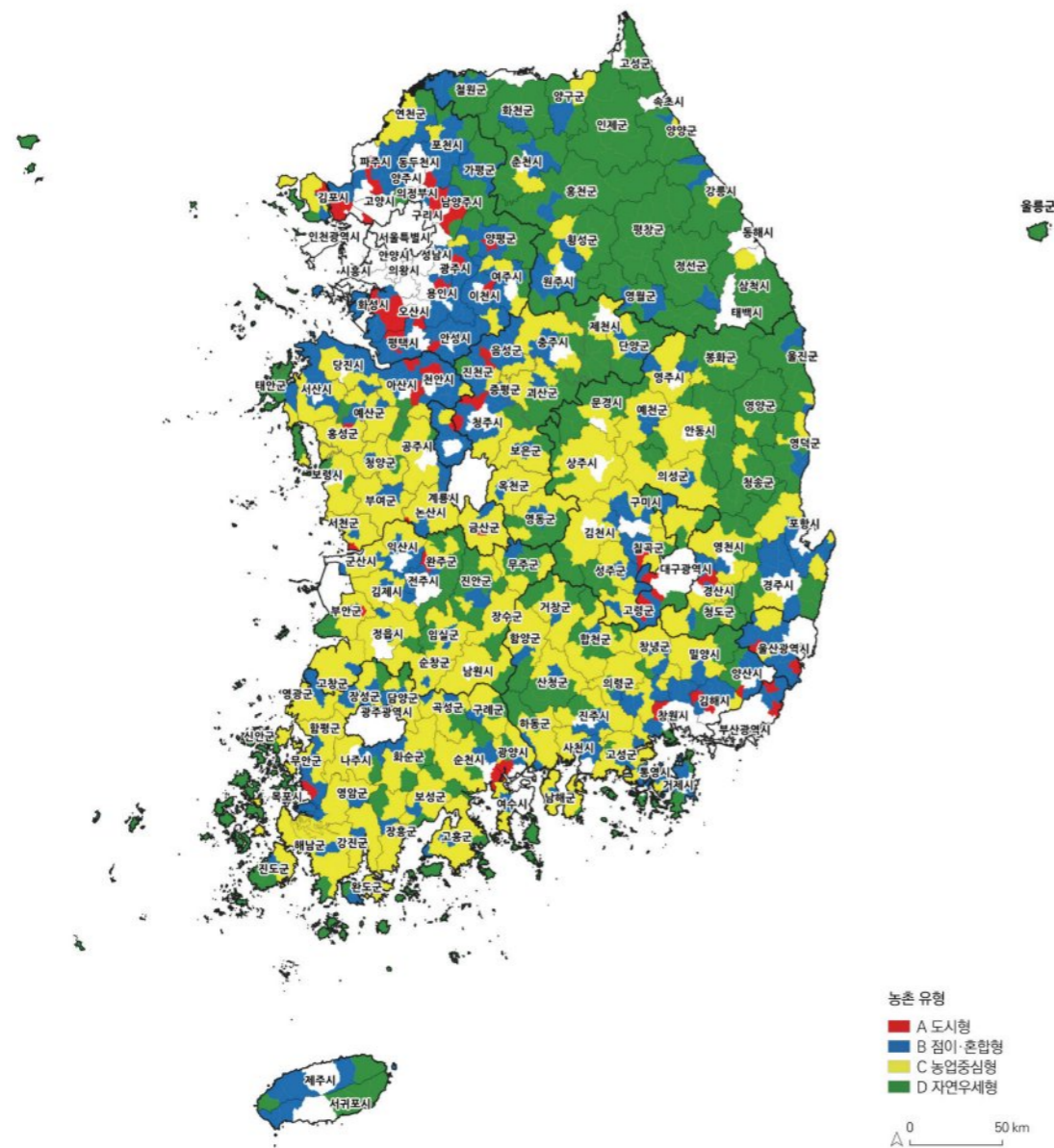
D2 자연우세형_과소·임야집중지역

순천시 황전면 평촌리



읍·면 단위 정주여건 특성

읍·면 단위
농촌 유형



출처: 여혜진 외(2024, p.93)

도시형 농촌은 네 가지 유형 가운데 비중이 가장 작은 유형으로, 경기도가 가장 많이 분포한다(29개, 44.6%). 또한 경기와 인접한 충남에서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이며(10개, 15.4%), 대구·부산·울산 등 광역시와 각 지역의 중심도시를 거점으로 분포한다. 반면 강원과 제주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수도권 인접 지역과 충청권, 일부 광역시에 집중된 유형으로 확인된다.

점·혼합형 농촌은 모든 시·도에서 관찰되는 유형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생활·공업·관광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공간적 특성을 보인다. 특히 경기(77개, 22.7%)를 중심으로 경남(46개, 13.6%), 충남(39개, 11.5%), 경북(38개, 11.2%), 전남(34개, 10%) 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울산·제주·대구·부산 등 광역시와 그 주변 지역에서도 폭넓게 분포한다.

네 가지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중심형 농촌은 전남(144개, 21.6%), 경북(117개, 17.5%), 경남(112개, 16.8%), 전북(109개, 16.3%), 충남(100개, 15%)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면 부산과 제주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데, 이는 농업 중심의 토지이용 구조를 유지하는 전통적 농촌이 주로 전라도와 경상도, 충남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연우세형 농촌은 산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강원(82개, 24.8%)과 경북(72개, 21.8%)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전남(48개, 14.5%)과 경남(34개, 10.3%)에서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인다. 한편 인천(9개)과 제주(6개) 등 도서 비중이 큰 지역에서도 일부 관찰되지만, 부산·울산·세종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개, %)는 해당 유형에 속한 읍·면의 수와 그 유형 내 구성비를 의미

읍·면 단위 농촌 유형 지표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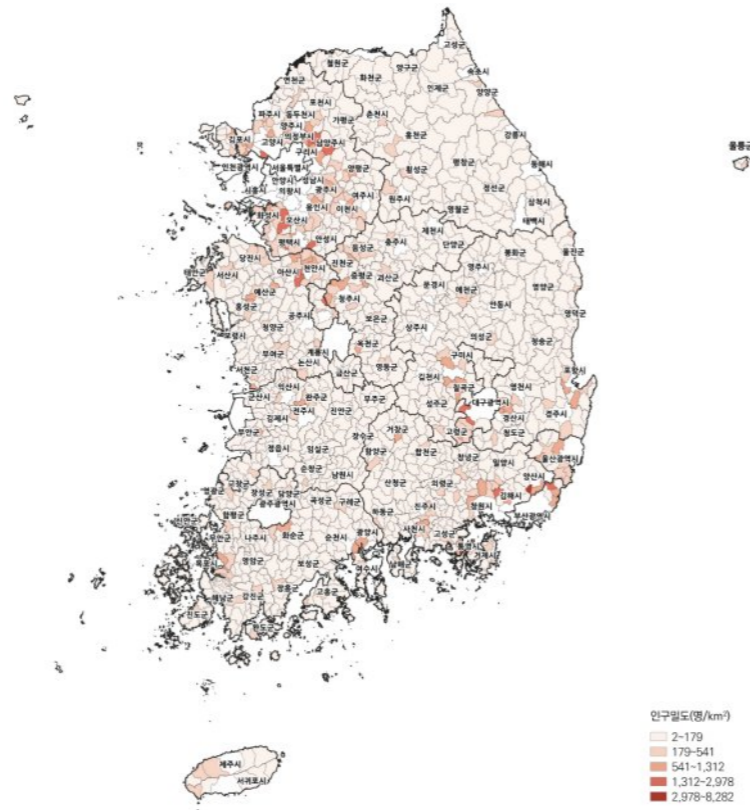
구분		A 도시형	B 점·혼합형	C 농업중심형	D 자연우세형	전체
지역 위계	인구밀도 (명/㎢)	중위값 894.28	185.86	49.12	28.37	59.75
	평균	1,215.43	241.41	54.52	42.93	150.80
	고용밀도 (명/㎢)	중위값 517.10	123.16	16.13	10.07	24.02
	평균	565.27	146.28	23.38	16.26	76.54
생활 환경	생활인프라 접근성(m)	중위값 3,930.62	5,563.86	7,702.80	10,436.66	7,528.53
	평균	4,100.94	5,869.05	7,800.03	11,543.35	8,045.39
	행정복지센터 접근성(m)	중위값 2,279.39	2,545.01	2,557.35	3,750.13	2,736.86
	평균	2,326.25	2,579.21	2,600.04	3,978.74	2,907.81
생산 환경	생산가능인구 비율(%)	중위값 70.48	62.72	48.58	51.75	51.89
	평균	70.19	62.95	48.56	52.58	53.99
	제조업종사자 비율(%)	중위값 33.69	25.70	19.07	6.35	15.57
	평균	37.16	30.11	23.81	9.21	22.50
	농가 비율(%)	중위값 5.27	15.54	40.85	31.14	33.75
	평균	6.14	16.36	41.06	31.69	31.26
자연 환경	자연관련 토지이용률(%)	중위값 37.04	55.45	66.90	83.75	67.76
	평균	39.59	53.34	61.58	80.69	63.08
유형별 비중	개수	65	339	667	331	1,402
	비율	4.64	24.18	47.57	23.61	100

출처: 여혜진 외(2025, p.7)

주: '생활인프라 접근성'과 '행정복지센터 접근성' 지표의 경우 값(접근 거리를 의미)이 작을수록 접근성이 높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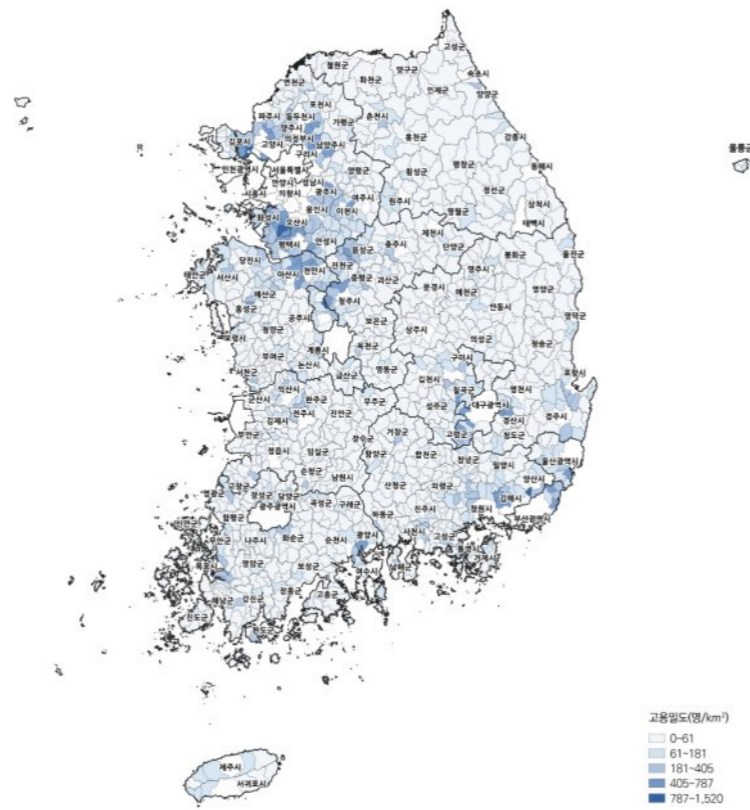
인구밀도

인구 밀집 지역은 주로 수도권과 광역시 인근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인천 외곽의 경기 지역과 대구·부산·울산 주변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또한 수도권과 맞닿은 충청도 북부 일부 읍·면에서도 비교적 높은 인구밀도가 나타난다. 전국 읍·면의 평균 인구밀도는 150.8명/km²로, 최소 2명/km²에서 최대 8,282명/km²까지 매우 넓은 범위를 보인다. 인구밀도가 1,000명/km² 이상인 지역은 전체 읍·면의 2%에 불과한 반면, 100명/km² 이하인 읍·면은 70.5%에 달한다. 이러한 저밀·과소 지역은 주로 강원도, 경상도와 전라도의 산간 지역, 해안 및 도서 지역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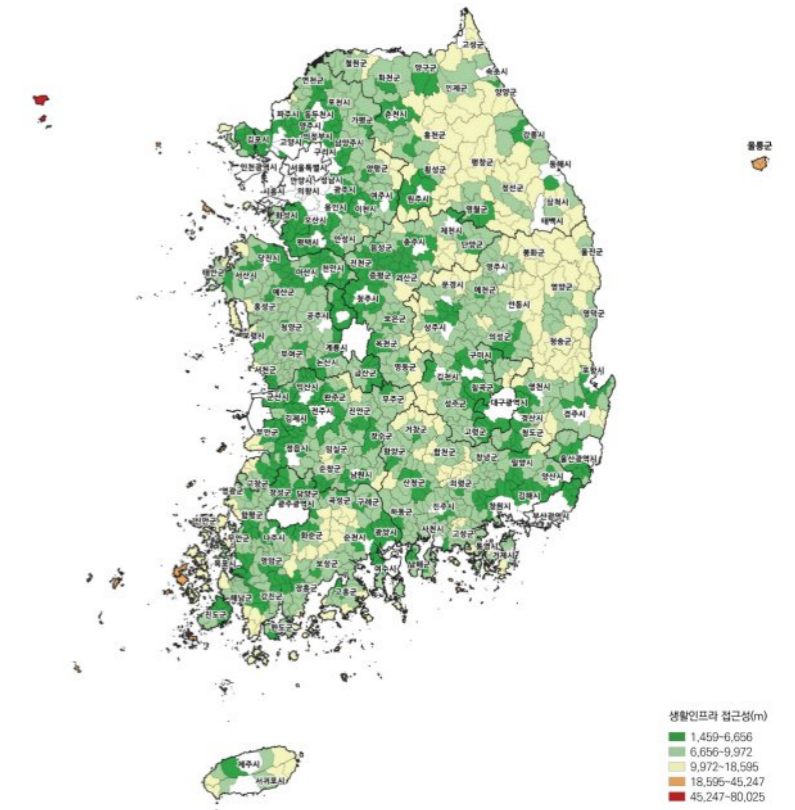
고용밀도

고용 밀집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과 유사한 공간적 분포를 보인다. 특히 서울·인천에 인접한 경기 북부의 김포시·파주시·의정부시·남양주시와 경기 남부의 화성시·오산시·평택시 일대에서 높은 고용밀도가 나타난다. 또한 산업시설이 집적된 대구와 경북의 포항시·구미시, 울산·부산과 경남의 양산시·김해시·창원시, 전남 광양시 일대에서도 고용이 집중된 양상이 확인된다. 전국 읍·면의 평균 인구밀도는 76.5명/km²로, 최소 0.4명/km²에서 최대 1,519.8명/km²까지 분포한다. 고용밀도가 1,000명/km² 이상인 지역은 단 4개 읍·면에 불과한 반면, 100명/km² 이하인 읍·면은 약 80%에 달해 저고용 지역이 전국 농촌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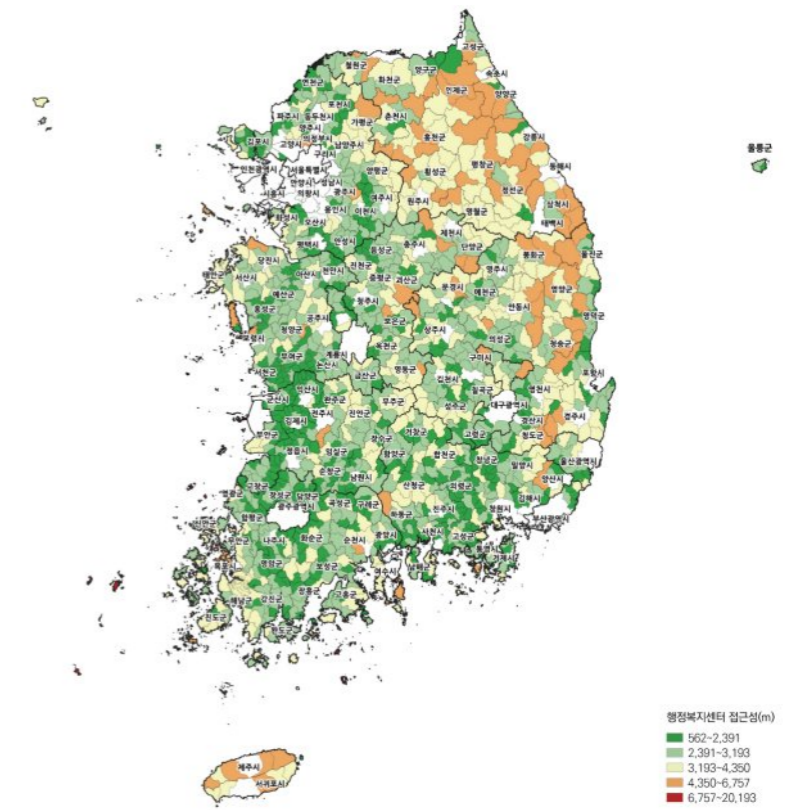
생활인프라 접근성

전반적으로 생활인프라(교육·학습·돌봄·의료·체육·문화·휴식시설)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질은 녹색)은 도시지역 주변에 주로 분포하는 반면, 강원도와 경북 북동부, 경남·전남의 일부 지역, 해안 및 도서 지역은 접근성이 취약한 양상을 보인다. 전국 읍·면의 평균 1인당 생활인프라 접근거리는 8,045m로, 최소 1,459m에서 최대 80,025m까지 매우 넓은 범위를 보인다. 1인당 생활인프라 접근거리가 5,000m~10,000m인 읍·면은 66.5%를 차지하는 한편, 5,000m 이하인 지역은 14.7%에 불과하다. 특히 도서 지역에서는 생활인프라 접근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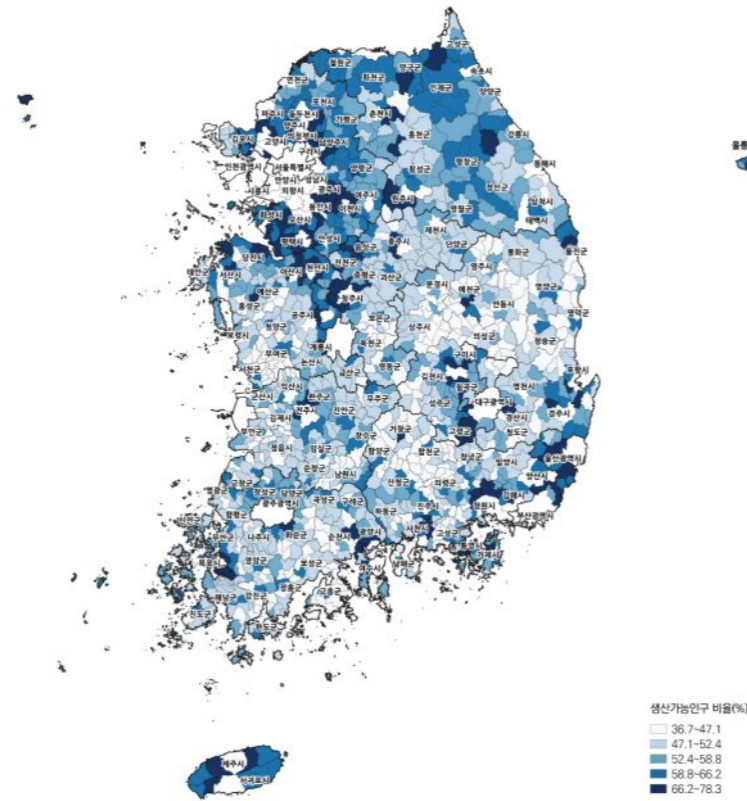
행정복지센터 접근성

행정복지센터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질은 녹색)은 생활인프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과 유사한 공간적 분포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도시지역 주변에서는 행정복지센터와의 거리가 가까운 반면, 강원도와 이에 인접한 경기 동부, 충북·경북 북동부 및 도서 지역에서는 행정복지센터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것으로 나타난다. 전국 읍·면의 평균 1인당 행정복지센터 접근거리는 2,908m로, 최소 562m에서 최대 20,193m까지 비교적 넓은 범위를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격차는 생활인프라 접근성 격차에 비해서는 다소 작은 편이다. 행정복지센터 1인당 접근거리가 3,000m 이하인 지역은 전체의 62.6%, 5,000m 이하인 지역은 96.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접근성은 생활인프라 접근성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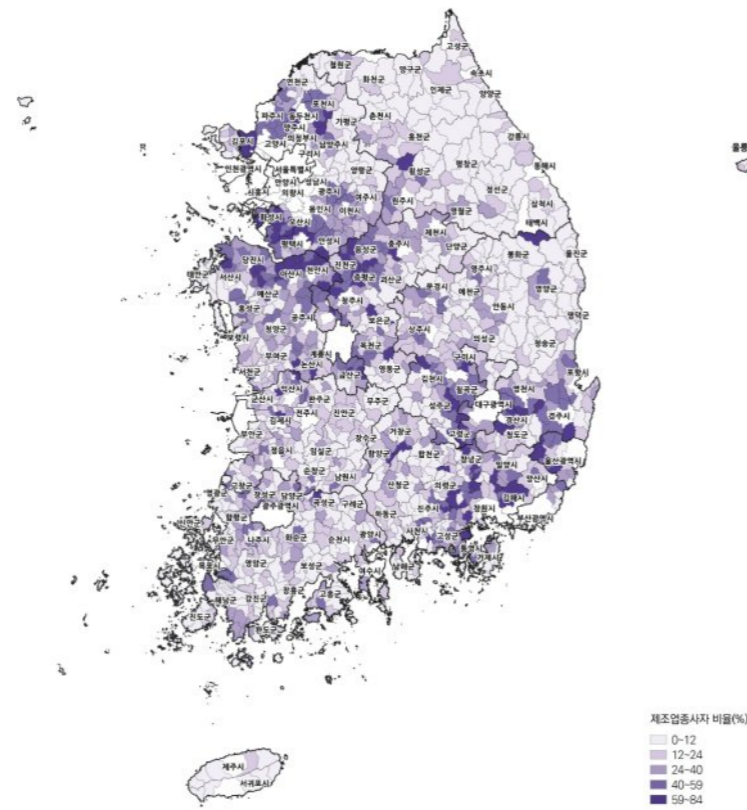
생산가능인구 비율

생산가능인구(만15~64세)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인구밀도와 고용밀도가 모두 높은 수도권과 이에 인접한 충북·충남 지역, 그리고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전북·전남의 산업도시, 혁신도시 등 주요 도시 주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편 인구밀도와 고용밀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던 강원도에서도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전국 읍·면의 평균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54%로, 최소 36.7%에서 최대 78.3%까지 비교적 넓은 범위를 보인다. 이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구간(66.2%~78.3%)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체 읍·면의 11.2%이며, 가장 낮은 구간(36.7%~47.1%)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보다 두 배가량 많은 약 21.3%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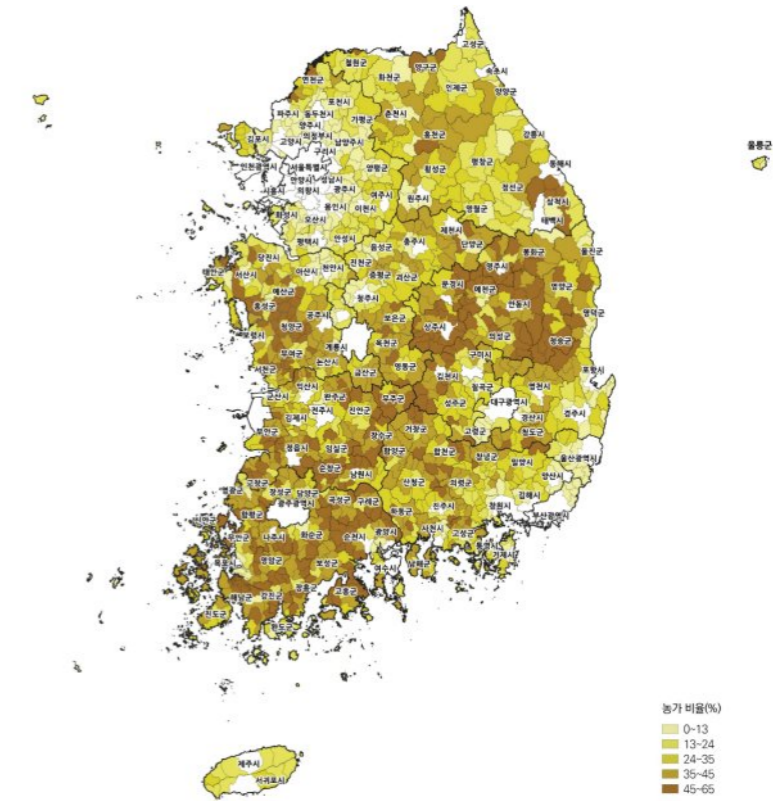
제조업종사자 비율

제조업종사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수도권과 이에 인접한 충북·충남 지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의 산업도시 주변에서 주로 확인된다. 반면 강원도와 경북 북동부, 전북·전남 및 도서 지역에서는 제조업종사자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전국 읍·면의 평균 제조업종사자 비율은 22.5%로, 최소 0%에서 최대 84.1%까지 매우 넓은 범위를 보인다. 이 가운데 제조업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구간(59%~84%)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체 읍·면의 7.2%에 불과한 반면, 가장 낮은 구간(0%~12%)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체의 약 41%를 차지하며 이중 제조업종사자가 전혀 없는 읍·면은 24개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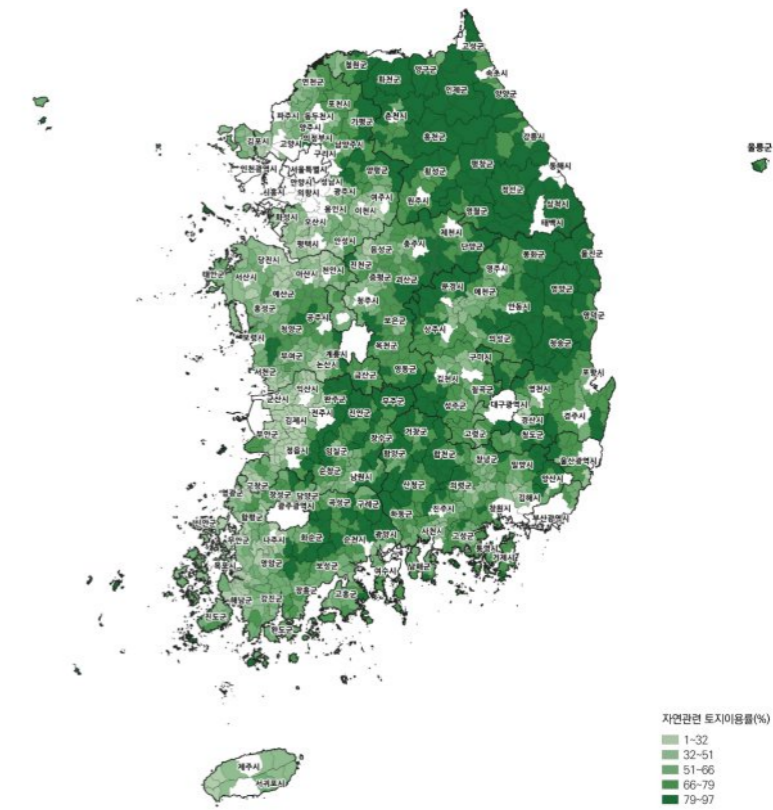
농가 비율

농가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북·전남, 경북, 충북 일대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도, 부산·울산·경남의 산업화된 남동 해안 지역에서는 농가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전국 읍·면의 평균 농가 비율은 31.3%로, 최소 0%에서 최대 65%까지 비교적 넓은 범위를 보인다. 이 가운데 농가 비율이 가장 높은 구간(45%~65%)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체 읍·면의 19%인 반면, 가장 낮은 구간(0%~13%)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체의 15%로 이중 농가가 전혀 없는 읍·면은 단 1곳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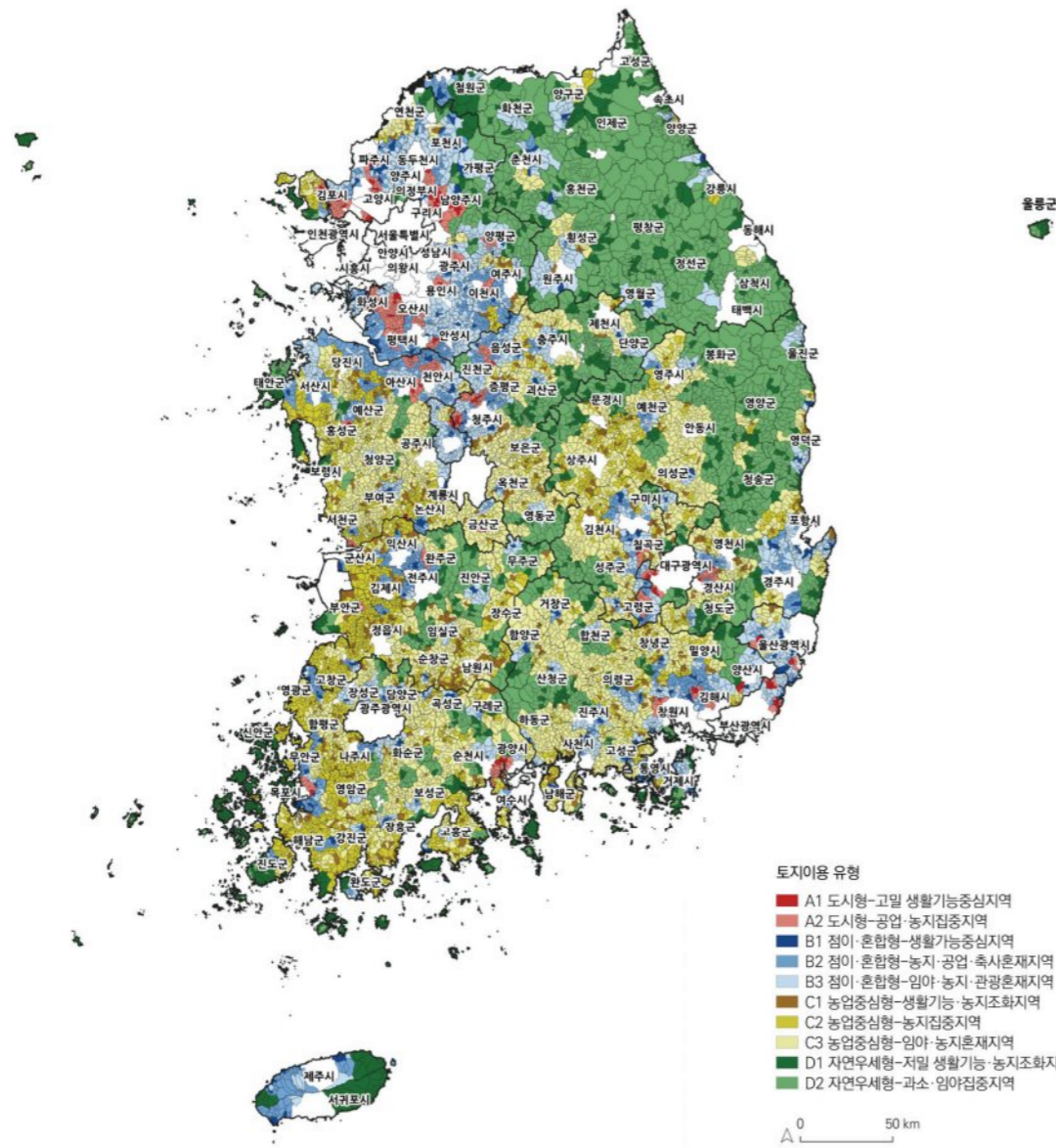
자연관련 토지이용률

자연관련 토지이용률이 높은 지역은 강원도 전역과 이에 인접한 경기·충북 일부 지역, 경북 북동부, 경남 서부, 전북·전남 동부 지역으로, 전체 면적의 대부분이 임야나 하천 등 자연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수도권과 충남, 전북·전남 서부 지역에서는 자연관련 토지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전국 읍·면의 평균 자연관련 토지이용률은 63%로, 우리나라 전반에서 자연관련 토지의 비중이 높음을 보여준다. 자연관련 토지이용률은 최소 1%에서 최대 97%까지 매우 넓은 분포를 보이며, 이 가운데 가장 높은 구간(79%~97%)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체 읍·면의 약 25%를 차지하는 반면, 가장 낮은 구간(1%~32%)에 해당하는 지역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법정리 단위 토지이용 특성

법정리 단위
농촌 토지
이용 유형



- A1 도시형-고밀 생활가능중심지역
- A2 도시형-공업-농지집중지역
- B1 점아-혼합형-생활가능중심지역
- B2 점아-혼합형-농지-공업-축사혼재지역
- B3 점아-혼합형-임야-농지-관광혼재지역
- C1 농업중심형-생활가능-농지조화지역
- C2 농업중심형-농지집중지역
- C3 농업중심형-임야-농지혼재지역
- D1 자연우세형-저밀 생활가능-농지조화지역
- D2 자연우세형-과소-임야집중지역

출처: 여혜진 외(2024, p.96)

도시형 농촌의 A1·A2 유형은 주로 경기(A1: 45개, 29.6% / A2: 248개, 43.9%)를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며, 청주시·아산시 등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충남 일부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기장군·달성군·울주군 등 광역시, 창원시·광양시와 같은 공업도시, 세종시·완주군 등 신도시 조성 지역에서도 관찰된다. 이러한 유형은 동 지역과 인접하며, A1 유형 주변으로 A2 유형이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점아-혼합형 농촌의 B1·B2·B3 유형은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특히 A1·A2 유형 주변에서 많이 관찰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군청 소재지 등 군의 중심 생활권에서 주로 나타나는 반면, 상주시·문경시와 같은 중소 도농복합시의 읍·면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는다. B1 유형은 전남(103개, 20.9%), B2와 B3 유형은 경기(B2: 348개, 22.5% / B3: 407개, 22.4%)를 중심으로 많이 분포한다.

농업중심형 농촌의 C1·C2·C3 유형은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평야가 발달한 지역에서 많이 관찰되며, 강화군과 경기·강원 일부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이 중 C1 유형은 전북(197개, 22.5%)과 경북(171개, 19.5%)에, C2 유형은 전남(712개, 29.5%)과 전북(499개, 20.7%)의 대규모 평야 지대에서 집중되어 있으며, C3 유형은 산지가 많은 경북(802개, 20.9%), 충남(703개, 18.4%), 경남(694개, 18.1%)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한다.

자연우세형 농촌의 D1·D2 유형은 강원·경북·경남·충북·전남 등 산지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한다. 특히 D2 유형은 강원(539개, 27.3%)과 경북(536개, 27.1%)에 집중되는 반면, 전남(327개, 25.1%)에서는 농지와 마을 입지가 양호한 D1 유형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 (개, %)는 해당 유형에 속한 법정리의 수와 그 유형 내 구성비를 의미

법정리 단위 토지이용 유형 지표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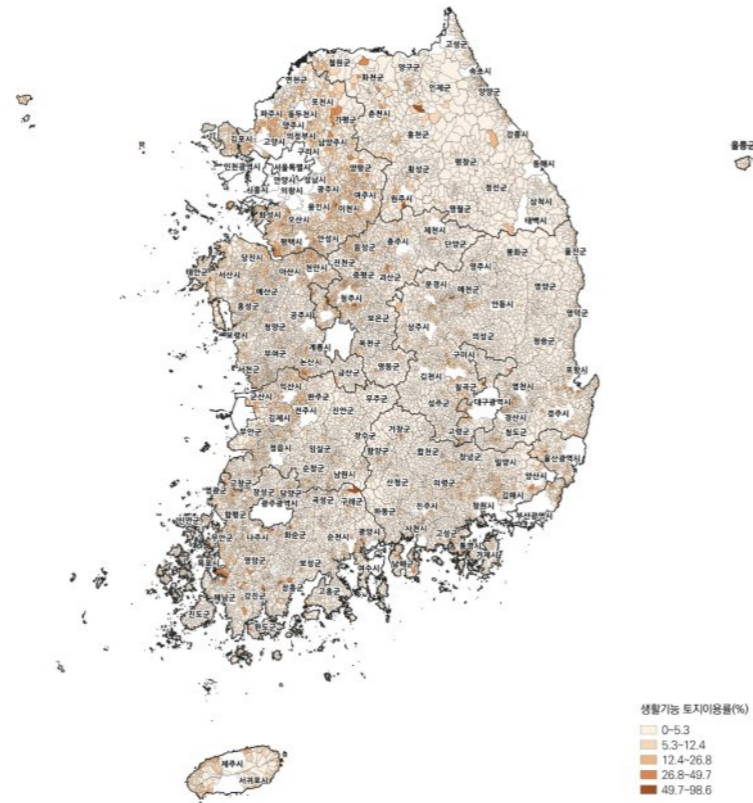
구분	A 도시형		B 점아-혼합형			C 농업중심형			D 자연우세형		전체		
	A1	A2	B1	B2	B3	C1	C2	C3	D1	D2			
토지 이용 분포	생활가능 토지이용률	중유효값	30.04	8.53	21.81	7.40	4.38	8.69	4.60	2.50	4.17	1.25	3.95
		평균	32.59	9.61	26.62	8.37	5.78	10.87	5.01	2.93	6.09	1.69	6.08
	농업용지 비율	중유효값	10.59	31.79	18.51	46.50	17.81	33.71	46.93	18.26	22.82	9.08	22.96
		평균	15.08	34.19	21.92	47.72	19.15	36.42	48.65	19.64	25.33	10.08	27.95
	공업용지 비율	중유효값	0.57	4.34	0.15	1.03	0.24	0.62	0.06	0.01	0.03	0.00	0.06
	평균	2.61	7.78	1.88	3.80	1.30	2.23	0.34	0.26	0.30	0.06	1.22	
토지 이용 혼재도	관광·휴양용지 비율	중유효값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평균	0.88	1.12	0.40	0.40	1.57	0.26	0.19	0.39	0.48	0.25	0.52
	주거-생활가능 근접지수	중유효값	0.44	0.17	0.44	0.17	0.13	0.24	0.14	0.10	0.16	0.07	0.13
		평균	0.44	0.18	0.44	0.18	0.14	0.25	0.15	0.10	0.18	0.08	0.15
	주거-농업 근접지수	중유효값	0.09	0.34	0.12	0.46	0.32	0.34	0.51	0.35	0.41	0.30	0.37
	평균	0.10	0.34	0.13	0.46	0.32	0.34	0.51	0.34	0.40	0.29	0.37	
유형별 비중	주거-공업-태양광·축산업 근접지수	중유효값	0.01	0.05	0.00	0.02	0.01	0.01	0.01	0.01	0.00	0.00	0.01
		평균	0.02	0.07	0.01	0.04	0.02	0.02	0.01	0.01	0.01	0.00	0.02
	주거-임야 근접지수	중유효값	0.05	0.19	0.06	0.13	0.33	0.16	0.16	0.37	0.22	0.44	0.27
	평균	0.08	0.20	0.08	0.13	0.34	0.17	0.16	0.38	0.22	0.45	0.28	
유형별 비중	개수	152	565	493	1,544	1,814	877	2,413	3,830	1,301	1,976	14,965	
	비율	1.02	3.78	3.29	10.32	12.12	5.86	16.12	25.59	8.69	13.20	100	

출처: 여혜진 외(2025, pp.7-8)

생활기능 토지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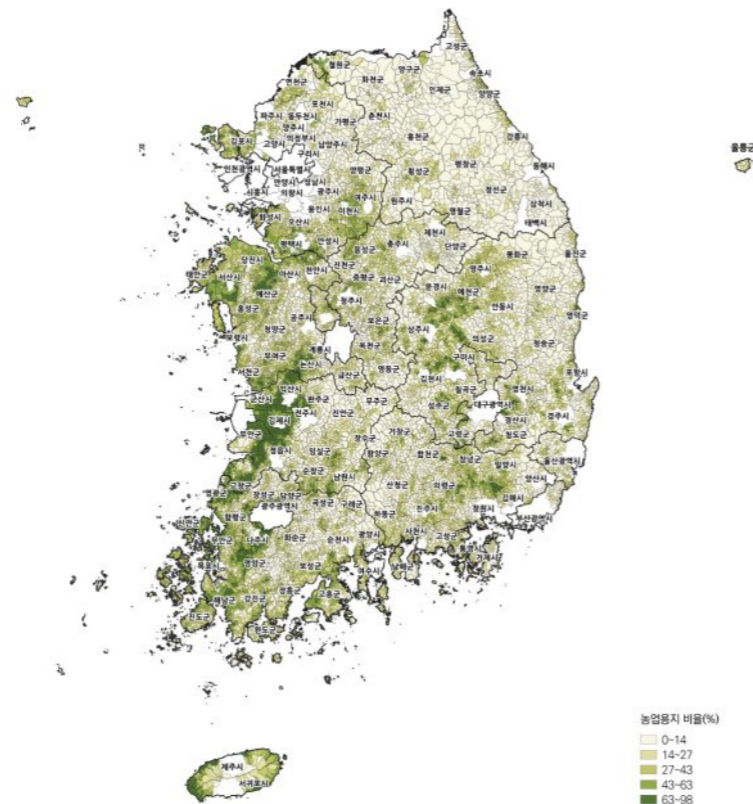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높은 지역은 주거용·상업용·공공기타용 필지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경기도와 이에 인접한 충청 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주변에서 주로 분포한다. 반면 강원 산간 지역과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양상을 보인다.

전국 법정리의 평균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은 6.1%로 나타났으며, 최소 0%에서 최대 98.6%까지 매우 넓은 분포를 보인다. 이 가운데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90% 이상인 법정리는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하리(약 98.6%)와 대구 달성군 현풍읍 하리(약 96.1%)로, 상업·업무용 필지와 공공기타용 필지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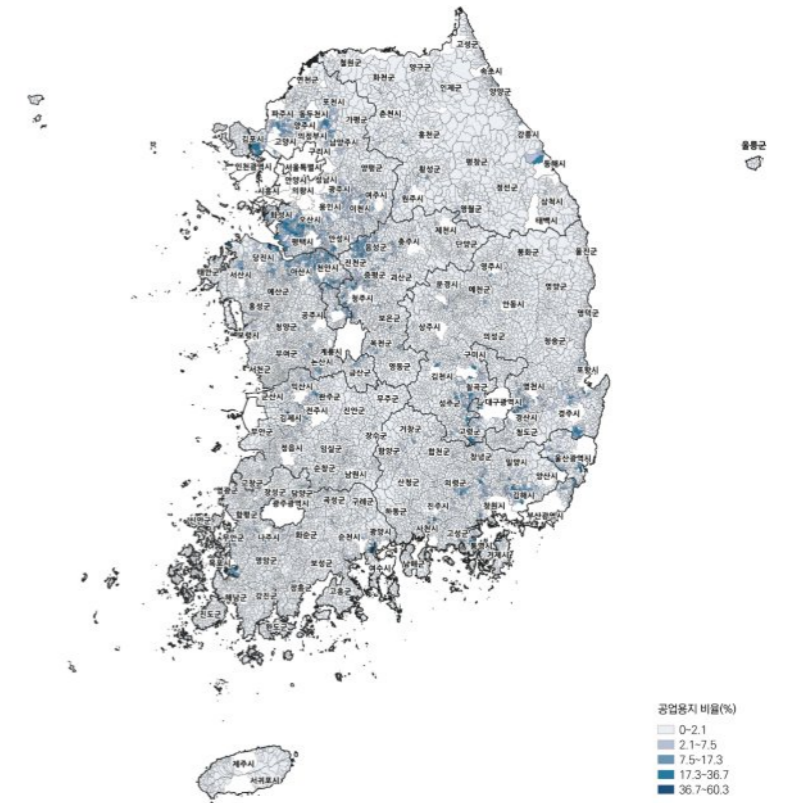
농업용지 비율

농업용지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답·과수원으로 이용되는 필지의 비중이 큰 지역으로,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전북·전남 서부, 경기 남부, 충남 서북부, 경북 서북부 일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전국 법정리의 평균 농업용지 비율은 27.9%로 나타났으며, 최소 0%에서 최대 98.4%까지 매우 넓은 분포 범위를 보인다. 이 가운데 농업용지 비율이 90% 이상인 법정리는 전북 익산시·김제시·정읍시·군산시·완주군·부안군·고창군 등 전북 지역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는 경북·경남 및 제주 지역에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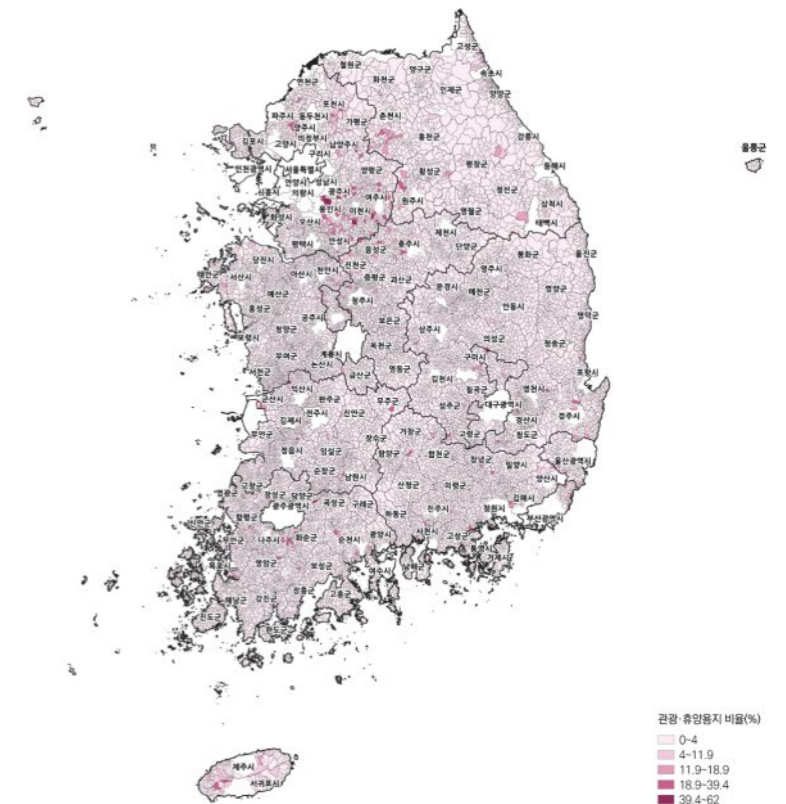
공업용지 비율

공업용지 비율이 높은 지역은 공업용 필지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읍·면 단위 지표에서 고용밀도와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던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국 법정리의 평균 공업용지 비율은 1.2%로 매우 낮은 수준이나, 최소 0%에서 최대 60.3%까지 분포 범위는 비교적 넓게 나타난다. 전체 법정리의 약 97%는 공업용지 비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공업용지가 농촌지역에서 우세한 토지이용 형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공업용지 비율이 40% 이상인 법정리는 경기 김포시·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서산시·당진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북 포항시·경산시, 경남 사천시에서 관찰된다.



관광·휴양용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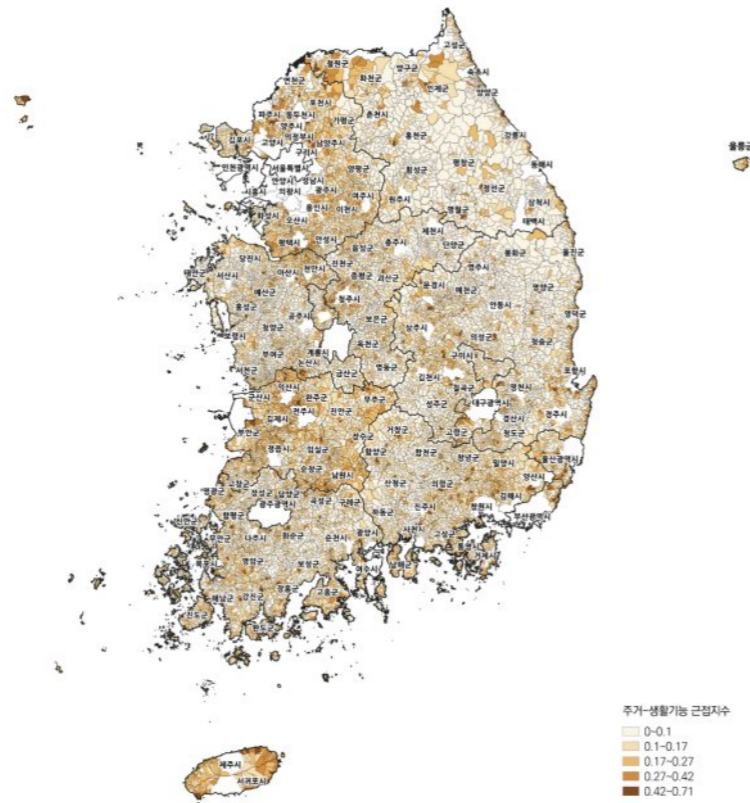
관광 휴양용지 비율이 높은 지역은 유원지·골프장·스키장·경마장·승마장·콘도 등 관광·휴양시설로 이용되는 필지의 비중이 큰 지역으로,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두드러진 분포를 보인다. 전국 법정리의 평균 관광·휴양용지 비율은 0.5%로 매우 낮은 수준이나, 최소 0%에서 최대 62%까지 분포 범위는 넓게 나타난다. 전체 법정리의 약 98%는 관광·휴양용지 비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공업용지와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에서 우세한 토지이용 형태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관광·휴양용지 비율이 40% 이상인 법정리는 경기 용인시·이천시·화성시·광주시·여주시, 전북 익산시, 전남 곡성군, 부산 기장군, 경북 의성군에서 관찰된다.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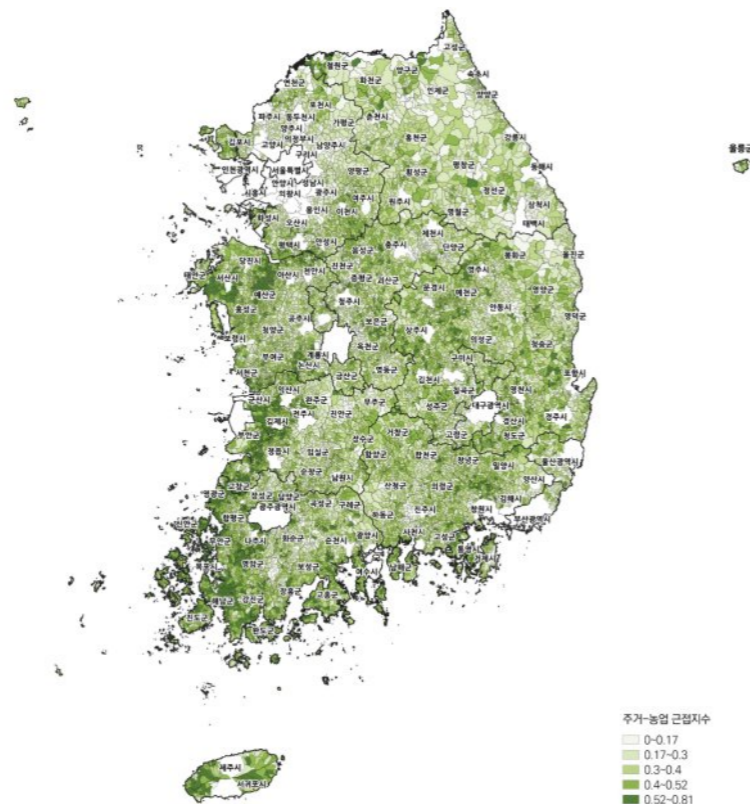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는 주거용 필지의 경계로부터 250m 내 위치한 생활기능 필지의 면적 비율을 산정한 뒤, 이를 법정리 내 필지별 평균값으로 산출한 지표로서, 주거와 생활기능이 얼마나 근접한 거리에서 집적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지수는 경기, 전북, 부산·울산 및 이에 인접한 경남 지역의 법정리에서 높게 나타난다.

전국 법정리의 평균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는 0.2로 나타났으며, 최소 0에서 최대 0.7까지 매우 넓은 분포 범위를 보인다. 평균보다 낮은 값을 보이는 법정리는 전체의 약 77.3%에 달해, 다수의 농촌지역에서 주거와 생활기능이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가 가장 높은 법정리는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하리(0.71),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0.71),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0.7),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0.7)로, 이들 지역은 주거와 생활기능이 비교적 밀접하게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주거-농업 근접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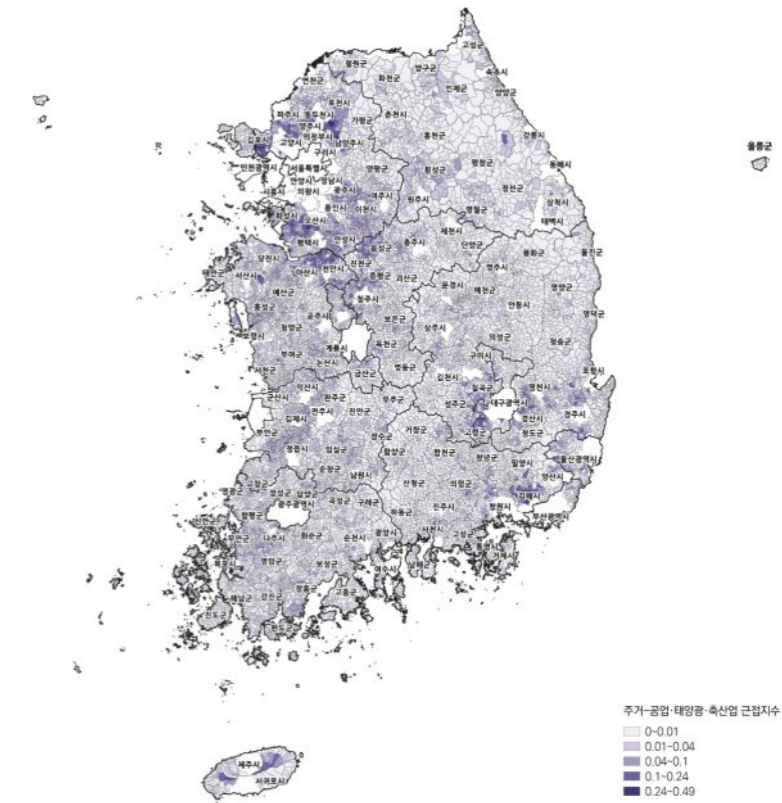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주거와 농경지가 근접한 거리에서 얼마나 혼재해 있는지를 측정한다. 이 지수는 다른 지표에 비해 경기 강원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우리나라 농촌지역이 주거와 농경지가 밀접하게 배치된 공간구조를 보편적으로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전북·전남 서부 해안을 중심으로 높은 값을 보이며, 일부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전국 법정리의 평균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0.4로 나타났으며, 최소 0에서 최대 0.8까지 매우 넓은 분포 범위를 보인다. 평균보다 높은 값을 보이는 법정리는 전체의 약 39.1%로 나타났으며, 주거-농업 근접지수가 가장 높은 법정리는 충남 아산시 선장면 채신언리(0.81),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0.8), 전남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0.79) 등으로 확인된다.



주거-공업·태양광·축산업 근접지수

주거-공업·태양광·축산업 근접지수는 주거와 공업·태양광·축산업 용도로 이용되는 필지가 근접한 거리에서 얼마나 혼재되어 있는지를 측정한다. 이 지수는 경기도와 이에 인접한 일부 충북·충남 지역, 대구·부산·울산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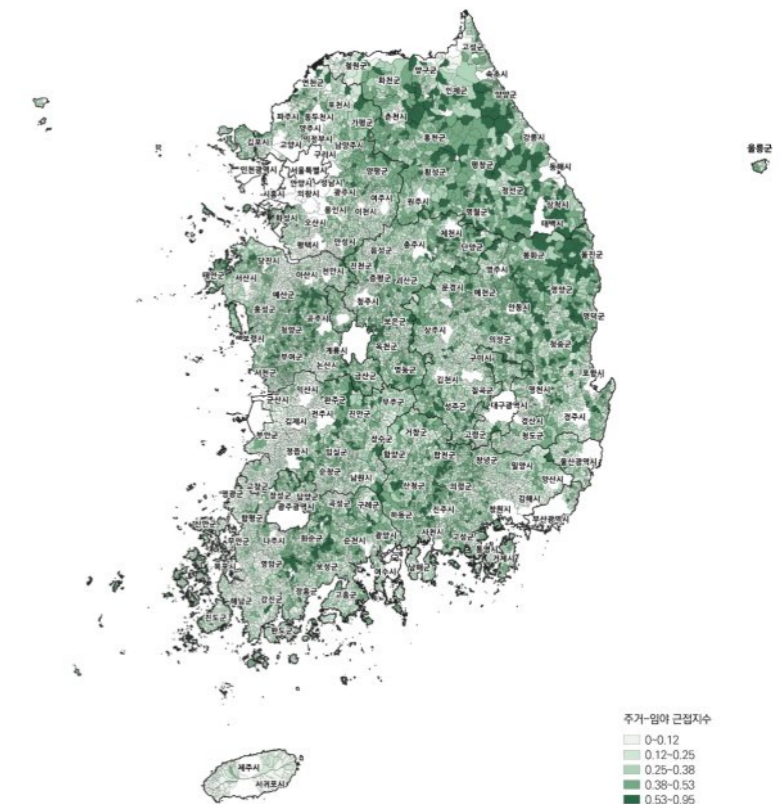
전국 법정리의 평균 주거-공업·태양광·축산업 근접지수는 0이며, 최대 0.5까지 분포 범위를 보인다. 전체 법정리의 약 41.5%가 0으로 나타나, 상당수 농촌지역에서는 주거와 공업·태양광·축산업이 근접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간적 갈등이나 환경문제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거-농업 근접지수가 가장 높은 법정리는 충남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0.49), 경기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0.49)로 나타났으며, 0.3 이상 값을 가지는 법정리는 21개로 경기 김포시·포천시·화성시, 충남 천안시·서산시, 전남 영암군, 대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경남 김해시 등에서 관찰된다. 이러한 법정리는 공업·태양광·축산업으로 인한 정주환경 개선이 요구될 수 있다.



주거-임야 근접지수

주거-임야 근접지수는 주거와 임야가 근접한 거리에서 얼마나 혼재해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 지수는 특히 강원도와 경북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전국 법정리의 평균 주거-임야 근접지수는 0.3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0에서 최대 1까지 전 분포 범위를 보인다. 전체 법정리의 약 43%가 평균보다 높은 값을 보여,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 주거와 임야가 혼재된 공간구조가 비교적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주거-임야 근접지수가 가장 높은 법정리는 전남 해남군 화원면 치하리(0.95), 강원 양양군 서면 미천리(0.94),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산여리(0.9) 등으로 확인되며, 이들 지역은 주거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을 보인다.



**읍·면소재지와
농촌 토지이용 유형**

읍·면소재지는 오랫동안 농촌에서 생활과 행정, 그리고 공동체 활동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해 왔다. 여기에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한 법정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 특성을 살펴본다. 특히 읍소재지는 '동' 지역의 존재 여부에 따라 중심기능의 영향력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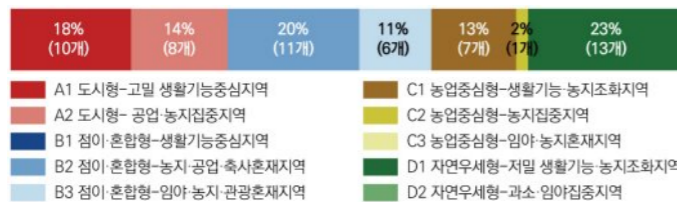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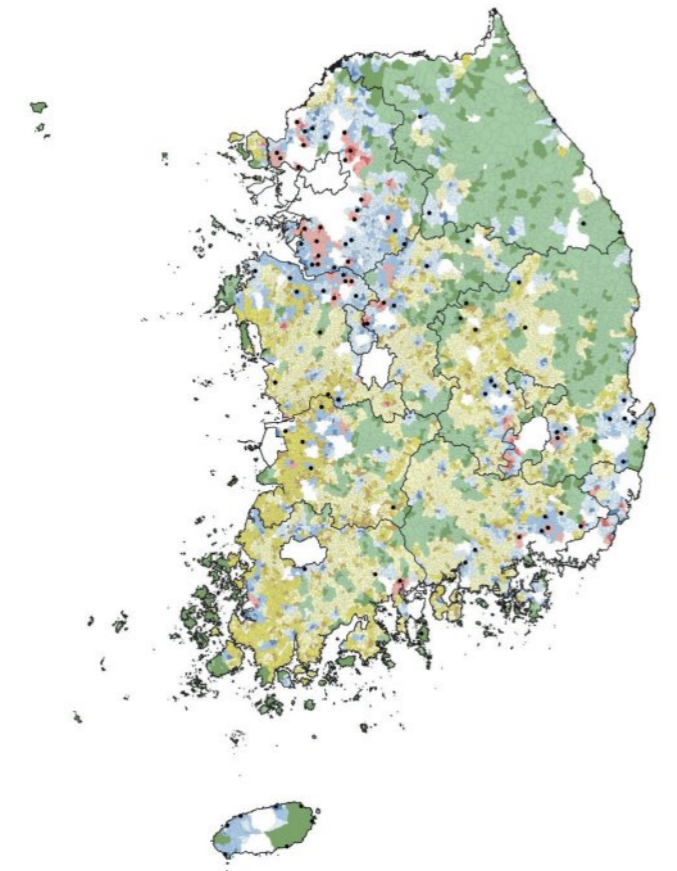
도농복합시의 읍소재지는 모두 56개로, 이 가운데 약 63%가 도시형 농촌(32%)과 점이·혼합형 농촌(31%)에 분포하며, 자연우세형 농촌에도 23%가 위치하고 있다. 법정리 단위 토지이용 유형별로 보면, 자연우세형 농촌 내 농경지와 생활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D1 유형이 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점이·혼합형 농촌 내 농지·공업·축사가 혼재된 B2 유형(20%)과 도시형 농촌 내 생활기능이 밀집된 A1 유형(18%)이 그 뒤를 잇는다.

한편 군 지역의 읍소재지는 모두 128개로, 이 중 66%가 점이·혼합형 농촌에 위치하고 있다. 법정리 단위 토지이용 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기능이 중심을 이루는 B1 유형에 절반이 넘는 56%가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자연우세형 농촌의 D1 유형(13%)과 도시형 농촌의 A1 유형(10%) 순으로 많이 분포한다.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면소재지는 총 1,163개로, 이 가운데 81%가 농업중심형 농촌(55%)과 자연우세형 농촌(26%)에 분포한다. 법정리 단위 토지이용 유형별로는 생활기능과 농지가 조화를 이루는 C1 유형이 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임야와 농지가 혼재된 C3 유형(18%), 저밀한 생활기능과 농지가 조화를 이루는 D1 유형(17%), 농지가 집중된 C2 유형(13%) 순으로 많이 나타난다.

도농복합시 읍소재지와 농촌 토지이용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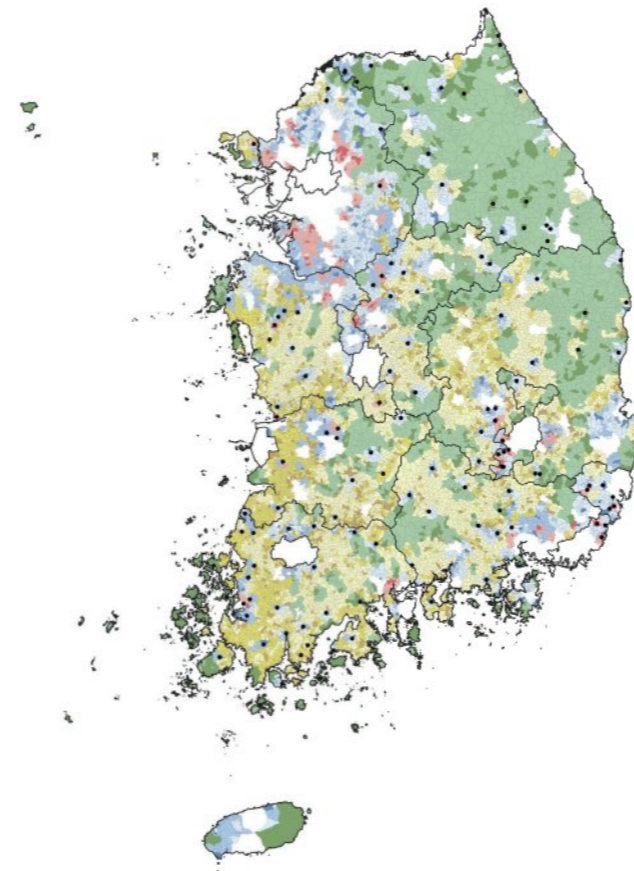
• 도농복합시 읍소재지



1 농촌 토지이용 유형별 비율

군 읍소재지와 농촌 토지이용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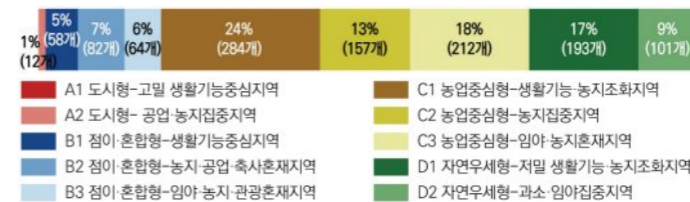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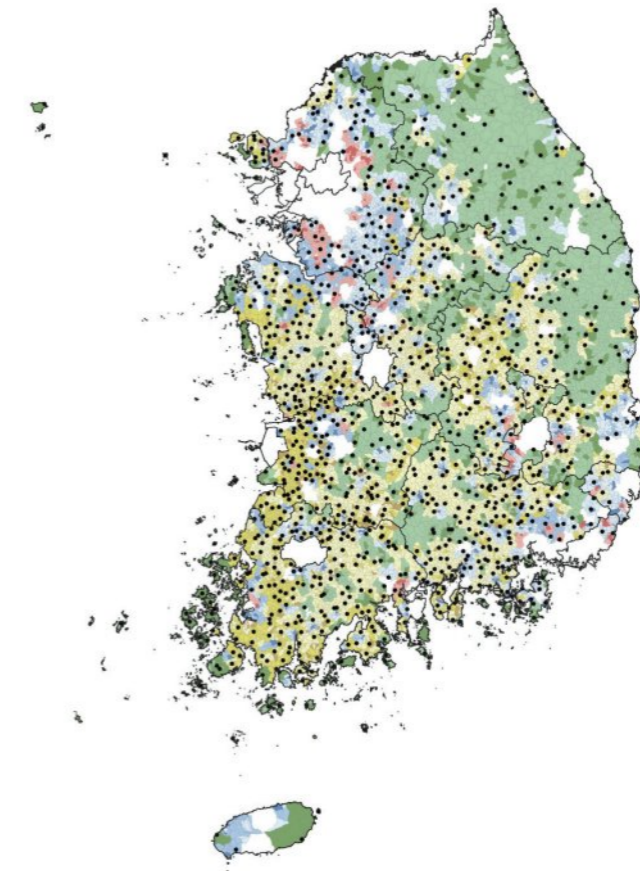
• 군 읍소재지



1 농촌 토지이용 유형별 비율

면소재지와 농촌 토지이용 유형

• 도농복합시 및 군 면소재지



1 농촌 토지이용 유형별 비율

03

광역별 농촌 토지이용 유형 비교

인천·경기
강원
세종·충청
대구·부산·울산·경상
제주·전라

인천·경기

읍·면 단위 농촌 유형과 지표 값 특성

인천·경기에서는 도시형과 점·혼합형 농촌이 우세하다. 도시형 농촌은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경기 김포시·파주시·남양주시·광주시·용인시·화성시·평택시·안성시·이천시·양평군과 인천 강화군에서 관찰된다. 점·혼합형 농촌은 주로 도시형 농촌 주변으로 분포하며, 경기 양주시·포천시·여주시·가평군에서도 확인된다. 농업중심형은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경기 포천시와 연천군을 비롯하여, 경기 광주시·여주시·이천시에 분포하며, 자연우세형은 접경지역이나 강원도에 인접한 경기 시·군에서 주로 관찰된다.

지역위계

인구와 고용은 김포시·남양주시·화성시·평택시 등 도시형 농촌에 집중되어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인구밀도는 평균 367명/㎢, 최소 2명/㎢(연천군 중면), 최대 8,282명/㎢(남양주시 퇴계원읍)로 나타나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고용밀도 역시 평균 204명/㎢에 비해 최대 1,213명/㎢(남양주시 퇴계원읍)으로 높게 나타나, 고용 중심지와 저고용 지역이 병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생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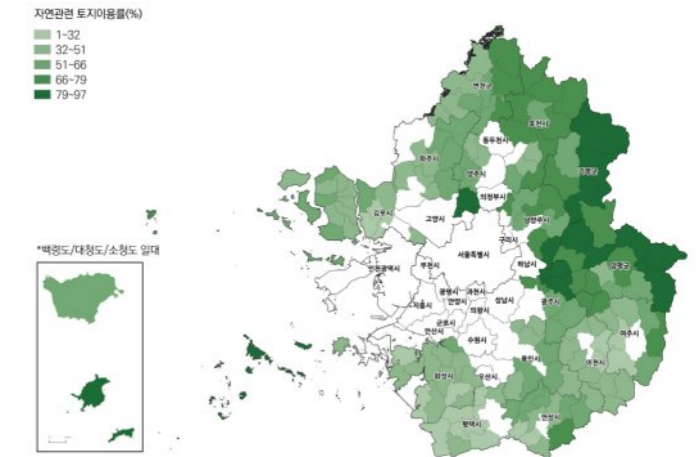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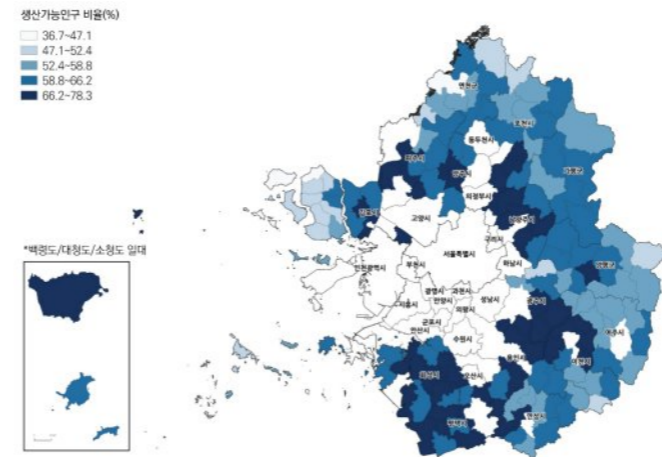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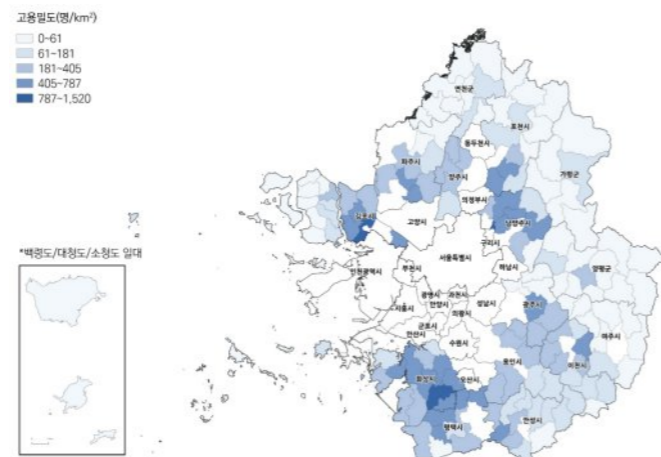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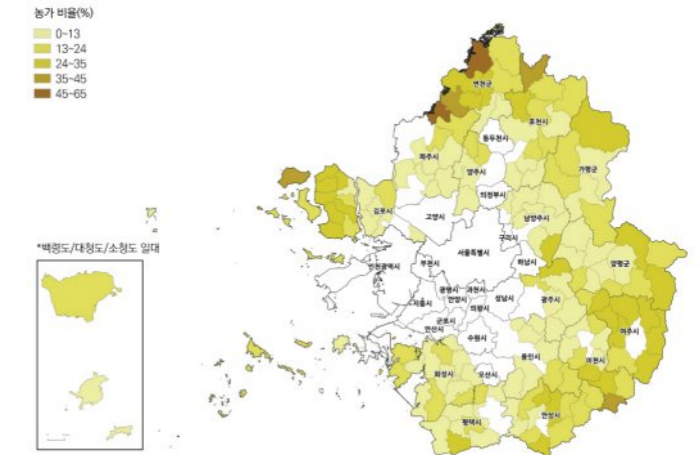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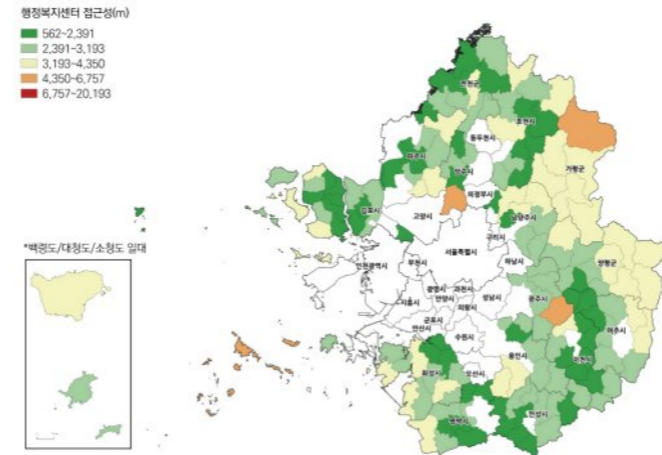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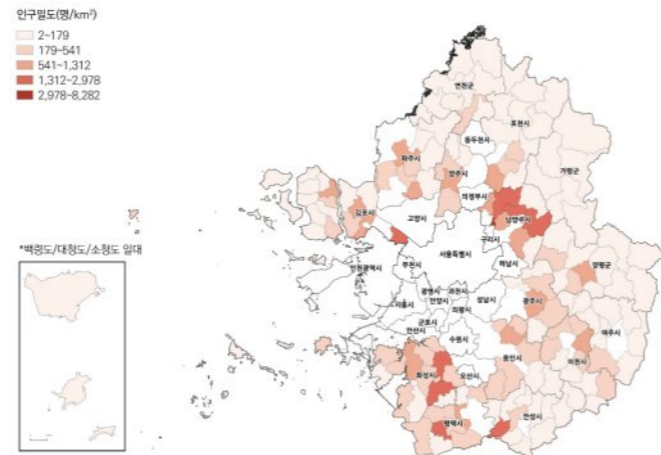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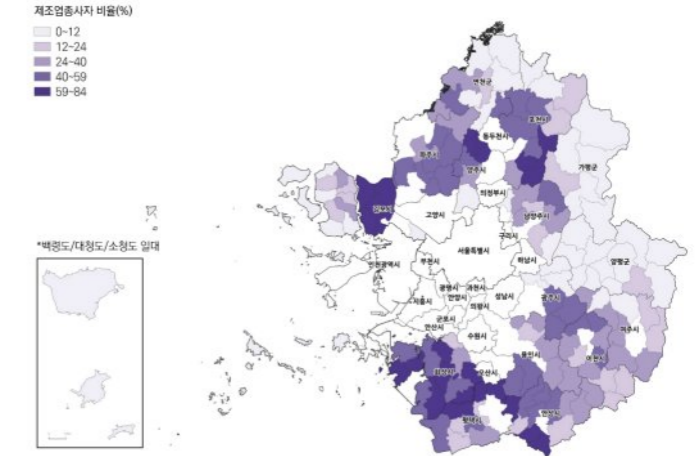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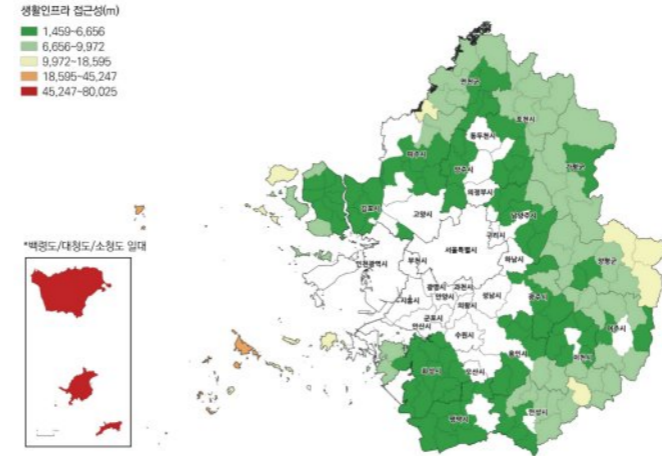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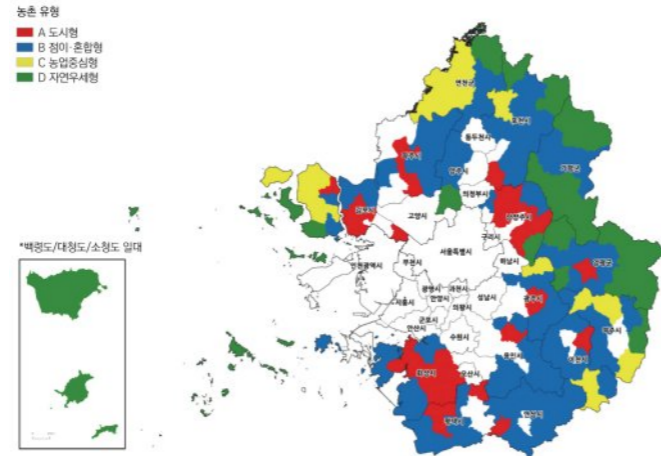
생활인프라와 행정서비스 접근성은 서울 인접 지역과 도서·산간 지역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생활인프라 접근성은 평균 7,676m로 최소 2,307m(강화군 강화읍)에서 최대 80,025m(옹진군 대청면)까지 분포하여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행정복지센터 접근성은 평균 2,823m로, 최소 974m(옹진군 연평면)에서 최대 5,727m(양주시 장흥면)까지 분포한다.

생산환경

지역 간 생산환경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파주시 월롱면(생산가능인구 비율 78.3%)과 화성시 양감면(제조업종사자 비율 77.2%)은 젊은 층과 제조업종사자가 집중된 반면, 연천군 중면은 농가 비율이 50%로 높아 농업 중심의 생산구조가 두드러진다.

자연환경

자연관련 토지이용률은 경기 가평군·양평군, 인천 옹진군 등 산간·도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평균은 53.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도시화가 진행된 안성시 공도읍(13.4%)과 평택시 포승읍(14.5%) 등은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인다. 반면 산림 자원이 풍부한 가평군 북면은 9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옹진군 덕적면(88.1%) 등도 높은 수치를 보여 개발 중심 지역과 보전 중심 지역 간의 환경적 특성 차이가 확인된다.



법정리 단위 농촌 토지이용 유형과 지표 값 특성

인천·경기 지역의 법정리에서는 대체로 B3(30.4%)와 B2(26%) 유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화성시, 남양주시, 김포시 등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A1·A2 유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도시적 특성이 두드러진다. 인천 지역은 C2(25.4%), D1(19.7%), C3(16.4%), D2(15.6%) 유형 순으로 분포하여, 농업·자연 중심 유형의 비중이 큰 편이다. 한편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 북·동부 지역에서는 자연우세형에 해당하는 D1과 D2 유형이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토지이용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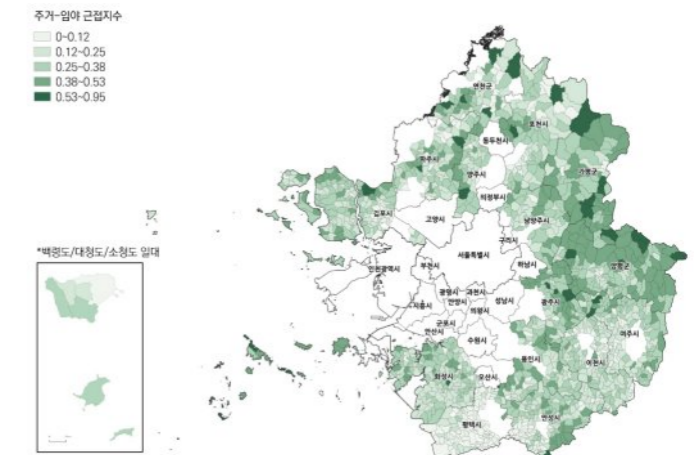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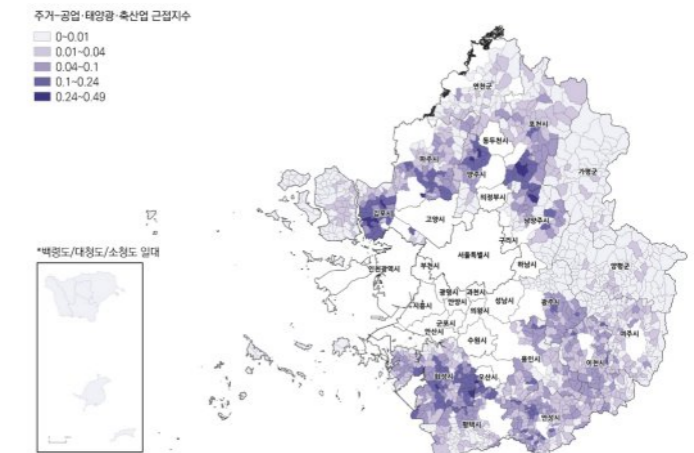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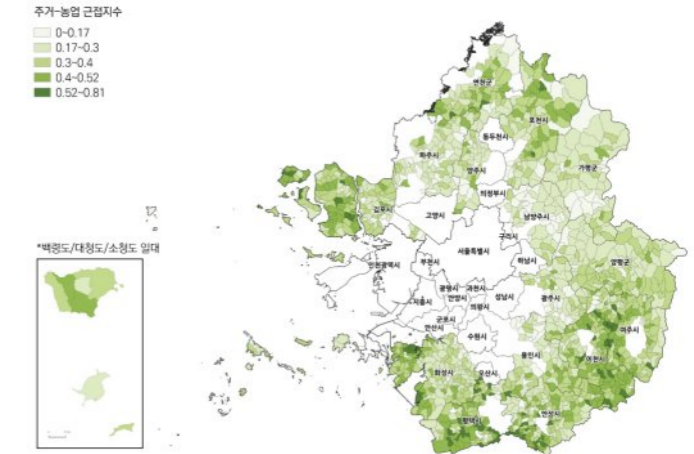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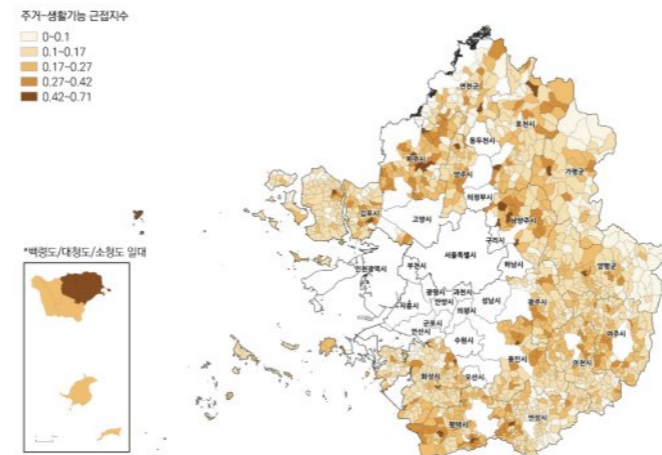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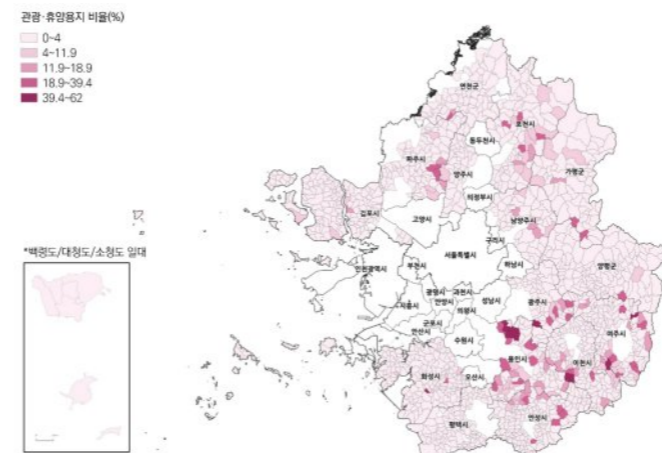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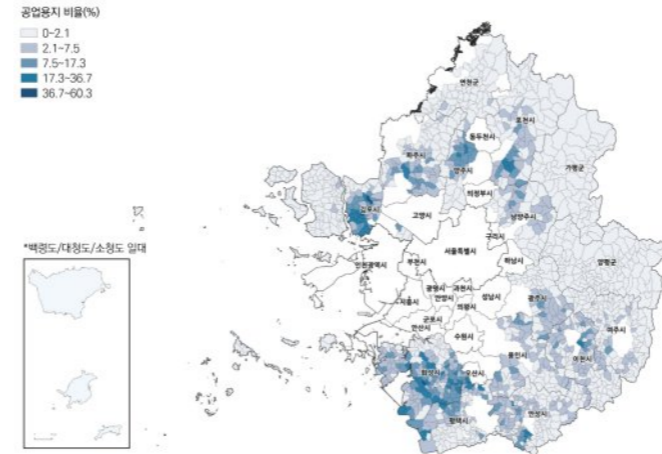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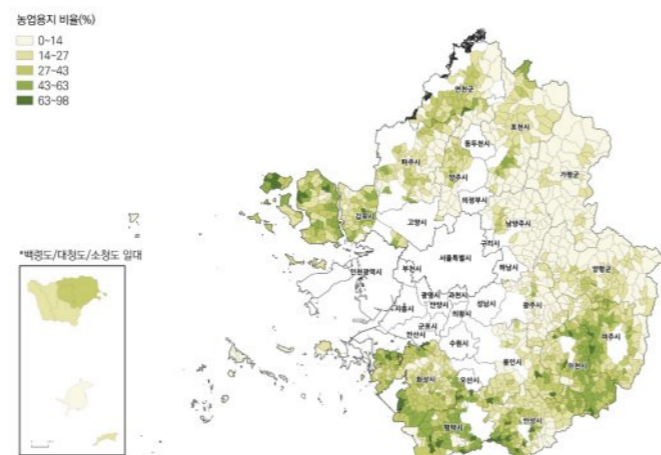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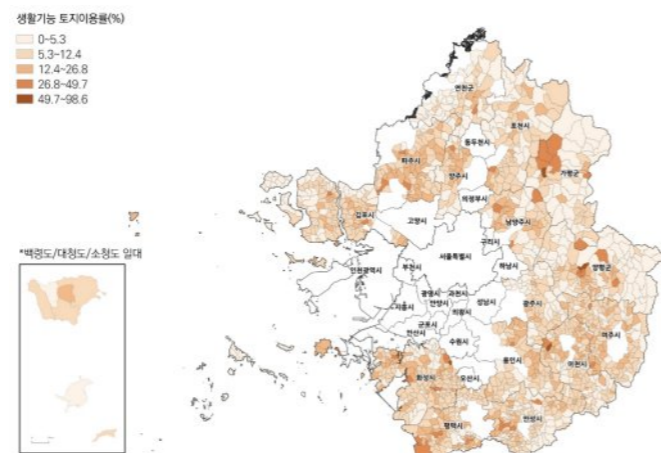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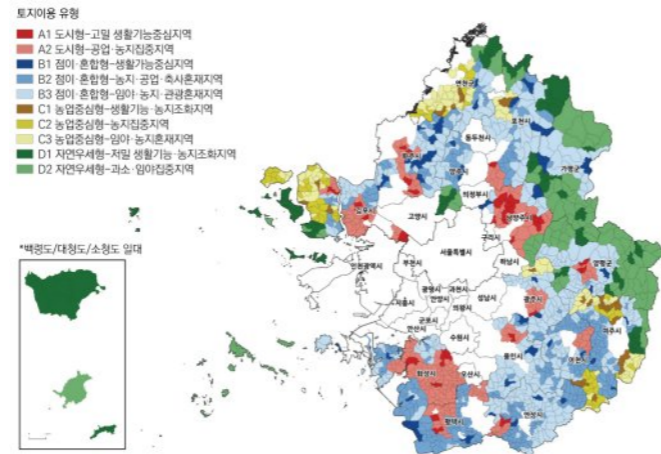
법정리별로 특정 토지이용의 집중도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은 평균 9.5% 수준이나, 주거·상업 기능이 밀집된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는 73.4%로 도시적 성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농업 용지 비율은 평균 28%로 경기 남부와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분포하며, 특히 인천 강화군 교동면 무학리는 82.3%에 달해 농업 중심지로서의 특성이 뚜렷하다.

공업용지 비율은 평균 3.4%로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나, 김포시·파주시·동두천시·포천시·화성시·평택시 일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화성시 팔탄면 서근리는 44%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관광·휴양용지 비율 역시 평균 1.6%에 불과하지만, 용인시·이천시·여주시·광주시 등 일부 법정리에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에버랜드가 위치한 용인시 포곡읍 가실리는 관광·휴양용지가 62%에 달한다.

토지이용혼재도

주거와 타 용도 간의 공간적 근접 정도를 나타내는 혼재도 지표는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는 평균 0.18로 생활기능 토지 이용률이 높은 법정리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나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0.66)가 가장 높은 값을 보여 생활 편의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확인된다. 반면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평균 0.33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며 농업용지 비율이 높은 법정리에서 주로 높게 나타난다. 평택시 오성면 청내리(0.70)가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주거-공업·태양광·축산업 근접지수는 평균 0.04로 가장 낮은 수준이나, 공업용지 비율이 높은 일부 법정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0.49)가 가장 높은 값을 보여 주거와 상충용도 간 간섭으로 인한 정주환경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주거-임야 근접지수는 평균 0.26으로 강원도 인접 지역 또는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며, 산림 비중이 큰 울진군 덕적면 굴업리는 0.89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강원

읍·면 단위 농촌 유형과 지표 값 특성

강원도에서는 자연우세형 농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도시형 농촌은 관찰되지 않는다. 특히 고성군·인제군·평창군은 전체 읍·면이 자연우세형 농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시군의 일부 읍·면에서는 점·혼합형 농촌(15개 읍·면)과 농업중심형 농촌(8개 읍·면)이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위계

인구밀도와 고용밀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나, 춘천시·원주시·강릉시·양양군·홍천군의 일부 읍·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관찰된다. 인구밀도는 평균 53명/km²로 낮은 편이며, 도시지역과 인접한 춘천시 동내면은 459명/km²로 나타나 철원군 근북면(4명/km²)과 1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고용밀도는 역시 평균 29명/km²에 불과하지만, 춘천시 동내면은 289명/km²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강원도 내에서도 지역 간 인구·고용 활력의 차이가 확인된다.

생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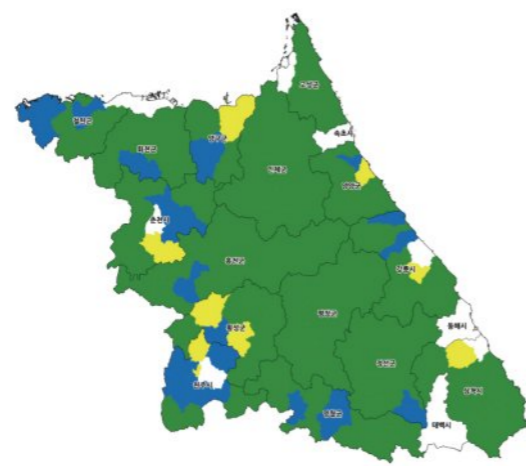
산지가 많은 강원도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생활인프라와 행정서비스 접근성은 지역 간 편차가 크다. 생활인프라 접근성의 평균 거리는 9,129m로 나타나며, 춘천시 동내면은 2,953m로 가장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홍천군 내면은 16,263m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행정복지센터 접근성 역시 평균 3,818m로 나타나며, 춘천시 동내면은 1,716m로 접근성이 우수한 반면, 접경지역인 철원군 근북면은 6,757m에 달해 행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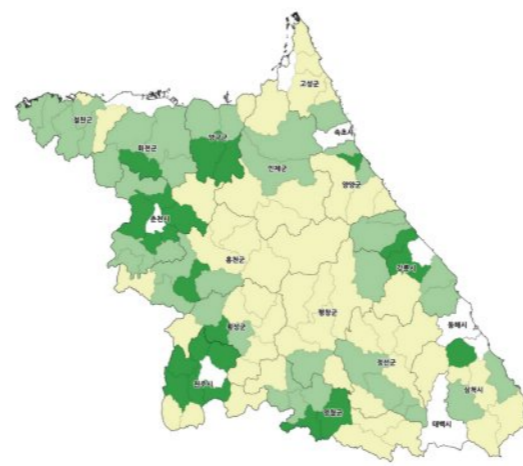
지역별로 생산환경에는 뚜렷한 차이가 관찰된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원주시·춘천시·평창군·홍천군·양구군·인제군의 일부 읍·면에서 높게 나타나며, 원주시 판부면이 72.9%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제조업종사자 비율은 원주시와 횡성군에서 두드러지며, 특히 횡성군 공근면에는 61.1%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농가 비율은 삼척시·양구군·홍천군·철원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삼척시 노곡면은 58.4%에 달해 농업 중심의 생산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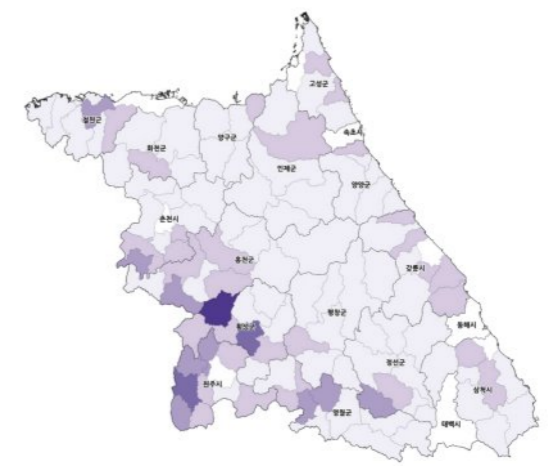
자연관련 토지이용률은 평균 82%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며, 삼척시 가곡면은 96.6%에 달해 대부분의 지역이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상대적으로 평야 지대에 위치한 철원군 동송읍은 46.6%로 가장 낮은 값을 보인다.



농촌 유형
 B 점·혼합형
 C 농업중심형
 D 자연우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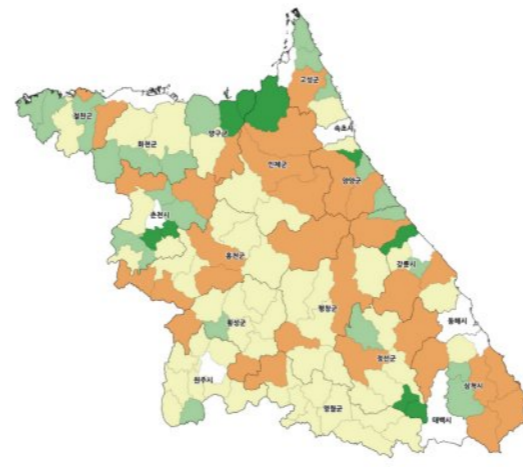
생활인프라 접근성(m)
 1,459-6,656
 6,656-9,972
 9,972-18,595
 18,595-45,247
 45,247-8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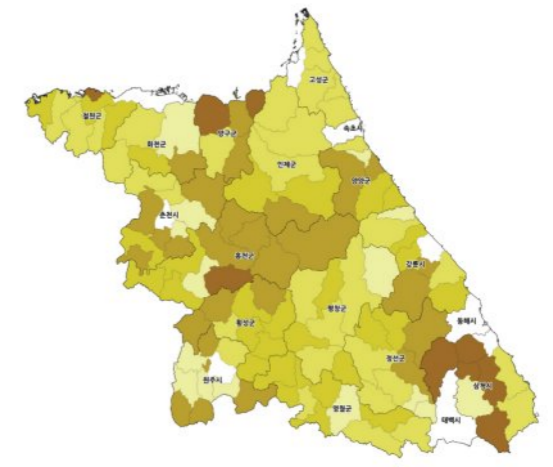
제조업종사자 비율(%)
 0-12
 12-24
 24-40
 40-59
 5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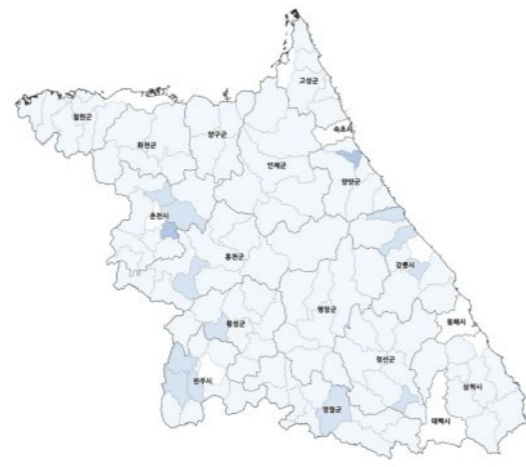
인구밀도(명/km²)
 2-179
 179-541
 541-1,312
 1,312-2,978
 2,978-8,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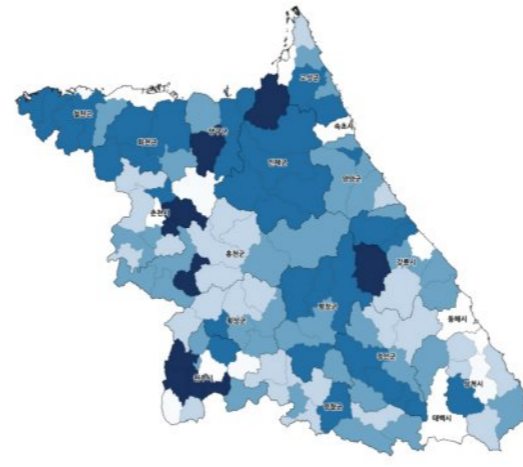
행정복지센터 접근성(m)
 562-2,391
 2,391-3,193
 3,193-4,360
 4,360-6,757
 6,757-20,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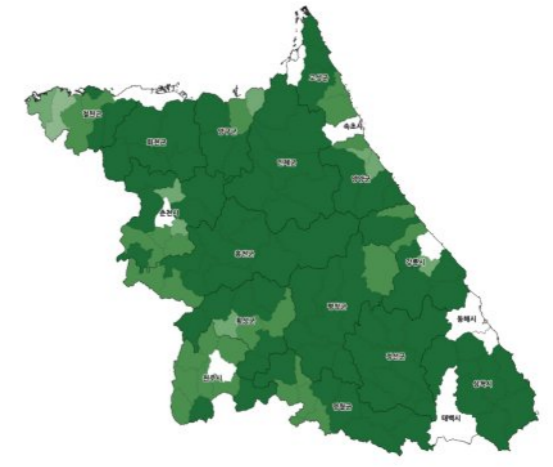
농가 비율(%)
 0-13
 13-24
 24-35
 35-45
 45-65



고용밀도(명/km²)
 0-61
 61-181
 181-405
 405-787
 787-1,520



생산가능인구 비율(%)
 36.7-47.1
 47.1-52.4
 52.4-58.8
 58.8-66.2
 66.2-78.3



자연관련 토지이용률(%)
 1-32
 32-51
 51-66
 66-79
 79-97

법정리 단위 농촌 토지이용 유형과 지표 값 특성

강원 지역의 법정리에서는 산간지대 특성을 반영한 D2 유형이 49.8%로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D1 유형이 22.2%로 많이 분포한다. 한편 점아-혼합형 농촌과 농업중심형 농촌은 드물게 관찰되며, 주로 입야와 혼재된 형태의 B3 유형과 C3 유형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토지이용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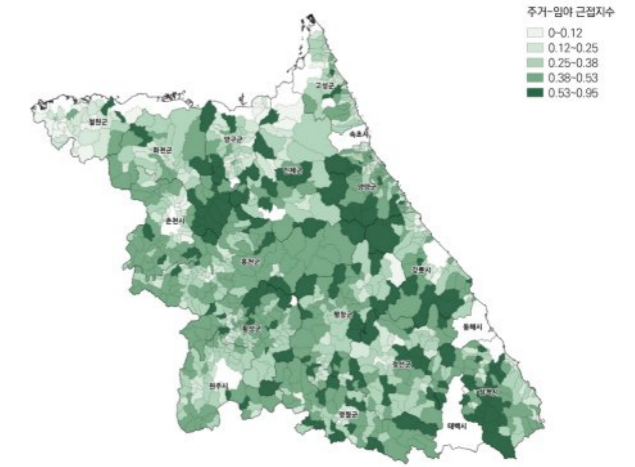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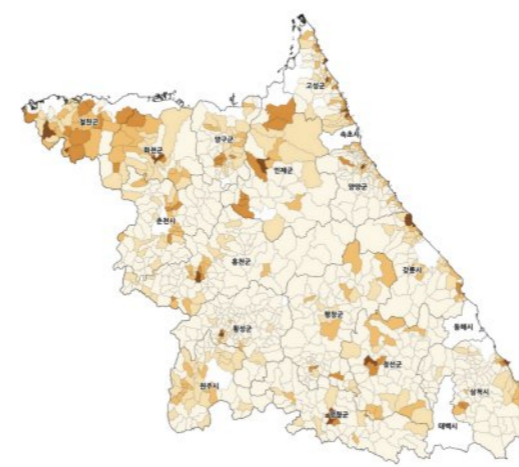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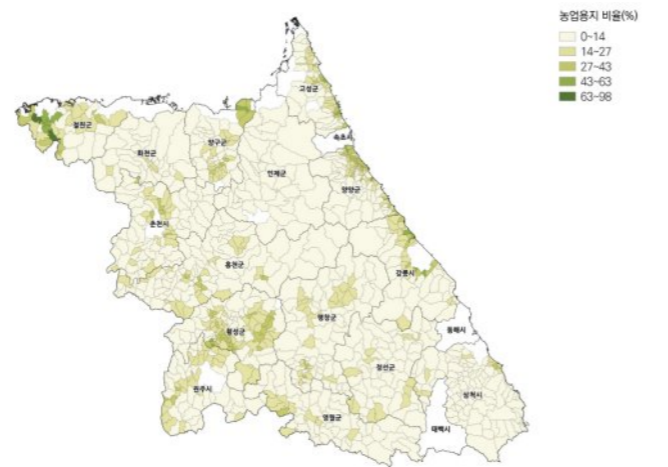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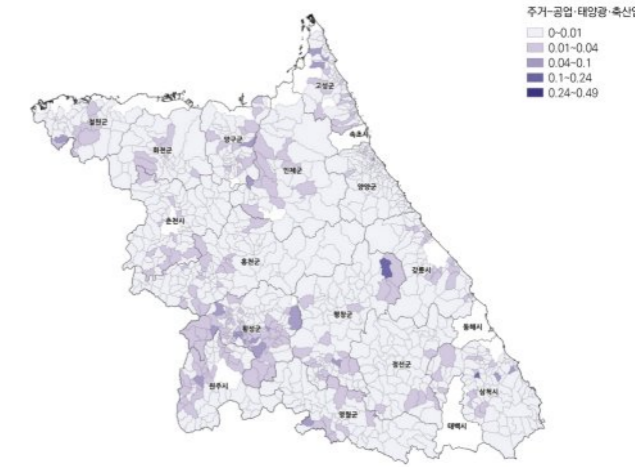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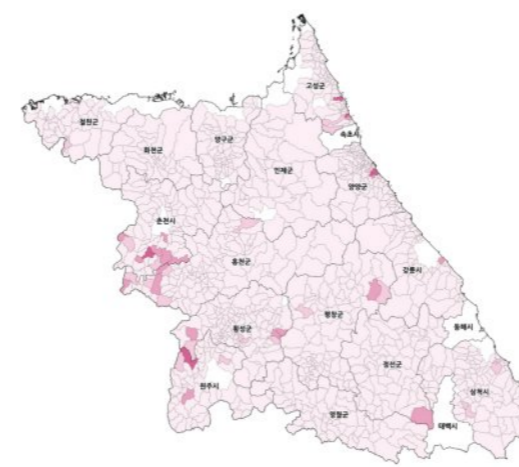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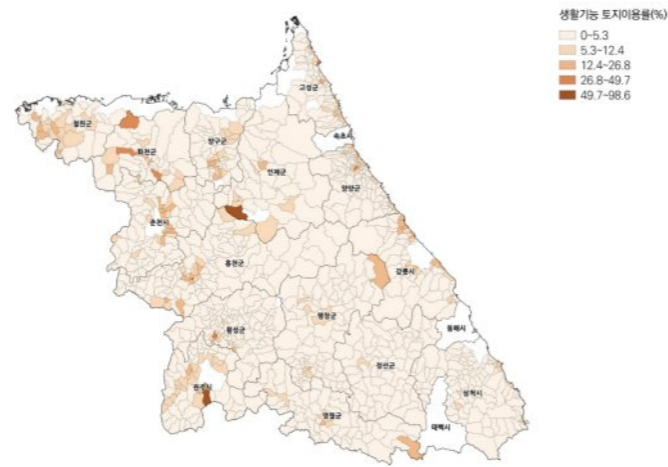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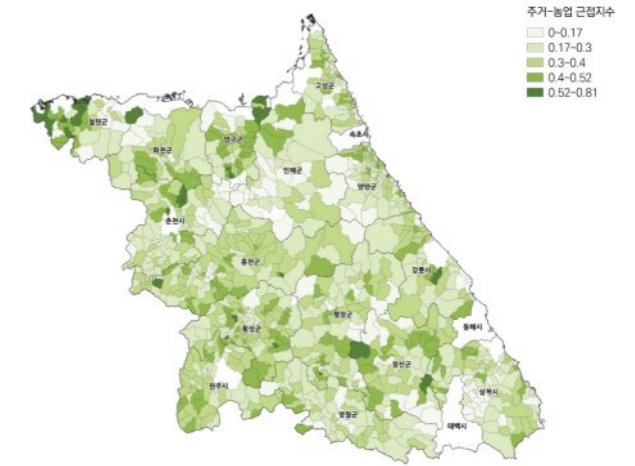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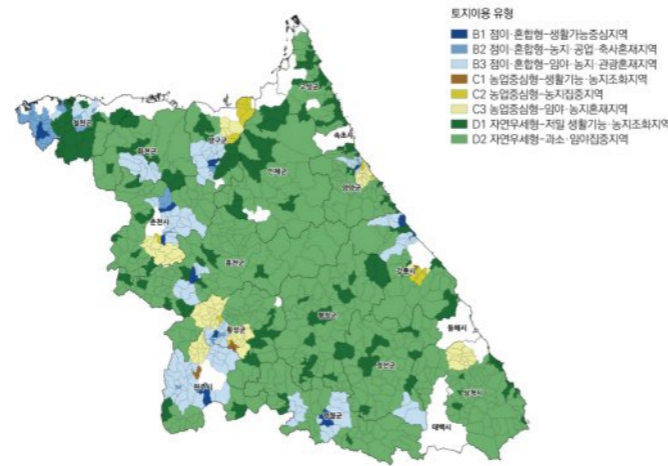
자연관련 토지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강원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다른 토지이용의 집중도가 낮게 나타나지만, 일부 법정리에서는 특정 용도가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생활가능 토지이용률은 평균 4.3% 수준에 그치나, 고성군 간성을 하리는 74.6%로 매우 높아 도시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농업용지 비율은 철원 평야에 위치한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가 67.9%로 평균(13.6%)을 크게 상회해 농업 중심지로서의 특성이 뚜렷하다.

공업용지 비율은 평균 0.3%로 극히 낮은 수준이나,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는 18.5%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관광-휴양용지 비율 역시 평균 0.6%에 불과하지만, 해안가에 위치한 양양군 손양면 밀양리는 3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지역별 토지이용 특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이용혼재도

주거와 타 용도 간의 공간적 근접 정도를 나타내는 혼재도 지표의 평균을 살펴보면, 주거-생활가능 근접지수는 0.12,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0.3, 주거-공업-태양광-축산업 근접지수는 0.01, 주거-입야 근접지수는 0.36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주거지와 농경지 또는 입야 간의 혼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다수의 법정리에서는 주거지와 공업-태양광-축산업 간 근접에 따른 갈등 가능성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개별 혼재도 지표를 보면, 주거-생활가능 근접지수는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0.63)가 가장 높아 생활 편의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0.7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입야 근접지수는 양양군 서면 미천리(0.94)가 가장 높아 자연환경과 주거지가 밀접하게 결합된 형태를 보인다. 한편 주거-공업-태양광-축산업 근접지수는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0.1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강원 지역 전반에서는 타 광역권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종·충청

읍·면 단위 농촌 유형과 지표 값 특성

세종·충청에서는 농업중심형 농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점·혼합형 농촌과 도시형 농촌이 분포한다. 반면 강원·경북과 인접한 동부 지역에서는 자연우세형 농촌이 주로 나타난다.

지역위계

인구와 고용은 도시형 농촌에 편중되어 분포하며, 이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난다. 인구밀도는 평균 162명/km² 수준이나, 세종시 조치원읍은 2,978명/km²로 최고치를 보이는 반면 제천시 한수면은 9명/km²에 불과해 약 300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한다. 고용밀도 또한 평균 93명/km²에 비해 최대 1,277명/km²(세종시 조치원읍)로 나타나, 경제활동의 공간적 집중 현상이 확인된다.

생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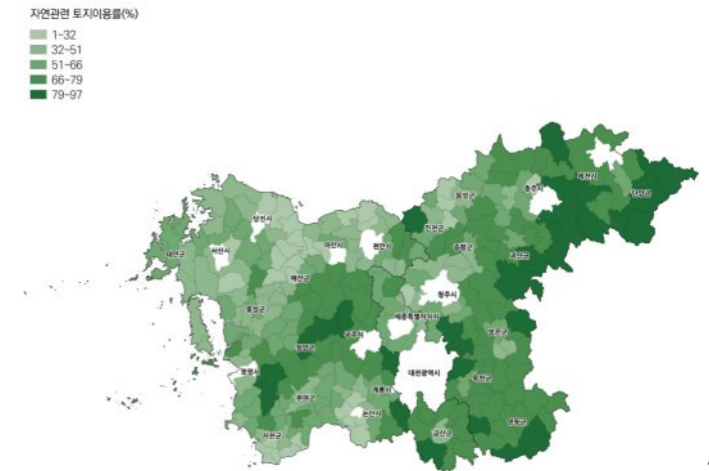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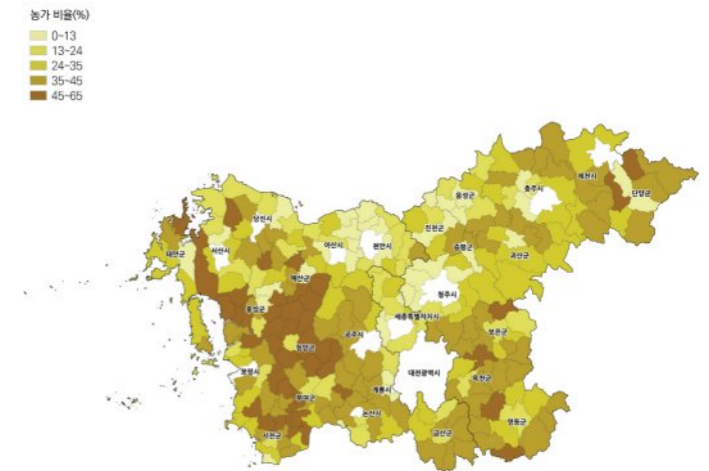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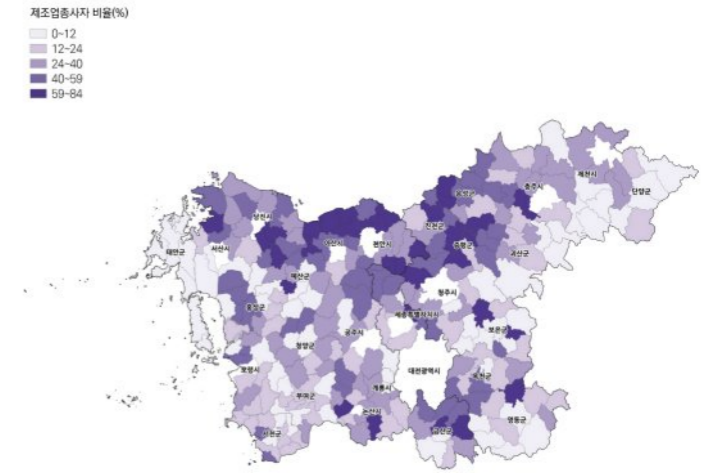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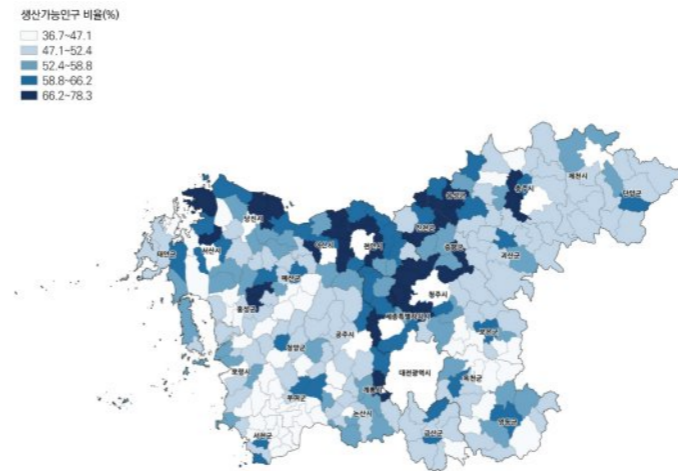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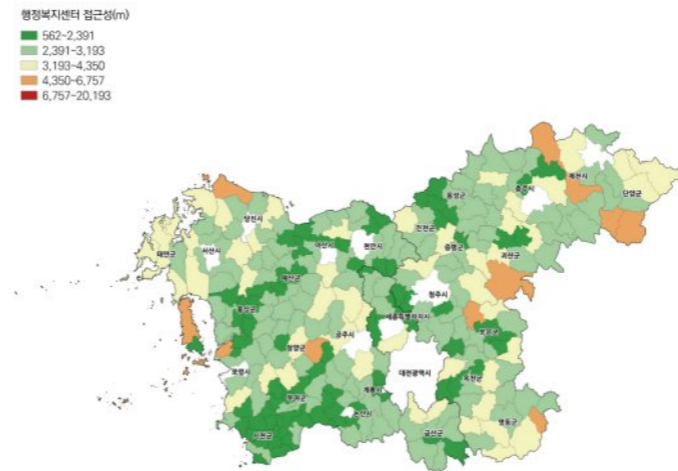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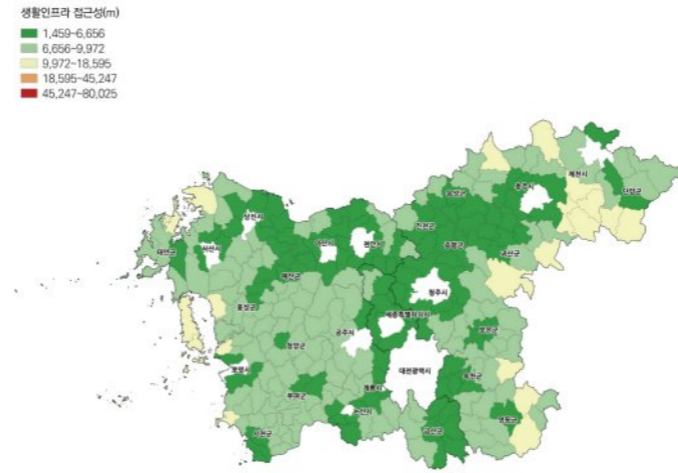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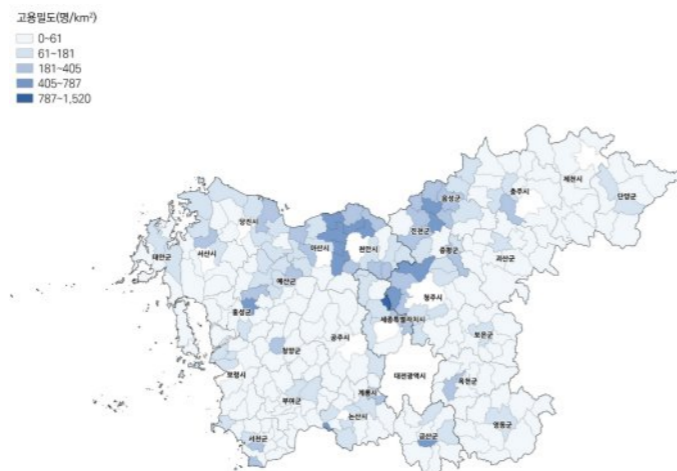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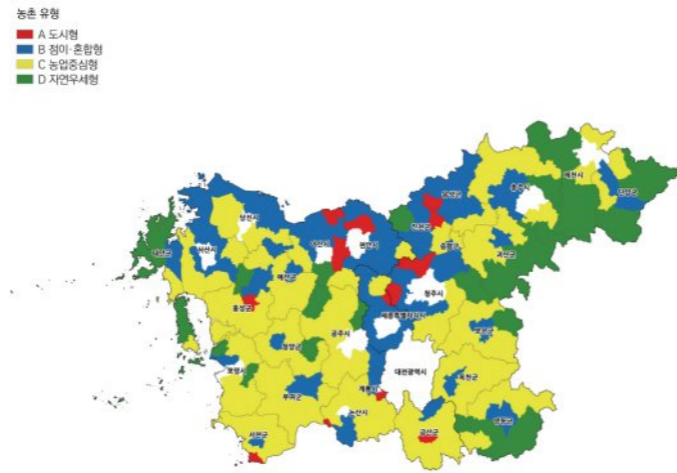
생활인프라와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은 충남 서부 해안 및 도서지역과 충북 동부 산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생활인프라 접근성은 평균 7,128m로, 최소 2,944m(아산시 탕정면)에서 최대 약 12,949m(태안군 안면읍)까지 분포해 지역 간 편차가 큰 편이다. 행정복지센터 접근성 역시 평균 2,774m 수준이나, 계룡시 신도안면은 562m로 매우 양호한 반면 제천시 백운면은 6,113m로 산간 지역의 접근성 취약성이 두드러진다.

생산환경

충청권 북부·중부 지역은 생산가능인구 비율과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서부·동부 지역에서는 농가 비율이 높게 나타나 지역 간 생산환경의 차이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특히 청주시 오송읍은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75.2%로 높고, 진천군 이월면은 제조업종사자 비율이 78.7%에 달해 산업 활동이 집중된 지역으로 평가된다. 반면 청양군 목면은 농가 비율이 62.4%로 나타나 농업 중심의 생산구조가 두드러진다.

자연환경

자연관련 토지이용률은 평균 58.4%로,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월악산 인근인 제천시 한수면은 94.2%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넓은 평야가 형성된 예산군 오가면은 12.7%로 최저 수준을 기록해 지역 간의 환경적 특성 차이가 확인된다.



법정리 단위 농촌 토지이용 유형과 지표 값 특성

충북은 C3 유형이 29.9%로 가장 많고, 이어 D2 유형 16.2%, B3 유형 15.4% 순으로 분포한다. 충남은 C3 유형의 비중이 35.8%로 가장 높으며, C2 유형이 21.1%로 그 뒤를 잇는다. 세종은 B3 유형이 58.1%로 과반을 차지해 특정 유형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농업중심형 농촌, 점·혼합형 농촌, 자연우세형 농촌 모두에서 임야가 혼재된 토지이용 유형인 C3, B3, D2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A1 유형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관찰된다.

토지이용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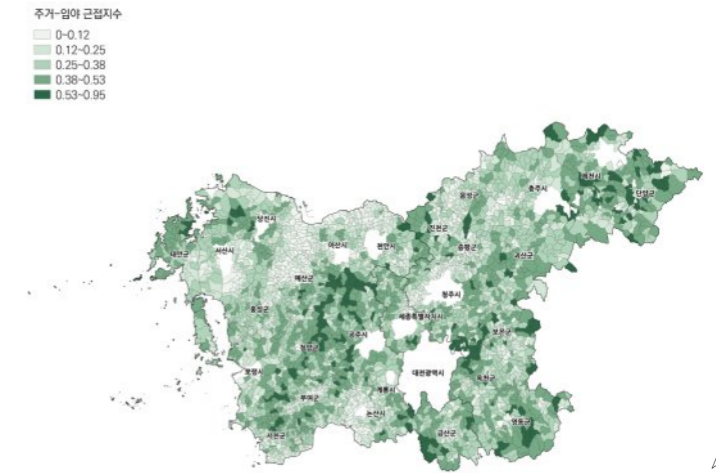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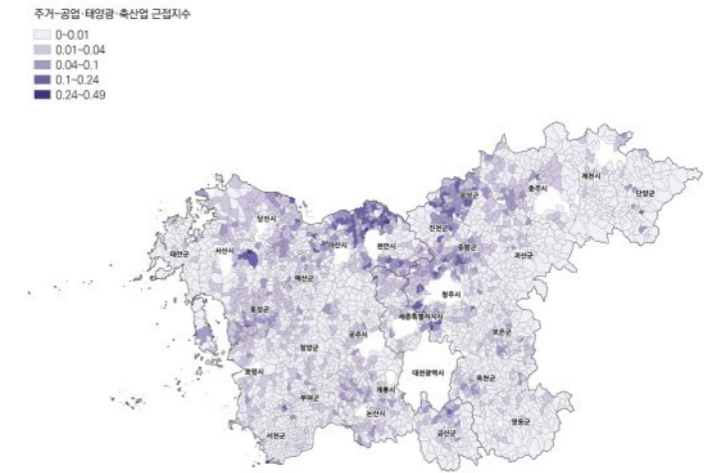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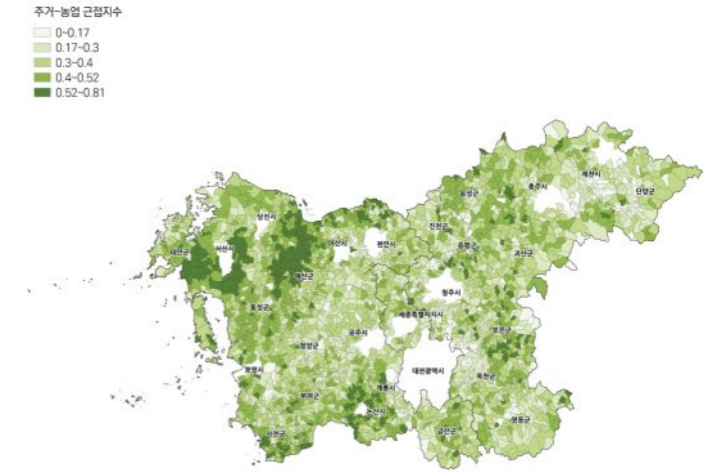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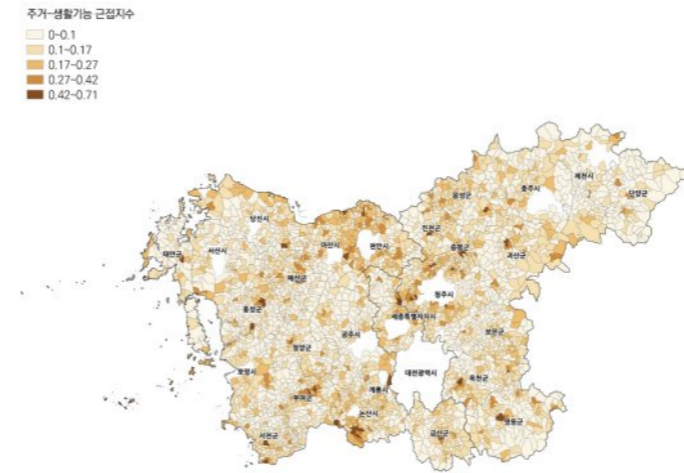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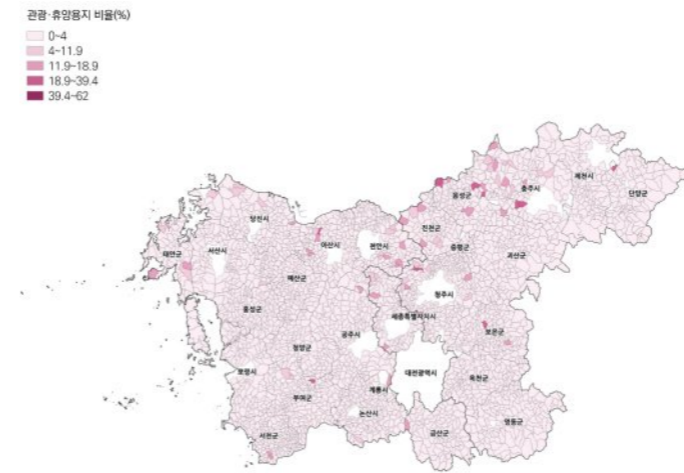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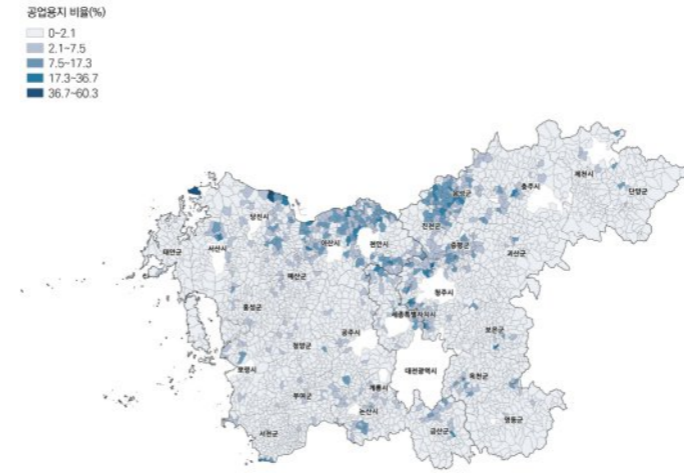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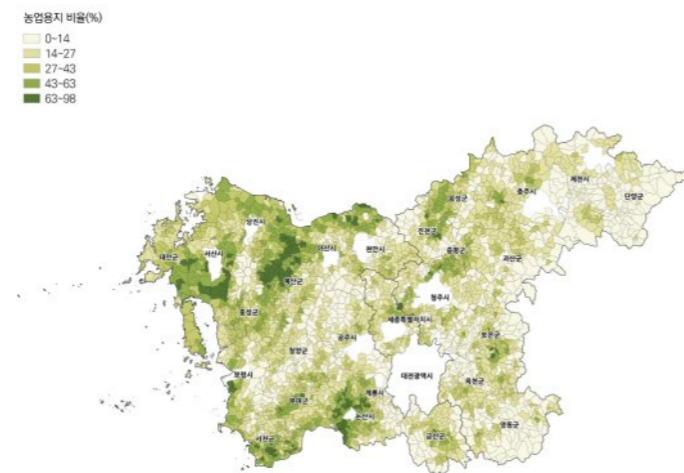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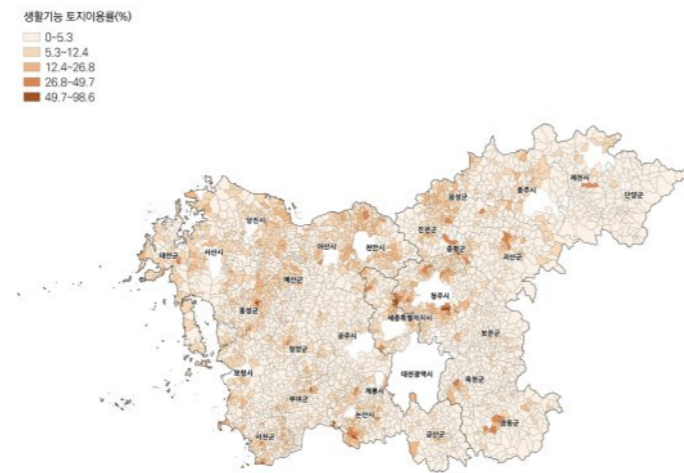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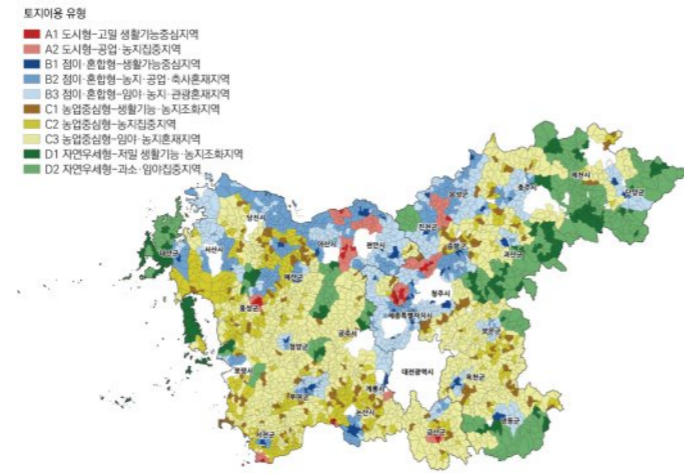
법정리별로 특정 토지이용의 집중도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은 평균 6.6% 수준이나, 청주시 남일면 쌍수리는 85.4%로 대부분의 토지가 주거 등 생활기능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농업용지 비율은 당진시 우강면 공포리가 84.1%로 나타나 평균(28.3%)을 크게 상회하며, 농업 중심의 토지이용 특성이 뚜렷하다.

공업용지 비율은 평균 1.6%에 불과하지만,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는 53.4%에 달해 산업 기능이 집중된 지역으로 나타난다. 관광 휴양용지 비율 역시 평균이 0.4%로 매우 낮으나, 백제문화단지가 위치한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는 34.4%로 가장 높아 관광 거점이 형성된 지역으로 해석된다.

토지이용혼재도

주거와 타 용도 간의 공간적 근접 정도를 나타내는 혼재도 지표의 평균을 보면,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는 0.14,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0.38, 주거-공업-태양광 축산업 근접지수는 0.02, 주거-임야 근접지수는 0.3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주거지와 농경지 또는 임야 간의 혼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다수의 법정리에서는 주거지와 공업-태양광-축산업 간 근접에 따른 갈등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 혼재도 지표를 살펴보면,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는 증평군 증평읍 교동리(0.69)가 가장 높아 생활 편의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확인된다.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아산시 선장면 채신언리(0.8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거-임야 근접지수는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0.87)가 최고치를 보여 주거지와 자연환경이 밀접하게 결합된 공간구조를 보인다. 한편 주거-공업-태양광-축산업 근접지수는 평균 0.02로 가장 낮은 수준이나,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0.49)는 가장 높은 값을 보여 주거와 상충용도 간 간섭에 따른 정주환경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





대구·부산·울산·경상

읍·면 단위 농촌 유형과 지표 값 특성

대구·부산·울산·경상에서는 도시형 농촌과 점· 혼합형 농촌이 광역시 및 이에 인접한 주요 산업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특히 경북 경산시·칠곡군과 경남 양산시·김해시·창원시 등 대도시 배후 지역에서 이러한 유형이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반면 그 밖의 읍·면 지역에서는 농업중심형 농촌과 자연우세형 농촌이 주로 분포한다. 농업중심형 농촌은 경북의 상주시·김천시·안동시·의성군·예천군과 경남의 진주시·창녕군·의령군 등에서 주를 이루며, 전통적인 농업기반의 공간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자연우세형 농촌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경북 북부의 봉화군·영양군·청송군·울진군과 경남 서부의 거창군·함양군·산청군·하동군 등에서 확인된다.

지역위계

인구밀도와 고용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대구·부산·울산과 인접한 읍·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낸다. 인구밀도는 평균 146명/km²인 반면, 양산시 물금읍은 6,031명/km²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울진군 금강송면은 4명/km²에 그쳐 지역 간 격차가 극명하다. 고용밀도 역시 평균 66명/km²로 매우 낮은 편이나, 양산시 물금읍은 1,520명/km²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지역 간 경제 활력의 차이가 크게 확인된다.

생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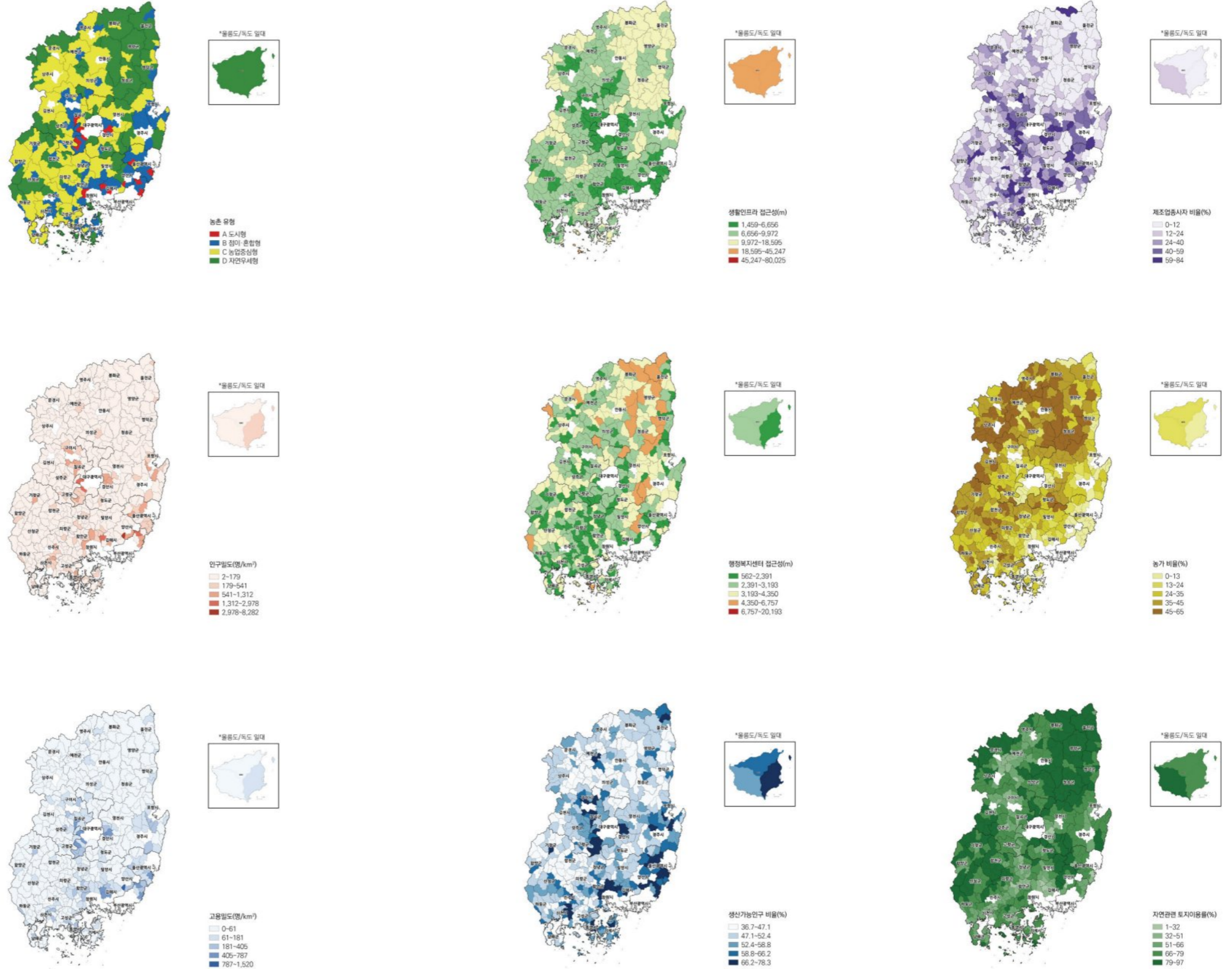
서부 해안·도시 지역과 동북부 산간 지역에서는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생활인프라 접근성의 평균 거리는 8,294m로 나타났으며 남해군 남해읍은 1,459m로 가장 양호한 반면 울릉군 서면은 25,244m로 접근성이 가장 열악하다. 행정복지센터 접근성 역시 평균 2,895m에 비해 달성군 현풍읍은 1,256m로 우수한 반면, 영덕군 창수면은 6,458m로 나타나 지형적 제약에 따른 행정서비스 접근성의 불균형이 명확히 드러난다.

생산환경

칠곡군 북삼읍(생산가능인구 비율 75.8%)과 의령군 봉수면(제조업종사자 비율 84.1%)은 생산활동 인구가 집중된 지역으로 나타난다. 반면 상주시 중동면은 농가 비율이 65.1%로 가장 높아, 전형적인 농촌구조의 특성이 관찰된다.

자연환경

자연관련 토지이용률은 평균 71%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며, 울진군 금강송면은 97.1%에 달해 대부분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창원시 대신면은 2.3%로 가장 낮다. 이는 지형적 여건에 따라 토지이용의 개발·보전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정리 단위 농촌 토지이용 유형과 지표 값 특성

대구는 특정 유형이 두드러지게 우세하지 않으며, B3(18.7%), C3(17.1%), D2(15.5%) 유형이 유사한 비중으로 분포한다. 부산은 B3 유형이 4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A1 유형(21.7%)과 A2 유형(18.3%)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울산은 B3 유형이 48.1%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인다. 한편 경북과 경남은 모두 C3 유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며(각각 29.8%, 38%), C2 유형도 비교적 많이 분포한다(각각 14.7%, 11.7%). 이와 함께 경북은 D2(19.9%), 경남은 B3(12.6%) 유형의 발생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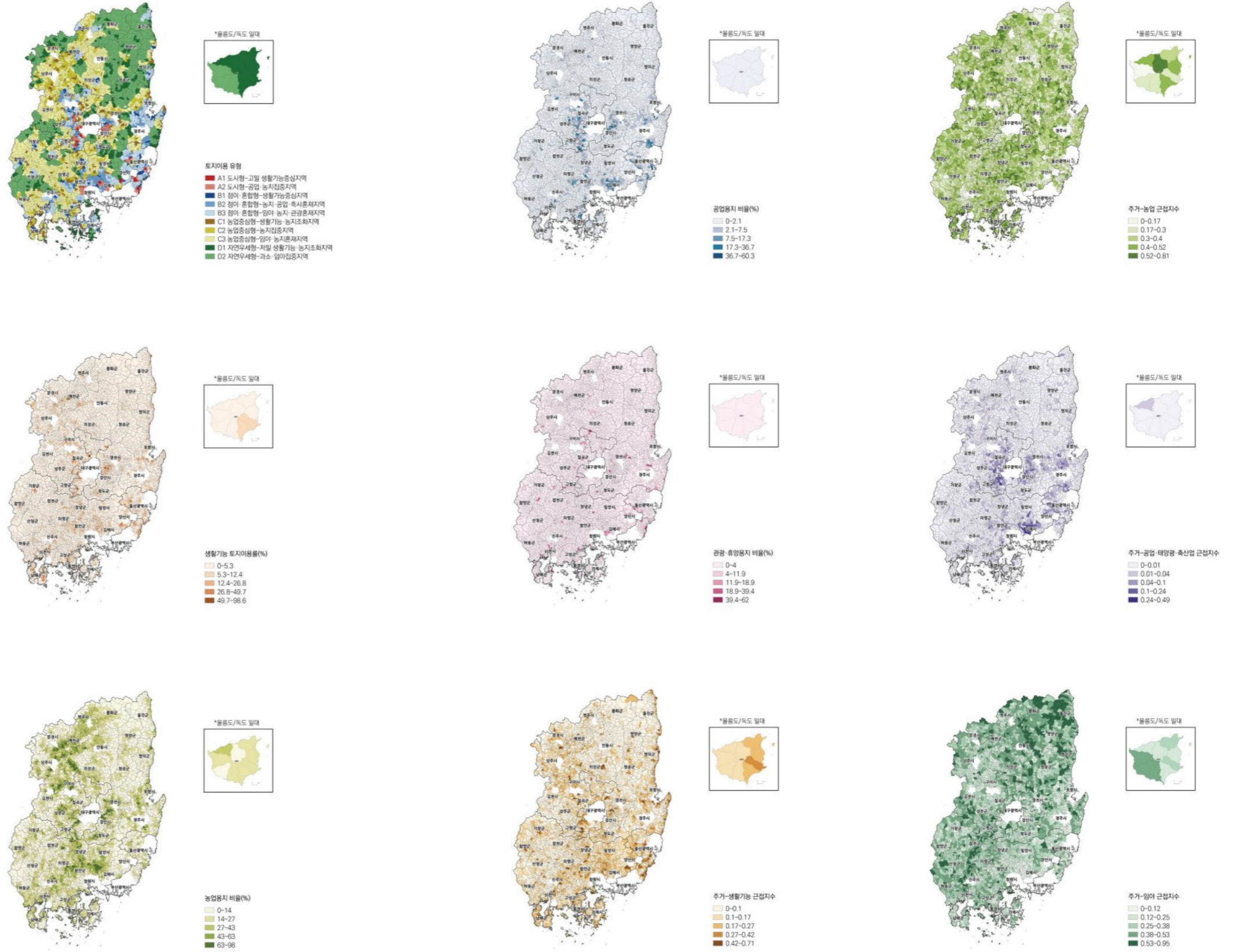
토지이용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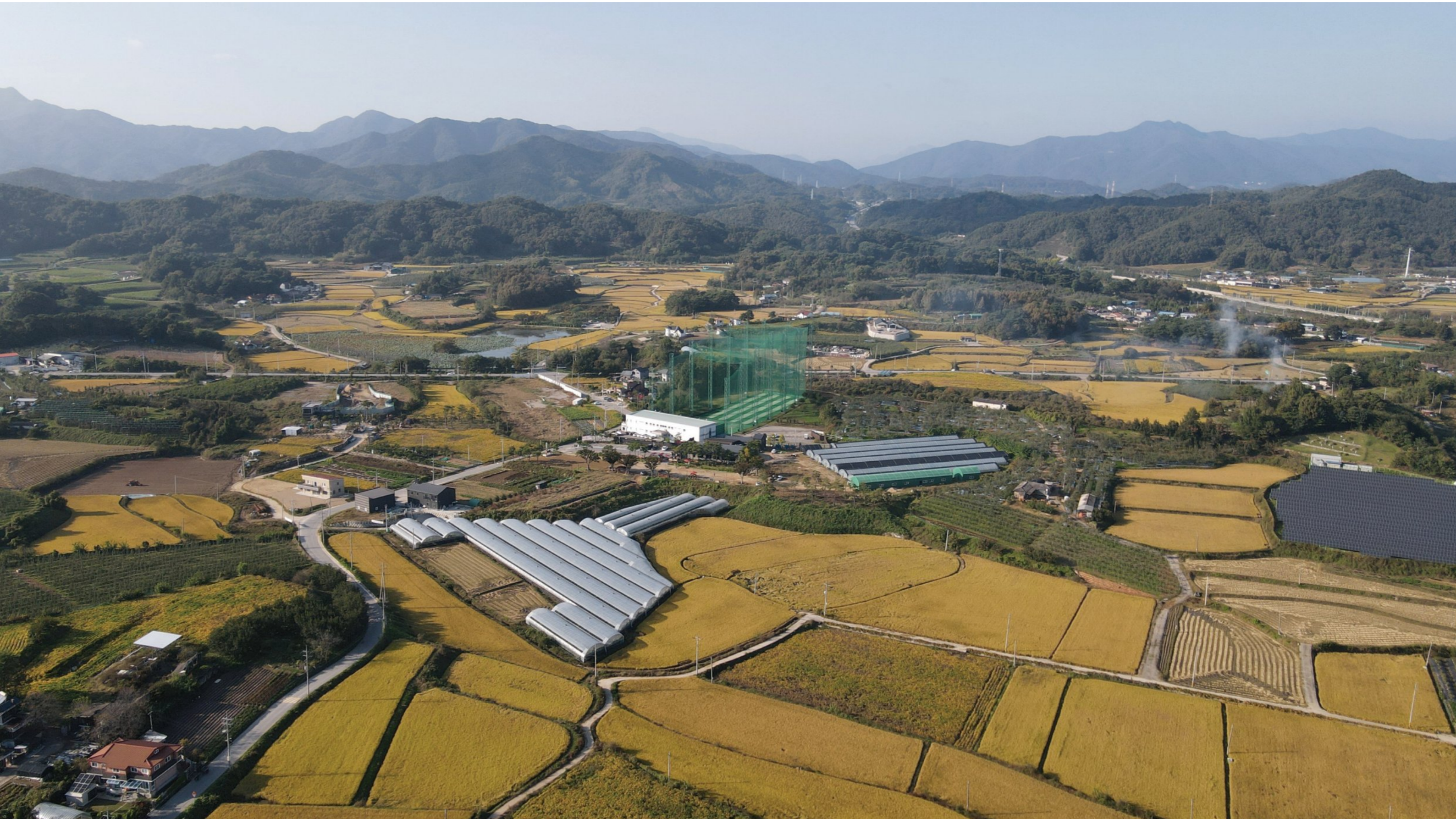
법정리별로 특정 토지이용의 집중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생활가능 토지이용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낮으나, 예천군 예천읍 노하리는 98.6%에 달해 도시적 성격에 가까운 토지이용 구조를 보인다. 농업용지 비율은 평균 24.5%로, 경북 서부와 경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분포하며, 경산시 압량읍 현흥리는 94.7%로 대규모 농경지 중심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공업용지 비율은 평균 1.1%로 매우 낮은 수준이나, 대구 주변과 경북 포항시·경주시, 울산 인접 지역, 경남 양산시·김해시 일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달성군 유가읍 금리는 57.7%로 공업 기능이 집중된 법정리 사례로 확인된다. 관광·휴양용지 비율은 평균 0.4%로 극히 낮아 제한된 일부 법정리에서만 두드러지는데, 의성군 봉양면 신평리는 4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

토지이용혼재도

주거와 타 용도 간 혼재도 지표의 평균을 살펴보면, 주거-농업 근접지수(0.36)와 주거-임야 근접지수(0.29)의 근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주거-생활가능 근접지수(0.14)와 주거-공업-태양광-축산업 근접지수(0.01)는 낮게 나타난다. 이는 전반적으로 주거지와 농경지·임야의 혼재가 두드러지는 반면, 상층 용도와 의 근접에 따른 갈등 가능성은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주거-생활가능 근접지수는 예천읍 노하리가 0.71로 가장 높아 생활 편의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며,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포항시 청하면 하대리가 0.75로 가장 높아 주거지와 농경지가 밀접하게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는 주거-공업-태양광-축산업 근접지수가 0.45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공장 태양광-축산시설과 주거지의 혼재에 따른 환경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 필요성이 시사된다. 한편 포항시 대송면 산여리는 주거-임야 근접지수가 0.90에 달해 자연환경과 주거지가 밀접하게 결합된 형태를 보인다.





제주·전라

읍·면 단위 농촌 유형과 지표 값 특성

제주·전라에서는 농업중심형 농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사이에 점·혼합형 농촌과 자연우세형 농촌이 흩어져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도시형 농촌은 전북 목포시·완주군·부안군과 전남 광양시·순천시 일대에서 제한적으로 관찰된다.

지역위계

인구밀도와 고용밀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나, 도시형 농촌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인구밀도는 평균 92명/km²인 반면, 순천시 신도심인 해동면은 1,123명/km²로 나타나 최소 지역인 장흥군 유치면(8명/km²)과 100배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 고용밀도 역시 평균 42명/km²에 비해 광양시 광양읍이 418명/km²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지역 인구 및 고용의 공간적 편중이 확인된다.

생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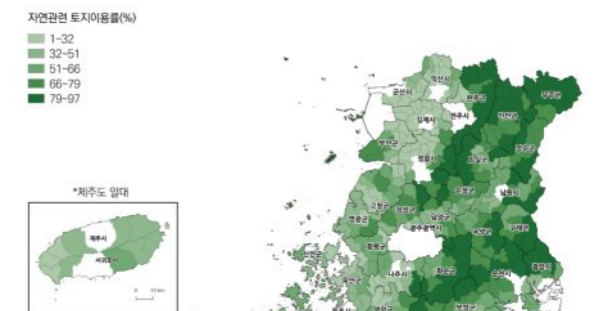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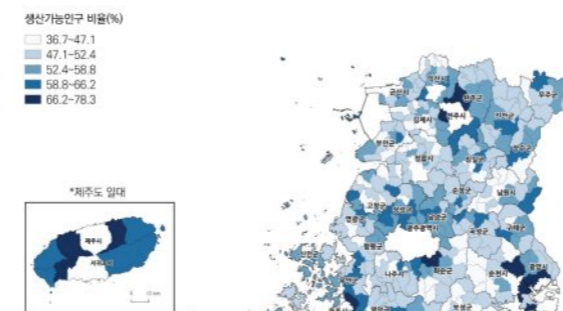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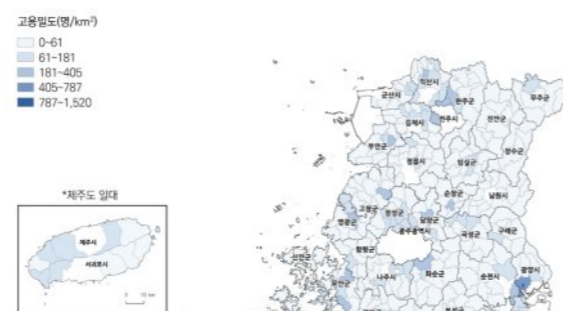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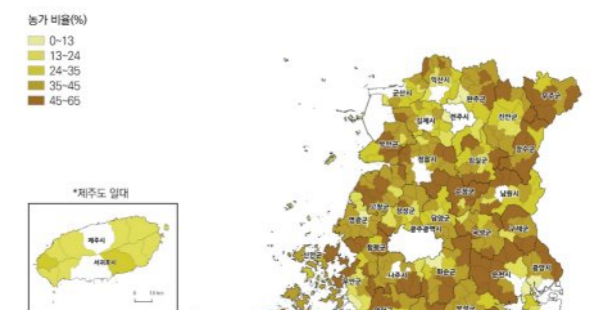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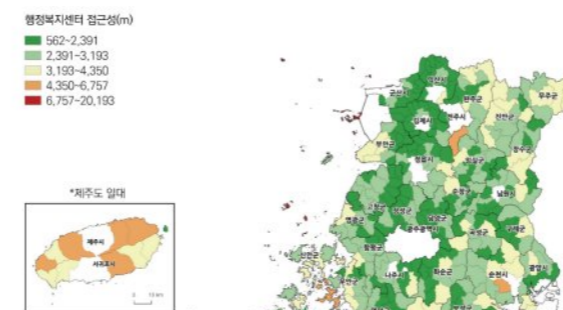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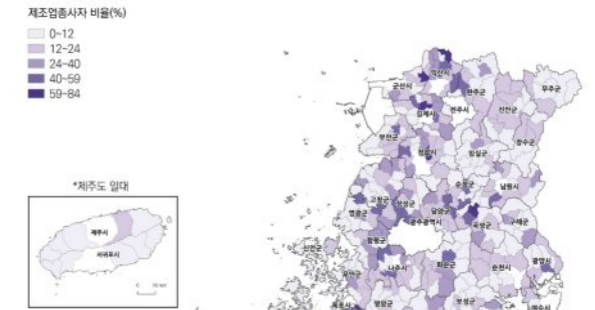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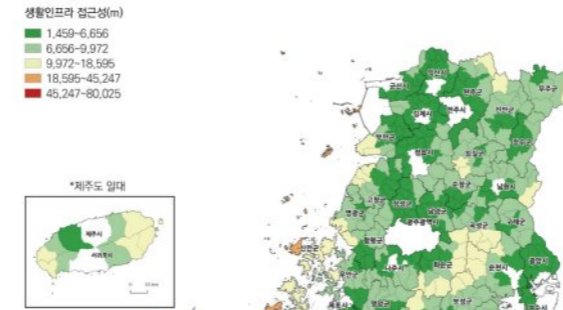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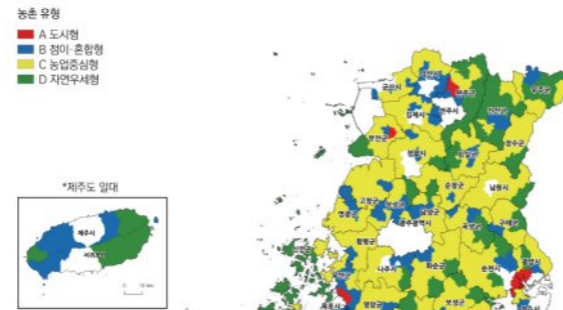
생활인프라와 행정서비스 접근성은 해안 및 도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생활인프라 접근성의 평균 거리는 8,220m이나, 광양시 광양읍은 2,121m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신안군 흑산면은 45,247m로 최저 수준을 기록해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다. 행정복지센터 접근성 역시 평균 2,788m에 비해 군산시 옥도면은 20,193m로 나타나, 도서 지역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생산환경

지역별 생산환경의 차이를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 비율과 제조업종사자 비율은 광역시나 전주시·목포시·광양시 등 주요 도시 인접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농가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지역 전역에 걸쳐 농업 기반이 폭넓게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대불산단이 위치한 영암군 삼호읍은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73.9%로 높고, 곡성군 입면은 제조업종사자 비율이 80.3%에 달해 생산활동 인구 중심 지역으로 나타난다. 한편 완주군 경천면은 농가 비율이 62.3%로 가장 높아 전형적인 농촌의 성격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자연환경

자연관련 토지이용률은 평균 55.4%로, 서부의 평야 지대와 동부의 산악 지대 간 자연관련 토지이용 비중이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산림이 울창한 완주군 동상면은 96.4%로 가장 높은 반면, 광활한 평야 지대에 위치한 김제시 광활면은 0.9%로 최저 수준을 보여 지형 조건에 따른 토지이용 구조의 차이가 뚜렷하다.



법정리 단위 농촌 토지이용 유형과 지표 값 특성

제주-전라에서는 전반적으로 농업중심형 농촌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제주는 D1(43.4%)과 B2(40.2%) 유형의 발생 비중이 높으며, 전북과 전남은 C2(각각 34.2%, 28.1%)와 C3(각각 22.5%, 26.7%) 유형이 주를 이룬다. 특히 서부 지역에서는 넓은 농경지가 분포한 농업중심형의 C2 유형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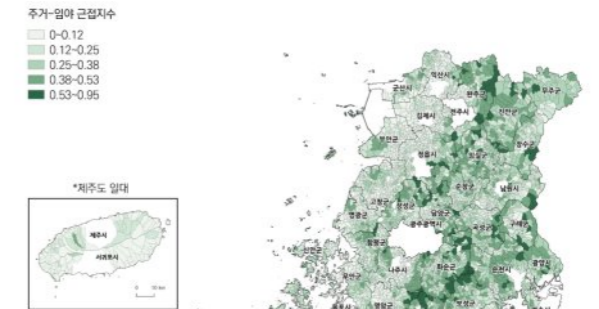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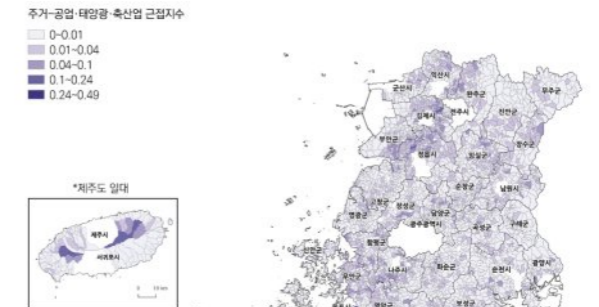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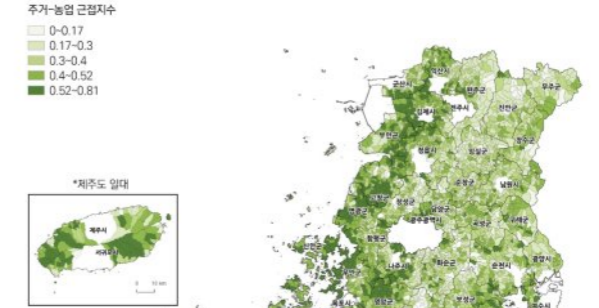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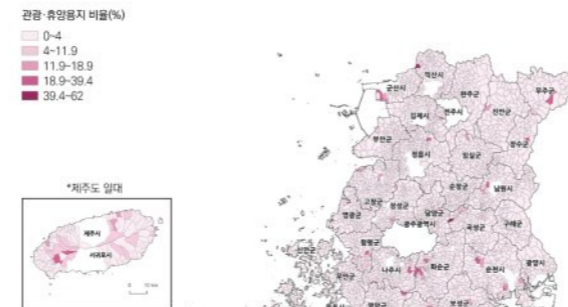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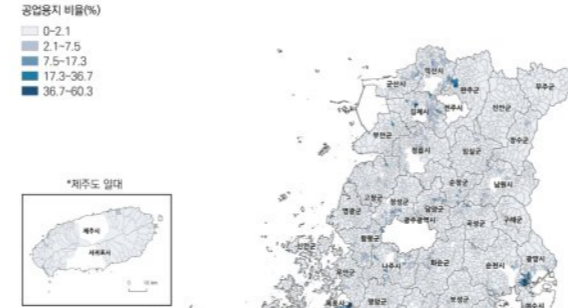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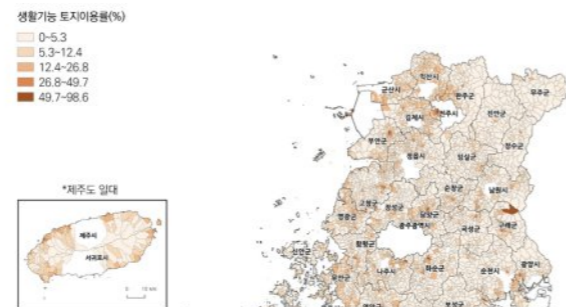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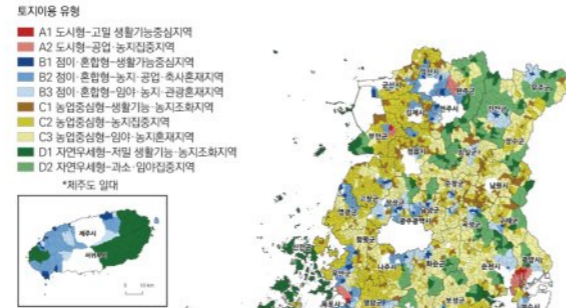
토지이용분포

법정리별로 특정 토지이용의 집중도는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은 평균 6%로 전반적으로 낮으나,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는 80.3%에 달해 주거-상업 기능이 특정 리에 고도로 집중된 사례를 보여 준다. 농업용지 비율은 평균 35.5% 수준이나, 익산시 춘포면 삼포리는 98.4%로 거의 전 면적이 농지로 활용되는 전형적인 농업 중심 지역이다. 공업용지 비율은 평균 0.5%로 매우 낮은 편이지만, 완주군 봉동읍 웅암리는 60.3%로 가장 높아 공업 기능이 집중된 사례로 나타난다. 관광-휴양용지 비율은 평균 0.4%에 불과하나,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는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나 특정 관광 자원에 따른 토지이용 특성이 두드러진다.

토지이용혼재도

주거와 타 용도 간 혼재도 지표의 평균을 살펴보면,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는 0.17,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0.4, 주거-공업-태양광-축산업 근접지수는 0.01, 주거-임야 근접지수는 0.23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주거지와 농경지의 혼재가 두드러지는 한편, 상층 용도와의 근접에 따른 갈등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는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0.71)가 가장 높아 생활 편의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나타난다.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0.79)가 최고치를 보여 농경지와 주거지가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특성을 보인다. 주거-공업-태양광-축산업 근접지수는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0.32)가 가장 높아 대불산단 등 산업시설과 주거지 인접에 따른 환경 관리가 필요성이 시사된다. 한편 주거-임야 근접지수는 해남군 화원면 치하리(0.95)가 가장 높아 산림과 주거지가 매우 밀접하게 결합된 공간구조를 보인다.





시·군별 농촌 토지이용 유형 사례

대표 10개 시·군 선정
성장형 거점도시: 평택
성숙안정형 거점도시: 청주
성숙안정형 강소도시: 순천, 당진
성숙안정형 자립도시: 횡성, 순창
감소형 강소도시: 칠곡
감소형 자립도시: 고성, 부여, 상주

대표 10개 시·군 선정

2023년 12월 말 개정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는 전국 시·군을 인구 변화에 따라 '성장형, 성숙 안정형, 감소형'으로, 도시위상에 따라 '거점도시, 강소도시, 자립도시'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시·군 유형 구분을 토대로, 각 유형 별로 농촌 토지이용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39개 시·군 가운데 인구추세와 도시위상에 따른 시·군 유형과 소속 시·도, 농촌 토지이용 유형 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 시·군 10개(아래 표의 붉은색 표기)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읍·면 및 법정리 단위의 농촌 토지이용 유형과 주요 지표 분포를 분석하고, 실제 토지이용패턴과 드론 촬영 사진을 함께 활용하여 농촌공간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39개 시·군 중 성장형은 총 10개로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대체로 도시형 농촌 및 점·혼합형 농촌을 포함한다. 이에 성장형 거점도시이자 도시형(A)+점·혼합형(B)에 해당하는 경기 평택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성숙·안정형은 거점도시 6개, 강소도시 34개, 자립도시 37개로 가장 폭넓게 분포한다. 이 중 거점도시에서는 10개 농촌 토지이용 유형이 모두 나타나는 충북 청주시를, 강소도시에서는 9개 토지이용 유형이 분포하는 전남 순천시와 점·혼합형(B)+농업중심형(C)의 충남 당진시를 선정하였다. 자립도시에서는 점·혼합형(B)+농업중심형(C)+자연우세형(D)의 강원 횡성군과 점·혼합형(B)+농업중심형(C)의 전북 순창군을 사례로 선택하였다.

감소형에서는 거점도시가 존재하지 않으며, 강소도시 6개, 자립도시 46개 시·군으로 구성된다. 강소도시 중에서는 10개 농촌 토지이용 유형이 모두 나타나는 경북 칠곡군을, 자립도시 중에서는 점·혼합형(B)+농업중심형(C)+자연우세형(D)의 경남 고성군, 점·혼합형(B)+농업중심형(C)의 충남 부여군, 그리고 농업중심형과 자연우세형으로만 구성되어 도시적 특성이 약한 농업중심형(C)+자연우세형(D)의 상주시를 각각 사례로 선정하였다.

139개 시·군별 농촌 토지이용 유형 발생 현황

농촌 토지이용 유형	읍·면 특성 ^{주)}	유형 개수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합계 (개, %)
			거점도시	강소도시	자립도시	거점도시	강소도시	자립도시	거점도시	강소도시	자립도시	
A+B+C+D		10개		아산시	완주군	창원시, 청주시				칠곡군		11 (7.9)
		9개				순천시 , 포천시			강화군, 진천군			
		8개					광양시				부안군	
A+B+C		8개		세종시	무안군		울주군, 경산시			논산시	서천군	13 (9.4)
		7개				김해시, 천안시	광주시, 이천시	금산군, 음성군, 홍성군				
B+C+D		8개					강릉시, 경주시, 군산시, 나주시, 밀양시, 여주시, 영주시, 진주시, 충주시, 포항시	영주시, 영천시, 거창군, 군위군, 담양군, 성주군, 영광군, 예산군, 예천군, 청도군, 청양군, 화순군, 횡성군		거제시, 정읍시	고성군(경남) , 고령군, 곡성군, 괴산군, 구례군, 남해군, 보성군, 보은군, 부안군, 서천군, 연천군, 영덕군, 완도군, 의령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창녕군	63 (45.3)
		7개					김천시, 원주시, 춘천시	무주군, 산청군, 양양군, 진안군, 태안군			보령시, 양구군, 영동군, 울진군, 의성군, 임실군, 하동군, 함천군	
		6개					공주시			통영시	단양군, 해남군	
		5개									봉화군	
A+B+D		7개		양평군				달성군				4 (2.9)
		6개						양산시				
		5개					남양주시					
B+C		6개					구미시, 당진시 , 사천시, 서산시	김제시, 고령군, 순창군 , 영암군, 옥천군, 증평군		익산시	강진군, 고창군, 단양군, 부여군 , 함안군, 함평군	16 (11.5)
A+B		5개	파주시, 평택시 , 화성시				용인시	안성시, 기장군				8 (5.8)
		4개						김포시				
		3개			계룡시							
B+D		5개		양주시					가평군		철원군	10 (7.2)
		4개						서귀포시, 제주시	옹진군, 홍천군		영월군	
		3개									정선군, 화천군	
C+D		5개					안동시, 제천시	신안군			남원시, 문경시, 상주시 , 영양군, 장수군	10 (7.2)
		4개									청송군	
		3개									삼척시	
D		2개						고성군(강원), 울릉군, 인제군, 평창군				4 (2.9)
합계			3	4	3	6	34	37	0	6	46	139 (100.0)

시·군별 농촌 토지이용 유형의 분포 패턴을 보면, '점·혼합형(B) + 농업중심형(C) + 자연우세형(D)' 또는 '점·혼합형(B) + 농업중심형(C)' 조합이 가장 흔하다. 특히 'B+C+D' 유형은 전국 139개 시·군 중 63개(45.3%)에서 나타나며, 경북·경남의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전남의 다수 군 지역에서 주로 확인된다. 'B+C' 유형은 16개 시·군(11.5%)에서 관찰되며, 점·혼합형과 농업중심형의 세부 토지이용 유형이 모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도시적 특성이 약한 '농업중심형(C) + 자연우세형(D)' 조합은 경북을 중심으로 10개 시·군(7.2%)에서 나타나고, 자연우세형(D)만 있는 곳은 강원 4개 시·군으로 한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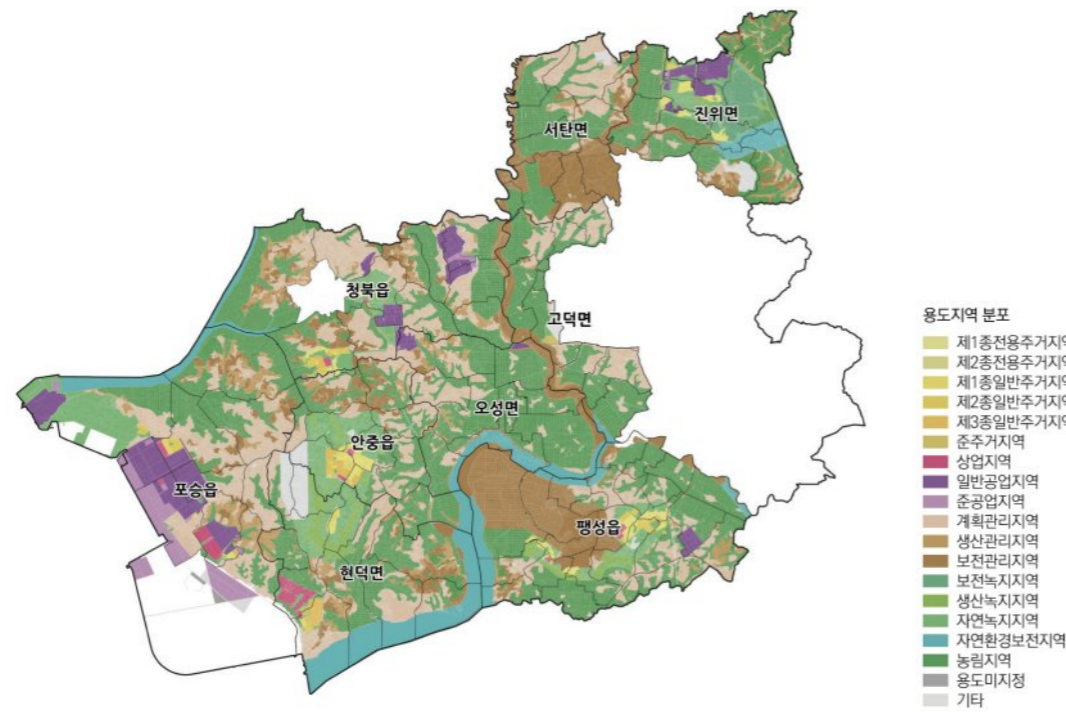
주: A(도시형), B(점·혼합형), C(농업중심형), D(자연우세형) / 붉은색으로 표기한 곳이 대표 10개 시·군임
출처: 여해진 외(2024, p.106)를 바탕으로 인구추세 및 도시위상에 따른 시·군 유형에 맞게 재분류

성장형 거점도시
: 경기 평택시

평택시는 도시형 농촌(A)과 점·혼합형 농촌(B)이 공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안중읍, 청북읍, 진위면은 도시형 농촌의 모습을 보이는 지역이다. 대규모 산업단지의 조성과 항만 개발, 주거지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읍·면 지역의 토지 이용에서도 도시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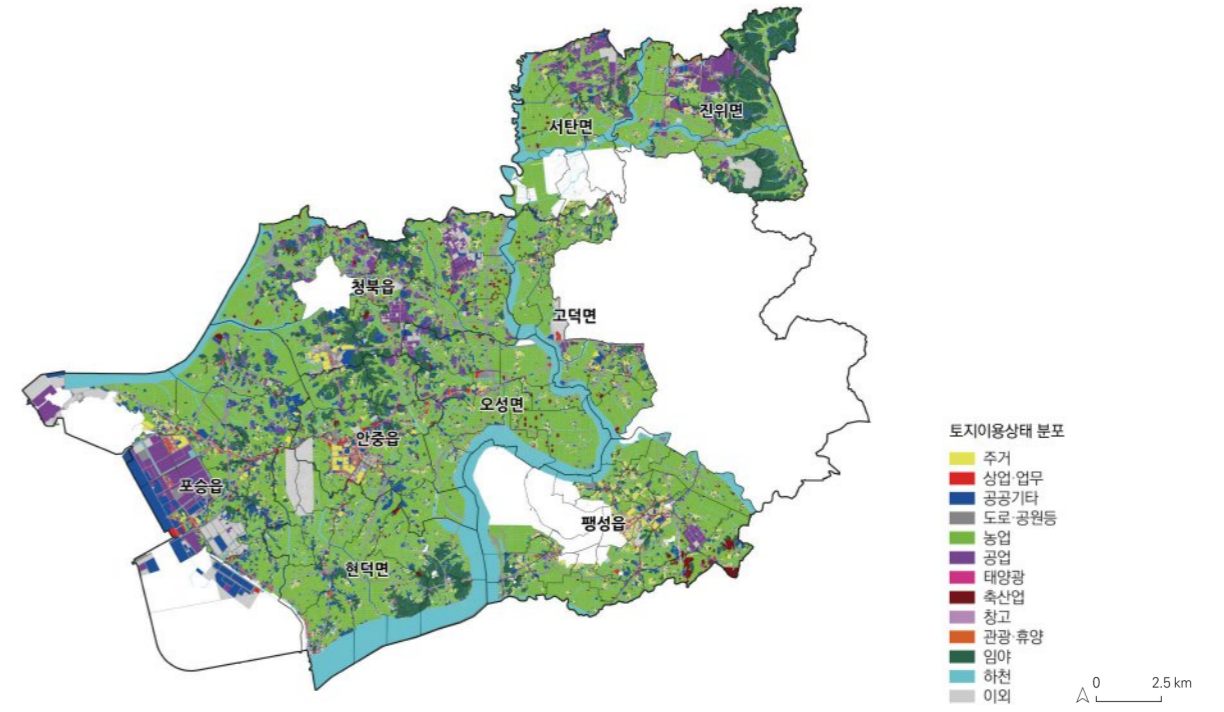
포승읍에는 아산국가산업단지 경기포승·경기원정지구와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지구, 평택항이 입지해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청북읍과 진위면, 그리고 팽성읍에도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일반공업지역이 확인된다. 한편 이러한 공업지역 외에도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업용지가 다수 분포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화성시와 인접한 서탄면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농경지 사이로 개별입지 공장이 넓게 침투해 있으며, 산업단지 인접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유사한 양상이 관찰된다. 이처럼 농경지는 산업 기능과 혼재된 형태로 나타나고, 넓게 펼쳐진 농림지역 사이에 공장용지, 공공기타용지, 축사 등이 점상으로 흩어져 분포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진위면은 일반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이 인접해 있는 구조를 보이는 반면, 현덕면과 오성면은 다른 읍·면에 비해 농경지가 넓게 펼쳐진 것이 특징이다. 안중읍과 팽성읍에서는 소규모 필지로 구성된 기존 도시조직과 함께 대규모 필지를 기반으로 한 택지개발이 병행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주거지역의 외곽부는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이 둘러싸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평택시는 대규모 공업 기능과 생활 기능을 중심으로 도시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가운데, 농경지 주변으로는 소규모 농촌마을과 축사 등이 혼재된 경관이 형성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중첩된 토지이용 특성을 보인다.



읍·면 단위 농촌 유형과 지표 값 특성

경기 평택시는 도시형 농촌(3개 읍·면)과 점아·혼합형 농촌(6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체로 도시화가 이루어진 농촌지역의 모습을 보인다.

지역위계

평택시 읍·면 지역은 산업단지와 신도시 개발의 영향으로 인구와 고용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인구밀도는 평균 457명/km²로 나타났으며, 안중읍은 1,495명/km²로 가장 높아 서부권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서탄면은 123명/km²에 그쳐 지역 간 인구 분포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밀도는 평균 347명/km²로, 산업단지가 밀집한 진위면이 771명/km²로 가장 높은 반면, 현덕면은 34명/km²에 불과해 산업 입지에 따른 고용 격차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생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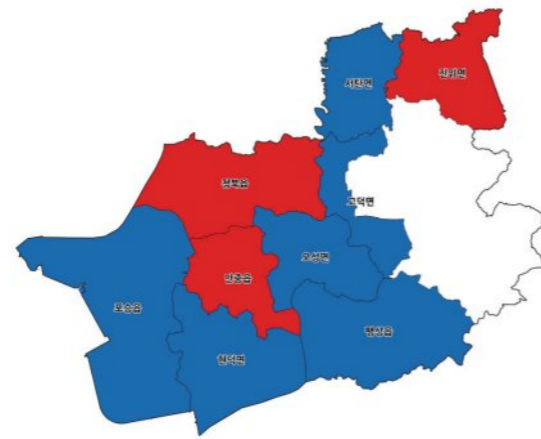
생활인프라와 행정서비스 접근성은 지역 중심지와 외곽 지역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생활인프라 접근성의 평균 거리는 3,954m로, 상업시설이 발달한 안중읍이 2,714m로 가장 양호한 반면, 청북읍은 4,589m로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행정복지센터 접근성의 평균 거리는 2,451m이며, 안중읍이 1,730m로 가장 가까운 데 비해 행정구역 면적이 넓고 상업시설이 비중이 높은 포승읍은 3,357m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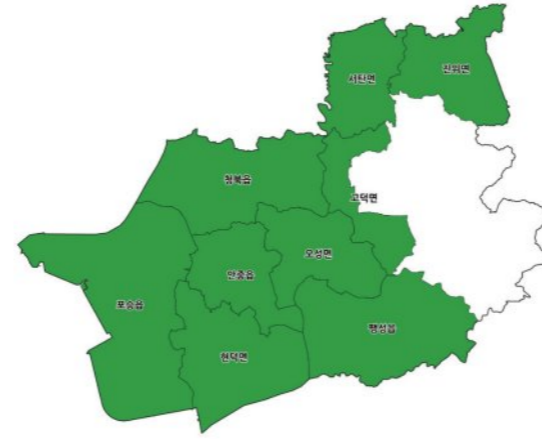
모든 읍·면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60%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며, 특히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포승읍은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75.9%로 가장 높아 젊은 노동력이 집중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서탄면은 제조업종사자 비율이 74.6%로 가장 높아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가 두드러진다. 반면 현덕면은 농가 비율이 24.5%로 가장 높으나 제조업종사자 비율은 17.4%에 그쳐, 평택시 내에서도 농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적 특성을 보인다.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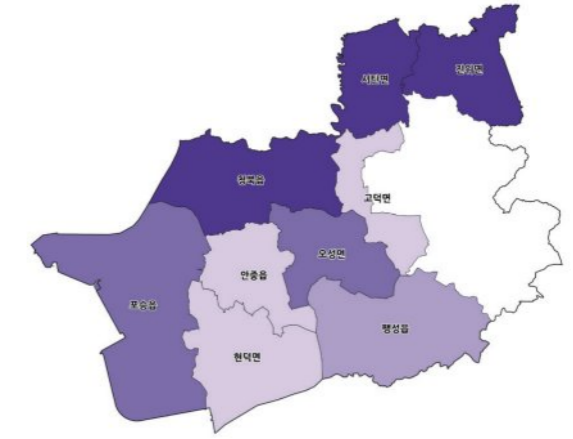
평택시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자연환경 보전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자연관련 토지이용률은 평균 23.5%에 불과하며,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된 포승읍은 1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산림이 일부 분포하는 진위면은 39.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평택시의 읍·면 지역은 전반적으로 개발 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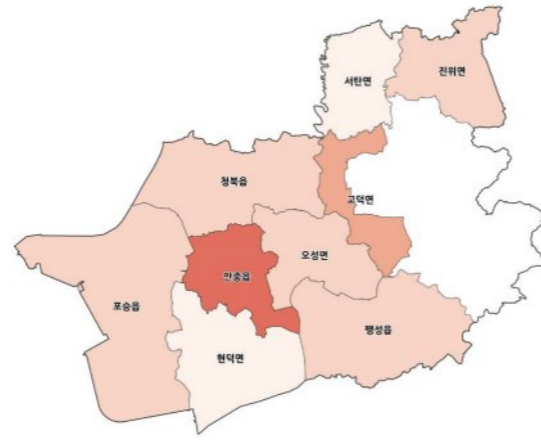
농촌 유형
A 도시형
B 점아·혼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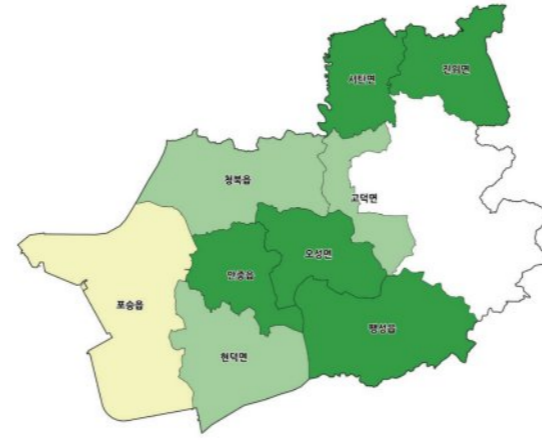
생활인프라 접근성(m)
1,450-6,656
6,656-9,972
9,972-18,595
18,595-45,247
45,247-80,025



제조업종사자 비율(%)
0-12
12-24
24-40
40-59
5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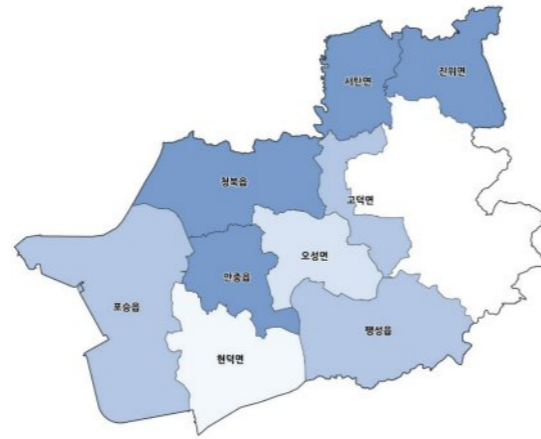
인구밀도(명/km²)
2-179
179-541
541-1,312
1,312-2,978
2,978-8,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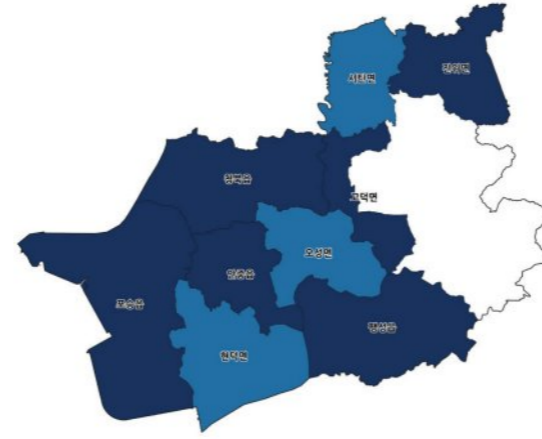
행정복지센터 접근성(m)
562-2,391
2,391-3,193
3,193-4,350
4,350-6,757
6,757-20,193



농가 비율(%)
0-13
13-24
24-35
35-45
45-65



고용밀도(명/km²)
0-61
61-181
181-405
405-787
787-1,520



생산가능인구 비율(%)
36.7-47.1
47.1-52.4
52.4-58.8
58.8-66.2
66.2-78.3



자연관련 토지이용률(%)
1-32
32-51
51-66
66-79
79-97

법정리 단위 농촌 토지이용 유형과 지표 값 특성

평택시 법정리의 대부분은 점·혼합형 농촌 내 농지와 공업 축사가 혼재된 B2 유형으로 분류되며, 포승읍과 팽성읍에는 생활기능이 중심을 이루는 B1 유형도 분포한다. 또한 안중읍·청북읍·진위면에는 공업 또는 농지가 집중된 A2 유형이 주를 이루며, 읍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기능이 집중된 A1 유형이 함께 공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토지이용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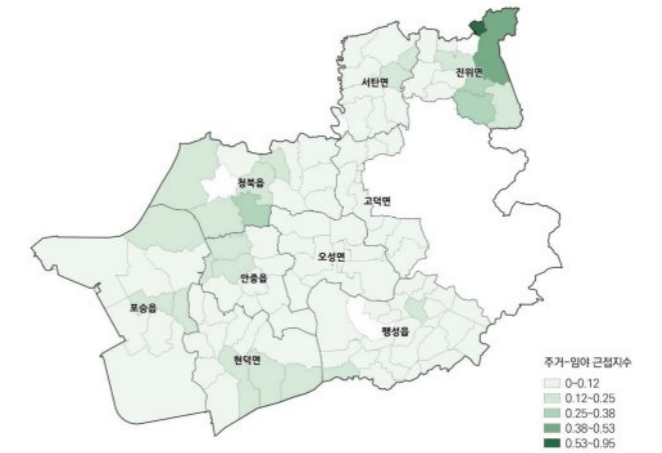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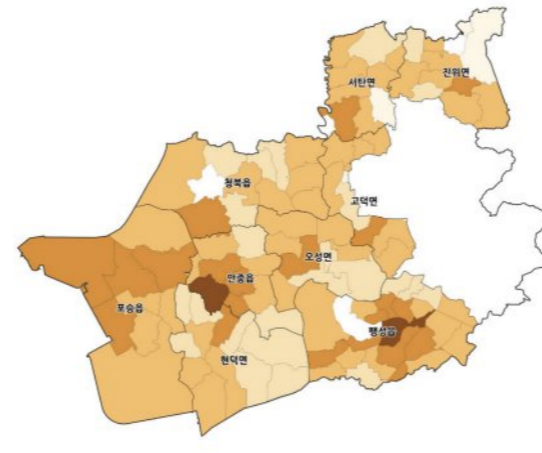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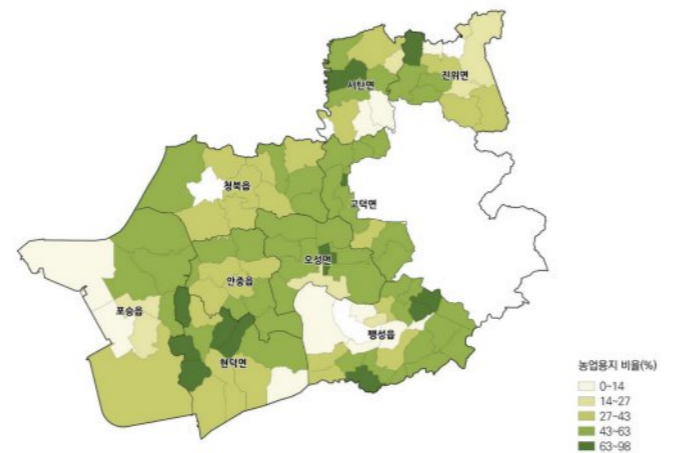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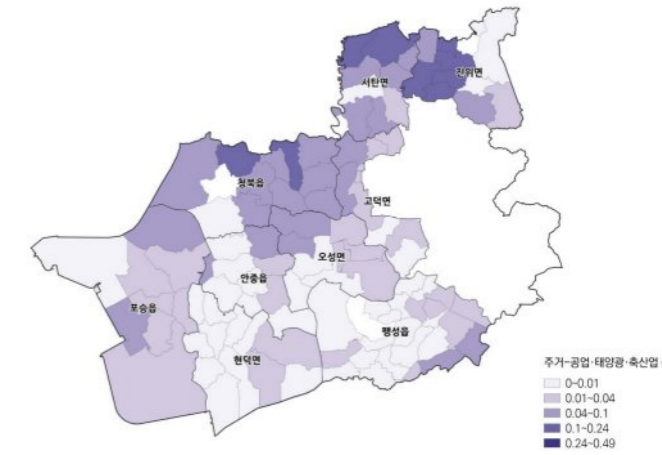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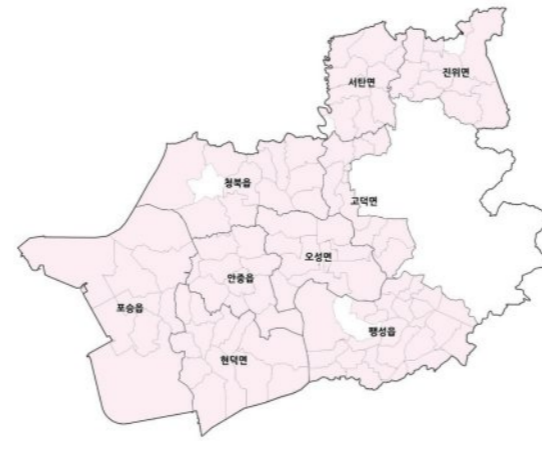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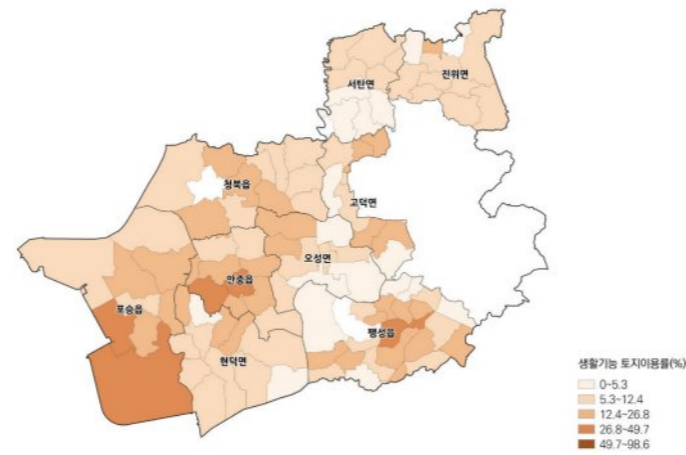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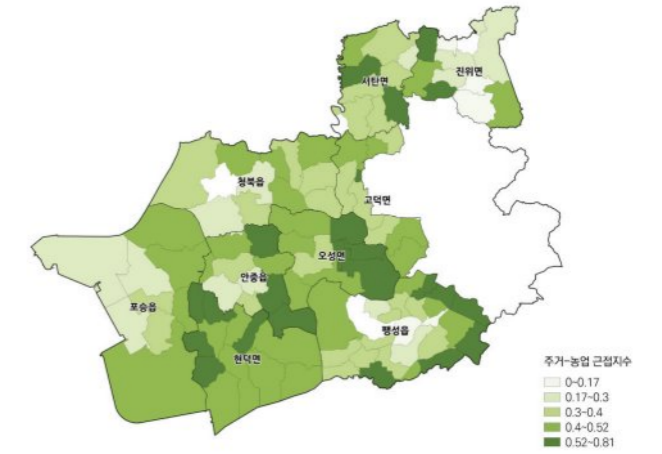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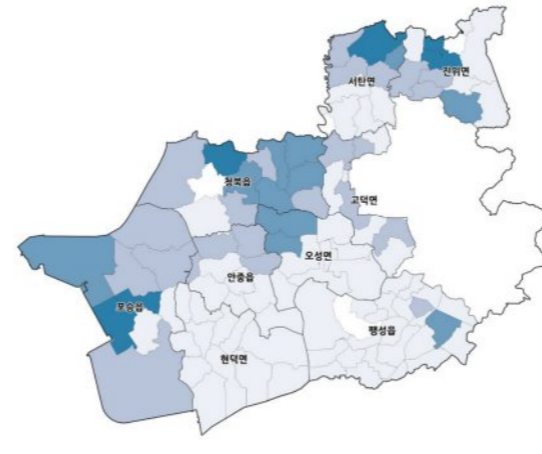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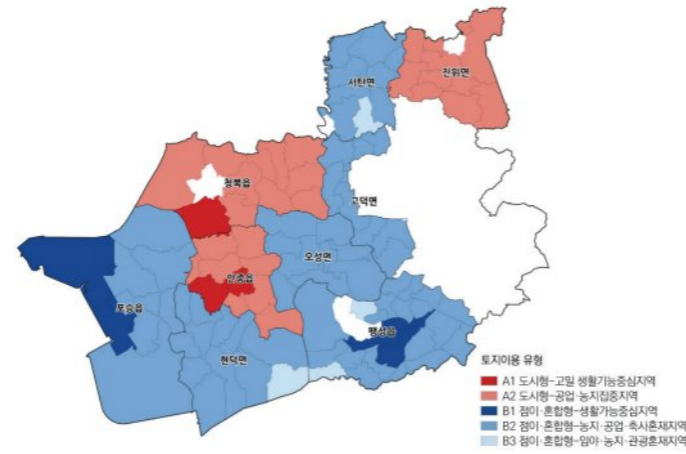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은 평균 12%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나, 포승읍·안중읍·팽성읍 일부 법정리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나타난다. 특히 포승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지역인 포승읍 만호리는 47.4%로 가장 높아 도시적 성격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농업용지 비율은 평균 42.5%로, 현덕면·팽성읍·오성면·서탄면·진위면 일부 법정리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며, 팽성읍 노성리는 77.2%에 달해 농업 기반 토지이용 특성을 보인다.

공업용지 비율은 포승읍·청북읍·서탄면·진위면 일부 법정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포승읍 내 기리가 35.3%로 가장 높아 산업 기능의 특화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편 관광·휴양용지 비율은 모든 법정리에서 0%로 나타나, 관광·휴양시설로 이용되는 토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토지이용혼재도

주거지와 타 용도 간의 공간적 근접 정도를 나타내는 혼재도는 지역별 입지 특성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는 평균 0.23으로, 안중읍과 팽성읍 내 법정리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상업시설이 밀집한 팽성읍 객사리는 0.49로 가장 높아 생활 편의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분석된다. 반면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농가 비율이 높은 현덕면·팽성읍·오성면·서탄면·진위면 일부 법정리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며, 오성면 청내리는 0.7로 주거지와 농업 활동이 밀접하게 혼재된 지역으로 확인된다.

주거-공업 태양광·축산업 근접지수는 청북읍·서탄면·진위면 법정리를 중심으로 높은 값을 보이는데, 서탄면 수월암리는 0.24로 가장 높아 주거지와 생산시설의 인접에 따른 정주환경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주거-임야 근접지수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진위면 일부 법정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진위면 고현리는 0.61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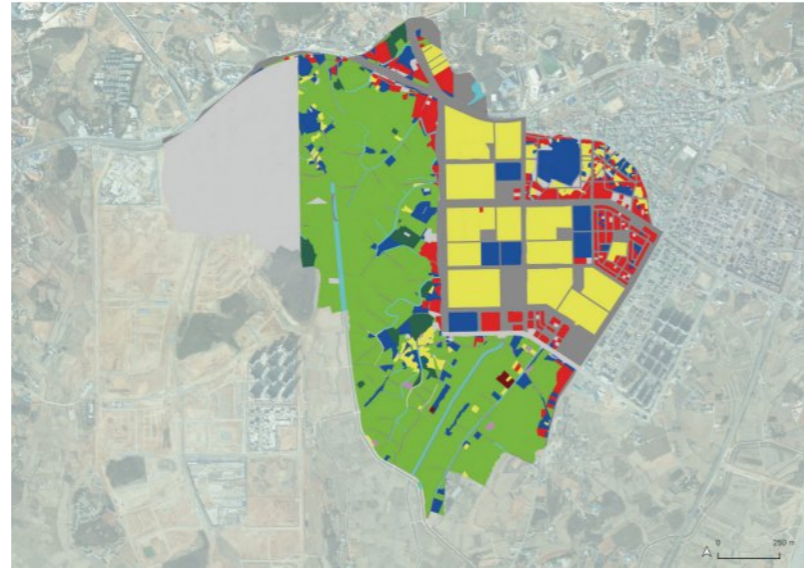


법정리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도시형
고밀 생활기능중심지역

안중읍 현화리

안중읍 현화리는 생활관련 토지이용률이 33.4%, 농업용지 비율이 41.6%로, 생활기능과 농업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생활기능은 택지개발 방식으로 공급되어 도시지역과 유사한 블록형 공간구조가 관찰되며, 그 외곽으로 농경지가 넓게 분포하는 형태를 보인다. 공업용지와 관광·휴양용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임야 비중이 낮아, 전반적으로 개발지와 농경지 중심의 평탄한 경관이 특징적이다.



도시형
공업·농지집중지역

안중읍 덕우리

안중읍 덕우리는 농업용지 비율이 47.2%로 매우 높고 주거-농업 근접지수도 0.41로 나타나, 주거지와 농경지가 근접한 특성을 보인다. 생활관련 토지이용률은 11.7%로 상대적으로 낮아 생활기능의 집적은 제한적이다. 주거지는 구릉지 밑에 소규모 마을 형태로 나타나며, 마을 주변으로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는 농촌 경관이 관찰된다. 한편 공업용지 비율이 3.2%로, 농경지 사이에 넓은 공업용지가 분포하는 특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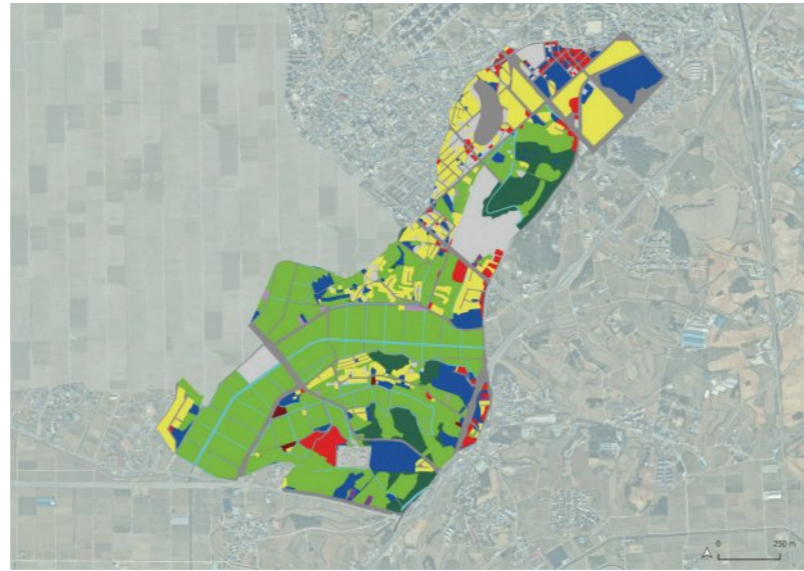


법정리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점·혼합형
생활기능중심지역

평성읍 송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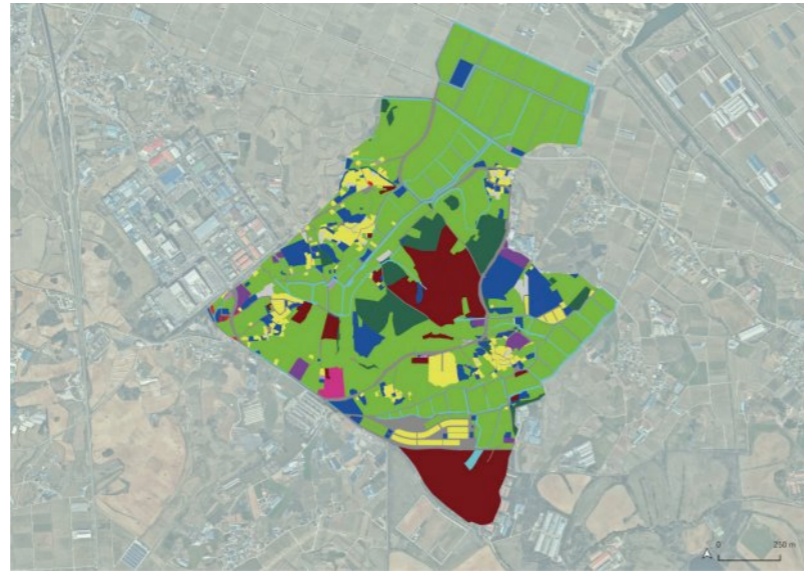
평성읍 송화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26.6%, 농업용지 비율이 35.5%로 나타나 생활기능과 농업 기능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공업용지나 관광·휴양용지는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주거지와 상업·업무·공공시설, 경작지가 서로 인접해 일상적 생활권과 농업 활동이 공존하는 공간 구조를 보인다. 주거·임야 근접지수도 0.03으로 낮아 전반적으로 평탄한 농촌 경관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점·혼합형
농지·공업·축산혼재지역

평성읍 노와리

평성읍 노와리는 농업용지 비율이 53.6%로 매우 높고 주거·농업 근접지수도 0.54로 나타나, 주거지와 농경지가 인접한 전형적인 농경지 기반 지역으로 평가된다. 생활관련 토지이용률은 14.4%로 생활기능의 집적은 제한적인 편이나, 농경지 사이에 소규모 마을이 분산되어 형성되어 있다. 공간적으로 북동측에 경지 정리가 잘 된 대규모 농업용지가 주를 이루는 반면, 중앙부와 남측에는 대규모 축산용지가 입지하고 있다.



점·혼합형
임야·농지·관광혼재지역

평성읍 노양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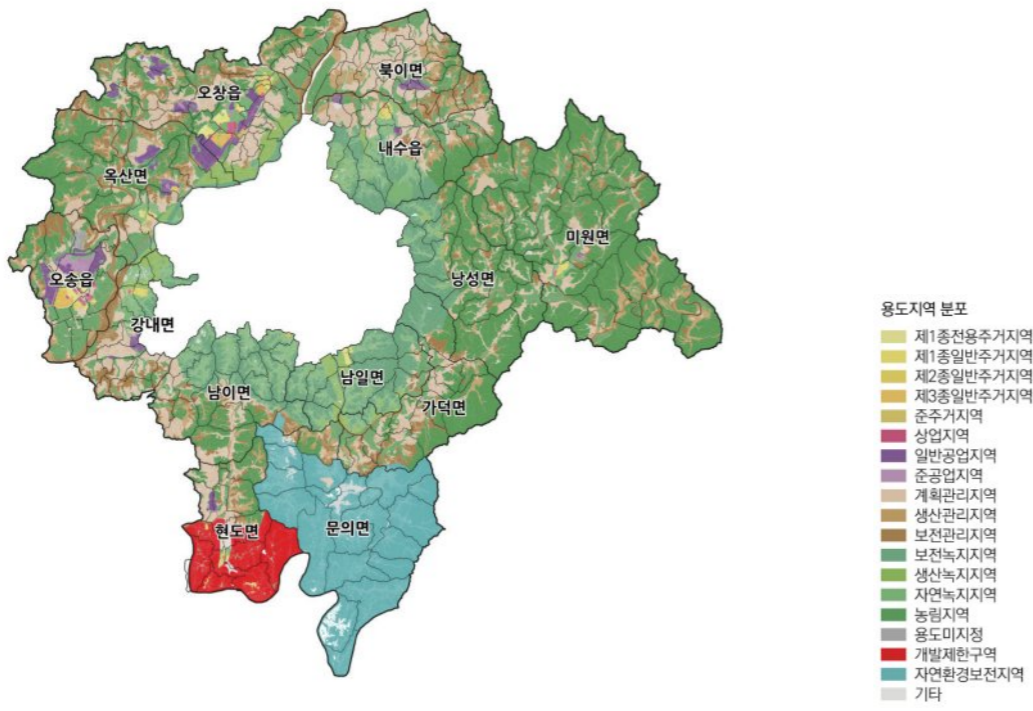
평성읍 노양리는 농업용지 비율이 34.1%로, 동측에는 경지 정리가 잘 이루어진 광활한 농업용지가 질서정연하게 분포하고 있다. 서측으로는 하천이 바다로 합류하는 넓은 수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주변으로 임야가 넓게 분포하고 이를 따라 주거지가 배치된 공간구조를 보인다. 마을은 주로 중앙부의 산자락과 하천 인근에 형성되어 있고, 상업·업무·공공시설은 군데군데 분산되어 입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성숙안정형 거점도시
: 충북 청주시

청주시는 성숙안정형 거점도시로서, 10개 농촌 토지이용 유형이 모두 분포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동 지역과 인접한 읍·면에서는 도시형 농촌(A)과 점·융합형 농촌(B)이 주로 나타나는 반면, 외곽부로 갈수록 농업중심형 농촌(C)과 자연우세형 농촌(D)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오창읍과 오송읍은 도시형 농촌의 성격이 뚜렷한 지역으로, 광범위한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이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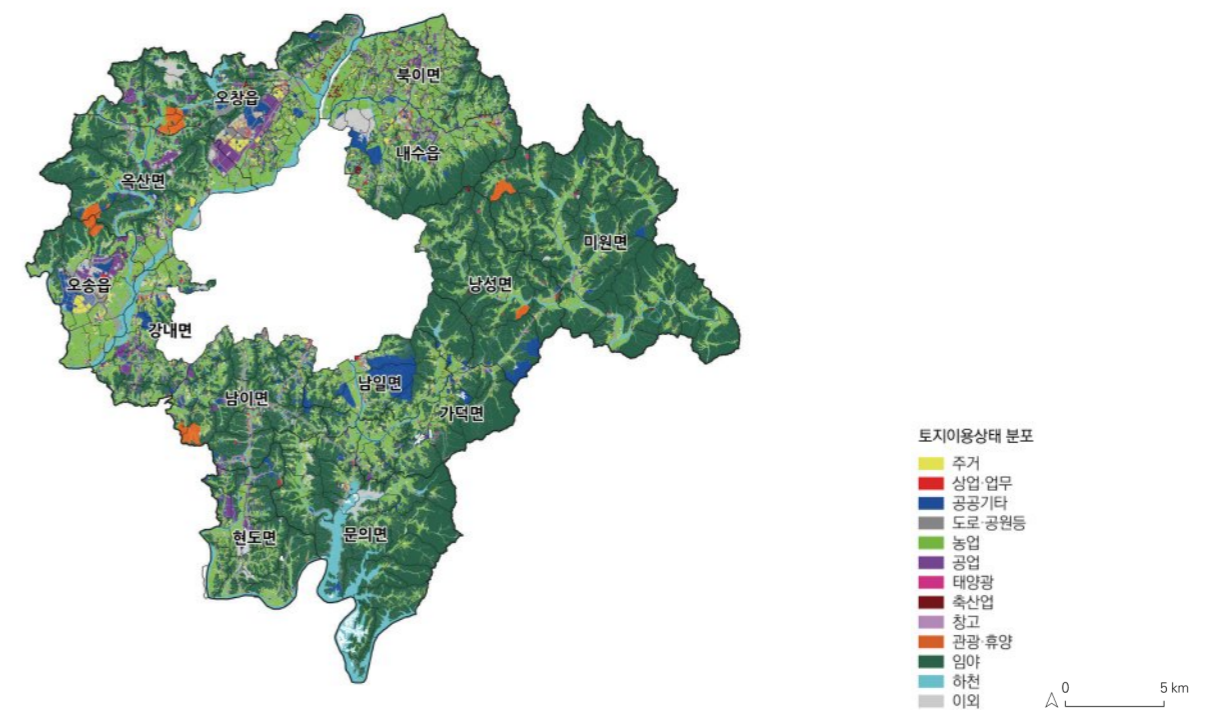
오창읍에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충북테크노파크, 서오창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공업지역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사이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병행된 양상을 보인다. 오송읍 역시 오송생명과학단지과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넓은 공업지역이 조성되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함께 개발되어 산업기능과 생활 기능이 복합적으로 집적된 구조를 보인다. 다만 도시적 특성이 강한 오창읍과 오송읍 일대에서도 농림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중심으로 농경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은 청주시 농촌공간의 중요한 특징으로 확인된다.



한편 오창읍과 오송읍 사이에 위치한 옥산면·강내면·현도면·북이면 등에도 공업지역이 분포하며,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개별 입지 공장이 곳곳에서 관찰된다. 오창읍과 오송읍에서는 공업지역 인근에 공장용지가 집적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반면, 북이면·내수읍·강내면 일대에서는 농경지 사이로 공장용지와 축사 등이 분산되어 입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동 지역의 동측과 남측 인접 구간에는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가 띠 형태로 분포하고 있으며, 문의면의 대부분은 개발이 제한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오창읍·옥산면·오송읍·남이면·미원면·낭성면 일대에는 관광·휴양용지가 비교적 큰 면적으로 분포하는데, 이는 주로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한 골프장에 해당한다.

이처럼 청주시는 읍·면별로 생활기능과 공업·농업·관광 기능이 혼재된 경관이 형성되기도 하고, 자연환경이 중심이 되는 경관이 나타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농촌 토지이용 유형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공간 구조를 보인다.



읍·면 단위 농촌 유형과 지표 값 특성

충북 청주시는 도시형 농촌(2개 읍·면), 점·융합형 농촌(6개 읍·면), 농업중심형 농촌(4개 읍·면), 자연우세형 농촌(1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위계

청주시는 오송읍과 오창읍 등 신규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고용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인구밀도는 평균 253명/㎢로 나타난다. 오창과학산업단지기 위치한 청원구 오창읍은 852명/㎢으로 가장 높은 반면, 산간 지역인 상당구 낭성면은 35명/㎢으로 가장 낮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다. 고용밀도 역시 평균 175명/㎢에 비해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한 흥덕구 오송읍이 46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산업 입지에 따른 고용 집중 현상이 확인된다.

생활환경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읍·면 간 생활 여건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생활인프라 접근성의 평균 거리는 5,139m로, KTX 역세권에 위치한 흥덕구 오송읍은 3,627m로 가장 양호한 반면, 산간 지역인 상당구 미원면은 9,116m로 접근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복지센터 접근성은 평균 2,787m이며, 오송읍은 1,828m로 가장 가까운 데 비해, 행정구역 면적이 넓은 미원면은 3,861m로 가장 멀게 나타나 지역 간 차이를 보인다.

생산환경

청주시는 첨단산업 중심지와 근교 농업지역의 특성이 공존하는 공간구조를 보인다. 흥덕구 오송읍(생산가능 인구 비율 75.2%)과 흥덕구 옥산면(제조업종사자 비율 73.7%)은 바이오·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활동 인구가 집중된 지역인 반면, 대청호 주변에 위치한 상당구 문의면은 농가 비율이 37.8%로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농업 기반의 토지이용 특성이 두드러진다.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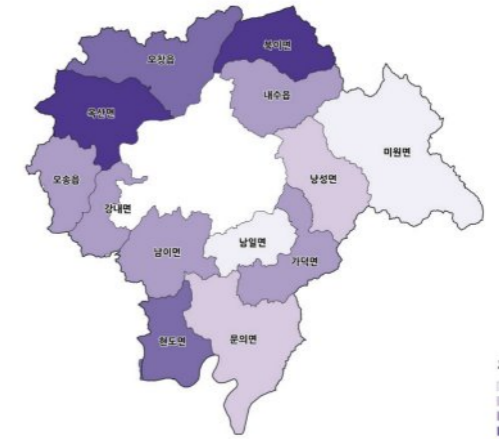
청주시는 개발 압력이 높은 서부 지역과 자연환경이 상대적으로 잘 보전된 동부·남부 지역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연관련 토지이용률은 평균 54.6%로, 대청호와 인접한 상당구 문의면이 82.8%로 가장 높은 반면, 흥덕구 오송읍은 3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내에서 개발과 보전이 공간적으로 양극화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촌 유형
 A 도시형
 B 점·융합형
 C 농업중심형
 D 자연우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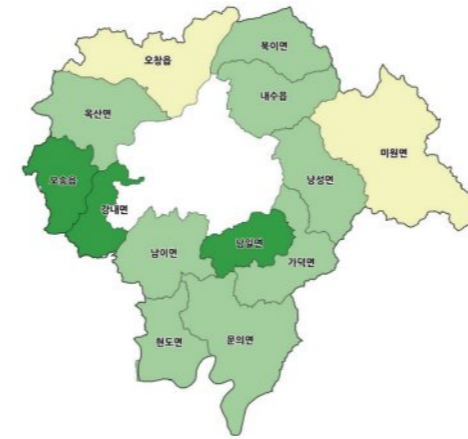
생활인프라 접근성(m)
 1,450-6,656
 6,656-9,972
 9,972-18,595
 18,595-45,247
 45,247-8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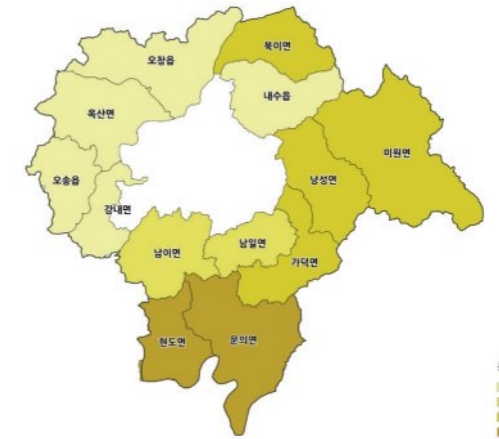
제조업종사자 비율(%)
 0-12
 12-24
 24-40
 40-59
 5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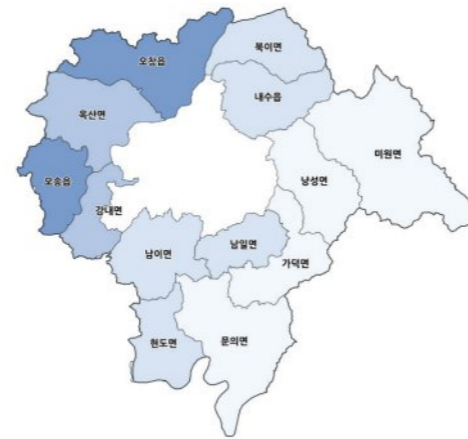
인구밀도(명/㎢)
 2-179
 179-541
 541-1,312
 1,312-2,978
 2,978-8,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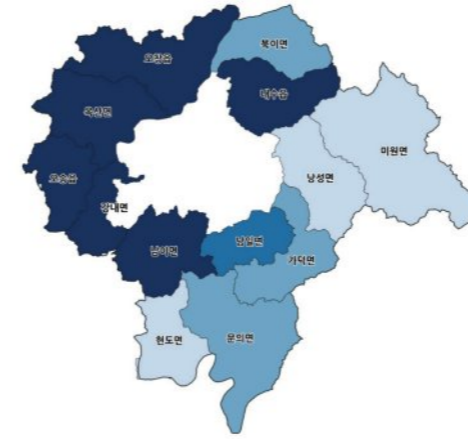
행정복지센터 접근성(m)
 562-2,391
 2,391-3,193
 3,193-4,350
 4,350-6,757
 6,757-20,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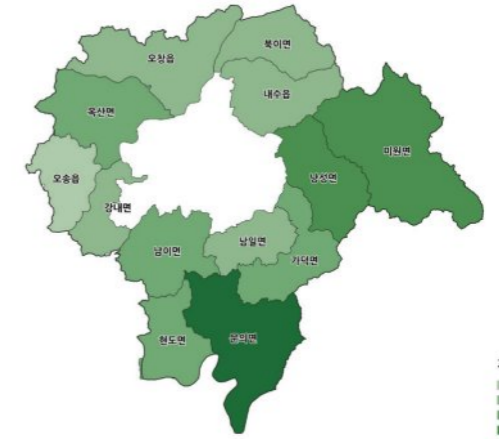
농가 비율(%)
 0-13
 13-24
 24-35
 35-45
 45-65



고용밀도(명/㎢)
 0-61
 61-181
 181-405
 405-787
 787-1,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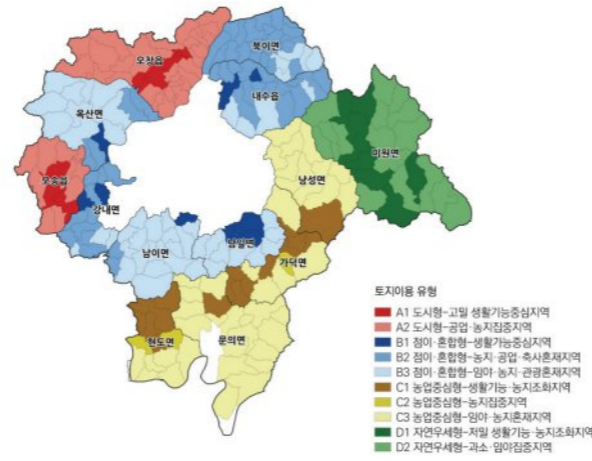
생산가능인구 비율(%)
 36.7-47.1
 47.1-52.4
 52.4-58.8
 58.8-66.2
 66.2-78.3



자연관련 토지이용률(%)
 1-32
 32-51
 51-66
 66-79
 7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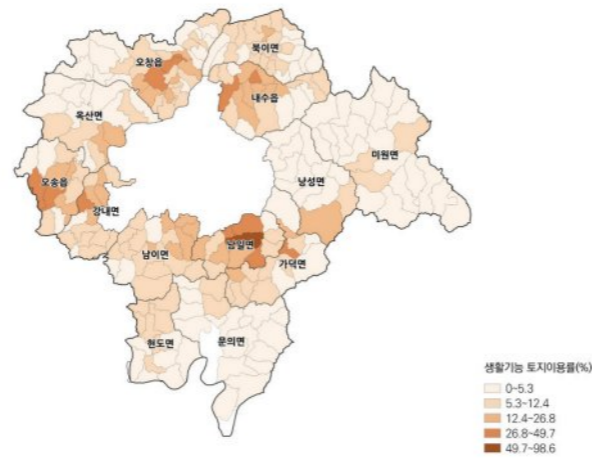
법정리 단위 농촌 토지이용 유형과 지표 값 특성

청주시는 법정리 단위에서 설정한 10가지 농촌 토지이용 유형이 모두 나타나는 지역이다. 오창읍과 오송읍은 택지개발을 통해 생활기능이 집약된 중심부에 A1 유형이 분포하고, 그 주변으로 공업·농지가 혼재된 A2 유형이 둘러싼 구조를 보인다. 옥산면·강내면·남이면·남일면·북이면·내수읍에서는 B1, B2, B3 유형이 혼재되어 나타나며, 이 가운데 옥산면·남이면·남일면은 임야가 함께 분포하는 B3 유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현도면·문의면·가덕면·남성면에서는 일부 생활기능이 중심을 이루는 C1 유형이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는 임야와 농경지가 혼재된 C3 유형이 우세한 양상을 보인다. 한편 미원면은 자연환경 비중이 높은 D1 유형과 D2 유형이 함께 분포하는 지역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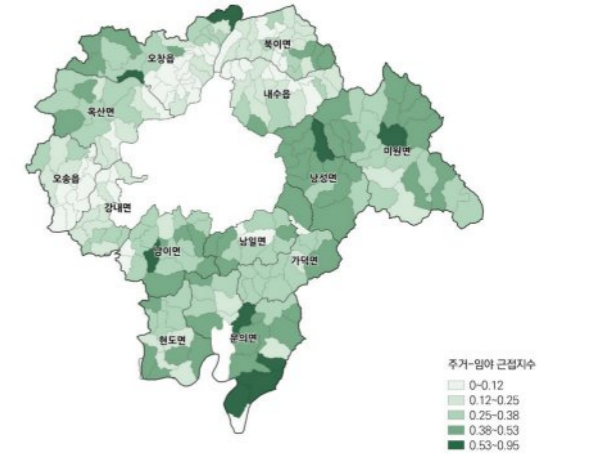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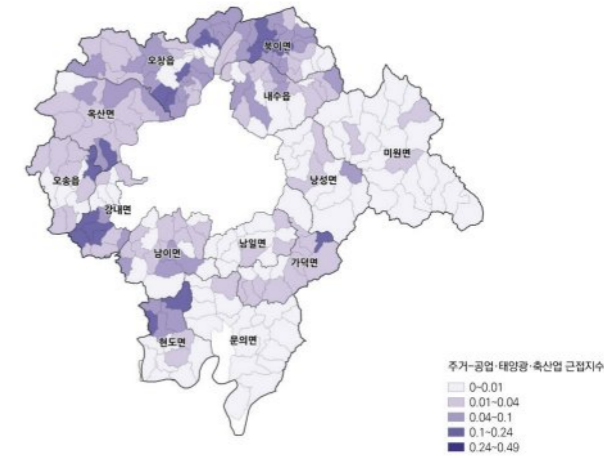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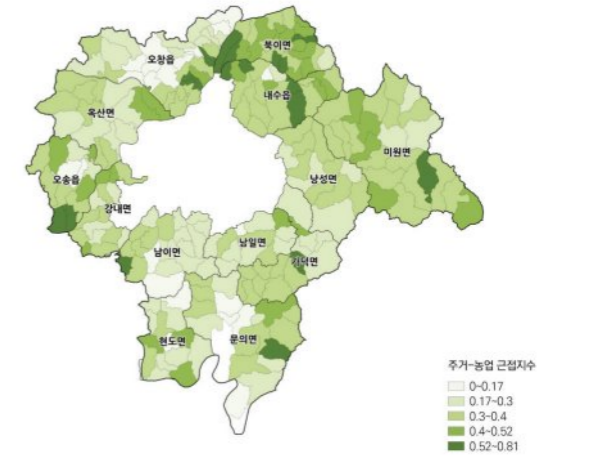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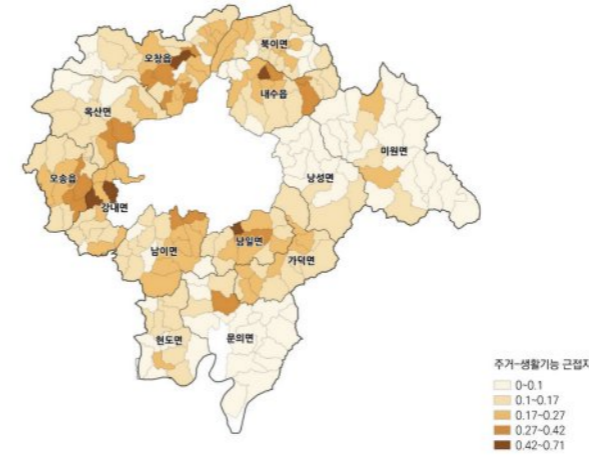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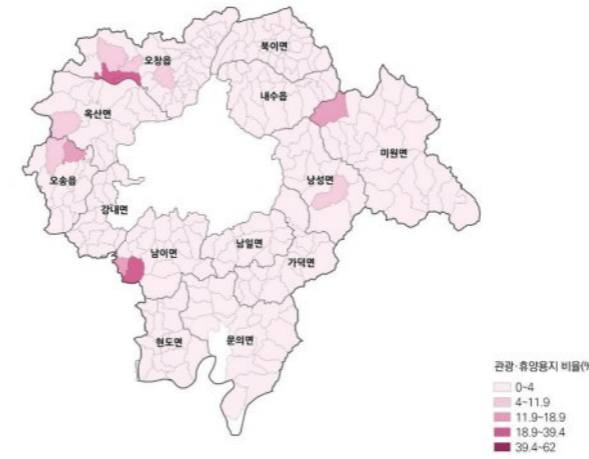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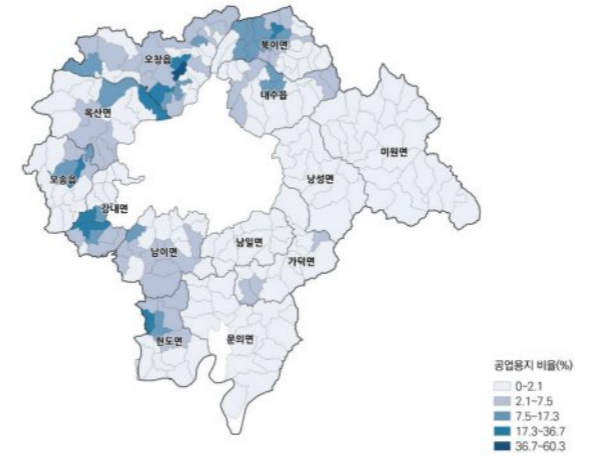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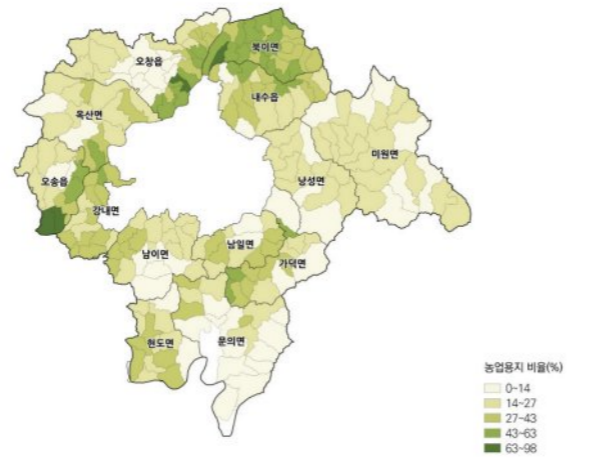
토지이용분포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은 평균 9%로 나타나지만, 청주시청 제3입시청사 등이 위치한 상당구 남일면 쌍수리는 85.4%로 가장 높아 행정-주거 중심지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반면 농업용지 비율은 평균 26.9%인 가운데, 미호강 인접 지역인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는 70.1%에 달해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토지이용 특성을 보인다. 특히 공업용지 비율은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된 청원구 오창읍 송대리가 43.1%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휴양용지 비율은 골프장 등이 위치한 오창읍 백현리가 33%로 확인되며, 법정리 단위에서 특정 기능의 집중과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토지이용혼재도

주거지와 타 용도 간의 근접 정도를 나타내는 혼재도는 지역별 입지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는 평균 0.16으로, 오창읍·오송읍·내수읍·강내면·남일면 일부 법정리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한국교원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흥덕구 강내면 월탄리가 0.51로 가장 높아 생활 편의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분석된다. 반면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농업용지 비율이 높은 북이면·내수읍·오송읍·오창읍 일부 법정리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며, 청원구 오창읍 도암리는 0.78로 주거지와 농업 활동이 밀접하게 혼재된 지역으로 확인된다. 주거-공업·태양광·축산업 근접지수는 공업용지 비율이 높은 북이면·오창읍·옥산면·오송읍·강내면·현도면 일대에서 높은 값을 보이는데, 흥덕구 오송읍 쌍청리(0.24)가 가장 높게 나타나, 주거지와 생산시설의 인접에 따른 정주환경 관리 필요성이 시사된다. 한편 대청호 주변 산간 지역인 상당구 문의면 후곡리는 주거-임야 근접지수가 0.72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법정리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도시형
고밀 생활기능중심지역

오송읍 오송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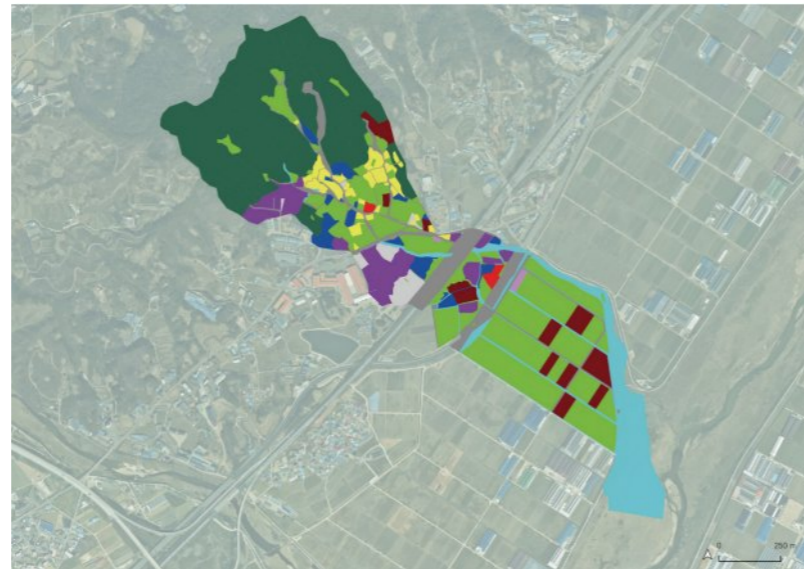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17.5%이고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가 0.38로 나타나, 주거지와 생활기능이 밀접하게 배치된 생활편의성이 높은 지역으로 확인된다. 농업용지 비율은 37.2%로, 생활기능이 집적된 구역을 둘러싸고 농경지가 넓게 분포하는 공간구조를 보인다. 한편 농업용지와 관광 휴양용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주거지와 농경지 중심의 토지이용 구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도시형
공업·농지집중지역

오창읍 일신리

청원구 오창읍 일신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약 6.7%, 농업용지 비율이 약 29.3%로 농경지와 소규모 주거지가 함께 분포하는 지역이다. 주거지 배후에는 임야가 넓게 분포하고, 전면부에는 농경지가 펼쳐지는 공간구조를 보인다. 한편 농업용지 비율이 약 6%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북서측 외곽에 대규모 농업용지가 집적되어 있다. 또한 농경지 사이에 규모 있는 축산용지가 바둑판 형태로 분산 입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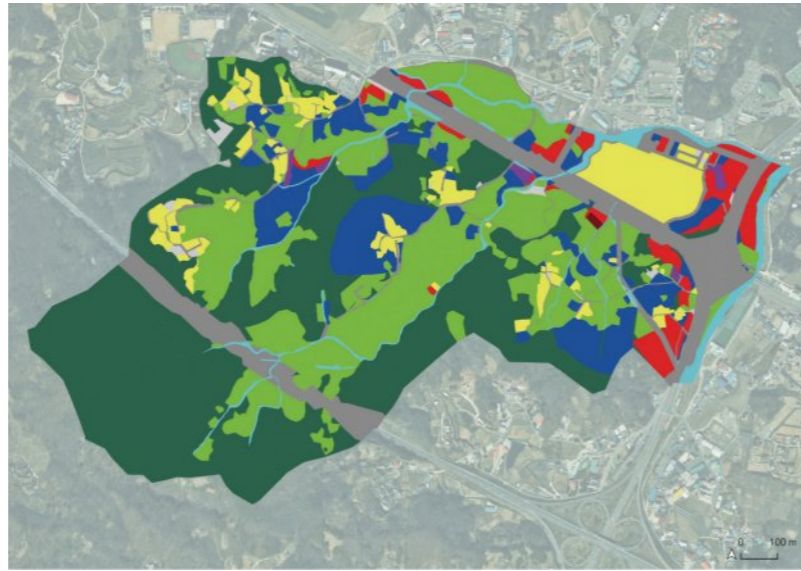
- 주거
- 도로·공원등
- 태양광
- 관광 휴양
- 이외
- 상업·업무
- 농업
- 축산업
- 임야
- 공공기타
- 공업
- 창고
- 하천

법정리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점·혼합형
생활기능중심지역

남이면 가마리

서원구 남이면 가마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20.5%, 농업용지 비율이 26.1%로 나타나 생활기능과 농경지가 유사한 비중을 이루는 지역이다. 남서측에는 넓은 임야가 분포하고, 이를 따라 농업용지와 주거지가 혼재된 공간구조를 보인다. 반면 동측을 중심으로는 대규모 주거용지와 상업·업무용지, 공공·기타용지가 집적되어 있어, 지역 내에서도 생활기능의 집중도가 공간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점·혼합형
농지·공업·축산혼재지역

내수읍 내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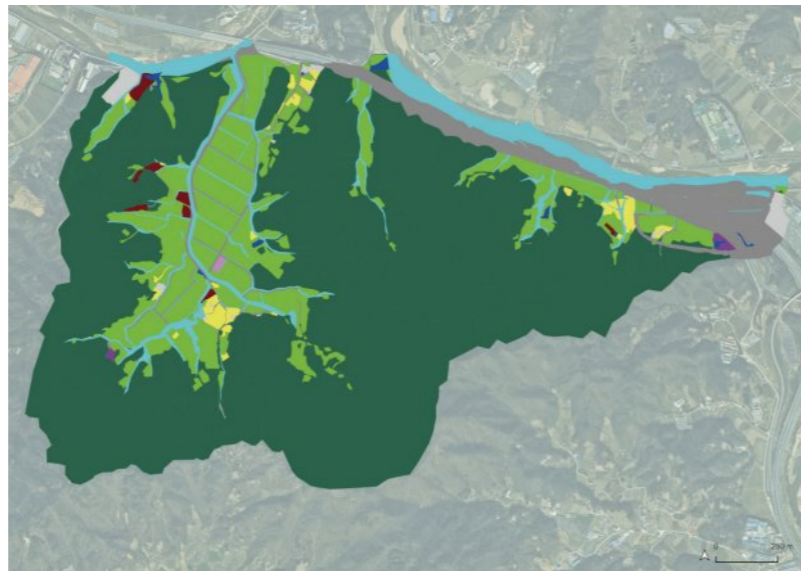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19.5%, 농업용지 비율이 43.1%로 전형적인 농업 기반 공간구조를 보인다. 북측에는 체육공원이 포함된 공공·기타용지가 입지하고, 그 아래로 잘 정리된 농경지가 넓게 분포한다. 남서측에는 생활기능이 비교적 집중된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농경지 사이로 일부 축산용지와 서측의 공업용지가 혼재되어, 주거·농경지·공업 기능이 부분적으로 중첩된 특성이 나타난다.



점·혼합형
임야·농지·관광혼재지역

옥산면 사정리

흥덕구 옥산면 사정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1.3%, 농업용지 비율이 15.6%로 낮은 수준이며, 공업용지나 관광·휴양용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농경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임야와 하천 등 자연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경지 사이에 소규모 축산용지가 분포하고 주거지는 소규모로 분산된 형태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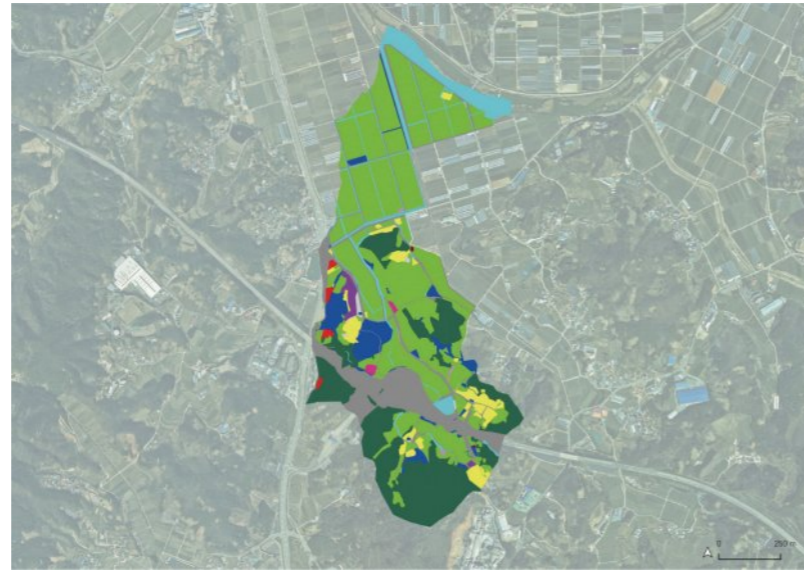


법정리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농업중심형 생활기능·농지조화지역

가덕면 국전리

상당구 가덕면 국전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 10.1%, 농업용지 비율 45.6%로 농경지 비중이 큰 농업 기반 지역이다. 북측에서 남측에 이르기까지 잘 정리된 농경지가 넓게 분포하며, 공업용지나 관광·휴양용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주거지는 분산되어 있으나 남측에 일부 주거지가 집적되어 있으며, 서측에 주거와 공공·기타용지, 상업·업무용지가 함께 집적된 모습이 관찰된다.



농업중심형 농지집중지역

현도면 시목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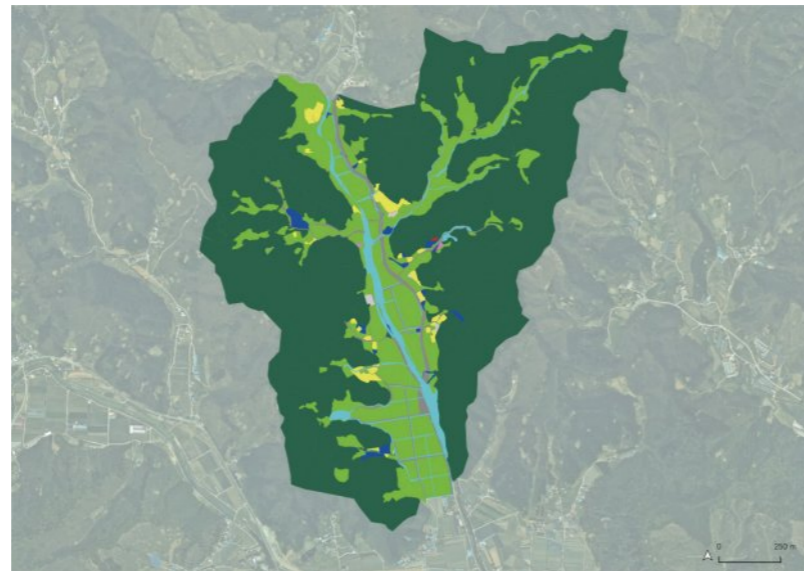
서원구 현도면 시목리는 농업용지 비율 42.4%, 생활기능 토지이용률 4.3%, 주거-농업 근접지수 0.48로 나타나, 넓은 농경지와 소규모 취락이 공존하는 농업 중심 지역으로 확인된다. 일부 입아가 분포하나, 그 외 공업용지나 관광·휴양용지 등 다른 용도의 토지이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농업중심형 임야·농지혼재지역

남성면 문박리

상당구 남성면 문박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2.2%로 매우 낮고 농업용지 비율은 20%에 그치는 반면, 주거-농업 근접지수(0.37)와 주거-임야 근접지수(0.46)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주거지는 점적으로 분산 분포하며 도시적 생활권과는 거리를 두고 있으나, 주거지와 농경지·임야가 근접한 자연친화적 정주환경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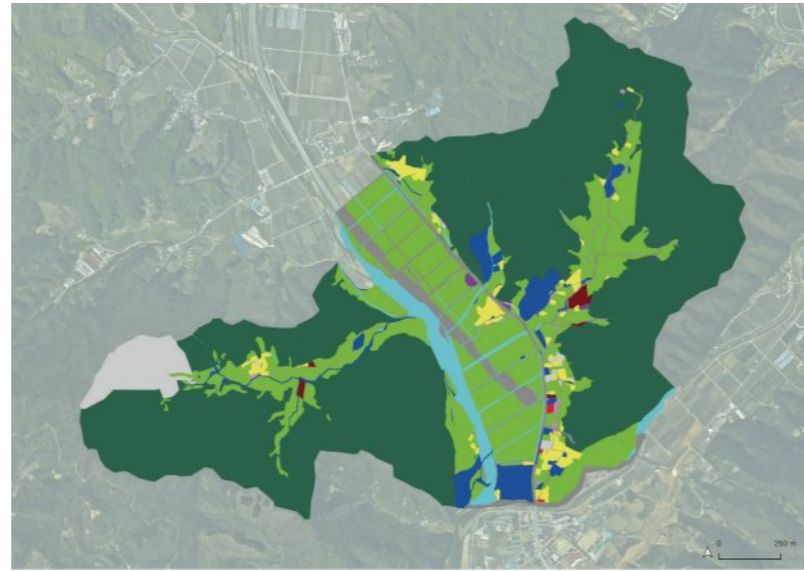


법정리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자연우세형
저밀 생활기능 농지조화지역

미원면 내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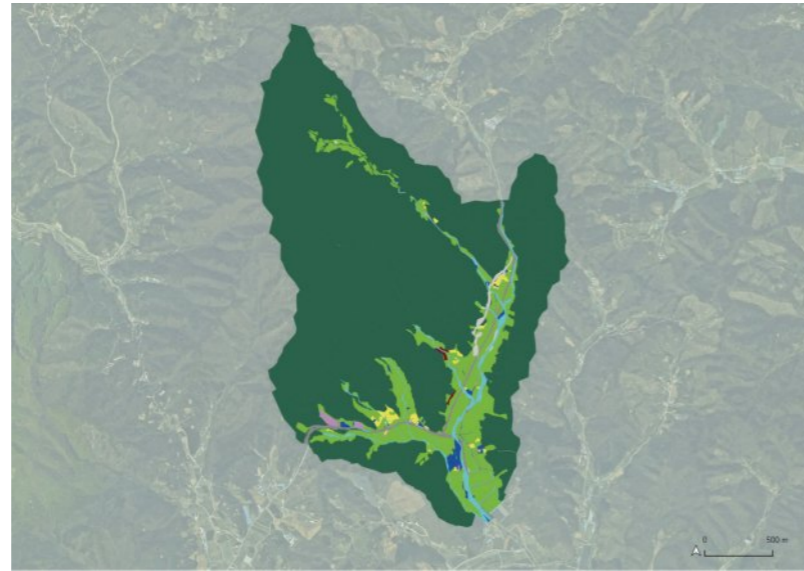
상당구 미원면 내산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 5.4%, 농업용지 비율 22.1%로 낮은 편이며,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0.39로 나타난다. 임야가 넓게 분포하는 가운데 경지 정리가 이루어진 농경지가 선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사이를 따라 소규모 취락이 분산되어 입지하는 공간 구조를 보인다. 일부 농경지 사이에는 비교적 큰 규모의 공공·기타 용지와 축산용지가 분포하고 있다.



자연우세형
과소·임야집중지역

미원면 대덕리

상당구 미원면 대덕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1%, 농업용지 비율이 9.7%로 나타나 생활기능과 농업기능이 모두 미약한 지역이며, 대부분이 임야로 구성된 지역으로 평가된다. 도시적 생활권과는 다소 떨어져 있으나 하천을 따라 형성된 농경지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주거-농업 근접지수 0.34). 주거지는 집단적인 취락을 형성하기 보다는 점적으로 분산 분포하는 특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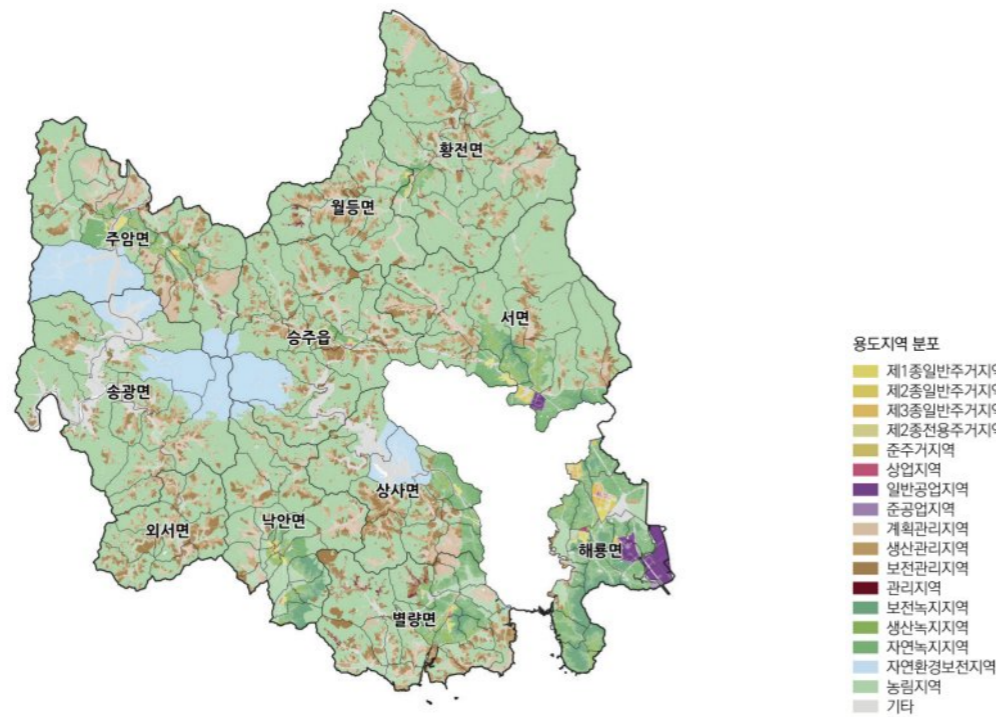
- 주거
- 도로·공원등
- 태양광
- 관광 휴양
- 이외
- 상업·업무
- 농업
- 축산업
- 임야
- 공공기타
- 공업
- 창고
- 하천



성숙안정형 강소도시
: 전남 순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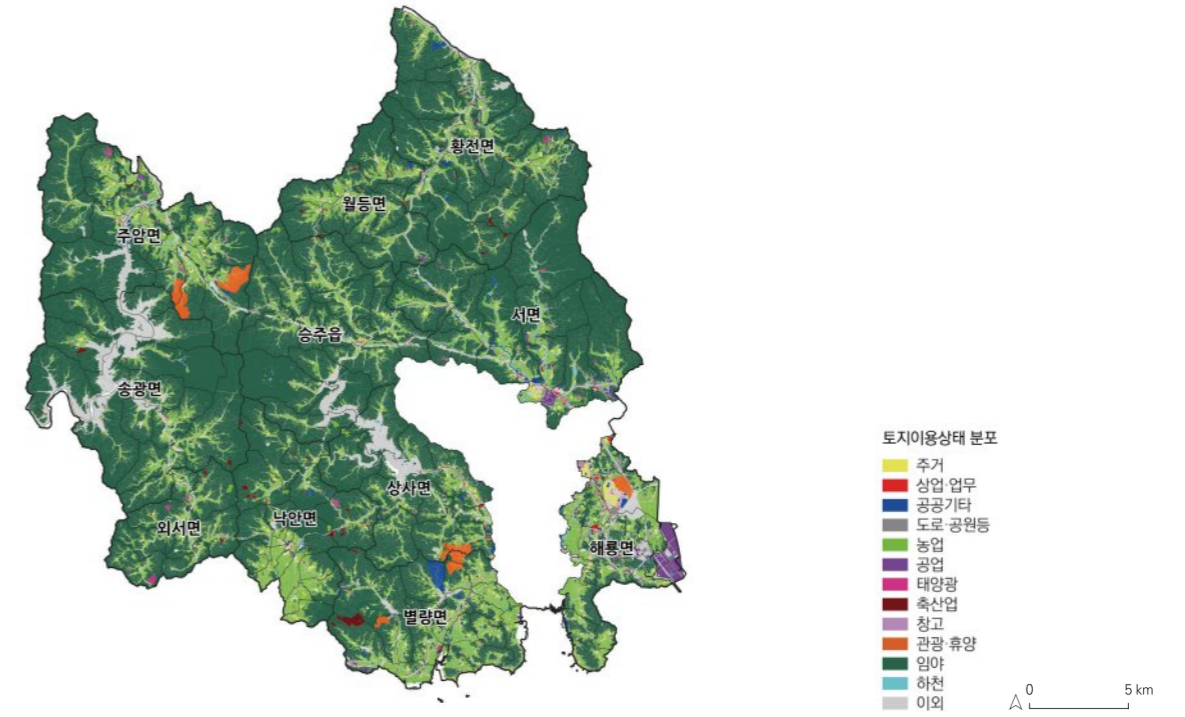
순천시는 농업·관광·생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안정형 강소도시로, 일부 읍·면에서는 도시형 농촌(A)과 점·융합형 농촌(B)이, 외곽부에서는 농업중심형 농촌(C)을 중심으로 자연우세형 농촌(D)이 공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전체 농촌 토지이용 유형 10개 가운데 9개 유형이 분포할 정도로 토지이용 특성이 다양하다. 특히 송주읍이 전형적인 농업중심형 농촌의 성격을 보이는 반면, 동 지역과 인접한 해룡면은 도시형 농촌, 서면은 점·융합형 농촌의 특성이 두드러지며 상대적으로 도시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해룡면과 서면에는 넓은 공업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여수시와 광양시에 인접한 해룡면에서는 광양만 배후로 산업단지가 넓게 분포하는 동시에 주거 등 생활기능과 관광·휴양용지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토지이용 양상을 보인다. 이 지역의 주거지는 산업 기능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외곽부는 자연녹지지역이 띠 형태로 둘러싸는 구조를 이루고 있어 도시적 요소와 자연환경이 결합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평택시나 청주시에 비해 순천시는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공장용지가 산재하는 양상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다. 농경지 면적이 넓은 해룡면·별량면·낙안면·주암면 일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임야와 농경지가 혼재하는 모습을 보인다. 농경지 주변으로는 소규모 농촌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임야 사이에는 관광·휴양용지, 축산용지, 태양광용지 등이 점상으로 분포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주암면·송광면·송주읍·상사면 일대는 개발이 제한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순천시 외곽부의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전되고 있다.

이처럼 순천시는 순천만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생태환경과 전통적인 농촌 경관, 그리고 일부 지역의 도시적 기능이 어우러지며, 자연과 도시, 농업과 관광이 공존하는 농촌의 모습을 보여준다.



읍·면 단위 농촌 유형과 지표 값 특성

전남 순천시는 도시형 농촌(1개 읍·면), 점·융합형 농촌(1개 읍·면), 농업중심형 농촌(7개 읍·면), 자연우세형 농촌(2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농업적 특성이 우세한 지역으로 나타난다.

지역위계

순천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해룡면을 중심으로 인구와 고용이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인구밀도는 평균 145명/km²이며, 신대지구 등이 위치한 해룡면은 1,123명/km²으로 가장 높은 반면, 산간 지역인 송광면은 13명/km²으로 가장 낮아 지역 간 격차가 크다. 고용밀도 역시 평균 49명/km²에 비해 해룡면이 364명/km²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읍·면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

생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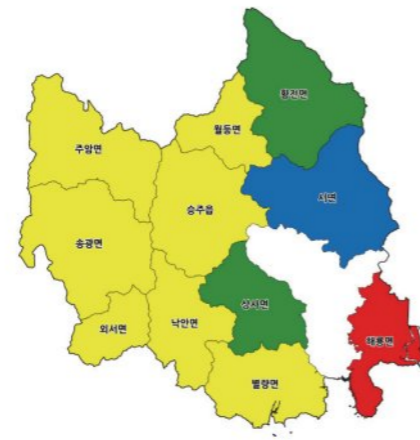
도심 접근성에 따라 생활인프라 이용 편의성에 차이가 나타난다. 생활인프라 접근성의 평균 거리는 8,333m로, 도심과 인접한 해룡면이 3,455m로 가장 양호한 반면 외곽 산간 지역인 주암면은 13,902m로 접근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복지센터 접근성은 평균 3,125m이며, 면사무소가 생활권 중심에 위치한 월동면이 2,063m로 가장 가까운 반면, 행정구역 면적이 넓은 상사면은 4,622m로 가장 멀게 나타나 지역 간 차이가 뚜렷하다.

생산환경

순천시는 도시 근교형 산업 지역과 전통 농업지역으로 공간적 성격이 구분된다. 해룡면은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72.7%로 높고, 서면은 제조업종사자 비율이 22.7%로 나타나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복합된 생산 활동 중심지의 특성을 보인다. 반면 해룡면·서면·상사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읍·면에서는 농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특히 송광면(59.6%)과 황전면(58.7%)에서 두드러져 농업 중심지로서의 성격이 뚜렷하다.

자연환경

자연관련 토지이용률은 평균 73%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며, 조계산 도립공원이 위치한 송광면은 8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시화가 진행된 해룡면은 36.7%로 가장 낮아, 개발 수준에 따라 자연환경 특성에 차이를 보인다.



농촌 유형
 A 도시형
 B 점·융합형
 C 농업중심형
 D 자연우세형



생활인프라 접근성(m)
 1,450-6,656
 6,656-9,972
 9,972-18,595
 18,595-45,247
 45,247-8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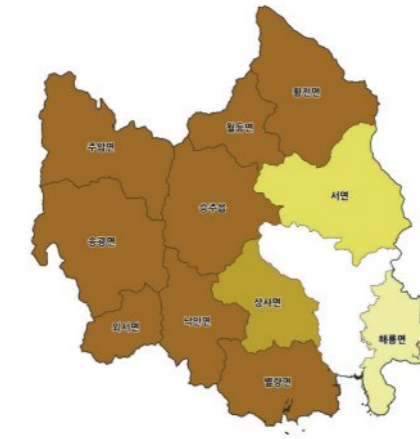
제조업종사자 비율(%)
 0-12
 12-24
 24-40
 40-59
 59-84



인구밀도(명/km²)
 2-179
 179-541
 541-1,312
 1,312-2,978
 2,978-8,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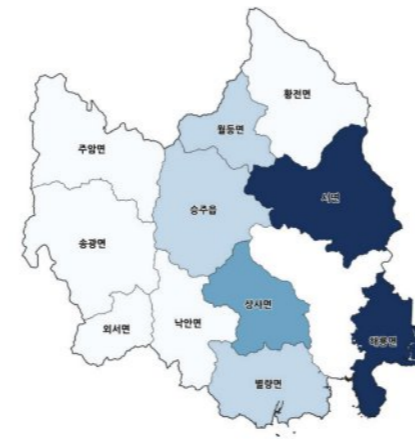
행정복지센터 접근성(m)
 562-2,391
 2,391-3,193
 3,193-4,350
 4,350-6,757
 6,757-20,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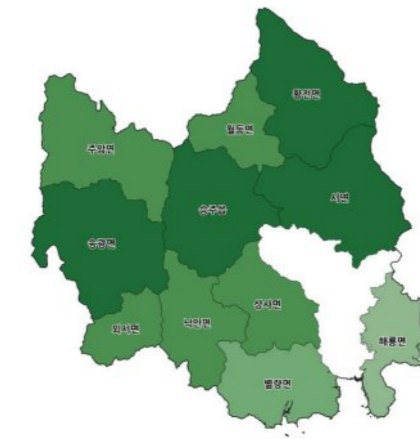
농가 비율(%)
 0-13
 13-24
 24-35
 35-45
 45-65



고용밀도(명/km²)
 0-61
 61-181
 181-405
 405-787
 787-1,520



생산가능인구 비율(%)
 36.7-47.1
 47.1-52.4
 52.4-58.8
 58.8-66.2
 66.2-78.3



자연관련 토지이용률(%)
 1-32
 32-51
 51-66
 66-79
 79-97

법정리 단위 농촌 토지이용 유형과 지표 값 특성

순천시 법정리의 대부분은 C3 유형으로 임야와 농경지가 혼재된 공간구조를 보인다. 한편 해룡면은 도시형 농촌 내에서도 공업·농지가 집중된 A2 유형, 서면은 점야·혼합형 농촌 가운데 임야와 농지·관광기능이 혼재된 B3 유형이 주를 이룬다. 상사면과 황전면의 경우 자연우세형 농촌의 D1, D2 유형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토지이용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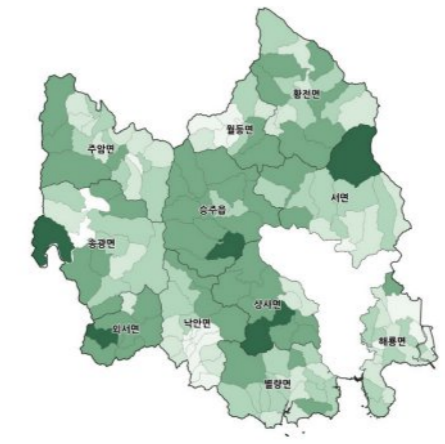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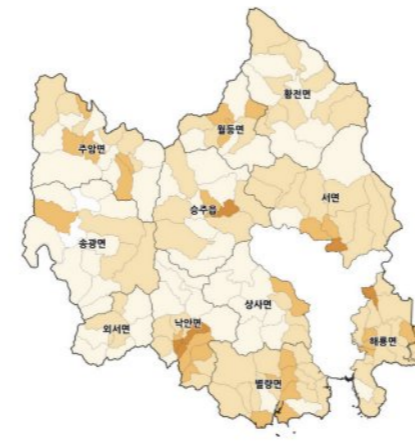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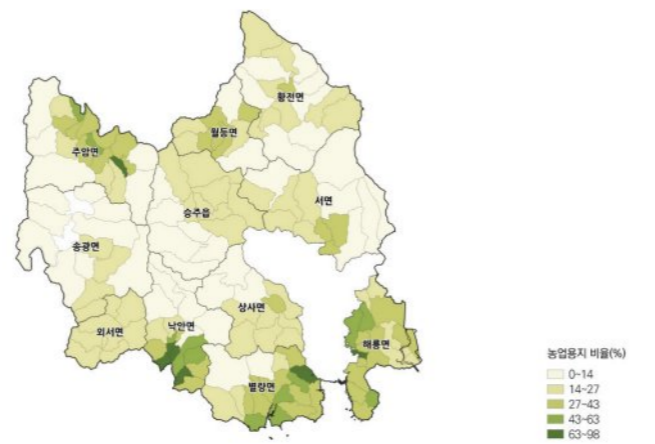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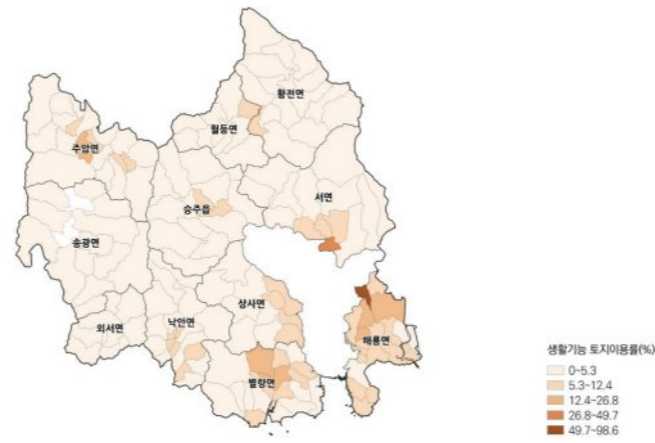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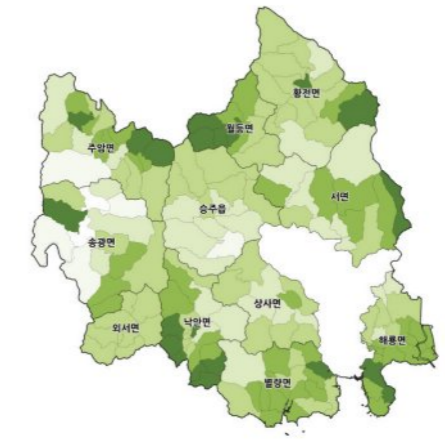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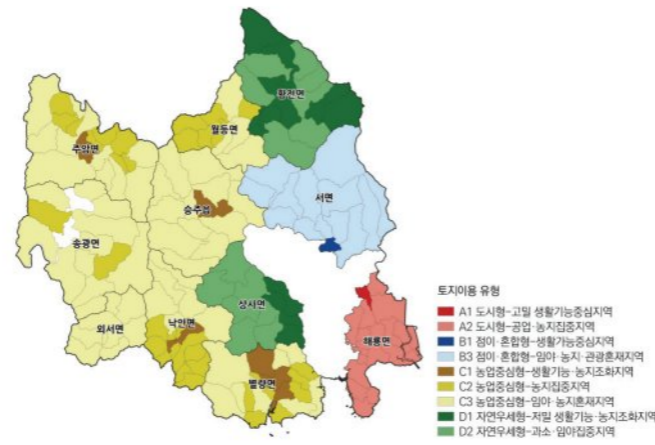
생활가능 토지이용률은 평균 4.6%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해룡면·서면·별량면 일부 법정리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관찰된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해룡면 상삼리는 50.9%로 가장 높아 도시적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농업용지 비율은 평균 25.2%로, 낙안면·별량면·주암면·해룡면 일부 법정리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며, 낙안읍성 인근의 낙안면 남내리는 87.8%에 달해 농업 기반 토지이용 특성이 두드러진다. 공업용지 비율은 해룡면 법정리를 중심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울촌산단이 위치한 해룡면 신성리가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한편 관광·휴양용지 비율은 별량면·주암면 일대 법정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주암호 인근의 주암면 문길리는 22.5%로 확인된다.

토지이용혼재도

주거지와 타 용도 간의 공간적 근접 정도를 보여주는 혼재도는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주거-생활가능 근접지수는 평균 0.13으로, 해룡면·낙안면·송죽읍·서면 일부 법정리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낙안읍성 관광지와 주거지가 밀집된 낙안면 동내리는 0.41로 가장 높아 생활 편의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분석된다.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낙안면·주암면·월등면 일부 법정리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데, 낙안면 이곡리는 0.65로 주거지와 농업 활동이 밀접하게 혼재된 대표적인 사례로 확인된다.

주거-공업-태양광-축산업 근접지수는 낙안면 창녕리가 0.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주거지와 생산시설 간 혼재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거-임야 근접지수는 서면·상사면·외서면·송광면·송죽읍 일부 법정리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며, 이 가운데 서면 청소리는 0.58로 가장 높은 값을 보여 주거지와 임야가 인접한 자연친화적 정주환경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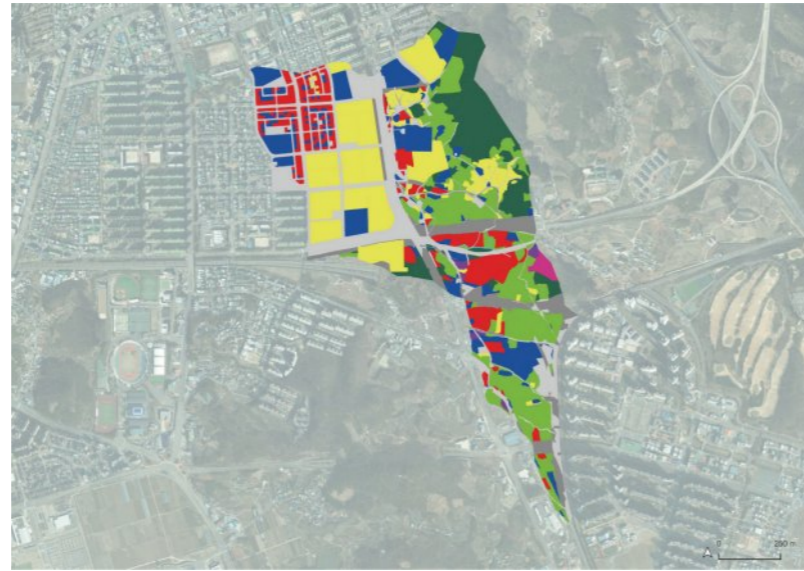


법정리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도시형 고밀 생활기능중심지역

해룡면 상삼리

해룡면 상삼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약 51%로, 주거, 상업·업무, 공공·기타 등 생활기능 용지가 과반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가 0.39로 나타나 생활편의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한편으로는 농경지와 임야가 일부 공존하는 공간구조를 보인다.



도시형 농업·농지집중지역

해룡면 도룡리

해룡면 도룡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8%로 낮은 반면, 농업용지 비율은 42.4%로 높고 주거-농업 근접지수도 0.45로 나타나 농업 기반의 성격이 뚜렷한 지역이다. 서측에는 경지 정리가 반듯하게 이루어진 대규모 농업용지가 넓게 펼쳐져 생산 기능이 강하게 나타난다. 반면 동측에는 임야가 분포하고 남측의 완만한 경사지에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일부 상업·업무 및 공공·기타용지가 혼재되어 있다.



법정리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점·혼합형
생활기능중심지역

서면 선평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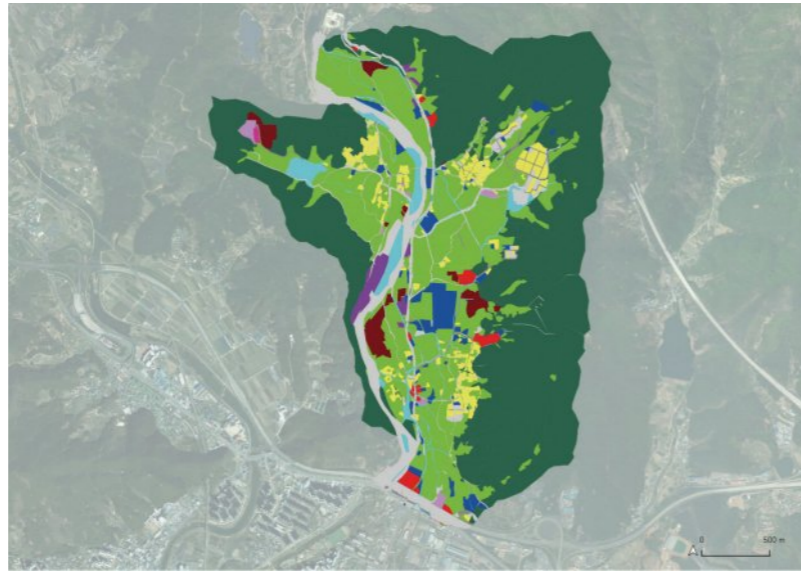
서면 선평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32.6%,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가 0.36으로, 대규모 주거용지를 중심으로 상업·업무 및 공공·기타용지가 집약되어 생활 편의성이 비교적 높은 지역이다. 농업용지 비율도 28%로 나타나며, 주로 남서측 외곽에 농경지가 분포한다. 한편 공업용지 비율은 15.6%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동측으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생활기능과 산업기능이 공존하는 공간구조를 보인다.



점·혼합형
임야·농지·관광혼재지역

서면 지본리

서면 지본리는 농업용지가 약 29%를 차지하고, 나머지 60% 이상은 임야 등 자연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하천을 따라 농업용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농경지 사이로 집적된 주거지와 상업·업무 및 공공·기타용지, 공업·축산용지가 혼재되어 분포한다. 주거-농업 근접지수가 0.4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주거지와 농경지가 공간적으로 밀접한 특성을 보인다.



법정리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농업중심형
생활기능·농지조화지역

별량면 봉림리

별량면 봉림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 12.9%이며, 농업용지 비율 40%, 주거-농업 근접지수 0.4로 나타나, 생활기능과 농업이 공존하되 농업기능의 비중이 두드러진 지역이다. 농경지 사이로 주거지가 집적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상업·업무 및 공공·기타용지, 공업·축산용지가 혼재되어 분포한다. 특히 남측에는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농업용지가 넓게 펼쳐져 있어 생산 중심의 농촌공간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농업중심형
농지집중지역

별량면 원창리

별량면 원창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5.6%로 매우 낮은 반면, 농업용지 비율은 34.5%로 높고 주거-농업 근접지수 0.42로 나타나, 농경지가 우세한 가운데 주거와 농경지가 공간적으로 밀접하게 배치된 지역이다. 북동측에는 임야가 분포하며, 산자락이 남측으로 넓게 펼쳐진 농경지와 맞닿는 지점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는 축산용지가 비교적 큰 규모로 조성되어 있어 농업·축산 기능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농업중심형
임야·농지혼재지역

주암면 비룡리

주암면 비룡리는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농업용지(11.5%)가 일부 공존하는 지역이다.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은 0.8%에 불과해 생활기능의 집적은 매우 제한적이며, 농경지 사이로 소규모 취락이 산재한 형태가 관찰된다.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0.33으로 주거지와 농경지가 비교적 근접한 편이나, 주거-임야 근접지수가 0.52로 더 높게 나타나 주거지가 임야와 더욱 근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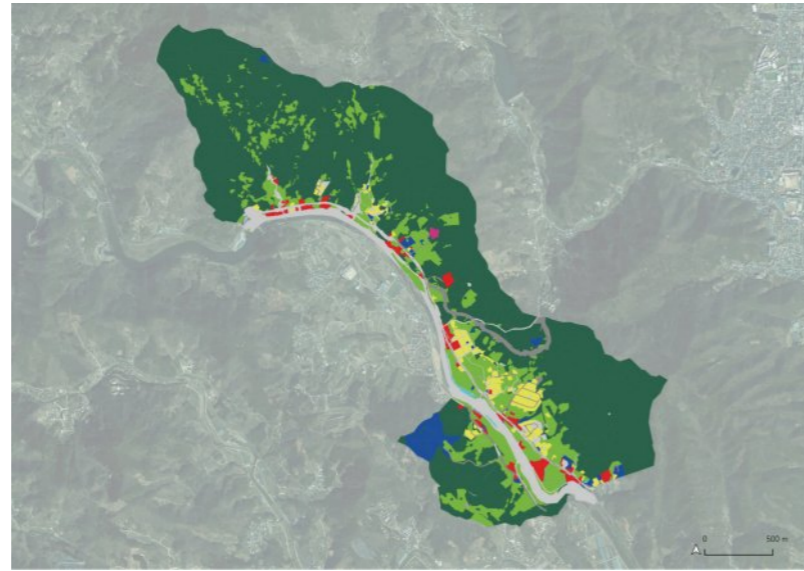


법정리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자연우세형
저밀 생활기능·농지조화지역

상사면 흘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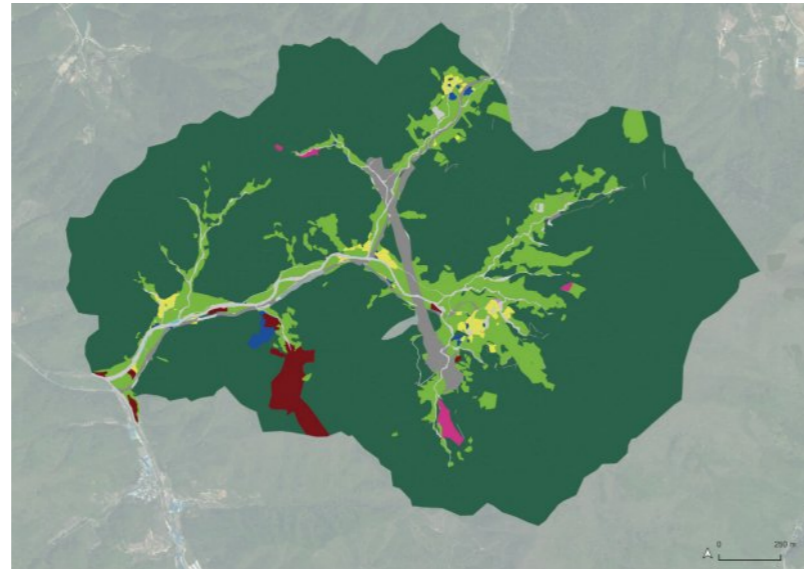
상사면 흘산리는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임야가 차지하고 있어 가용 토지가 제한적인 지역이다.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은 7.1%, 농업용지 비율은 16.7%로 나타나 생활 및 농업기능 모두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중앙을 관통하는 주요 교통축을 따라 상업·업무용지와 주거지가 선형적으로 집적되어 있으며, 그 주변으로 일부 농업용지가 분포하는 공간구조를 보인다.



자연우세형
과소·임야집중지역

황전면 평촌리

황전면 평촌리는 임야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산지형 농촌지역으로, 임야 사이에 농업용지와 도로가 형성되어 있다. 생활기능 토지이용률(1.3%)과 농업용지 비율(11.3%)이 모두 낮아 생활·생산기능의 집적은 매우 제한적이다. 주거지는 소규모로 산재해 있으나, 주거-농업 근접지수(0.36) 및 주거-임야 근접지수(0.42)가 비교적 높아 농경지와 임야에 인접한 정주 특성을 보인다. 남서측 산자락에는 일부 축산·태양광용지가 분포한다.



성숙안정형 강소도시
: 충남 당진시

당진시는 점·혼합형 농촌(B)과 농업중심형 농촌(C)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공업 및 농업 복합 도시로, 북쪽에 위치한 송악읍·송산면·석문면 일대에서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전통적인 농촌지역이 인접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토지이용 특성은 산업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존하는 중간 도시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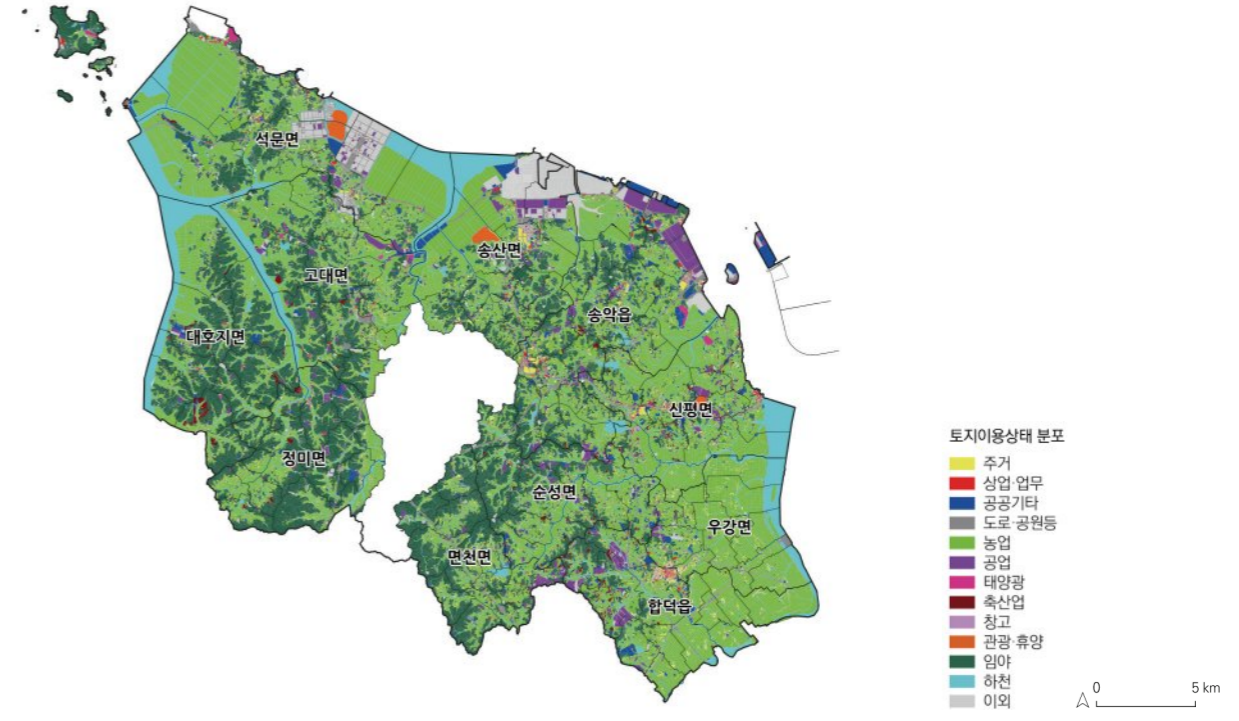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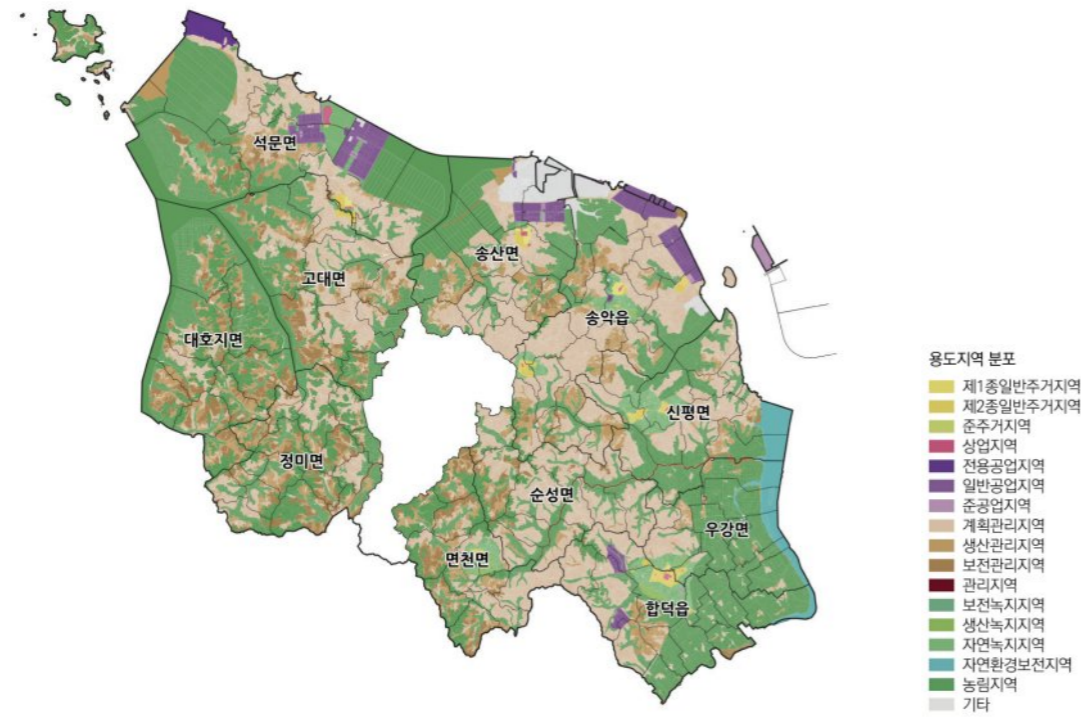
송악읍에는 아산국가산업단지 충남고대·충남부곡지구가, 석문면에는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송산면에는 일반산업단지가 각각 넓은 면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합덕읍에도 일반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다. 평택시와 청주시에서 관찰된 바와 유사하게, 이들 산업단지 인근과 계획관리지역 내 농경지 사이에는 개별 입지 공장들이 들어선 공장용지가 산재해 분포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한편 석문면·송산면·송악읍·신평면·우강면·합덕읍 등 서해에 면한 간척지 일대에는 넓은 농림지역이 연속적으로 펼쳐져 있으며, 대규모 필지를 기반으로 한 농업경관이 형성되어 있다. 남쪽에 위치한 대호지면·정미면·면천면·순성면 일대에서는 임야와 농경지가 함께 분포하는 농촌 경관이 나타난다.

석문면과 송산면의 간척지 일부에는 골프장이 입지한 관광·휴양용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신평면에서도 공장용지와 인접한 소규모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대호지면·정미면·고대면 일대에는 임야와 농지 사이에 축산용지가 분포하는 경향이 나타나, 농업·축산·임야가 복합적으로 얹힌 토지이용 특성이 관찰된다.

한편 송산면·석문면·송악읍 일부 지역에는 주거지역이 분포하고 있으나, 대규모 산업단지와 주거·상업지역이 함께 집적·개발된 청주시와는 달리, 당진시는 산업단지 인근에 생활기능이 대규모로 형성되는 양상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주거·상업 등 생활기능의 비중은 공업 기능에 비해 낮으며, 산업 중심의 공간 성격이 보다 두드러진다.

이처럼 당진시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공업 기능과 간척지를 기반으로 한 농업 경관이 공존하는 공간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읍·면 단위 농촌 유형과 지표 값 특성

충남 당진시는 점이·혼합형 농촌(5개 읍·면)과 농업중심형 농촌(6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유형은 북서측과 남동측으로 구분되어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지역위계

당진시 읍·면 지역은 현대제철 등 대규모 산업단지의 입지 여부에 따라 인구와 고용의 중심지가 뚜렷이 구분된다. 인구밀도는 평균 145명/km²로 나타나며,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장 활발한 송악읍은 372명/km²으로 최고치를 보이는 반면, 농촌 지역인 대호지면은 34명/km²으로 가장 낮다. 고용밀도 역시 평균 85명/km²에 대비 송악읍은 251명/km²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반면, 대호지면은 8명/km²에 불과해 산업 중심지와 농촌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다.

생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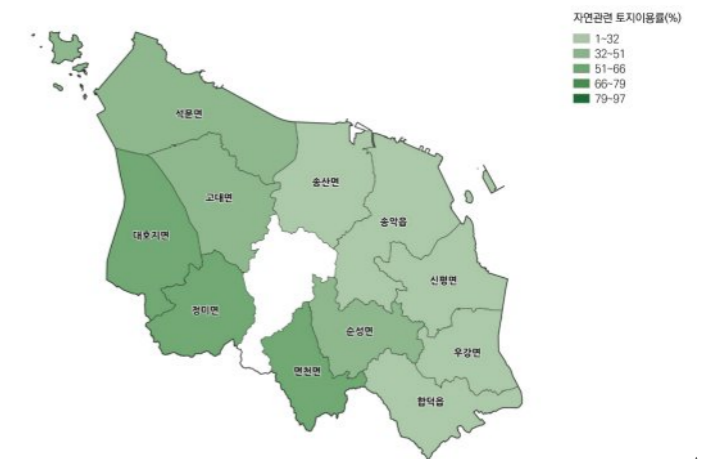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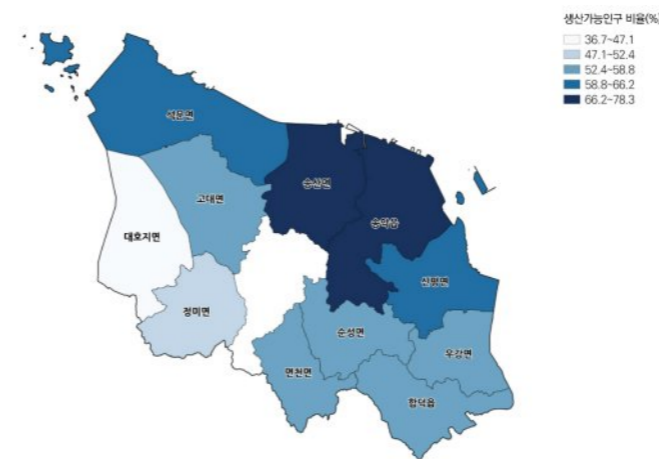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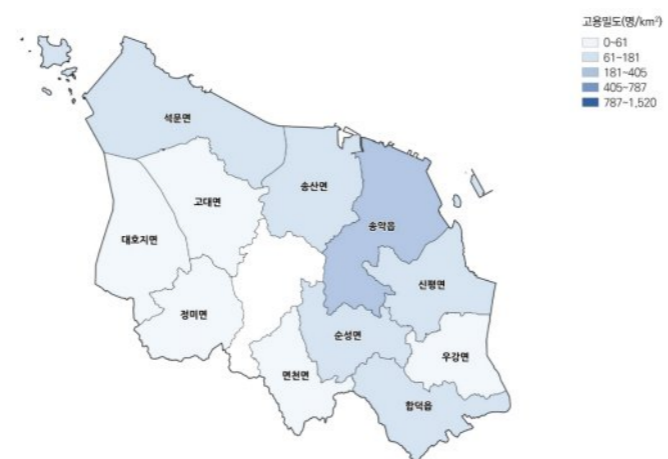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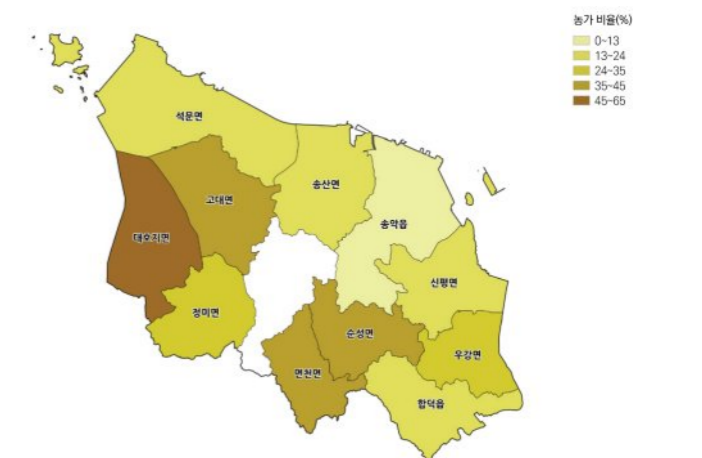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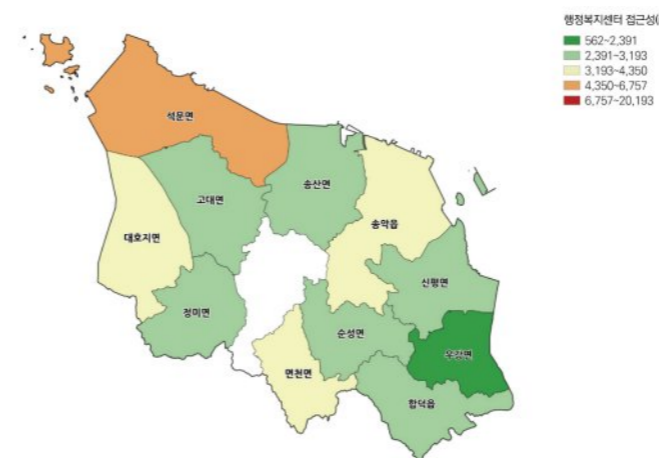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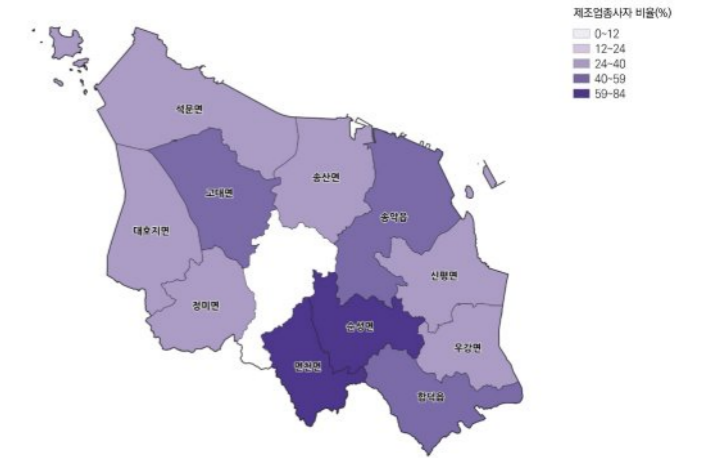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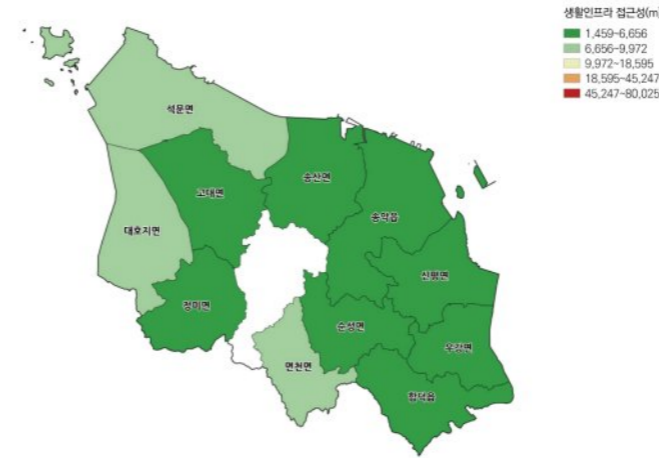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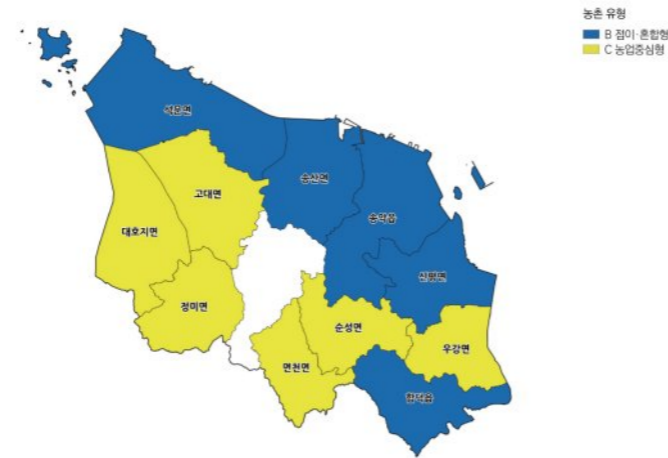
생활인프라 접근성은 평균 6,324m로, 현대제철 배후 주거지인 송산면이 4,930m로 가장 양호한 반면, 해안가에 위치한 석문면은 8,740m로 접근성이 가장 취약하다. 행정복지센터 접근성은 평균 3,120m이며, 평야지대인 우강면은 2,330m로 가장 가까운 데 비해, 면적이 넓은 석문면은 5,265m로 행정서비스 이용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환경

산업 중심지와 농업 중심지의 특성은 뚜렷하게 대조된다. 송산면은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70%로 높고, 면천면은 제조업종사자 비율 67.8%에 달해 산업 활동 인구의 비중이 매우 크다. 반면 대호지면은 농가 비율이 51.6%로 가장 높아 농업 중심지의 성격이 강하다. 한편 면천면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동시에 농가 비율도 39.7%로 상위권에 속해, 동농복합적인 산업구조를 함께 보이는 지역으로 나타난다.

자연환경

자연관련 토지이용률은 평균 37.9%로 낮은 편이다. 대호지면은 61.1%로 가장 높아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있는 반면, 넓은 평야가 발달한 우강면은 19.6%로 가장 낮아 농경지 및 시가지 중심의 토지이용 특성을 두드러진다.



법정리 단위 농촌 토지이용 유형과 지표 값 특성

당진시의 북동측에 위치한 석문면·송산면·송악읍·신평면과 합덕읍에서는 농지와 공업·축사 기능이 혼재된 B2 유형이 주를 이룬다. 반면 남서측에 위치한 대호지면·고대면·정미면·면천면은 임야와 농경지가 혼재된 C3 유형이 중심을 이루며, 순성면과 우강면에서는 C1 유형과 C2 유형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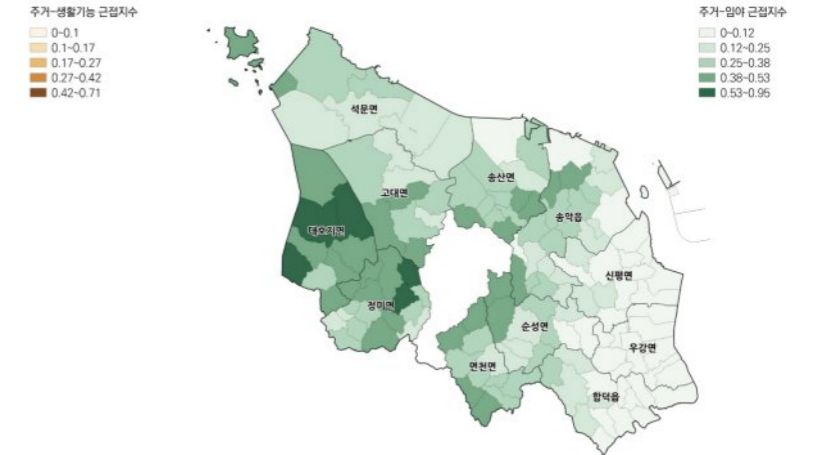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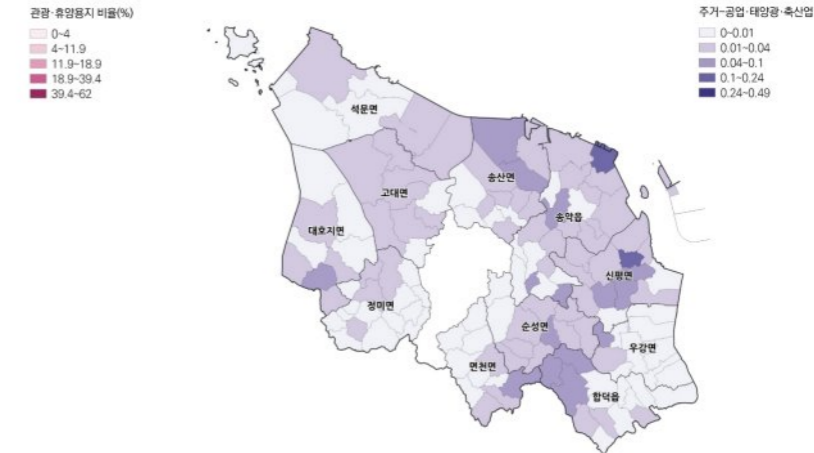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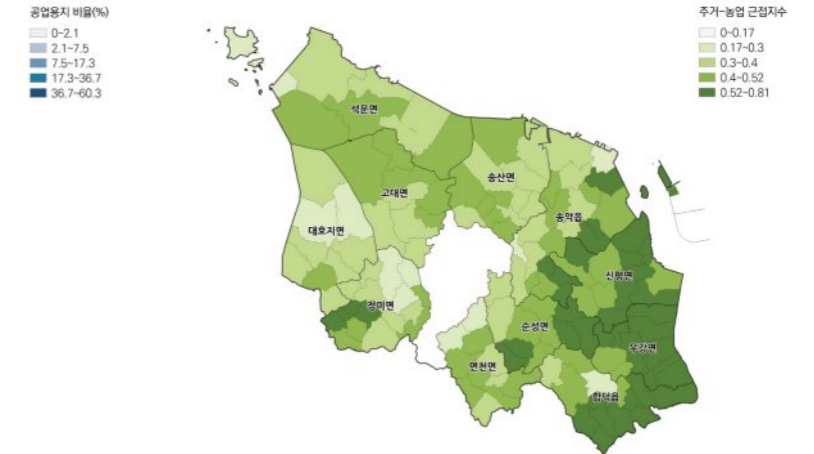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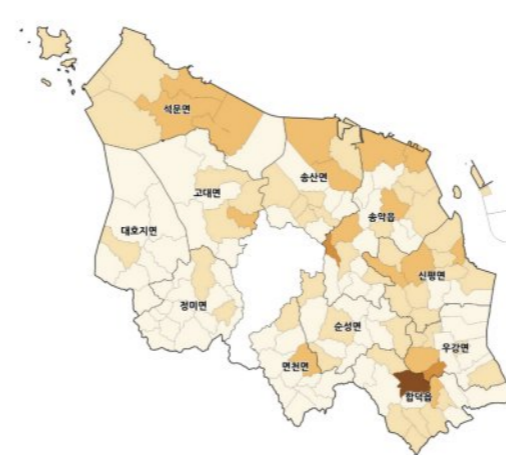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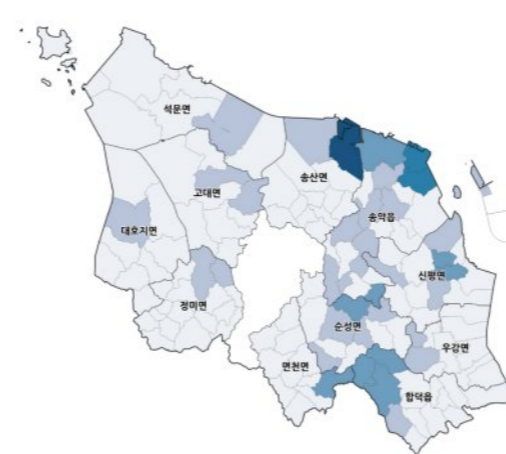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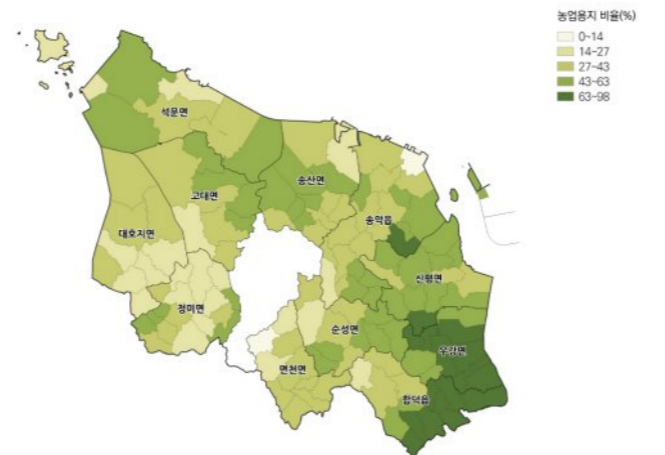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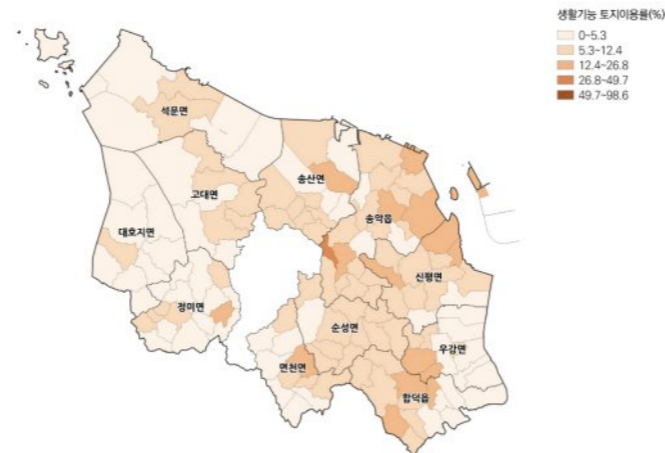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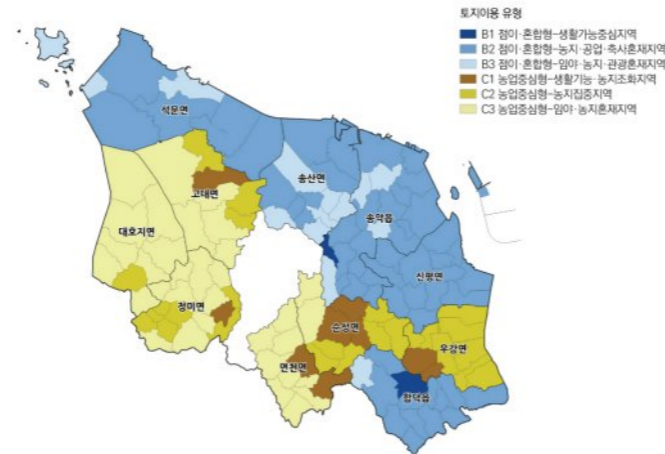
토지이용분포

생활가능 토지이용률은 평균 7.2%로 나타나며, 송악읍·신평면·합덕읍 일대 법정리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이 가운데 주거·상업 기능이 집중된 송악읍 기지시리는 33.5%로 가장 높아 생활권 중심지 역할이 두드러진다. 농업용지 비율은 평균 43.8%로, 우강면과 합덕읍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며, 우강면 공포리는 84.1%에 달해 전형적인 농업 기반 지역의 특성을 보인다. 공업용지 비율은 송산면과 송악읍 일대 법정리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며, 송산면 동곡리는 53.4%로 가장 높아 산업 기능의 국지적 집중이 확인된다. 관광·휴양 용지 비율은 대체로 낮으나, 신평면 도성리가 13.7%로 가장 높아 해안 관광지로서의 입지 특성이 나타난다.

토지이용혼재도

주거지와 타 용도 간의 공간적 근접 정도를 나타내는 혼재도는 지역별로 상이하다. 주거·생활가능 근접지수는 합덕읍 운산리가 0.44로 가장 높아 생활 편의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확인된다.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우강면·신평면·합덕읍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며, 우강면 신촌리는 0.79로 가장 높아 농경지와 주거지가 밀접하게 혼재된 특성을 보인다.

주거·공업·태양광·축산업 근접지수는 송악읍과 신평면의 일부 법정리에서 높게 나타나며, 송악읍 한진리가 0.12로 가장 높아 주거지와 생산시설 간 근접에 따른 갈등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으로 해석된다. 한편 주거·임야 근접지수는 대호지면과 정미면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며, 산림 비중이 높은 대호지면 도이리는 0.59로 가장 높은 값을 보여 주거지의 산지 인접성이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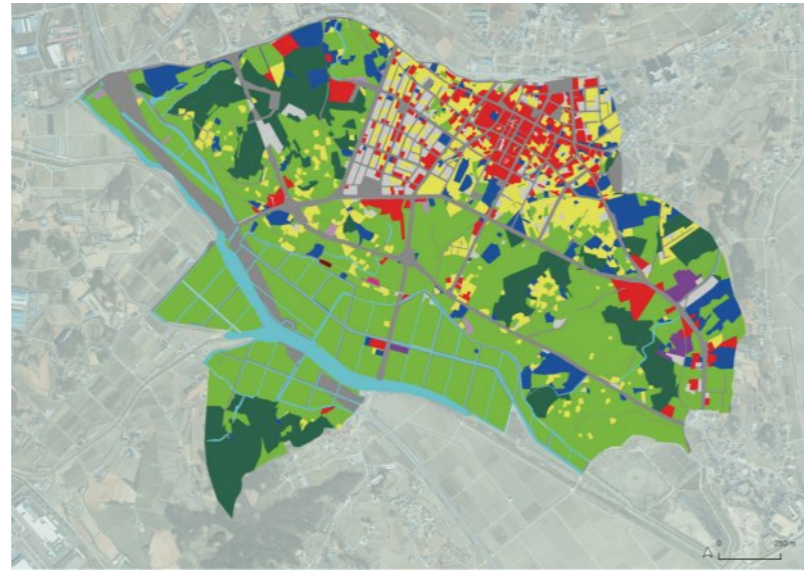


법정리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점·혼합형 생활기능중심지역

합덕읍 운산리

합덕읍 운산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21.4%,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가 0.44로 비교적 높아 생활기능이 집약되고 생활편의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한편 농업용지 비율도 41.2%로 높게 나타나며, 북서측에 생활기능이 집중된 반면 남서측 배후 지역에는 농경지가 넓게 분포해 생활-농업 기능이 공존하는 구조를 보인다.



점·혼합형 농지·공업·축산혼재지역

석문면 교로리

석문면 교로리는 농업용지 비율이 57.1%로 매우 높고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은 3.4%로 낮아, 경지 정리가 이루어진 농업용지가 지배적인 지역이다. 평탄하게 펼쳐진 농경지 경관이 우세하며, 북측에는 비교적 면적적인 큰 태양광용지가 입지해 있다.



점·혼합형 임야·농지·관광혼재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석문면 장고항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6.9%로 낮은 반면, 농업용지 비율은 26.9%로 나타나, 농경지 중심의 토지이용 특성을 보인다.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0.35, 주거-임야 근접지수는 0.32로, 임야와 농경지가 혼재된 가운데 두 용도가 만나는 경계를 따라 주거지가 점적으로 분포하는 공간 구조가 나타난다. 동측에는 대규모 관광·휴양용지가 입지해, 임야와 농지가 혼재된 농촌마을에 관광 기능이 일부 결합된 특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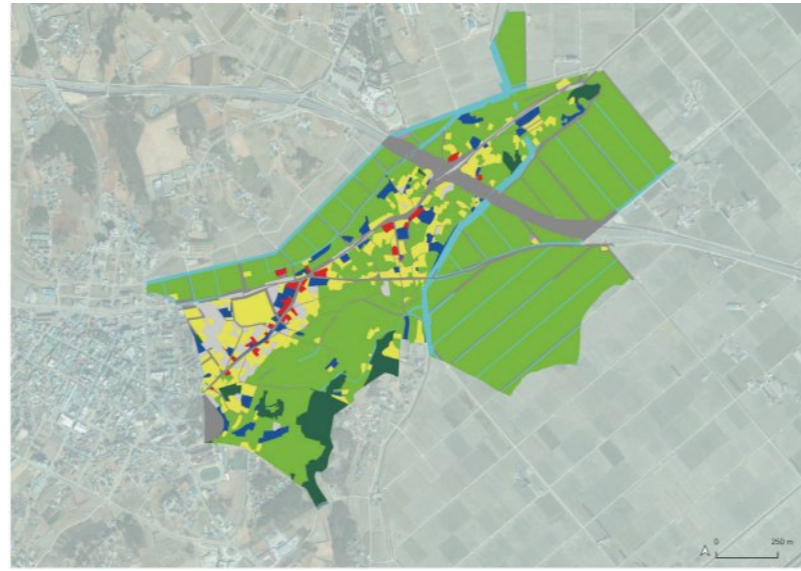


법정리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농업중심형 생활기능·농지조화지역

우강면 창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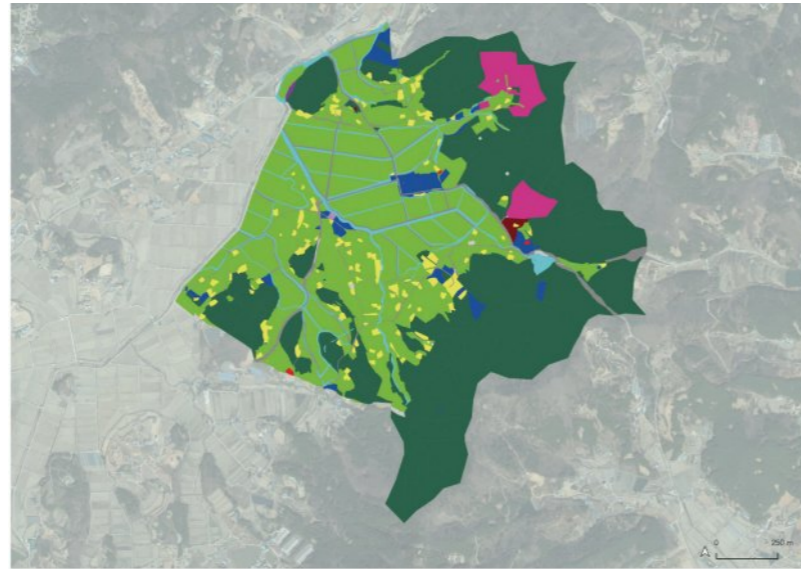
우강면 창리는 농업용지 비율이 61.6%로 높고 주거-농업 근접지수도 0.44로 나타나, 농업 기반이 우세한 가운데 주거와 농경지가 밀접하게 혼재된 지역이다. 전반적으로 경지 정리가 이루어진 대규모 농업용지가 넓게 분포하며, 경작지 사이로 주거 등 생활기능이 띠 형태로 나타난다.



농업중심형 농지집중지역

정미면 매방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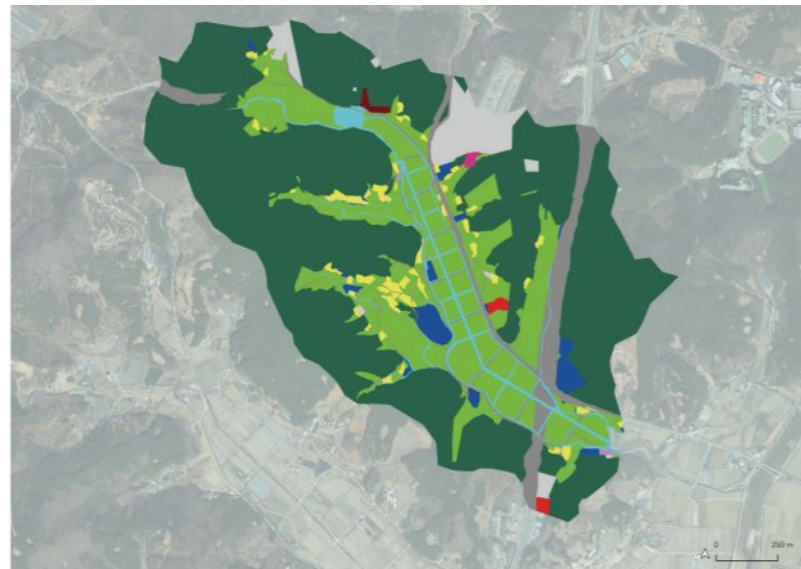
정미면 매방리는 농업용지 비율이 36.3%로 나타나는 가운데 주거-농업 근접지수가 0.53으로 매우 높아, 넓은 농경지가 사이에 주거가 산재하는 공간구조를 보인다. 그 외 지역은 대부분 임야와 자연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동쪽에 대규모 태양광용지가 입지해 있다.



농업중심형 임야·농지혼재지역

정미면 사관리

정미면 사관리는 대부분 임야와 농경지로 구성된 지역으로, 농업용지 비율은 21.5%,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은 4.2%로 나타나 다른 용도의 비중은 크지 않다.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을 임야가 차지하고, 중앙부 하천을 따라 농업용지가 길게 형성되어 있다. 주거지는 농경지와 산자락이 맞닿는 가장자리를 따라 드문 드문 분포하는 소규모 촌락 형태를 보인다.



성숙안정형 자립도시
: 강원 횡성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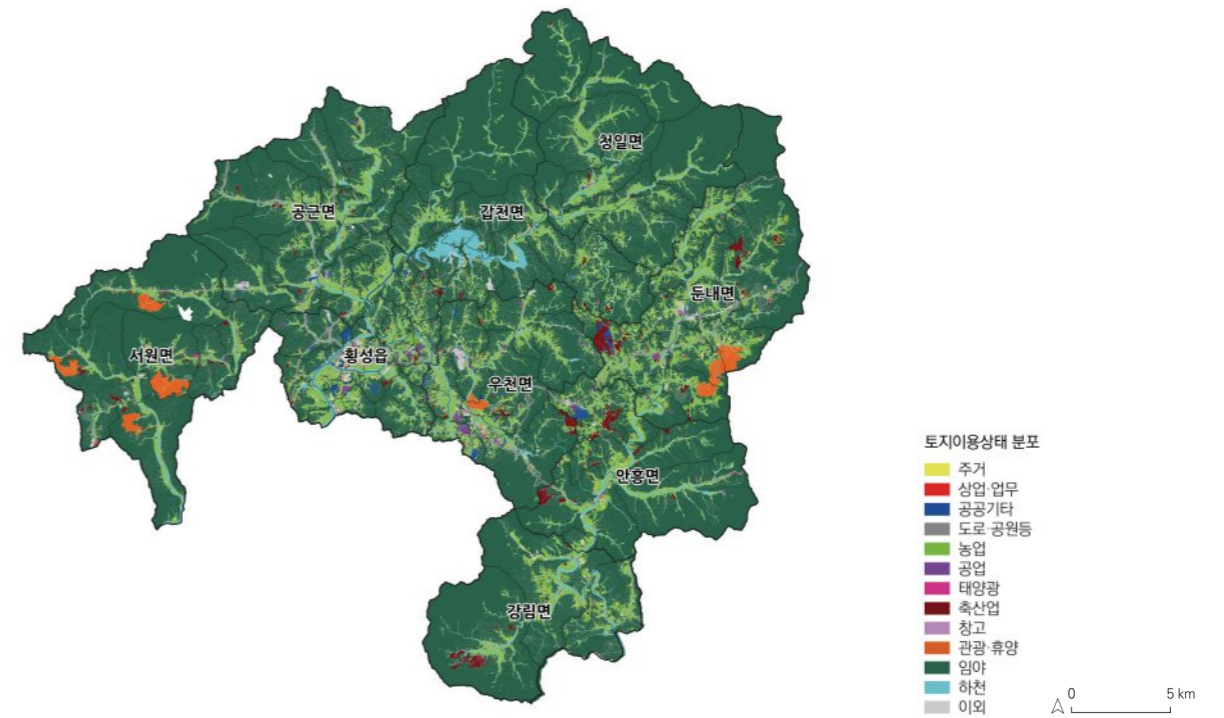
횡성군은 점·혼합형 농촌(B), 농업중심형 농촌(C), 자연우세형 농촌(D)이 공존해 총 8가지 농촌 토지이용 유형이 관찰되는 전형적인 내륙 농촌지역이다. 중심지인 횡성읍에는 주거·상업지역이 비교적 넓게 지정되어 생활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며, 우천면과 둔내면 일대에도 소규모 주거지역이 일부 분포한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읍·면은 농촌적 토지이용 성격이 뚜렷하다.

군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을 임야가 차지하는 가운데, 농경지가 계곡부와 하천을 따라 선형으로 발달해 임야와 농경지가 혼재된 산지형 농촌 경관이 형성되어 있다. 공업지역은 크게 발달하지 못해 횡성읍과 우천면 일대에 일부만 형성되어 있으며, 계획관리지역 내 개별입지 공장이 위치한 점적으로 분포하는 수준에 그친다. 전반적으로 산업 기능은 제한적이며, 농업·임야 중심의 토지이용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서원면과 둔내면을 중심으로 골프장이 입지한 관광·휴양용지가 비교적 많이 관찰되며, 둔내면·안흥면·우천면·강림면·서원면 일대의 임야 사이에 축산용지가 산재해 있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큰 축산용지가 분포하는 점이 횡성군의 특징이다.

한편 강림면·안흥면·우천면·갑천면 일대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며, 강림면과 안흥면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인접부에 대규모 축산용지가 분포해 자연환경과 축산업 활동이 공간적으로 맞물리는 토지이용 양상이 나타난다.

대규모 택지개발은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횡성읍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농경지와 임야 사이에 소규모 농촌 마을이 형성되거나 주거지가 점적으로 분포하는 전형적인 산촌 경관을 이룬다. 횡성군이 산업화보다는 농업·임야·축산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지역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읍·면 단위 농촌 유형과 지표 값 특성

강원 횡성군은 점이 혼합형 농촌(1개 읍·면), 농업중심형 농촌(2개 읍·면), 자연우세형 농촌(6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자연우세형 농촌의 비중이 높다.

지역위계

인구밀도와 고용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군청 소재지인 횡성읍에 인구와 고용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인구밀도는 평균 57명/km²로, 횡성읍은 287명/km²로 가장 높은 반면 서원면은 16명/km²로 가장 낮다. 고용밀도 역시 평균 27명/km²에 비해 횡성읍은 149명/km²로 가장 높고, 갑천면은 2.5명/km²에 불과해 읍·면 간 경제적 활력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생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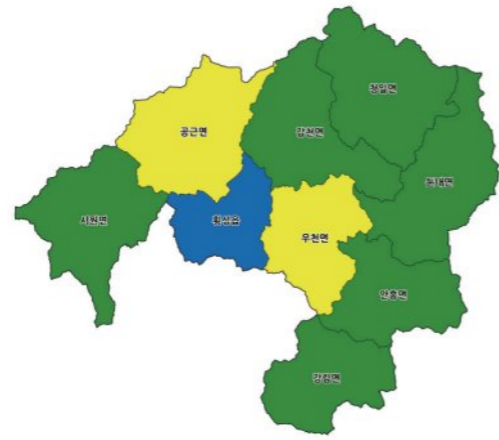
생활인프라와 행정서비스 접근성은 대체로 양호하지 못한 편이다. 생활인프라 접근성은 평균 10,498m이며, 횡성읍이 6,147m로 가장 양호한 반면, 둔내면은 12,748m로 접근성이 가장 취약하다. 행정복지센터 접근성 역시 평균 3,931m로 비교적 먼 수준을 보이며, 횡성읍은 2,784m로 가장 가까운 데 비해 산간 지역인 강림면은 5,001m로 가장 멀게 나타났다.

생산환경

생산환경의 특성은 읍·면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횡성읍이 64.2%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우천면과 안흥면에서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인다. 제조업종사자 비율은 공근면과 우천면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공근면은 61.1%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공근면은 제조업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동시에 농가 비율도 40.4%로 가장 높아, 제조업과 농업이 병존하는 도농복합적 산업구조가 두드러진다. 반면 횡성읍은 농가 비율이 15.1%로 가장 낮아 산업 중심지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자연환경

자연관련 토지이용률은 평균 78.9%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며, 갑천면은 횡성호가 위치한 지역으로 87%에 달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도시화가 진행된 횡성읍조차 62.2%로 비교적 높은 자연관련 토지이용률을 보여, 횡성군 전반에 걸쳐 쾌적한 자연환경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농촌 유형
 ■ B 점이 혼합형
 ■ C 농업중심형
 ■ D 자연우세형



인구밀도(명/km²)
 ■ 2-179
 ■ 179-541
 ■ 541-1,312
 ■ 1,312-2,978
 ■ 2,978-8,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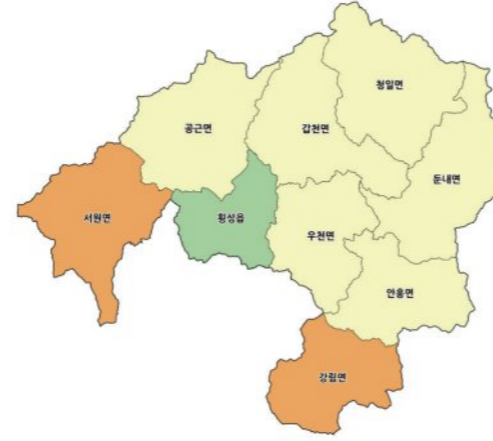


생활인프라 접근성(m)
 ■ 1,450-6,656
 ■ 6,656-9,972
 ■ 9,972-18,595
 ■ 18,595-45,247
 ■ 45,247-80,025

제조업종사자 비율(%)
 ■ 0-12
 ■ 12-24
 ■ 24-40
 ■ 40-59
 ■ 59-84



농가 비율(%)
 ■ 0-13
 ■ 13-24
 ■ 24-35
 ■ 35-45
 ■ 4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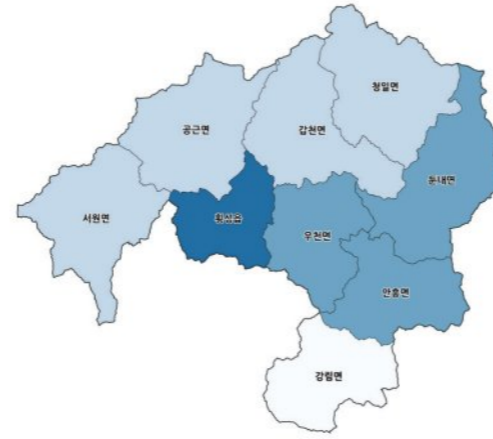


행정복지센터 접근성(m)
 ■ 562-2,391
 ■ 2,391-3,193
 ■ 3,193-4,350
 ■ 4,350-6,757
 ■ 6,757-20,193

농가 비율(%)
 ■ 0-13
 ■ 13-24
 ■ 24-35
 ■ 35-45
 ■ 45-65



고용밀도(명/km²)
 ■ 0-61
 ■ 61-181
 ■ 181-405
 ■ 405-787
 ■ 787-1,520



생산가능인구 비율(%)
 ■ 36.7-47.1
 ■ 47.1-52.4
 ■ 52.4-58.8
 ■ 58.8-66.2
 ■ 66.2-78.3

자연관련 토지이용률(%)
 ■ 1-32
 ■ 32-51
 ■ 51-66
 ■ 66-79
 ■ 79-97

법정리 단위 농촌 토지이용 유형과 지표 값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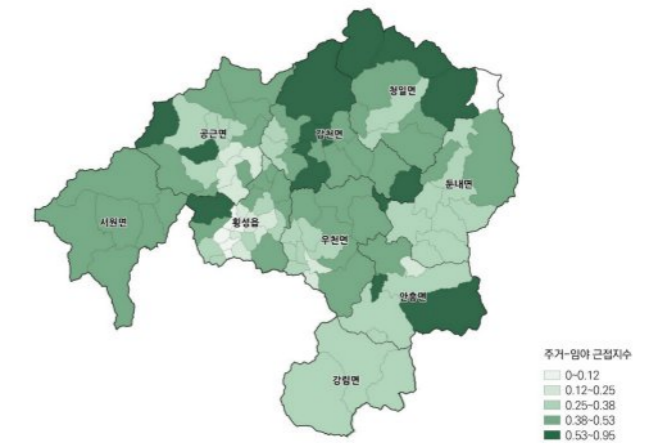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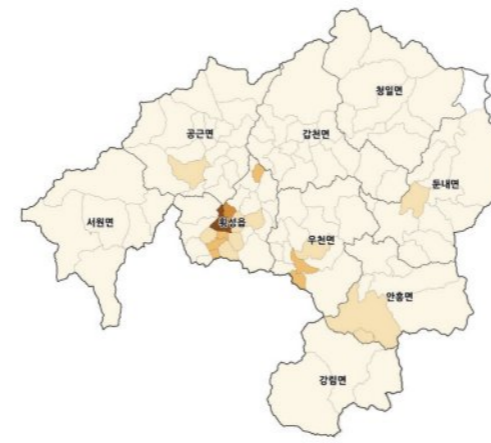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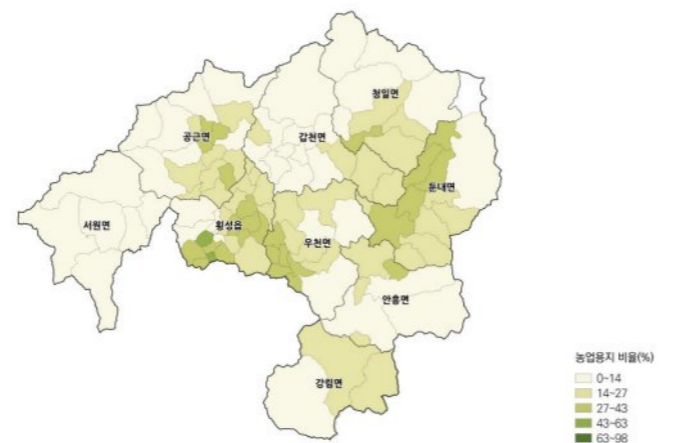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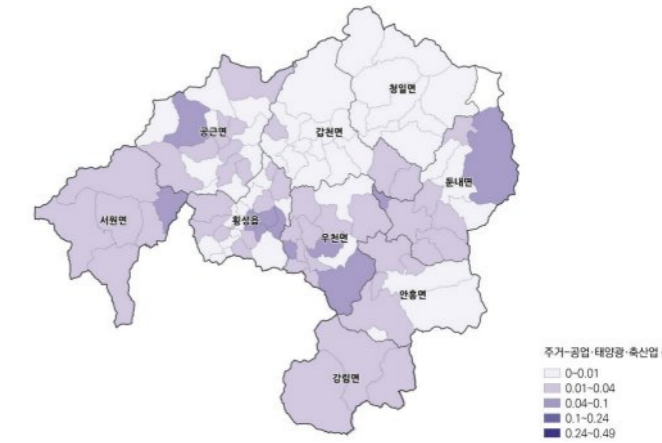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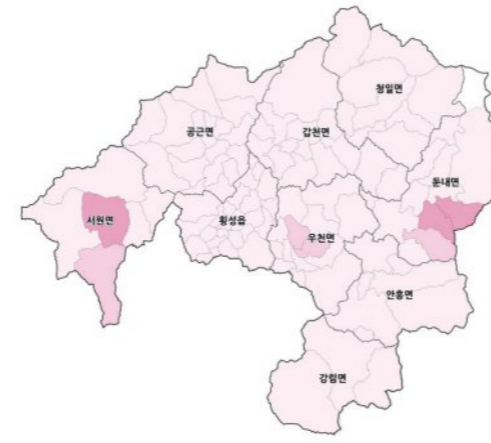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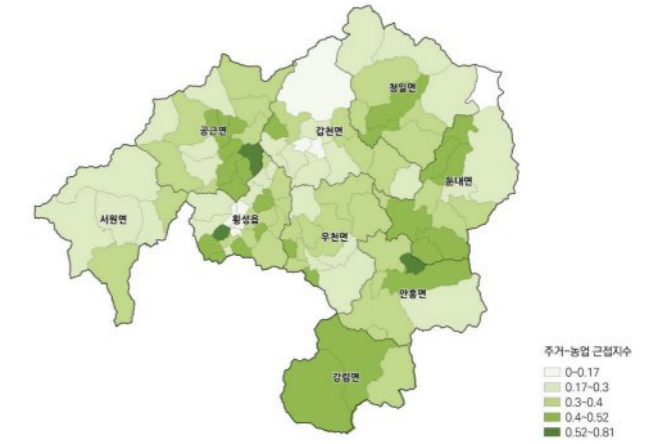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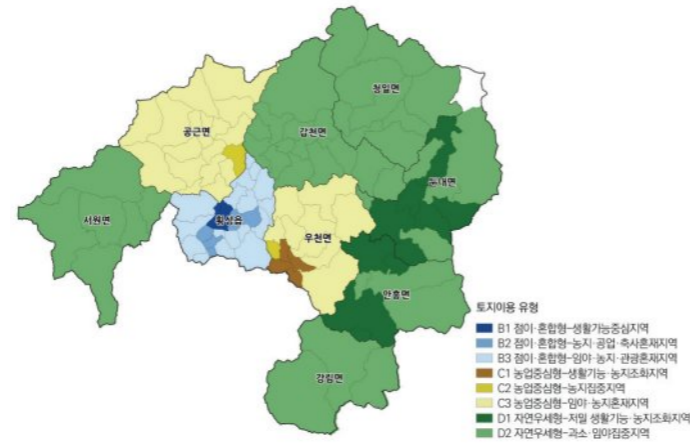
황성군 법정리의 상당수는 임야가 우세한 D2 유형으로 나타나며, 공근면과 우천면은 임야와 농지가 혼재된 C3 유형이 중심을 이룬다. 반면 황성읍에서는 B1, B2, B3 유형이 함께 분포해 생활·산업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토지이용분포

생활가능 토지이용률은 평균 4.3%로 낮은 수준이나, 황성읍 읍하리는 45.4%로 가장 높아 주거·상업 기능이 밀집된 도시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농업용지 비율은 평균 17.9%이며, 황성읍 가담리가 51.7%로 가장 높아 농업 중심 토지이용 특성을 보인다. 공업용지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황성읍 목계리가 10.4%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관광·휴양용지 비율은 둔내면 두원리가 17.6%로 가장 높아 관광 기능 중심의 특성이 나타난다.

토지이용혼재도

주거지와 인접한 용도의 성격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주거-생활가능 근접지수는 황성읍 교항리가 0.55로 가장 높아 생활 편의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확인된다.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황성읍 가담리가 0.59로 가장 높아 농경지와 주거지가 밀접하게 혼재된 특성을 보인다. 주거-공업·태양광·축산업 근접지수는 둔내면 궁중리가 0.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문다. 한편 주거-임야 근접지수는 공근면·갑천면·청일면·안흥면 일대 일부 법정리에서 높게 나타나며, 특히 갑천면 병지방리는 0.71로 가장 높아 임야와 인접한 정주환경 특성이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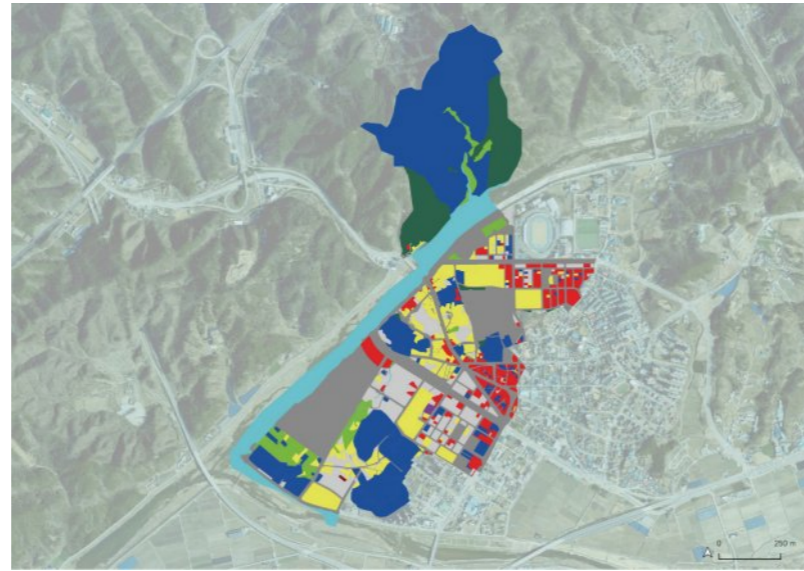


법정리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점·혼합형
생활기능중심지역

황성읍 읍하리

황성읍 읍하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45.4%로 매우 높고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도 0.44로 나타나, 생활기능이 집약된 황성읍의 핵심 주거-상업 중심지로서의 성격이 뚜렷하다.



점·혼합형
농지·공업·축산혼재지역

황성읍 곡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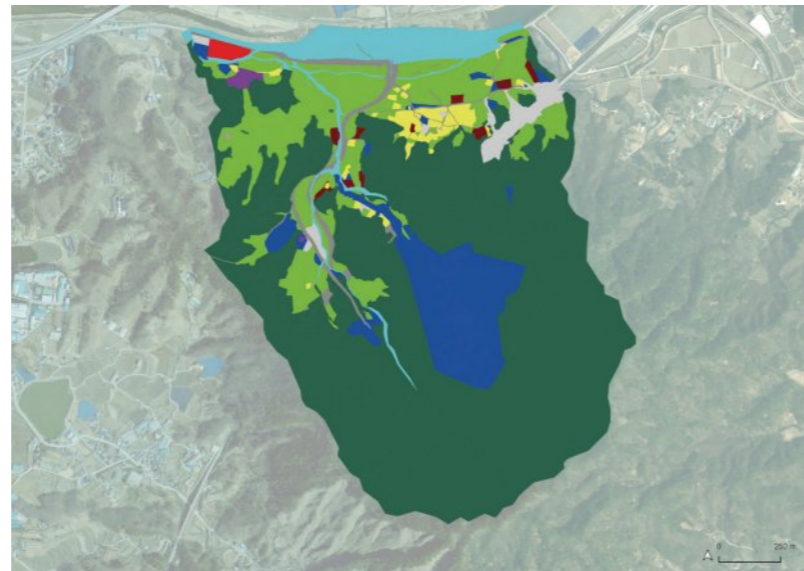
황성읍 곡교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11%로 나타나는 한편, 농업용지 비율이 45.9%로 매우 높아 농업기반이 우세한 지역이다. 하천과 도로를 따라 주거-상업지가 띠 형태로 집적되어 분포하며, 동측에는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농업용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점·혼합형
임야·농지·관광혼재지역

황성읍 남산리

황성읍 남산리는 대부분 임야로 둘러싸인 가운데, 산 중간부에 대학교가 입지한 공공·기타용지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은 11.8%로 생활기능의 집적은 제한적인 수준이며, 농업용지 비율은 15.4%로 나타난다.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0.32, 주거-임야 근접지수는 0.35로 주거지가 농경지와 임야에 인접해 형성된 특성을 보인다. 북측 강변의 비교적 완만한 지형을 따라 농업용지가 분포하고, 축산용지도 일부 산재해 있다.



법정리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농업중심형
생활기능·농지조화지역

우천면 우항리

우천면 우항리는 일부 생활기능과 농업이 함께 분포하는 지역으로,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은 10.1%, 농업용지 비율은 30.7%로 나타난다. 북서측에는 주거와 상업·업무 및 공공·기타용지가 집적되어 있는 반면, 남동측에는 상업·업무용지가 집중된 공간구조를 보인다. 한편 북서측에서 남동측으로 흐르는 하천을 따라 농경지가 연속적으로 펼쳐져 있다.



농업중심형
농지집중지역

공근면 수백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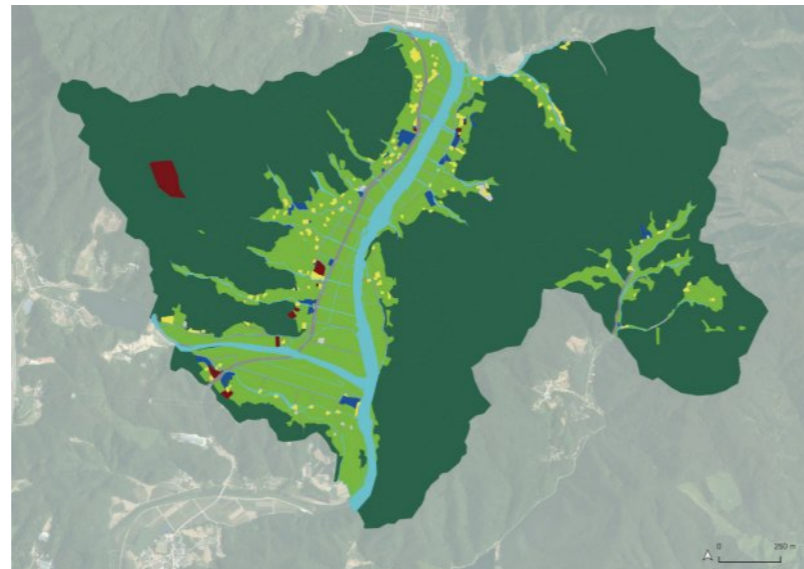
공근면 수백리는 북측이 임야가 둘러싸여 있고, 남동측으로 흐르는 하천을 따라 농업용지가 넓게 형성된 지역이다. 주거지는 농경지 사이에 점상으로 분포하며, 주거-농업 근접지수가 0.54로 높게 나타나 주거지와 농경지가 공간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배치된 특성을 보인다.



농업중심형
임야·농지혼재지역

공근면 부창리

공근면 부창리는 동서 양측의 산맥 사이를 흐르는 강을 따라 형성된 지역으로,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임야가 차지한다. 농업용지 비율은 18.3%로 중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하천 주변의 긴 평지를 따라 농업용지가 띠 형태로 분포한다.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0.4로 나타나 주거지와 농경지가 인접해 있는 특성을 보이며, 농경지 사이에 주거지와 축산용지가 점적으로 분포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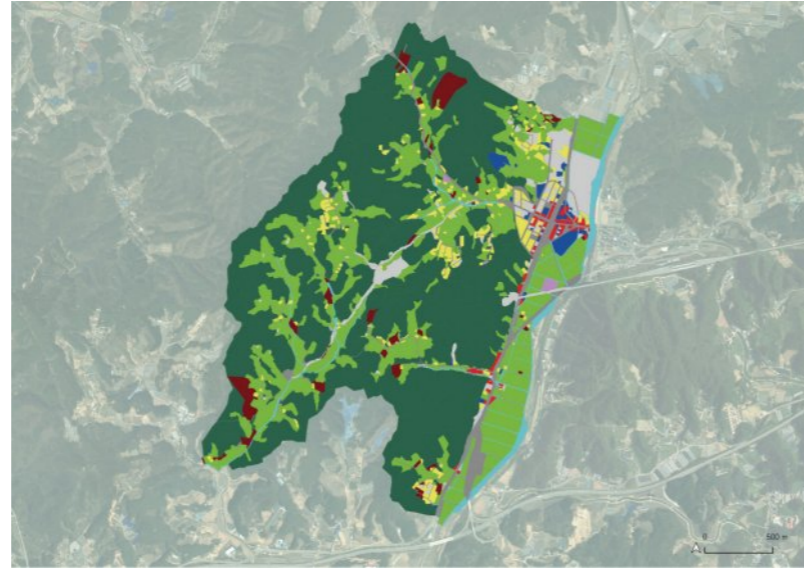


법정리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자연우세형
저밀 생활기능·농지조화지역

둔내면 둔방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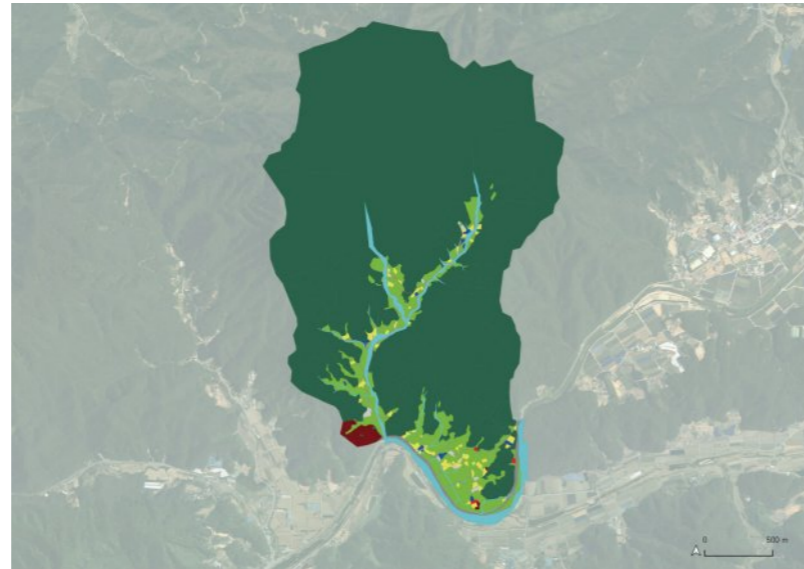
둔내면 둔방내리는 북측의 험준한 임야가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농업용지(27.2%)가 임야 깊숙이 파고들며 형성된 산지형 농촌지역이다. 생활기능은 북동쪽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으며, 임야가 주거지를 포함한 마을을 둘러싸는 구조를 보인다. 또한 농경지 곳곳에 축산용지가 분산되어 분포해 임야·농지·축산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자연우세형
과소·임야집중지역

청일면 초현리

청일면 초현리는 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남동측 가장자리를 따라 흐르는 강과 도로변에 주거지가 띠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산자락 사이의 골짜기를 따라 농업용지(7.7%)와 소규모 마을이 깊숙이 분포하는 산지형 정주 구조를 보인다.



- 주거
- 도로·공원등
- 태양광
- 관광 휴양
- 이외
- 상업·업무
- 농업
- 축산업
- 임야
- 공공기타
- 공업
- 창고
- 하천

성숙안정형 자립도시
: 전북 순창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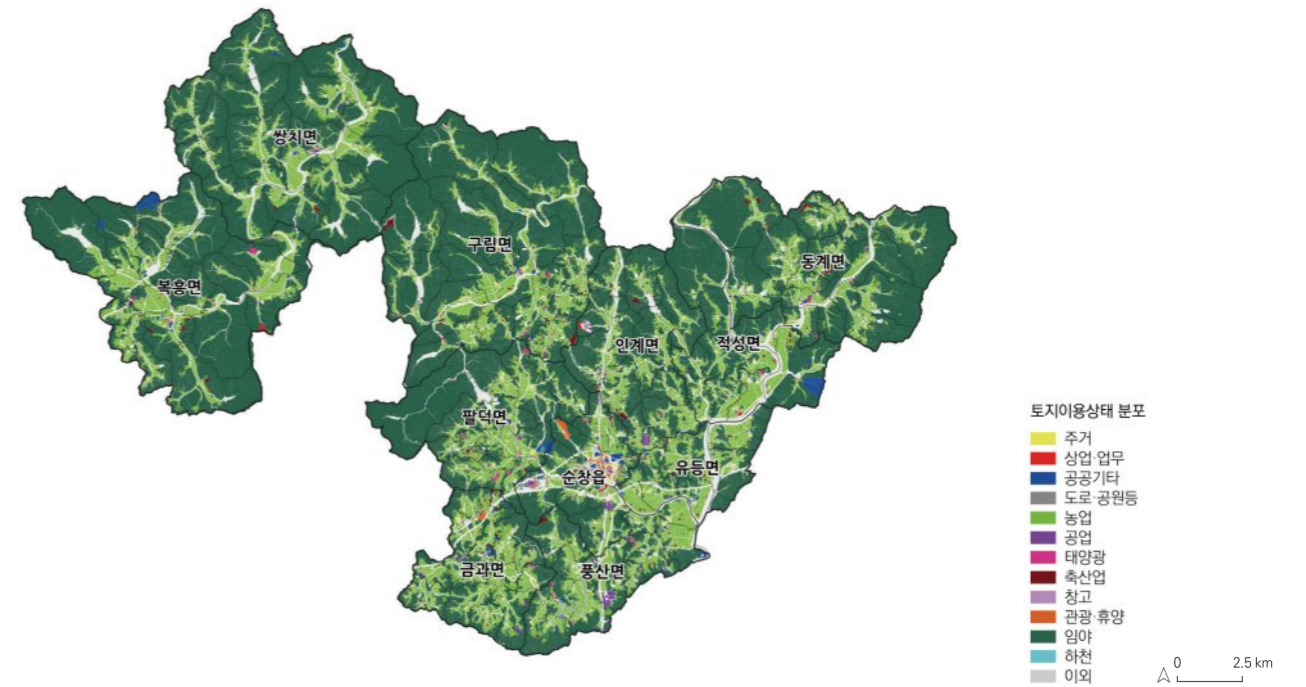
순창군은 점·혼합형 농촌(B)과 농업중심형 농촌(C)으로 구성된 농업 중심의 내륙 농촌지역이다. 순창읍은 점·혼합형 농촌에 해당하며, 주거·상업·공공 등 생활기능이 비교적 밀도 있게 집적된 토지이용 특성을 보인다. 반면, 순창읍을 제외한 모든 면 지역은 농업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순창읍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주거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 등 도시지역이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공업지역은 역시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일부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개별 공장용지가 점적으로 분포하는 수준에 그친다.

전반적인 토지이용은 산업 기능보다는 농업과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넓게 펼쳐진 농경지와 임야가 주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농경지 사이 구릉지 하부를 따라 크고 작은 농촌 마을이 분포하여, 비교적 낮은 밀도의 농촌 취락 구조가 전반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경지와 임야 사이에는 공장용지뿐만 아니라 축사, 태양광 발전시설 등이 점점이 입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축산용지도 확인된다.

관광·휴양용지는 대규모 개발 형태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순창읍과 금과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골프장이 입지한 정도로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한편 북흥면과 팔덕면, 구림면 일부 지역에는 개발이 제한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처럼 순창군은 산업화나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진 평택시나 청주시와는 달리, 농업과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농촌지역이라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읍·면 단위 농촌 유형과 지표 값 특성

전북 순창군은 점이·혼합형 농촌(1개 읍·면)과 농업중심형 농촌(10개 읍·면)으로 구성되며, 농업중심형 농촌이 우세한 특성을 보인다.

지역위계

인구밀도와 고용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순창읍에 인구와 고용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인구밀도는 평균 80명/km² 수준이나, 순창읍은 487명/km²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반면 산간지역인 쌍치면은 24명/km²에 그쳐, 지역 간 인구밀도에서 20배 이상의 차이가 확인된다. 고용밀도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평균 고용밀도는 34명/km²인 반면, 순창읍은 269명/km²로 높게 나타나고 쌍치면은 5명/km² 미만(4.6명/km²)에 불과하다. 이는 군 내에서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또한 행정 중심지에 강하게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생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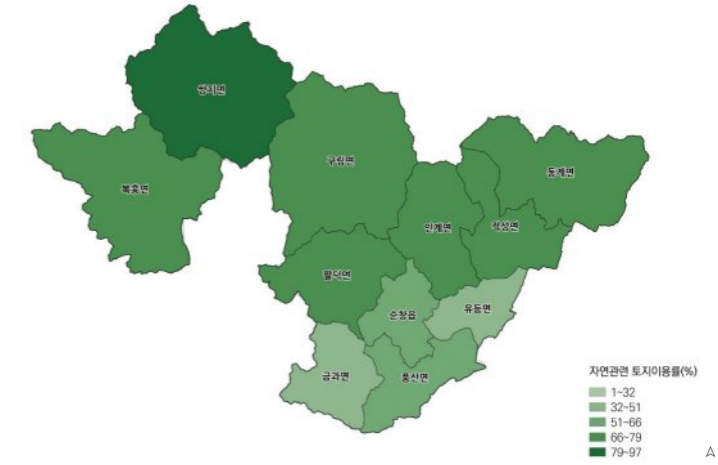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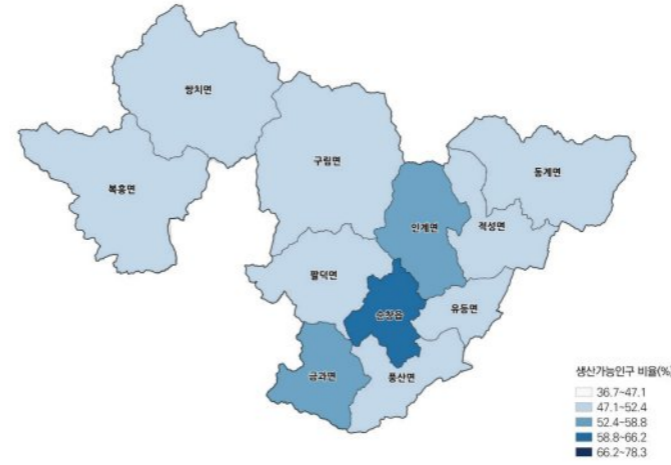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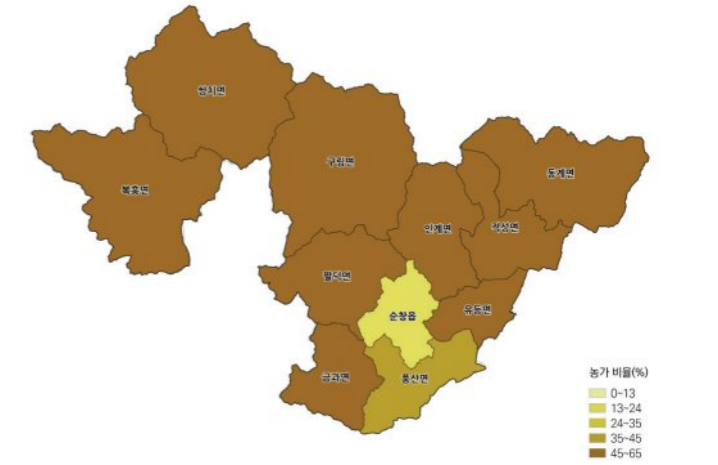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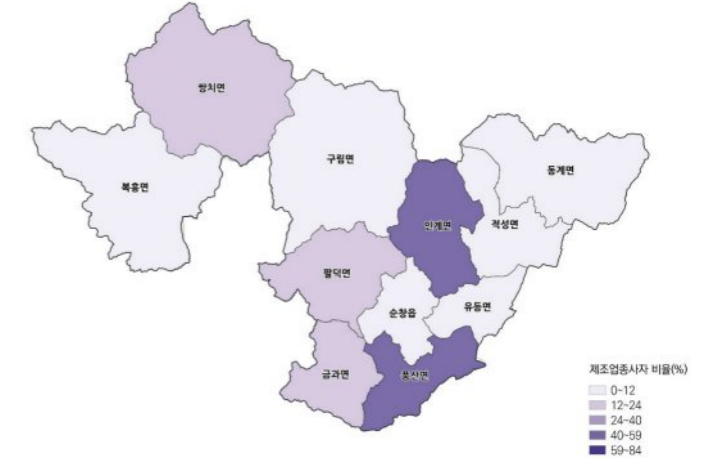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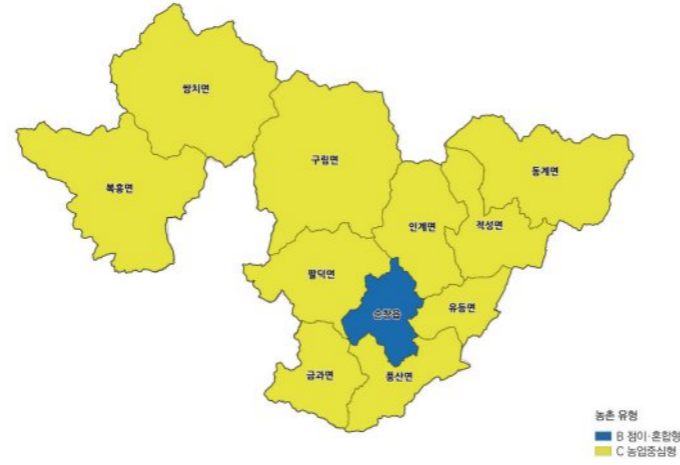
읍 소재지와 면 지역 간에 생활인프라 접근성에 차이가 확인된다. 생활인프라 접근성 평균은 6,991m로, 순창읍이 4,483m로 가장 양호한 반면 동계면은 9,052m로 접근성이 가장 취약하다. 한편 행정복지센터 접근성 평균은 2,464m로, 금과면이 1,645m로 가장 가깝고, 면적이 넓은 구림면은 3,210m로 행정서비스 이용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환경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순창읍이 65.2%로 가장 높으며, 인계면(53.2%)과 금과면(52.5%)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풍산면은 제조업종사자 비율이 52%로 가장 높아 산업 기능이 특화된 지역으로 나타나며, 인계면(42.9%) 역시 제조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반면 북흥면은 농가 비율이 55.8%로 가장 높고, 대부분의 면 지역에서도 40%~50%대의 높은 농가 비율을 보여 농업 기반의 토지이용 특성을 보인다. 순창읍은 농가 비율이 17.9%로 가장 낮아, 읍 지역과 면 지역 간 산업구조의 차이가 확인된다.

자연환경

자연관련 토지이용률은 평균 66.2%이며, 산간 지대에 위치한 쌍치면은 80.3%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반면 유등면은 49.3%로 가장 낮아, 지형적 특성에 따른 토지이용 구조에 차이가 나타난다.



법정리 단위 농촌 토지이용 유형과 지표 값 특성

순창군 면 지역의 법정리는 대체로 농경지를 기반으로 하며, 북측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임야가 혼재된 C3 유형이 주로 나타난다. 한편 면 중심부나 남측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생활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C1 유형과 농경지가 집중된 C2 유형이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순창읍은 군 내에서 유일하게 B1, B2, B3 유형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토지이용 구조의 복잡성이 두드러진다.

토지이용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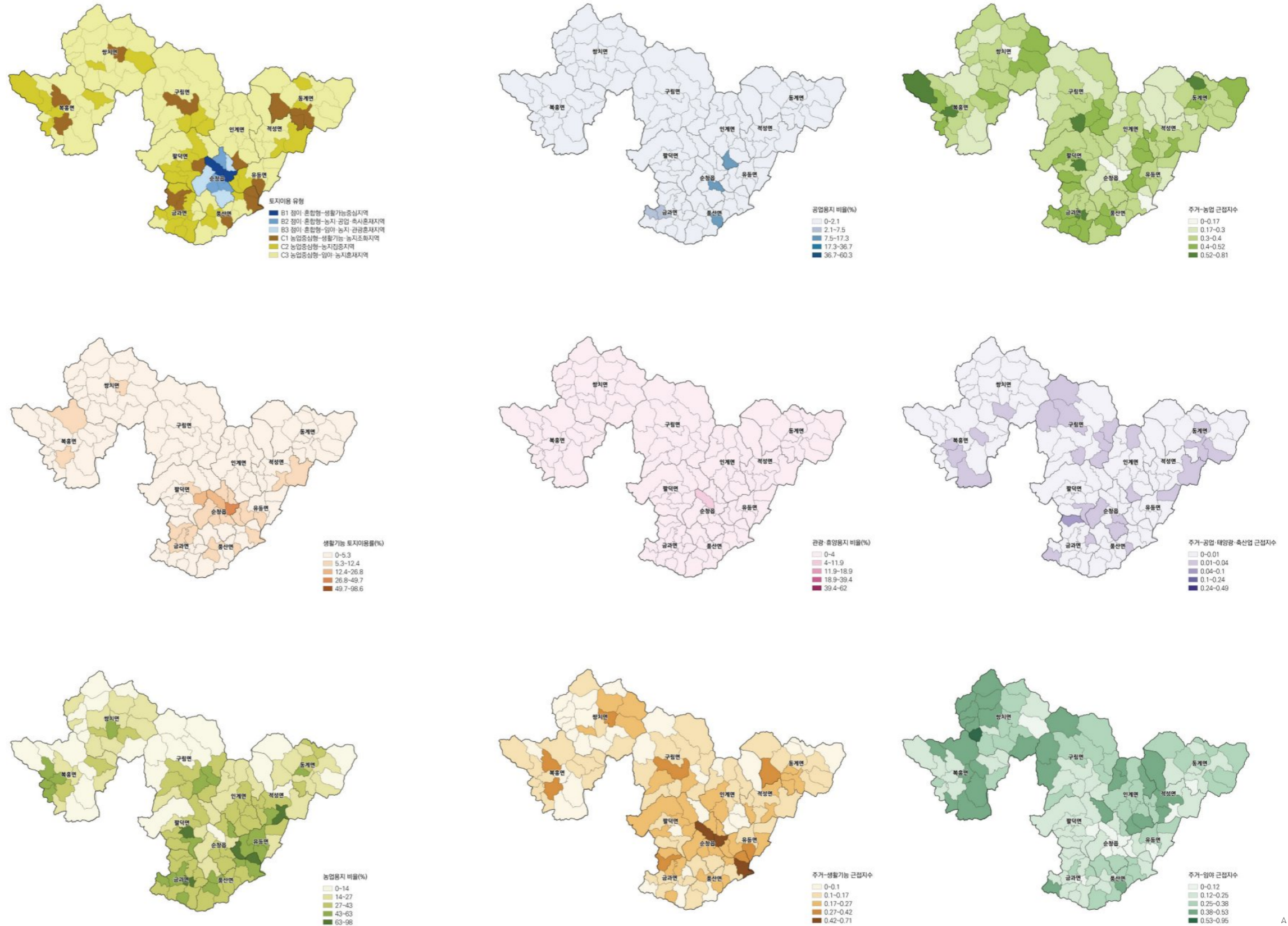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은 평균 3.8%로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 다만 읍 중심지인 순창읍 남계리는 43%로 가장 높아, 주거 및 상업 기능이 밀집된 도시적 성격이 나타난다. 농업용지 비율은 평균 29.9%로, 팔덕면·금과면·풍산면·유등면·적성면 일대 법정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며, 특히 금과면 동전리는 78.6%에 달해 대규모 농경지가 집적된 지역으로 하는 확인된다.

공업용지와 관광·휴양용지 비율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나, 풍산면 죽전리는 공업용지 비율이 12.7%로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산업시설이 집중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순창읍 순화리는 관광·휴양용지 비율이 7.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읍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휴양 기능이 일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지이용혼재도

주거지와 인접한 토지이용의 특성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는 순창읍 순화리(0.65)와 남계리(0.58)에서 높게 나타나, 생활 편의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분석된다.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금과면 동전리와 북측면 봉덕리에서 각각 0.58로 가장 높아, 농경지와 주거지가 밀접하여 혼재된 특성을 보인다.

주거-공업·태양광·축산업 근접지수는 금과면 고례리(0.0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주거지 인근에 해당 용도가 입지한 사례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산간지역인 쌍치면 중안리는 주거-임야 근접지수가 0.67로 가장 높아, 주거지 배후로 임야가 인접한 산지형 정주 구조가 나타난다.



법정리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점·혼합형 생활기능중심지역

순창읍 순화리

순창읍 순화리는 북측에 임야가 넓게 형성되어 있고, 남측에는 생활기능이 집적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일부 농업용지가 분포하는 공간구조를 보인다.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은 14.7%로 낮은 편이나, 남측을 중심으로 주거, 상업·업무 및 공공·기타 기능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한편 북측 임야에는 골프장을 포함한 넓은 면적의 관광·휴양용지가 분포한다.



점·혼합형 농지·공업·축산혼재지역

순창읍 교성리

순창읍 교성리는 읍 외곽에 위치한 지역으로, 생활기능과 농업이 공존하는 토지이용 특성을 보인다. 주거지와 일정 거리를 두고 임야가 분포하며,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은 7.9%로 낮은 편이나 읍 중심부에 면해 집적된 형태를 보인다. 농업용지 비율은 27.2%로 나타나며, 농경지 사이로 축산용지가 일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공업이나 관광·휴양용지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점·혼합형 임야·농지·관광혼재지역

순창읍 신남리

순창읍 신남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3.9%로 낮고, 농업용지 비율은 30.5%로 나타난다. 주거-농업 근접지수와 주거-임야 근접지수가 각각 0.32와 0.34로, 주거지가 농경지와 임야 모두와 비교적 근접한 구조를 보인다. 임야가 넓게 분포하는 가운데 경지 정리가 이루어진 농업용지가 선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임야와 농경지가 맞닿는 지점에 소규모 취락이 분산되어 입지한다. 한편 농경지 사이에 일부 공업용지와 축산용지가 관찰된다.



법정리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농업중심형 생활기능·농지조화지역

금과면 방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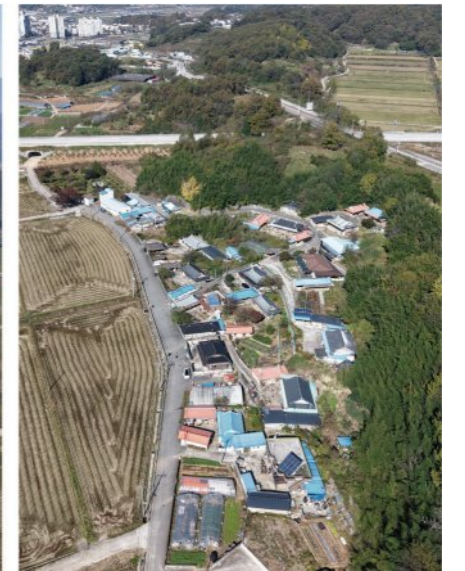
금과면 방축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5.4%, 농업용지 비율은 38.5%로 나타난다. 주거-생활 근접지수와 주거-농업 근접지수가 각각 0.36과 0.33으로, 주거지가 생활기능과 농경지에 비교적 근접한 특성을 보인다. 북서측에 주거지가 집중해 있으며, 그 남측으로 농경지가 펼쳐져 있다. 한편 관광·휴양용지 비율은 순창군 평균보다 높은 3.7%로, 북측에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휴양용지가 관찰된다.



농업중심형 농지집중지역

유등면 창신리

유등면 창신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5.5%로 낮은 반면, 농업용지 비율은 68%로 매우 높아 대규모 경지 정리가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업 중심 지역이다.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0.44로, 주거와 농경지가 밀접한 특성을 보이며, 마을 주변으로 광범위한 농경지가 펼쳐진 경관이 형성되어 있다. 반면 공업용지나 관광·휴양용지는 거의 분포하지 않아 농업 기능이 지배적인 토지이용 특성이 두드러진다.



농업중심형 임야·농지혼재지역

팔덕면 광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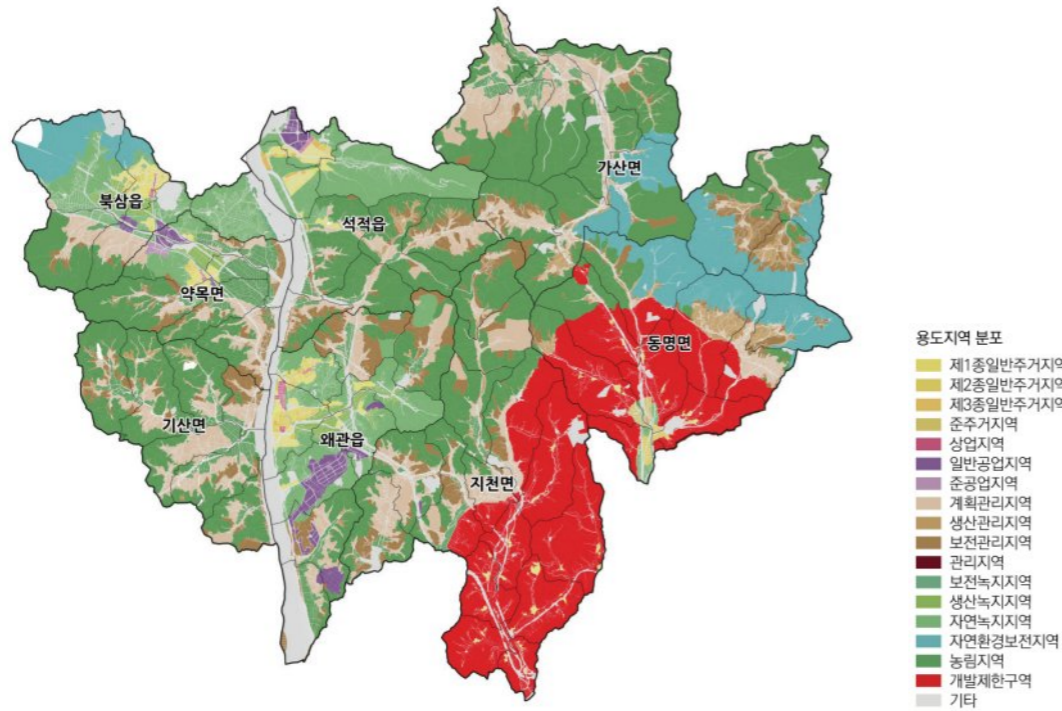
팔덕면 광암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1.2%, 농업용지 비율이 20.9%로 낮게 나타난다. 주거-농업 근접지수(0.33)와 주거-임야 근접지수(0.44)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임야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주거지가 농경지와 임야에 모두 근접한 특성을 보인다. 농경지는 임야 사이에 띠 모양으로 분포하며, 농경지 사이로 축산용지가 분산 입지해 있다. 취락은 소규모로 분포하며, 공업용지나 관광·휴양용지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감소형 강소도시
: 경북 칠곡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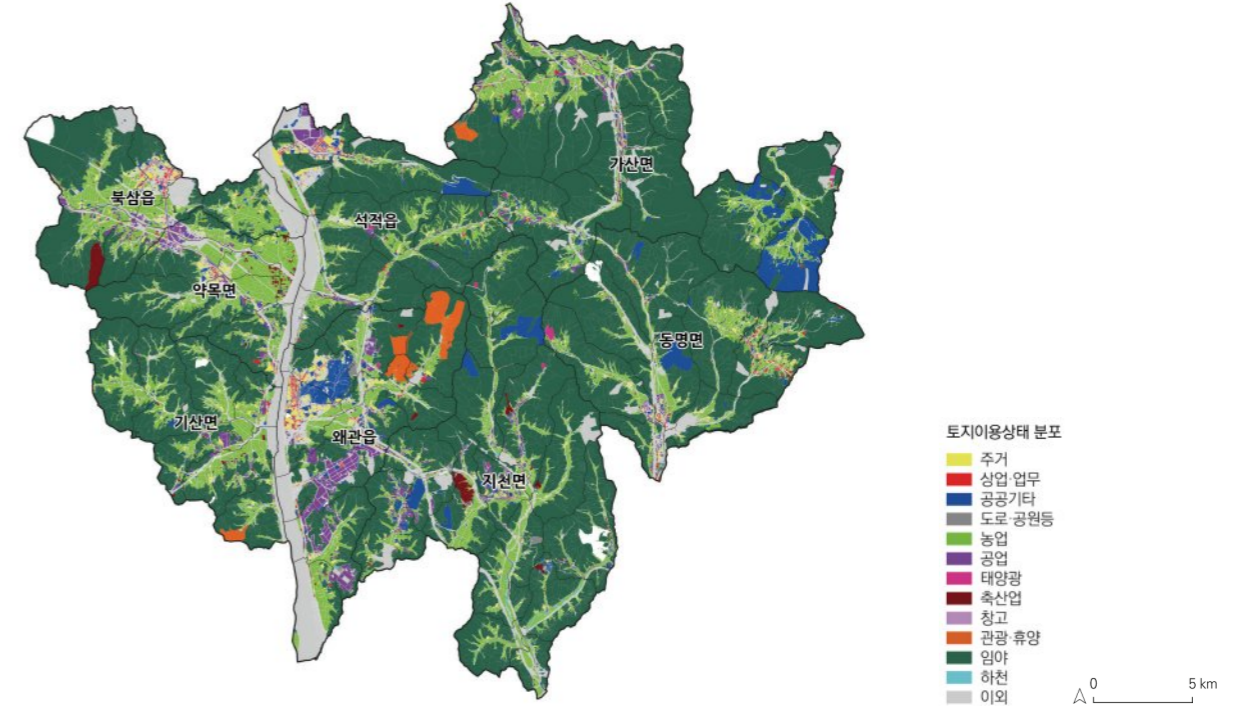
칠곡군은 도시형 농촌(A), 점·혼합형 농촌(B), 농업중심형 농촌(C), 자연우세형 농촌(D)이 모두 분포하는 지역으로, 법정리 단위의 10개 농촌 토지이용 유형이 모두 나타나는 매우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 과거 급속한 성장기를 거친 이후 정체와 인구감소가 국면에 접어들어 칠곡군은, 하나의 군 단위 안에 산업단지와 주거지, 넓은 농경지와 임야, 대규모 공공기타 용지가 존재하는 복합적인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화와 도시화의 흔적, 전통적인 농촌 경관이 동시에 나타나는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왜관읍과 구미시와 맞닿은 북삼읍·석적읍·약목면 일대에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이 비교적 넓은 면적으로 분포하고, 그 외곽을 자연 녹지지역이 둘러싸는 구조를 이룬다. 왜관읍에는 일반산업단지들이 위치해 있으며, 석적읍에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일부가 포함되어 공업 기능이 나타난다. 이들 지역 외에도 일부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이 분포해, 농경지와 공업용지가 혼재된 토지이용 양상이 관찰된다.



북삼읍과 지천면 일대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축산용지가 분포하는 반면, 그 외면 지역에서는 농경지와 임야 사이로 소규모 축산용지와 태양광용지가 점적으로 분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또한 여러 면 지역에 걸쳐 공공기타 용지가 대규모 면적으로 분포하는 점도 특징적인데, 이 가운데 왜관읍에는 미군기지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왜관읍·가산면·기산면 일부 산지에는 골프장이 입지해 관광·휴양용지가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한편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지천면과 동명면의 상당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선형으로 형성된 농경지와 함께 소규모 주거지가 산발적으로 분포한다. 또한 동명면·가산면·북삼읍 일부 지역은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고, 임야와 농경지를 중심으로 한 자연 중심의 토지이용이 유지되고 있다.



읍·면 단위 농촌 유형과 지표 값 특성

경북 칠곡군은 도시형 농촌(1개 읍·면), 점·융합형 농촌(4개 읍·면), 농업중심형 농촌(2개 읍·면), 자연우세형 농촌(1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모든 농촌 유형이 분포하고 있다.

지역위계

칠곡군은 구미시와 인접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공간구조를 보인다. 인구밀도는 평균 296명/km²이며,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수행하는 북삼읍은 641명/km²으로 가장 높은 반면, 산간지역인 가산면은 37명/km²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고용밀도는 평균 159명/km²인 가운데, 군청 소재지이자 공업단지가 발달한 왜관읍이 426명/km²로 가장 높아 지역 내 경제·고용 중심지로 나타난다.

생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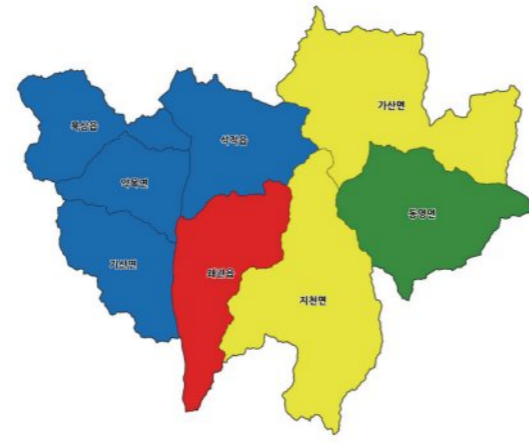
생활인프라 접근성의 평균 거리는 5,013m로 나타났으며, 군 중심지인 왜관읍이 3,384m로 가장 양호한 반면 면적이 넓은 가산면은 8,102m로 접근성이 가장 취약하다. 행정복지센터 접근성은 평균 2,738m로, 주거가 밀집된 북삼읍이 1,531m로 가장 가깝고, 산간지역인 가산면은 4,040m로 행정서비스 이용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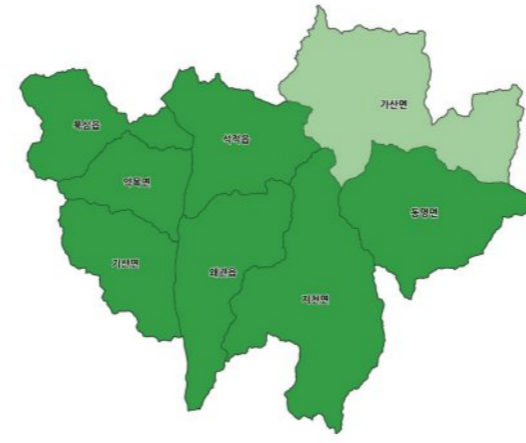
칠곡군은 산업화가 진행된 지역과 전통적인 농업지역이 혼재된 특성을 보인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북삼읍(75.8%)과 석적읍(75.4%)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며, 이들 지역의 농가 비율은 각각 7.6%와 3.7%로 낮아 산업·도시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제조업종사자 비율은 가산면(55.9%)과 약목면(53.5%)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 가운데 가산면은 농가 비율 또한 26.9%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 공업과 농업 기능이 혼재된 지역적 특성을 지닌다. 한편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51.3%로 가장 낮은 지천면은 농가 비율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자연환경

칠곡군은 산림 자원이 풍부하여 자연관련 토지이용률이 평균 67.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인다. 팔공산 도립공원 인근에 위치한 동명면은 자연관련 토지이용률이 8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시가지와 공업단지가 입지한 왜관읍은 50.7% 수준을 보인다.



농촌 유형
 A. 도시형
 B. 점·융합형
 C. 농업중심형
 D. 자연우세형



생활인프라 접근성(m)
 1,450-6,656
 6,656-9,972
 9,972-18,595
 18,595-45,247
 45,247-80,025



제조업종사자 비율(%)
 0-12
 12-24
 24-40
 40-59
 59-84



인구밀도(명/km²)
 2-179
 179-541
 541-1,312
 1,312-2,978
 2,978-8,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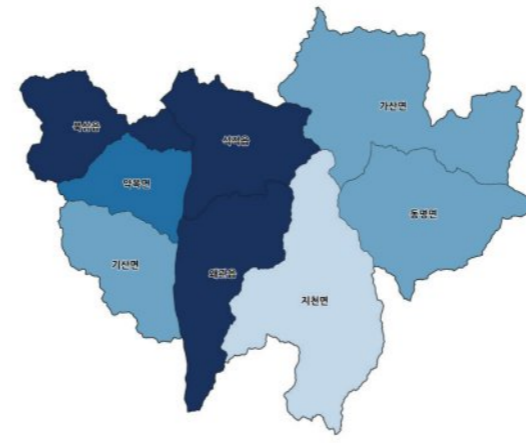
행정복지센터 접근성(m)
 562-2,391
 2,391-3,193
 3,193-4,350
 4,350-6,757
 6,757-20,193



농가 비율(%)
 0-13
 13-24
 24-35
 35-45
 45-65



고용밀도(명/km²)
 0-61
 61-181
 181-405
 405-787
 787-1,520



생산가능인구 비율(%)
 36.7-47.1
 47.1-52.4
 52.4-58.8
 58.8-66.2
 66.2-78.3



자연관련 토지이용률(%)
 1-32
 32-51
 51-66
 66-79
 79-97

법정리 단위 농촌 토지이용 유형과 지표 값 특성

칠곡군은 군 중심지인 왜관읍에 A1, A2 유형이 분포하고, 북서쪽에 위치한 북삼읍·석적읍·약목면·가산면을 중심으로 B1, B2, B3 유형이 나타난다. 반면 가산면과 지천면은 C1, C2, C3 유형이 분포하며, 동쪽에 위치한 동명면에서는 D1, D2 유형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칠곡군에는 총 10가지 토지이용 유형이 모두 나타나, 군 단위에서 농촌 공간구조의 다양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토지이용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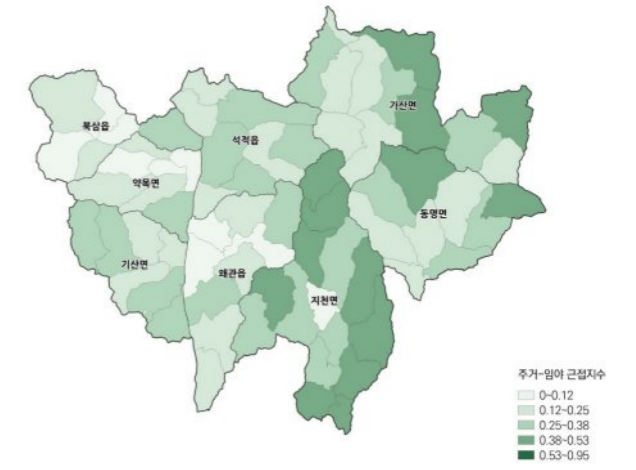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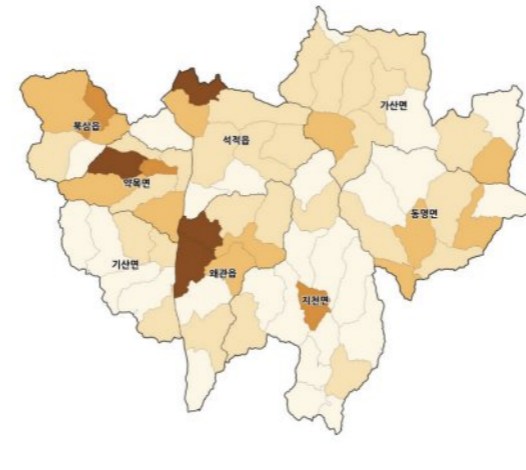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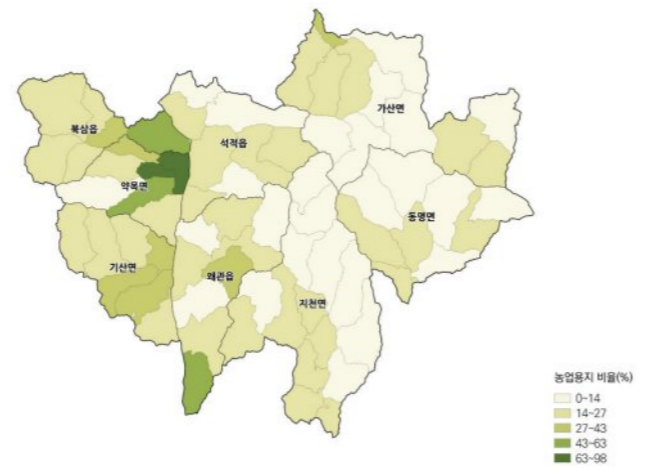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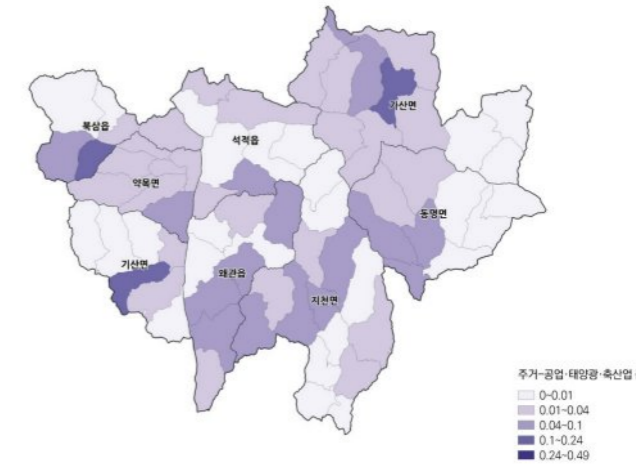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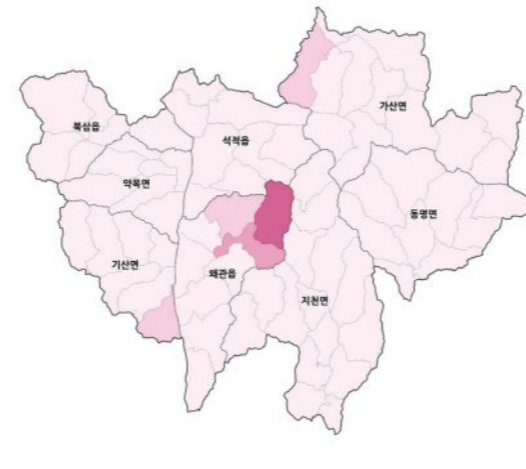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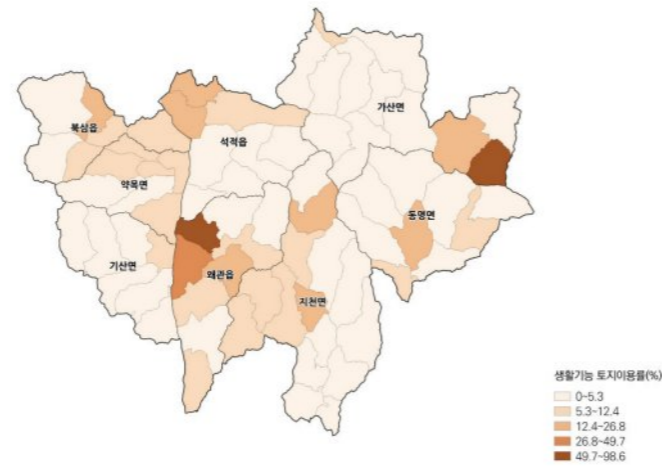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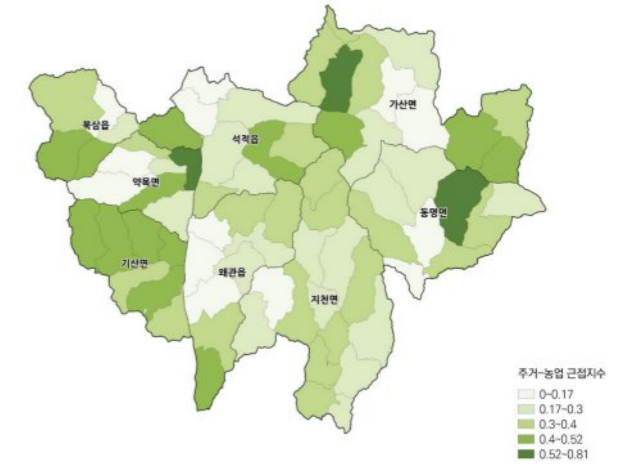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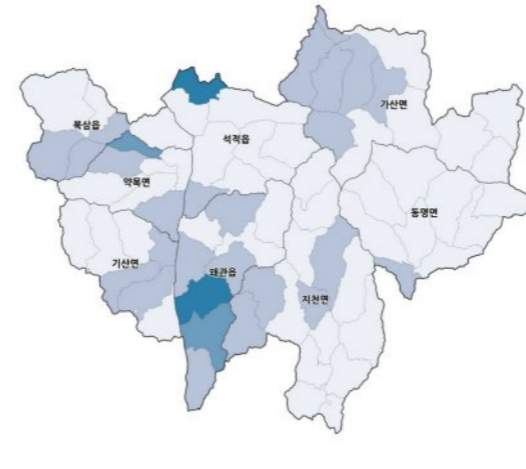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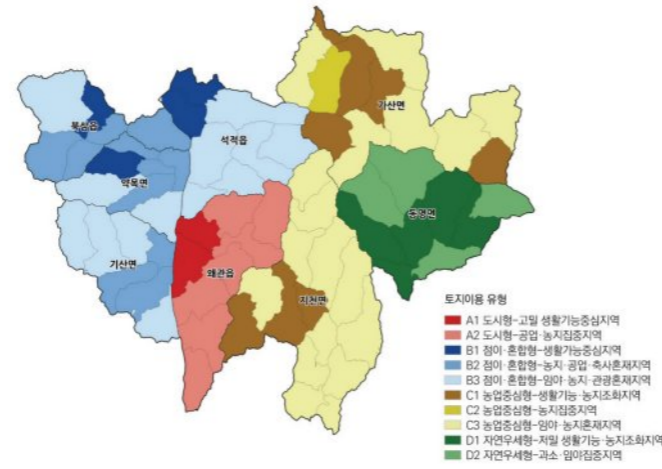
생활가능 토지이용률은 평균 8.2%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왜관읍 석전리(51.2%)와 왜관리(44.2%)에서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도시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농업용지 비율은 평균 19.2%로 나타나는 가운데, 약목면 덕산리는 80%에 달해 농업 기반의 토지이용 특성이 뚜렷하다.

한편 공업용지 비율은 왜관읍 금산리가 2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산업 기능이 집중된 양상을 보이며, 관광·휴양용지 비율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나 왜관읍 봉계리는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관광 기능이 강화된 지역으로 확인된다.

토지이용혼재도

주거지와 인접한 토지이용의 특성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주거-생활가능 근접지수는 생활가능 토지이용률이 높은 왜관읍 석전리(0.52)와 왜관리(0.5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생활 편의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확인된다.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약목면 덕산리(0.60)가 가장 높아 농경지와 주거지가 밀접하게 혼재된 구조를 보인다.

한편 주거-공업-태양광-축산업 근접지수는 가산면 영리(0.17)와 천평리(0.11), 북삼읍 어로리(0.1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거지와 생산시설 간 근접도가 높아 잠재적인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해석된다. 또한 산림 비중이 높은 동명면 학명리는 주거-임야 근접지수가 0.52로 가장 높아, 산림과 인접한 산지형 주거지 특성이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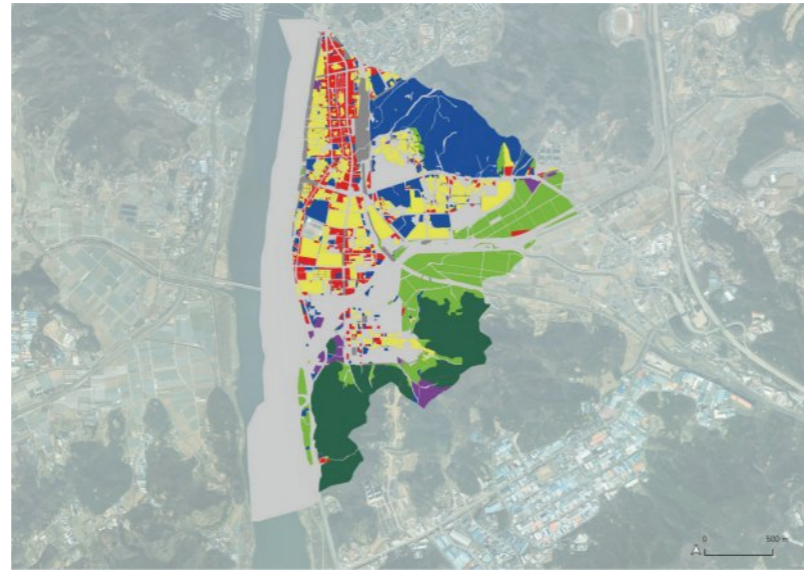


법정리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도시형
고밀 생활기능중심지역

왜관읍 왜관리

왜관읍 왜관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44.2%로 높고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가 0.51로 나타나, 주거와 상업·업무 및 공공·기타용지가 넓은 범위에 걸쳐 집적된 도시형 생활 중심지의 특성을 보인다. 한편 이러한 생활 중심지의 외곽에는 일부 농경지와 공업용지가 분포해 중심부와 주변부 간 토지이용에 대비가 나타난다.



도시형
공업·농지집중지역

왜관읍 금남리

왜관읍 금남리는 왜관읍 중심부 주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농업용지 비율이 54.4%로 매우 높아 농경지가 넓게 형성된 토지이용 특성을 보인다. 농경지 사이로 주거지가 분산되어 분포하며, 일부 공업용지가 관찰되는 등 농업 기능을 중심으로 주거·생산 기능이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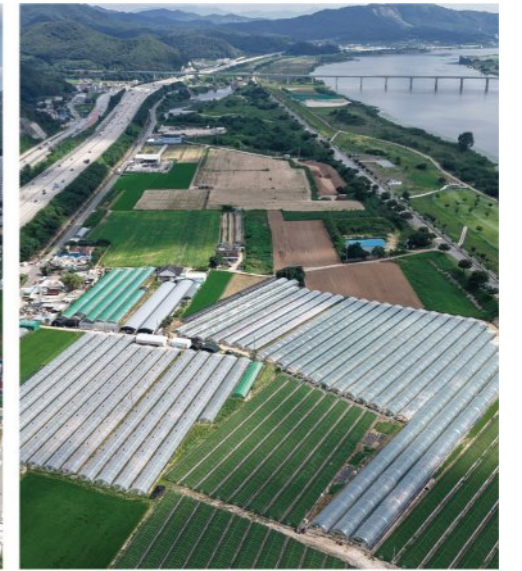


법정리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점·혼합형 생활기능중심지역

석적읍 남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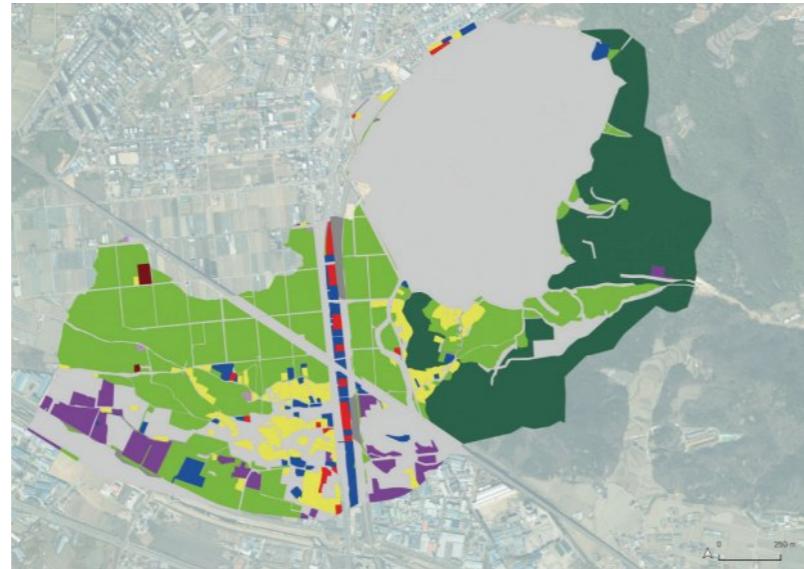
석적읍 남울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14.6%, 농업용지 비율이 15.3%로 나타난다.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가 0.25로, 임야를 배경으로 주거지와 상업·업무 및 공공·기타용지가 넓은 범위에 걸쳐 집적된 토지이용 구조를 보인다. 농경지는 생활기능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분포하며, 농경지 사이에는 일부 축산용지가 관찰된다.



점·혼합형 농지·공업·축산혼재지역

복삼읍 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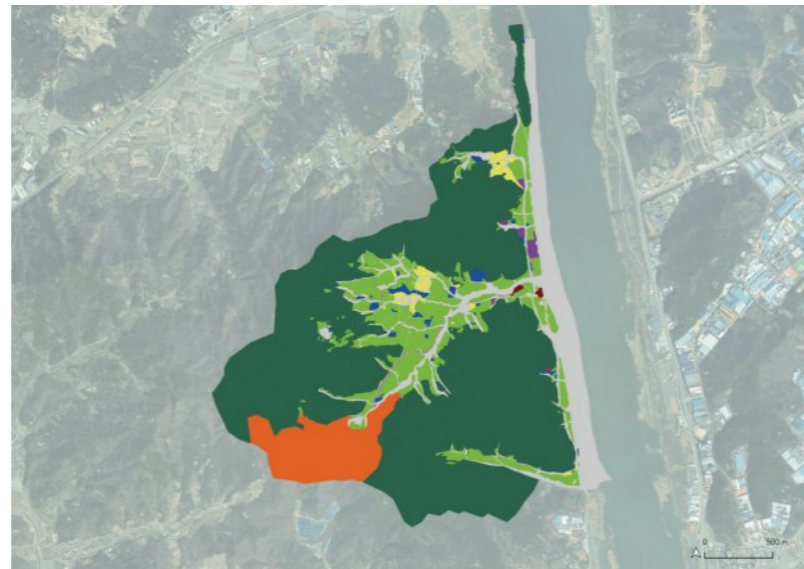
복삼읍 울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9.2%, 농업용지 비율이 32.5%인 가운데, 공업용지 비율이 4%로 나타난다. 넓게 펼쳐진 농경지 주변으로 생활기능이 집적된 형태가 관찰되며, 남측으로 대규모 공업용지가 연속적으로 분포한다. 또한 남북으로 형성된 주요 도로를 따라 상업·업무 및 공공·기타 용지가 배치되어 있다. 반면 동측 외곽에는 농경지와 임야가 분포해 개발지와 자연환경이 구분되는 공간구조를 보인다.



점·혼합형 임야·농지·관광혼재지역

기산면 노석리

기산면 노석리는 임야가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농업용지 비율은 15.6%로 나타난다. 주거-농업 근접지수와 주거-임야 근접지수는 각각 0.33으로, 소규모로 집적된 주거지가 농경지와 임야 인근에 분산되어 입지한다. 남서측 일부에는 대규모 관광·휴양용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임야 사이로 농업용지가 길게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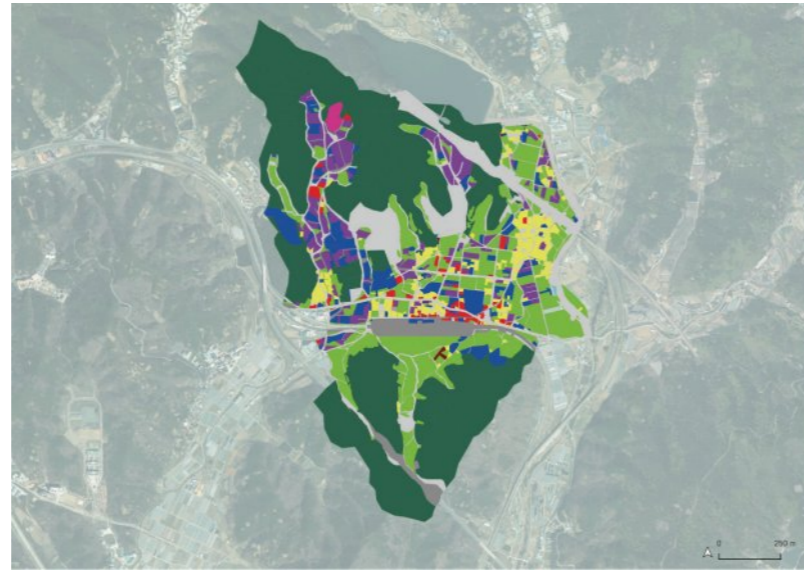


법정리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농업중심형
생활기능·농지조화지역

지천면 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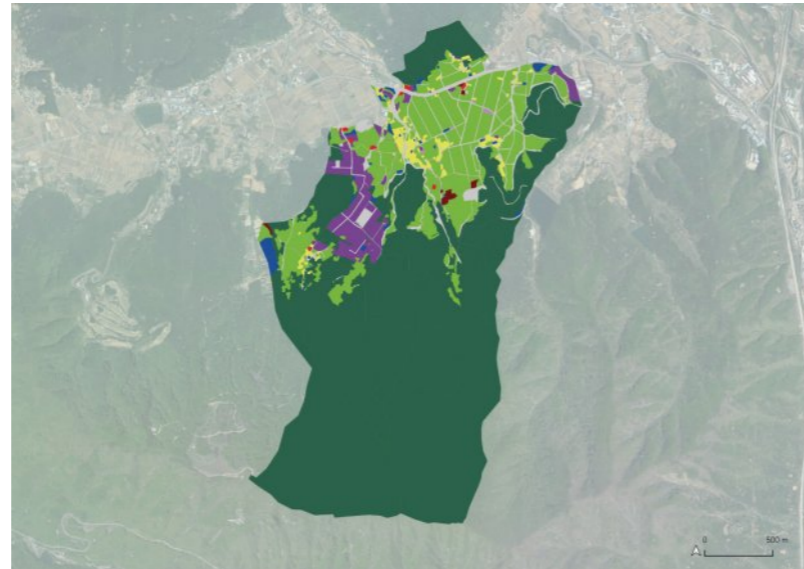
지천면 신리는 북측과 남측에 임야가 위치하여 비교적 평탄한 중앙부를 감싸는 형태의 도농 복합 지역이다.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은 13.3%, 농업용지 비율 21.5%, 공업용지 비율 7.4%로 나타난다. 중앙부 평지에는 농경지 사이로 주거지와 상업·업무, 공공·기타용지가 넓게 분포해 있고, 공업용지가 군데군데 입지해 있다. 특히 공업용지는 북측 임야 골짜기를 따라 길게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농업중심형
농지집중지역

가산면 학상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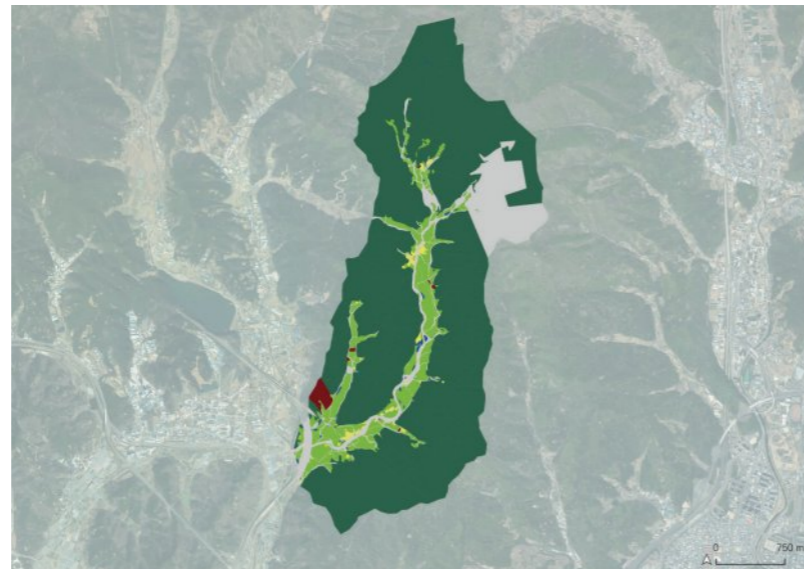
가산면 학상리는 농업용지 비율이 19.1%로 낮은 편이나, 남측에 넓게 형성된 임야를 제외하면 북측으로 광범위한 농경지가 펼쳐진 토지이용 구조를 보인다. 농경지 서측에는 대규모 공업용지가 분포해 농업과 산업 기능이 인접한 양상을 보인다.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0.55로 높게 나타나는데, 농경지 내부에 집적된 주거지가 관찰되는 한편, 농경지 사이로 소규모 주거지가 분산되어 입지해 있다.



농업중심형
임야·농지혼재지역

지천면 심천리

지천면 심천리는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은 가운데, 농업용지(10.2%)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은 1%에 불과해 생활기능의 집적은 매우 제한적이며, 농경지 사이로 소규모 취락이 산재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농업 근접지수와 주거-임야 근접지수가 각각 0.35와 0.45로 나타나 주거지가 농경지와 임야에 인접해 입지해 있다.



법정리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자연우세형
저밀 생활기능·농지조화지역

동명면 기성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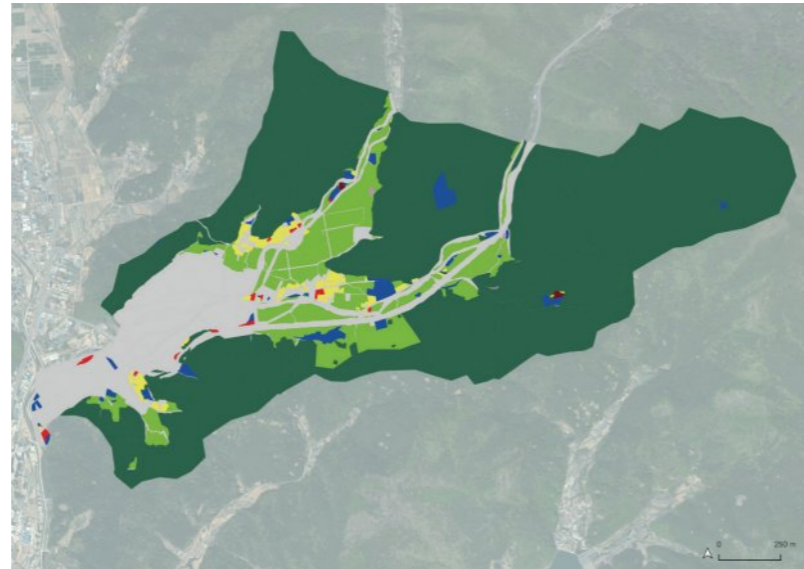
동명면 기성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11%, 농업용지 비율이 17.1%로 나타나며,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0.32로 확인된다. 임야 사이의 비교적 평탄한 지역을 따라 농경지와 주거, 상업·업무 및 공공·기타용지가 연속적으로 산재해 분포하는 토지이용 구조를 보인다. 한편 농업용지나 관광·휴양용지는 거의 관찰되지 않아 생활·농업 기능을 중심으로 한정주 특성이 나타난다.



자연우세형
과소·임야집중지역

동명면 구덕리

동명면 구덕리는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임야가 차지하는 가운데, 중앙부의 평탄한 지대를 따라 농업용지(12.2%)와 주거용지가 분포하는 토지이용 구조를 보인다. 주거지는 농경지 사이 또는 산자락과 맞닿는 지점에 소규모 취락 형태로 나타나며, 공공·기타용지가 군데군데 산재해 분포한다.



- 주거
- 상업·업무
- 공공기타
- 도로·공원등
- 농업
- 공업
- 태양광
- 축산업
- 창고
- 관광 휴양
- 임야
- 하천
- 이외

감소형 자립도시
: 경남 고성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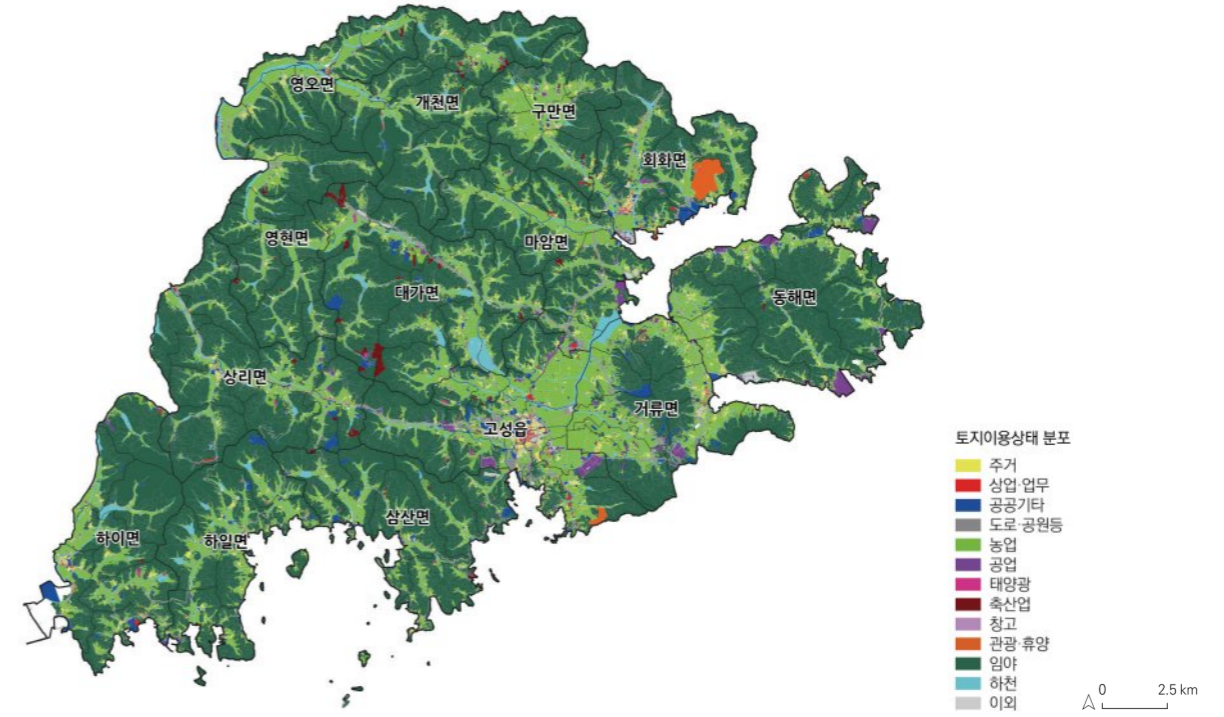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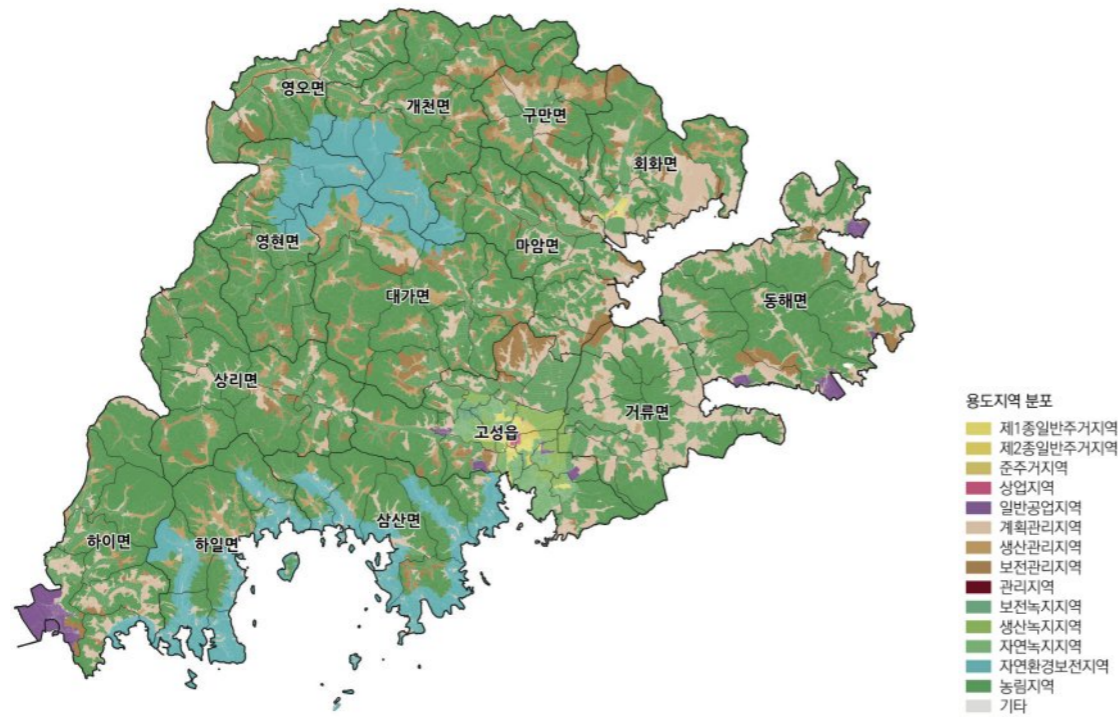
고성군은 점·혼합형 농촌(B), 농업중심형 농촌(C), 자연우세형 농촌(D) 유형이 함께 나타나는 지역이다. 점·혼합형 농촌에 해당하는 고성읍과 회화면, 그리고 자연우세형 농촌으로 분류되는 영현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 지역은 농업중심형 농촌의 토지이용 특성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농업과 자연환경의 비중이 높으며, 주거·상업 등 생활기능은 중심지인 고성읍에 집중되어 있다.

고성읍을 중심으로는 비교적 넓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생활기능이 집적되어 있고, 이들 지역의 외곽을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이 둘러싸는 공간구조를 이룬다. 회화면 일부 지역에도 주거지역이 소규모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외 대부분의 면 지역에서는 농경지 사이에 크고 작은 농촌마을이 산재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고성읍과 거류면, 구만면 일대에는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농촌 경관이 형성되어 있다.

공업지역은 고성읍과 하이면, 동해면 일부 지역에 한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회화면·미암면 등 일부 면의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공장용지가 산발적으로 입지해 있다. 축산용지는 대가면에 비교적 규모가 큰 형태로 분포

하는 반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농경지와 임야 사이에 소규모 축산용지와 태양광 용지가 점적으로 산재한 양상을 보인다.

관광·휴양용지는 회화면과 고성읍 산지에 골프장이 입지한 형태로 확인되며, 읍·면 전반에 걸쳐 공공기타 용지가 분산되어 분포하고 있다. 한편 영현면·영오면·개천면·대가면·하이면·삼산면 일부 지역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읍·면 단위 농촌 유형과 지표 값 특성

경남 고성군은 점야·혼합형 농촌(2개 읍·면), 농업중심형 농촌(11개 읍·면), 자연우세형 농촌(1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농업중심형 농촌이 주를 이룬다.

지역위계

인구와 고용은 군청 소재지인 고성읍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특성을 보인다. 인구밀도는 평균 90명/km²로 나타나며, 고성읍은 525명/km²로 가장 높은 반면 개천면은 26명/km²으로 가장 낮다. 고용밀도 역시 평균 39명/km²에 비해 고성읍은 238명/km²로 압도적으로 높고, 영현면은 2.8명/km²에 걸쳐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생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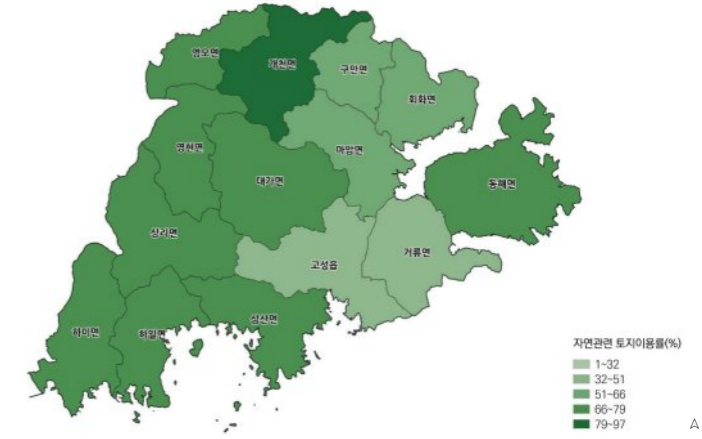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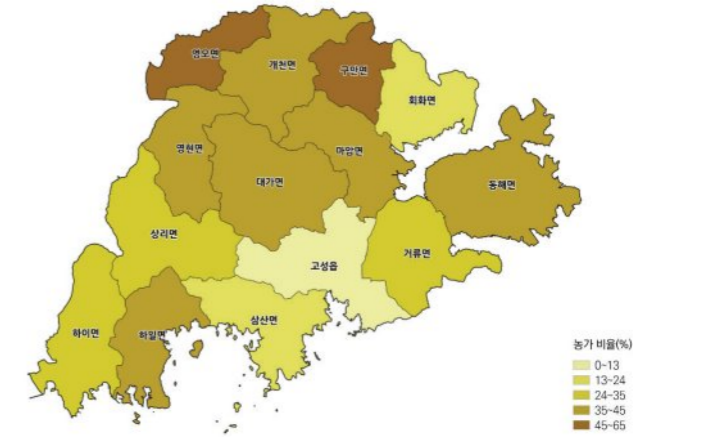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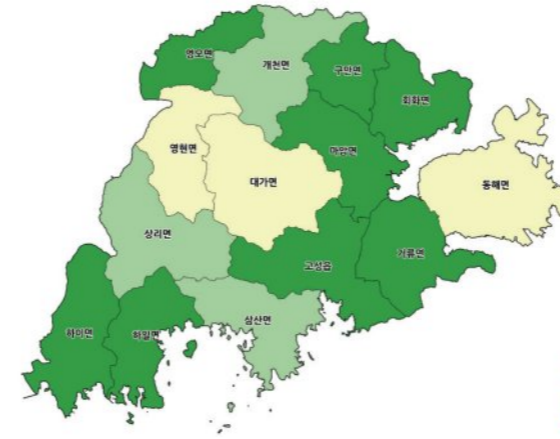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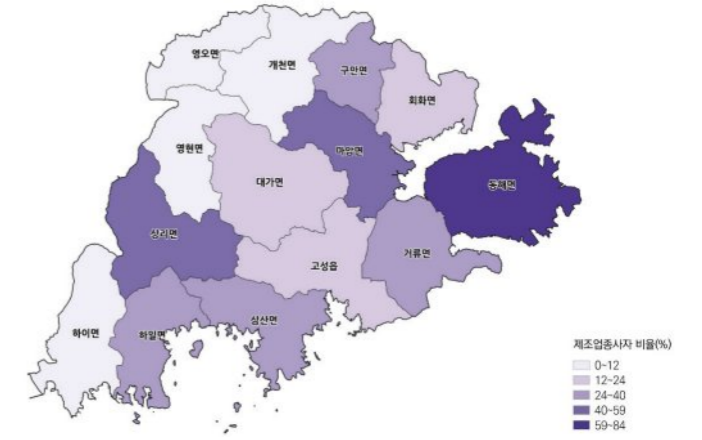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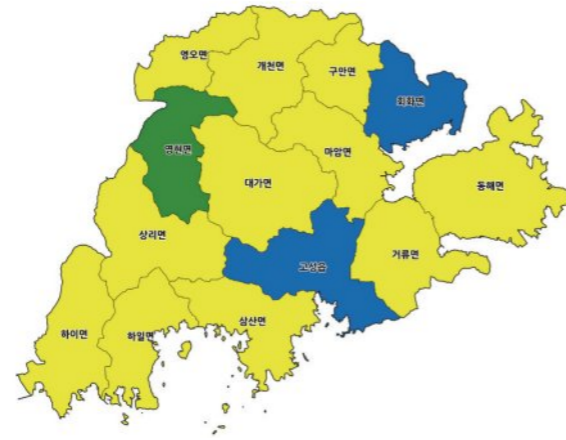
생활인프라 접근성의 평균 거리는 8,798m로, 하이면(6,610m)과 고성읍(6,845m)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인 반면 영현면은 10,732m로 접근성이 가장 취약하게 나타난다. 행정복지센터 접근성은 평균 2,455m로, 구만면이 1,453m로 가장 가깝고, 영현면은 3,410m로 행정서비스 이용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환경

고성읍은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64.3%로 가장 높아 지역 내 인구구조상 활력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동해면은 제조업종사자 비율이 72.2%로 가장 높아 산업기능이 집중된 지역으로 확인된다. 한편 영오면과 구만면은 농가 비율이 각각 51.4%, 45.6%로 높아 농업 중심의 토지이용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고성읍은 농가 비율이 10.6%로 가장 낮은 특성을 보인다.

자연환경

자연관련 토지이용률은 평균 68.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산간지역인 개천면은 자연관련 토지이용률이 80.4%로 가장 높고, 시가지가 형성된 고성읍은 46%로 가장 낮아 도시화 정도에 따라 토지이용 구조에 차이가 나타난다.



법정리 단위 농촌 토지이용 유형과 지표 값 특성

고성군 법정리의 대부분은 농업중심형 농촌 내 임야와 농경지가 혼재된 C3 유형으로 분류된다. 한편 거류면과 구만면, 동해면 일부 법정리에서는 농경지가 집중된 C2 유형이 관찰되며, 거류면·동해면·하이면에서는 농경지와 생활기능이 비교적 조화를 이루는 C1 유형이 나타난다. 또한 고성읍과 회화면은 중심으로는 B1, B2, B3 유형이 관찰되며, 영현면에는 D1, D2 유형이 나타나 지역별 토지이용 구조의 차이가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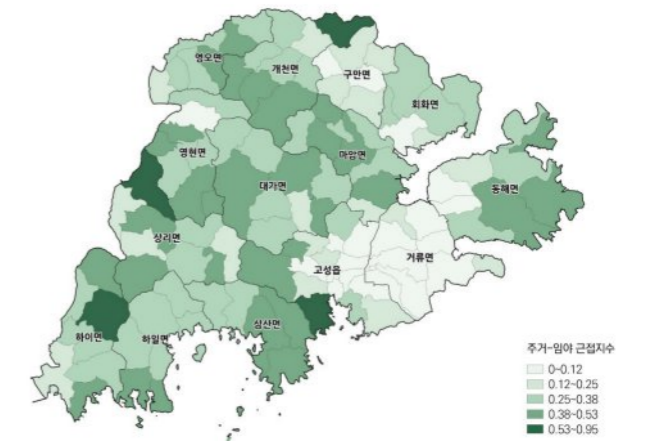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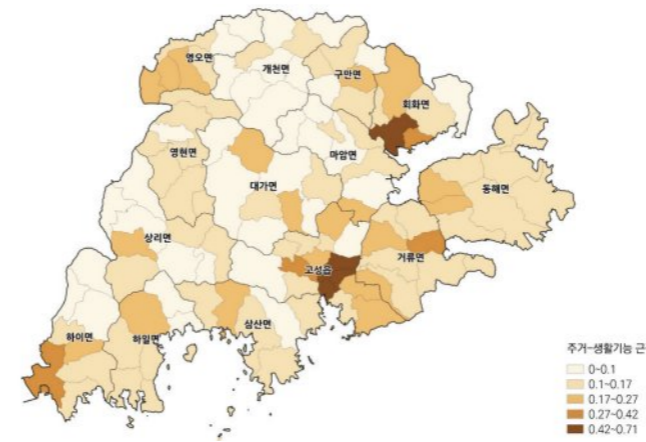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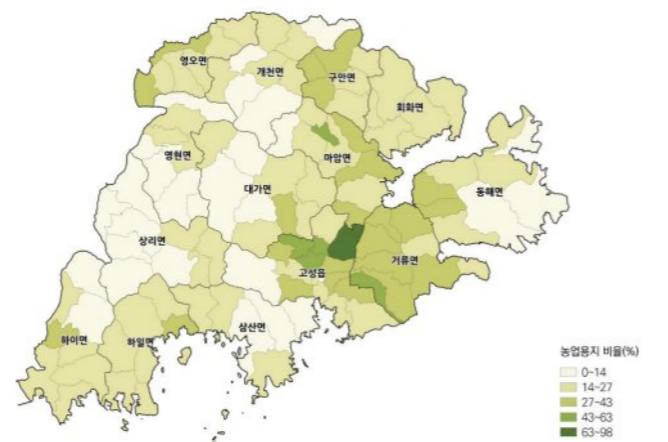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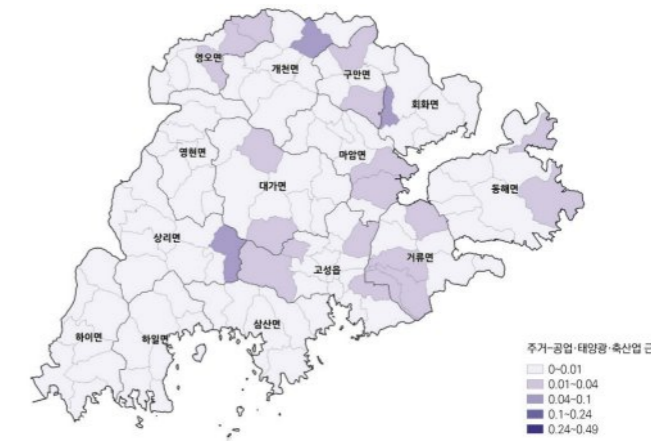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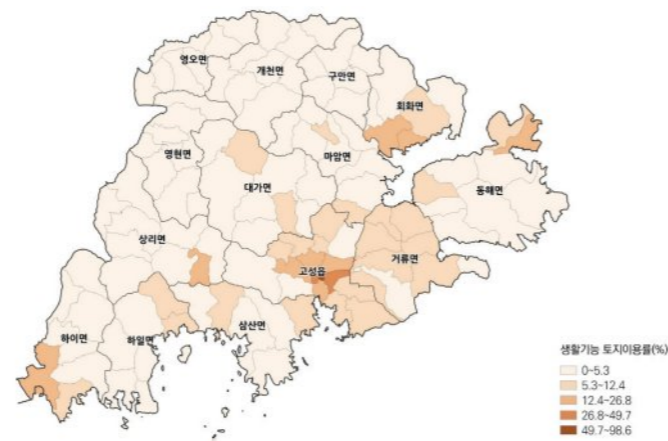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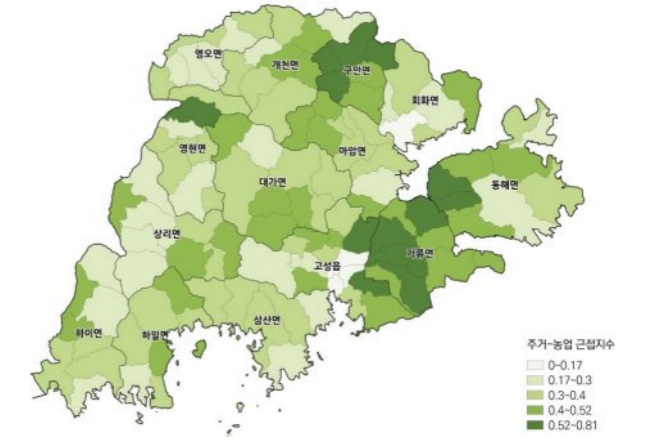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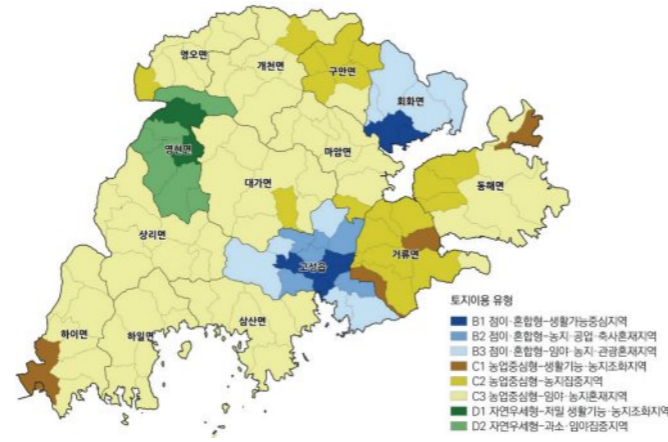
토지이용분포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은 평균 6.4%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고성읍의 중심지인 고성읍 성내리는 73.6%로 가장 높아 주거·상업 기능이 고도로 집적된 도시적 성격을 보인다. 농업용지 비율은 평균 22.4%로 나타나며, 고성읍 축계리는 76.2%에 달해 전형적인 농업 기반의 토지이용 특성이 관찰된다.

공업용지 비율은 대체로 낮은 편이나, 고성읍 울대리가 15.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산업시설이 특정 법정리에 집중된 양상을 보인다. 관광·휴양용지 비율 역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당항포 관광지가 위치한 회화면 봉동리가 20.4%로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관광 기능이 집적된 지역으로 확인된다.

토지이용혼재도

주거지와 인접한 토지이용의 특성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는 고성읍 성내리(0.67), 송학리(0.58), 서외리(0.56), 수남리(0.49)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 고성읍 중심부의 생활 편의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고성읍 축계리(0.66), 거류면 은월리(0.62), 동해면 외곡리(0.62)와 내곡리(0.61)에서 높게 나타나 농경지와 주거지가 밀접하게 혼재된 구조를 보인다. 주거-공업-태양광·축산업 근접지수는 회화면 녹명리(0.0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주거지와 생산시설 간 근접으로 인한 갈등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산림 비중이 높은 개천면 나선리는 주거-임야 근접지수가 0.63으로 가장 높아, 주거와 임야가 밀접하게 배치된 산지형 정주환경의 특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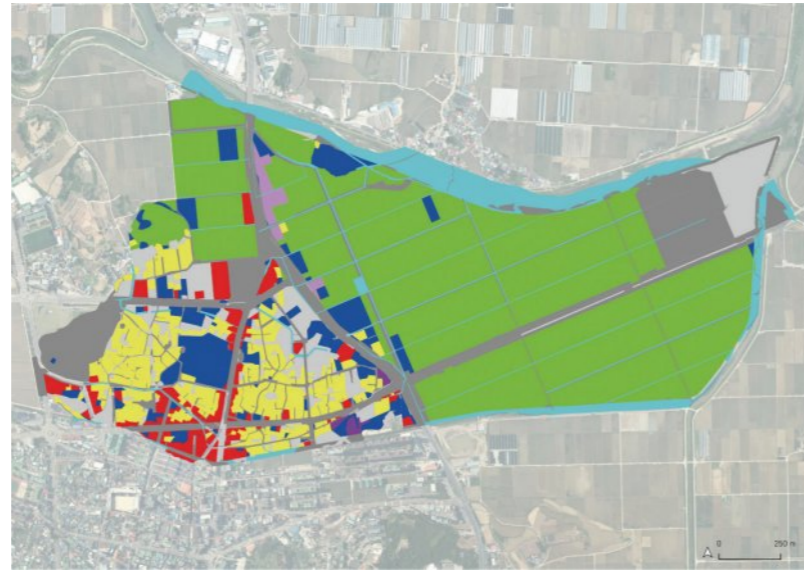


법정리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점·혼합형 생활기능중심지역

고성읍 송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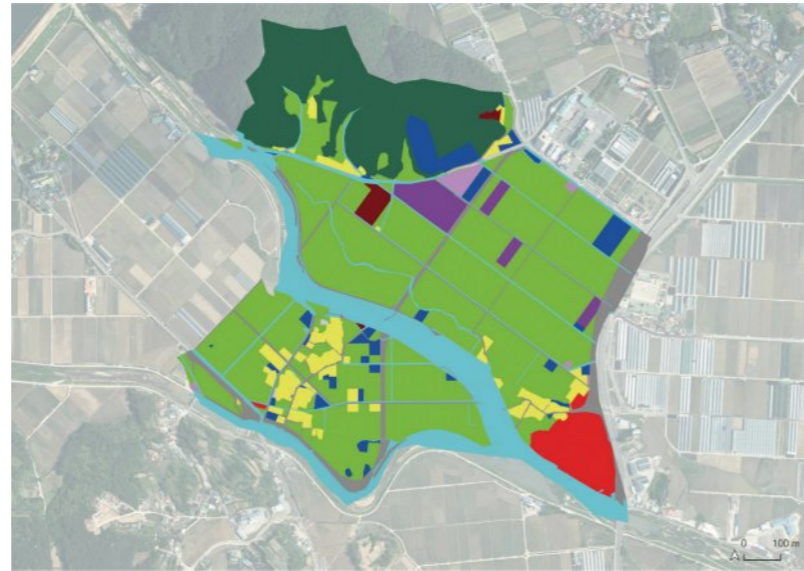
고성읍 송학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24.8%로 비교적 높고,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도 0.58로 나타나 주거지와 상업·업무 및 공공·기타용지가 넓은 범위에 집약된 토지이용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생활기능 중심지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동측에는 경지 정리된 농업용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다.



점·혼합형 농지·공업·축사혼재지역

고성읍 대평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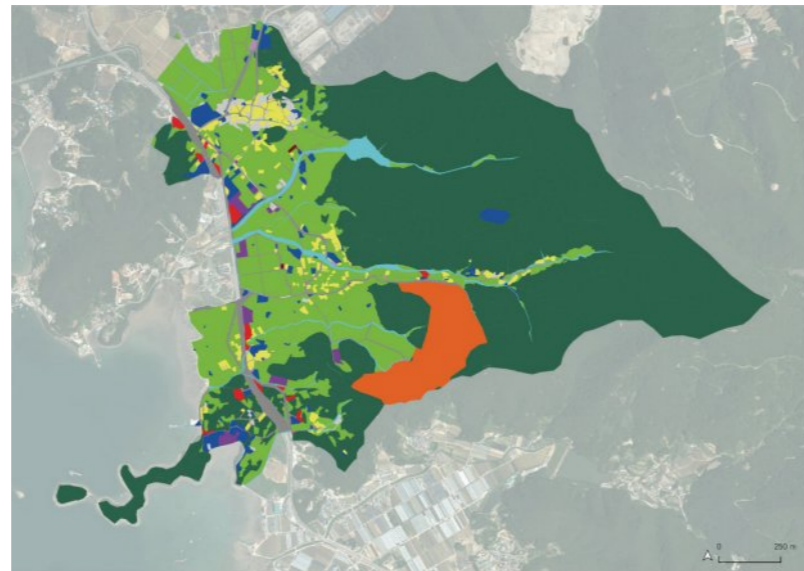
고성읍 대평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11.5%, 농업용지 비율이 48.6%, 공업용지 비율이 2.3%로 나타나며, 주거-농업 근접지수도 0.47로 비교적 높다. 경지 정리가 이루어진 농업용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북측 일부에는 임야가 분포한다. 농경지를 관통하는 하천의 북동측에는 농경지 사이로 대규모 산업용지와 축사가 일부 입지해 있으며, 남서측에는 주거지가 집적된 형태를 보인다.



점·혼합형 임야·농지·관광혼재지역

고성읍 월평리

고성읍 월평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5.7%, 농업용지 비율 22.7%, 관광·휴양용지 비율 4.7%로 나타나며, 주거-농업 근접지수도 0.43으로 비교적 높다. 서측 해안과 동측 임야 사이의 평탄한 지역을 중심으로 농경지와 생활기능이 공존하고, 임야 남측에는 대규모 관광·휴양용지가 조성되어 있다. 또한 남북 방향 도로를 따라 공업용지와 상업·업무, 공공·기타용지가 분포하는 특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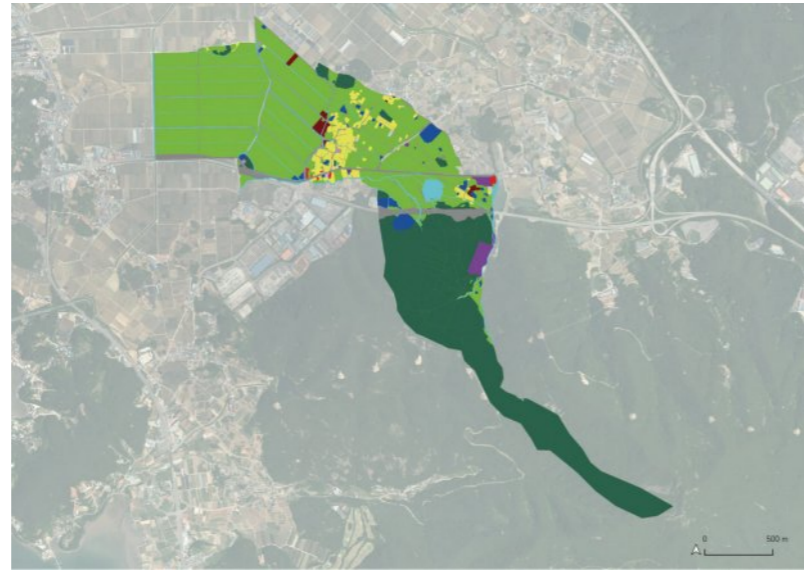


법정리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농업중심형
생활기능·농지조화지역

거류면 용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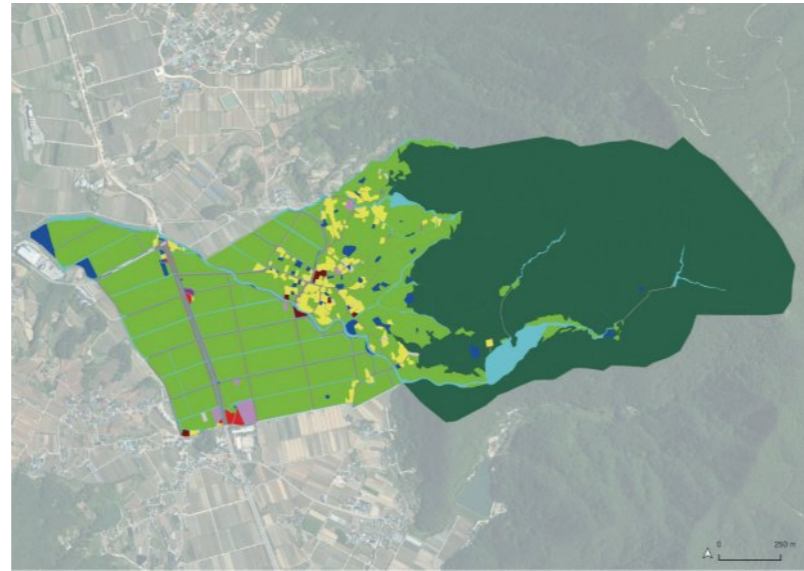
거류면 용산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6.3%, 농업용지 비율이 49.9%로 나타나며, 주거-농업 근접지수가 0.51로 비교적 높다. 북서측 평야에는 대규모 농업용지가 형성되어 있고, 남측에는 좁고 긴 임야가 분포하며, 농경지 중심부에 주거지가 집적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농업중심형
농지집중지역

동해면 외곡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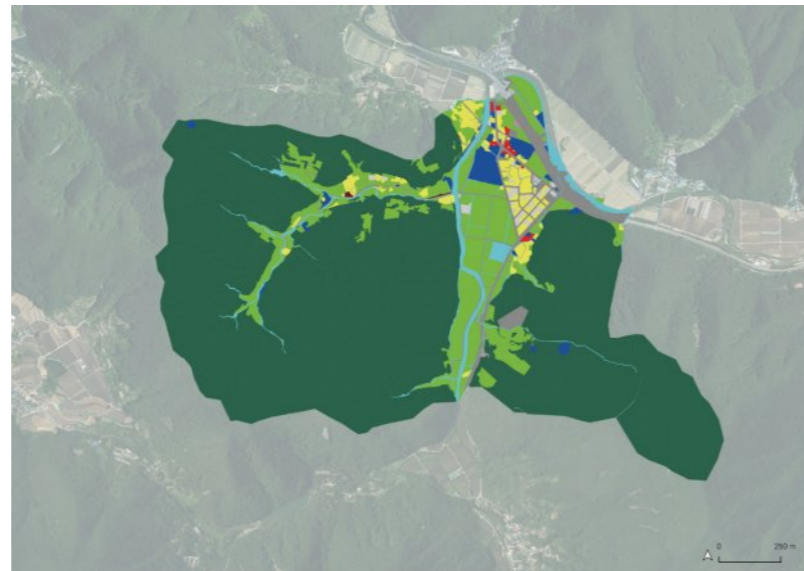
동해면 외곡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4.4%, 농업용지 비율이 35.1%로 나타나며, 주거-농업 근접지수도 0.62로 높다. 동측에는 임야가 넓게 분포하고 서측에는 경지 정리된 농업용지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한편 농경지 중심부에 주거지가 집적된 마을이 분포하며, 일부 축산용지도 관찰된다.



농업중심형
임야·농지혼재지역

상리면 척번정리

상리면 척번정리는 임야가 넓게 분포한 가운데, 농경지와 생활기능이 결합된 토지이용 구조를 보인다.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은 4.3%로 낮은 편이나, 주거지는 농경지 중앙부에 집적되어 있으며 일부는 골짜기를 따라 소규모로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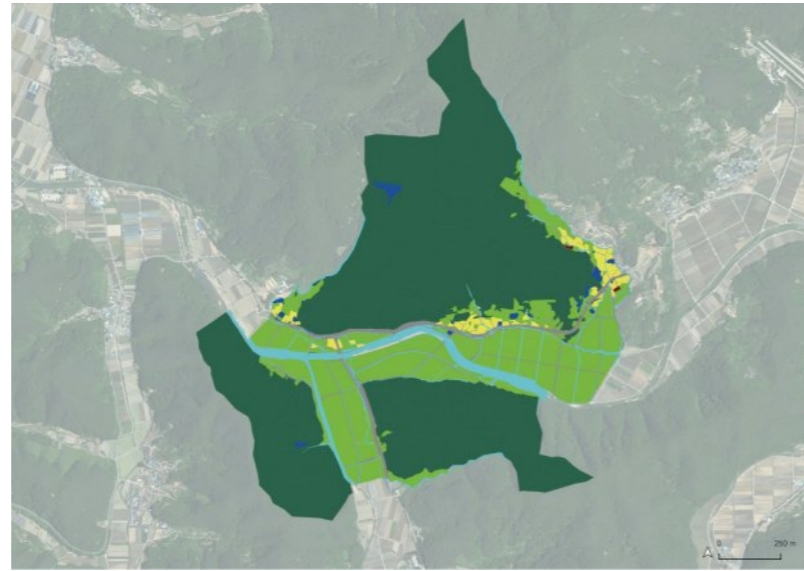


법정리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자연우세형
저밀 생활기능·농지조화지역

영현면 대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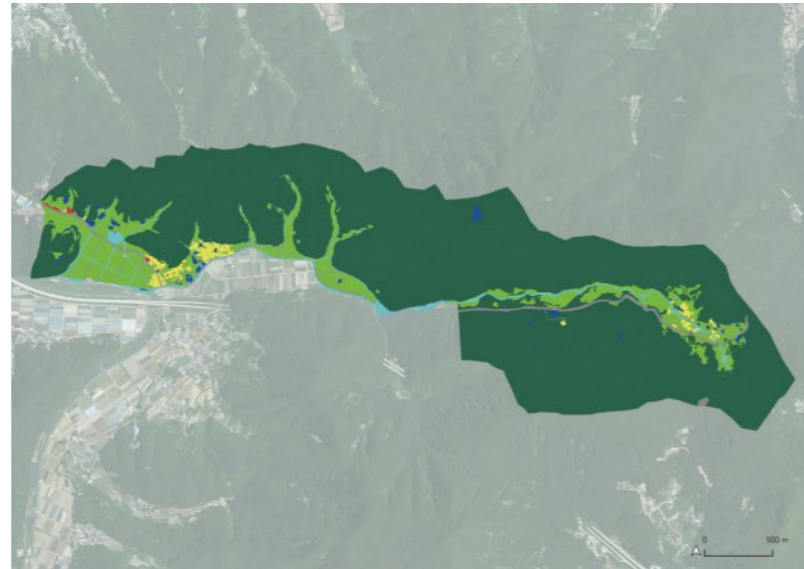
영현면 대법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2.7%, 농업용지 비율이 22%로 나타나며, 주거-농업 근접지수(0.39)와 주거-임야 근접지수(0.35)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북측과 남측에 넓게 형성된 임야 사이에 평탄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지 정리된 농업용지가 분포하고, 북측 임야와 농경지의 경계부에 소규모 취락이 형성된 구조를 보인다.



자연우세형
과소·임야집중지역

영현면 연화리

영현면 연화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2.1%, 농업용지 비율이 11.8%로 낮은 편이며, 주거-농업 근접지수와 주거-임야 근접지수가 각각 0.35와 0.34로 나타난다. 동서로 길게 형성된 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서측 평탄부에 농경지와 주거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동측 임야 골짜기를 따라 소규모 농경지와 주택이 점상으로 분포한다.



- 주거
- 도로·공원등
- 태양광
- 관광 휴양
- 이외
- 상업·업무
- 농업
- 축산업
- 임야
- 공공기타
- 공업
- 창고
- 하천

감소형 자립도시
: 충남 부여군

부여군은 점·혼합형 농촌(B)과 농업중심형 농촌(C)으로 구성된 역사문화 기반의 농촌지역이다. 점·혼합형 농촌의 성격을 보이는 부여읍과 규암면을 중심으로 생활기능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은산면과 홍산면에도 일부 주거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면 지역에서는 넓은 농업지대와 산지가 펼쳐지는 농업 중심의 토지이용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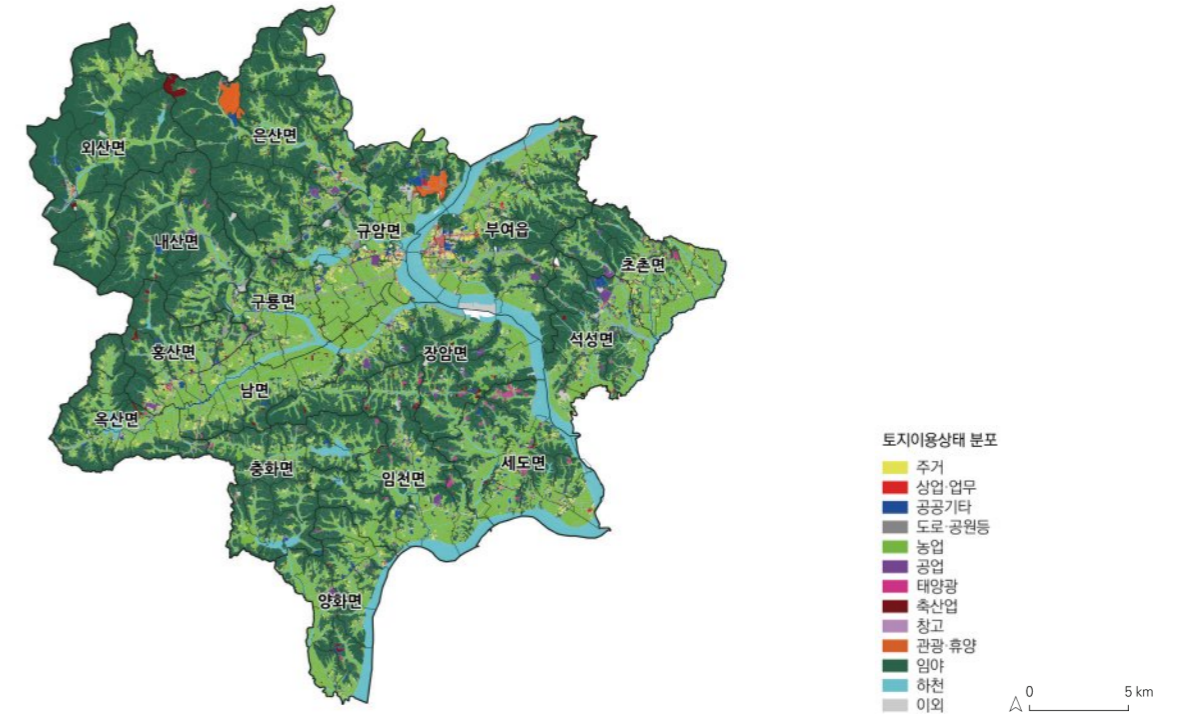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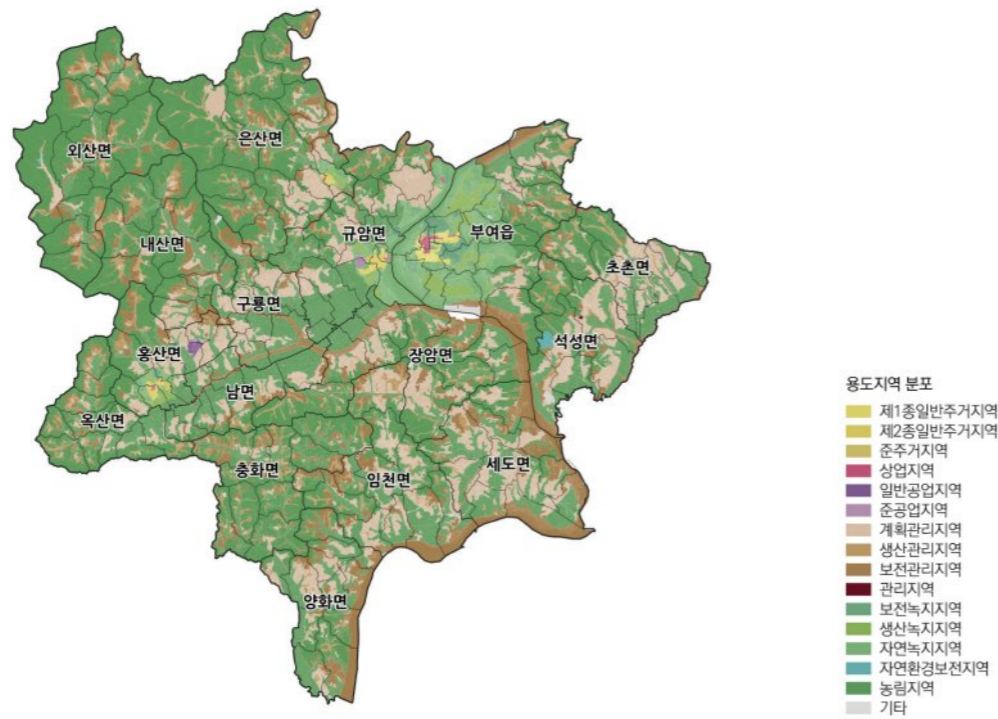
부여읍과 규암면은 금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연접한 형태로 연속적인 도시조직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요 역사·문화 자원 역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다. 규암면에는 백제문화단지가 위치해 부여군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은산면에는 골프장이 입지한 관광·휴양용지가 비교적 큰 면적으로 분포한다. 이로 인해 부여군의 관광 기능은 역사문화 자원과 휴양 관광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공업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 형태로 집적되기보다는, 농경지 사이의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개별 공장용지가 분산되어 입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장암면과 세도면 일대에는 태양광용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이 분포하며, 농경지와

임야 사이에 점상으로 입지한다. 축산용지 또한 농경지와 임야 사이에 분산되어 분포하며, 농업·축산·에너지 생산 기능이 혼재된 농촌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대규모 필지를 기반으로 한 택지개발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부여읍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도시조직을 제외하면, 농경지 주변으로 크고 작은 전통적인 농촌 마을이 산재해 있는 정주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부여군은 백제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자원과 전통 농업, 관광 기능이 한 공간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역사·문화·농업·관광이 결합된 농촌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읍·면 단위 농촌 유형과 지표 값 특성

충남 부여군은 점·혼합형 농촌(2개 읍·면)과 농업중심형 농촌(14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농업중심형 농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지역위계

인구밀도와 고용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군청 소재지인 부여읍과 인접한 규암면을 중심으로 인구와 고용이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인구밀도는 평균 91명/km²로 나타나며, 부여읍은 309명/km²로 가장 높은 반면, 산간지역인 충화면은 29명/km²로 가장 낮다. 고용밀도 역시 평균 32명/km²에 비해 부여읍은 176명/km²로 높은 편인 반면, 충화면은 4명/km²에 그쳐 읍·면 간 고용 수준의 차이가 관찰된다.

생활환경

생활인프라 접근성의 평균 거리는 8,270m로 나타난다. 부여읍(6,181m)과 규암면(6,396m)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인 반면 홍산면은 9,857m로 접근성이 가장 취약하게 나타난다. 행정복지센터 접근성은 평균 2,371m로, 홍산면이 1,578m로 가장 가깝고, 면적이 넓은 은산면은 3,296m로 행정서비스 이용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환경

부여군은 산업단지가 입지한 지역과 전통적인 농업 지역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공간구조를 보인다. 북쪽에 위치한 부여읍(61.5%)과 규암면(63.3%)을 중심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초촌면은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50.7%로 가장 높아 산업 기능이 집중된 지역으로 확인된다. 반면 대부분의 면 지역은 농가 비율이 40% 이상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농업 중심지의 성격을 띠며, 특히 서쪽에 위치한 읍·면과 동쪽의 초촌면을 중심으로 농가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 가운데 내산면(58.6%)과 충화면(51.4%)은 농가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부여읍은 18.8%로 가장 낮아 읍 지역과 면 지역 간 산업구조의 차이가 확인된다.

자연환경

부여군의 자연관련 토지이용률은 평균 57.8%로 나타난다. 산간 지대에 위치한 외산면은 80.9%로 가장 높은 반면, 평야 지대인 남면은 32.3%로 가장 낮아 지형적 특성에 따른 토지이용 차이를 보여준다.



농촌 유형
 ■ 점·혼합형
 ■ 농업중심형



생활인프라 접근성(m)
 ■ 1,450-6,656
 ■ 6,656-9,972
 ■ 9,972-18,595
 ■ 18,595-45,247
 ■ 45,247-8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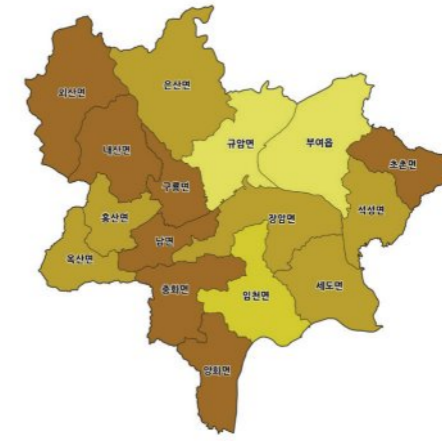
제조업종사자 비율(%)
 ■ 0-12
 ■ 12-24
 ■ 24-40
 ■ 40-59
 ■ 59-84



인구밀도(명/km²)
 ■ 2-179
 ■ 179-541
 ■ 541-1,312
 ■ 1,312-2,978
 ■ 2,978-8,282



행정복지센터 접근성(m)
 ■ 562-2,391
 ■ 2,391-3,193
 ■ 3,193-4,350
 ■ 4,350-6,757
 ■ 6,757-20,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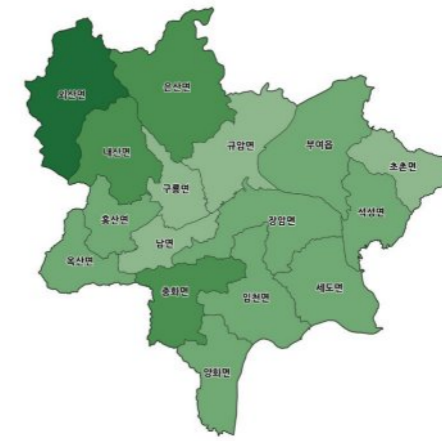
농가 비율(%)
 ■ 0-13
 ■ 13-24
 ■ 24-35
 ■ 35-45
 ■ 45-65



고용밀도(명/km²)
 ■ 0-61
 ■ 61-181
 ■ 181-405
 ■ 405-787
 ■ 787-1,520



생산가능인구 비율(%)
 ■ 36.7-47.1
 ■ 47.1-52.4
 ■ 52.4-58.8
 ■ 58.8-66.2
 ■ 66.2-78.3



자연관련 토지이용률(%)
 ■ 1-32
 ■ 32-51
 ■ 51-66
 ■ 66-79
 ■ 79-97

법정리 단위 농촌 토지이용 유형과 지표 값 특성

부여군 면 지역의 법정리는 대체로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C3 유형이 주를 이루며, 일부 법정리를 중심으로 C1, C2 유형이 분포한다. 한편 부여읍과 규암면은 B1, B2, B3 유형으로 구성되어 다른 면 지역과는 차별화된 토지이용 특성을 보인다.

토지이용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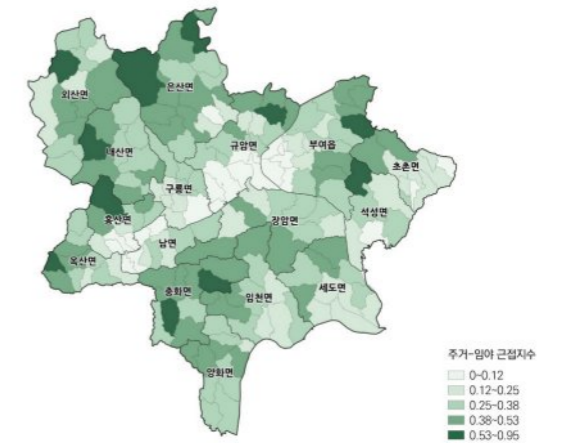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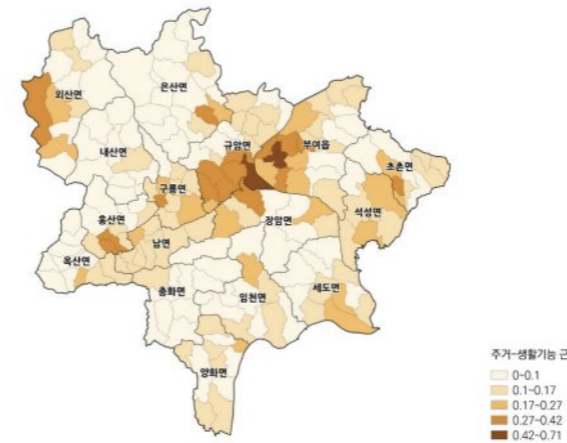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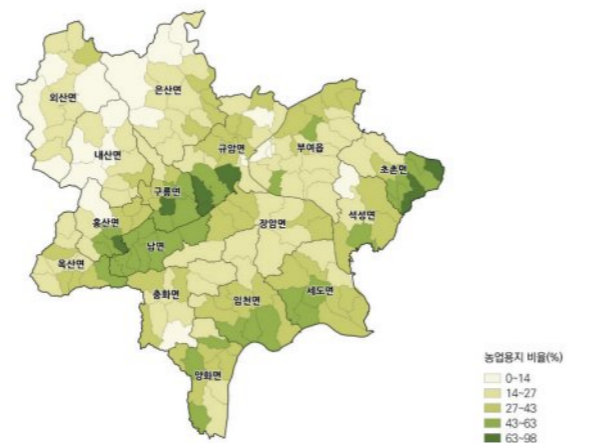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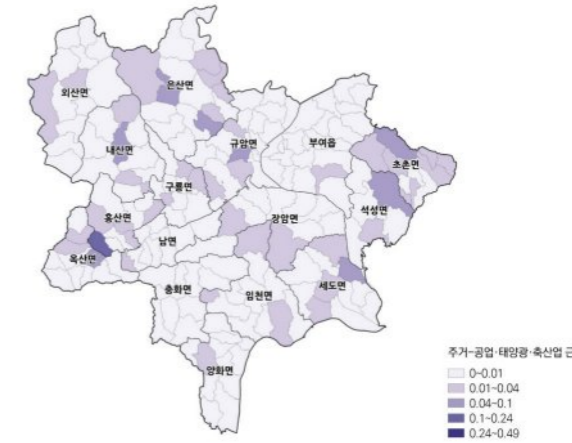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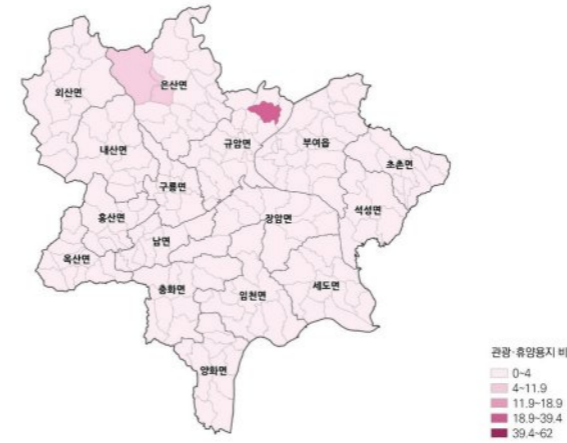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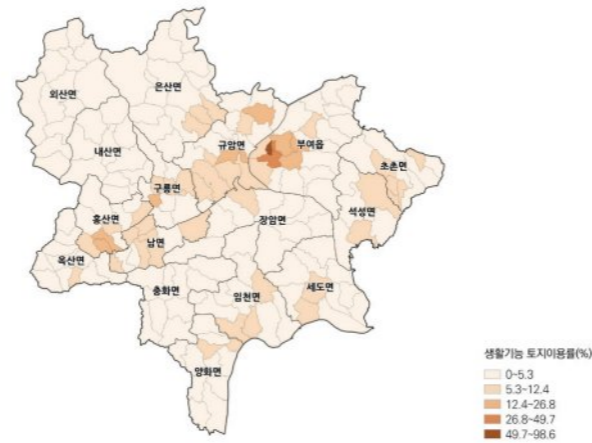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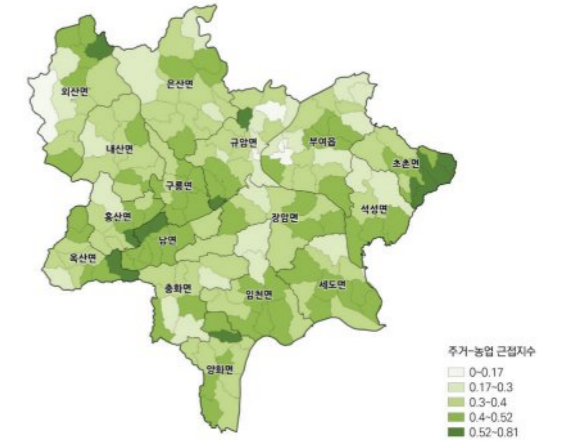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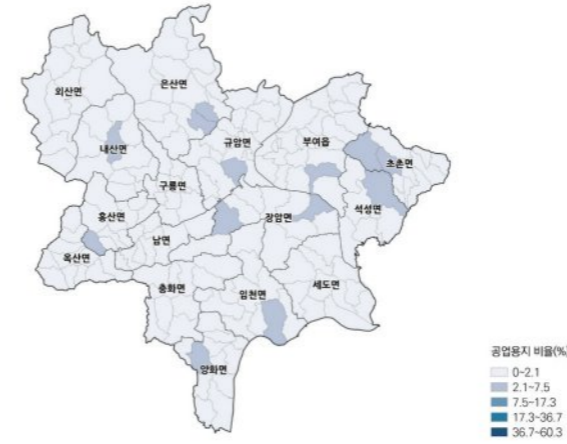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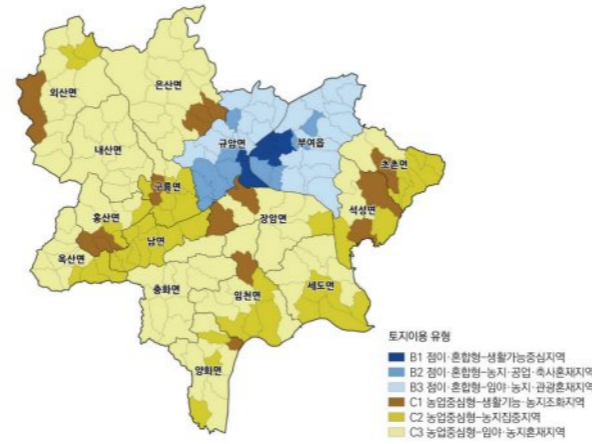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은 평균 5.5%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부여읍의 중심지인 구아리는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주거·상업 기능이 집적된 도시적 성격을 보인다. 농업용지 비율은 평균 31.6%로 나타나며, 규암면 부여두리는 80.7%에 달해 전형적인 농업 중심 토지이용 특성을 보인다.

공업용지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나, 은산면 가동리는 6.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산업시설이 집중된 양상을 보인다. 관광·휴양용지 비율 역시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백제문화단지가 위치한 규암면 합정리가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나 관광 중심지로서의 토지이용 특성을 보여준다.

토지이용혼재도

주거지와 인접한 토지이용의 특성은 법정리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는 부여읍과 규암면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부여읍 관북리(0.56)가 가장 높아 생활 편의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확인된다.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보이는 가운데, 남면 송학리(0.63)가 가장 높아 농경지와 주거지가 밀접하게 혼재된 특성을 보인다.

주거·공업 태양광·축산업 근접지수는 군 전반에 산재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는 지역이 관찰되며, 홍산면 홍양리(0.12)가 가장 높게 나타나 주거지와 생산시설의 근접에 따른 잠재적 갈등 발생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주거·임야 근접지수는 북서측에 위치한 법정리에서 주로 관찰되는데 규암면 합정리는 0.73으로 가장 높아 주거지와 임야가 밀접하게 배치된 토지이용 특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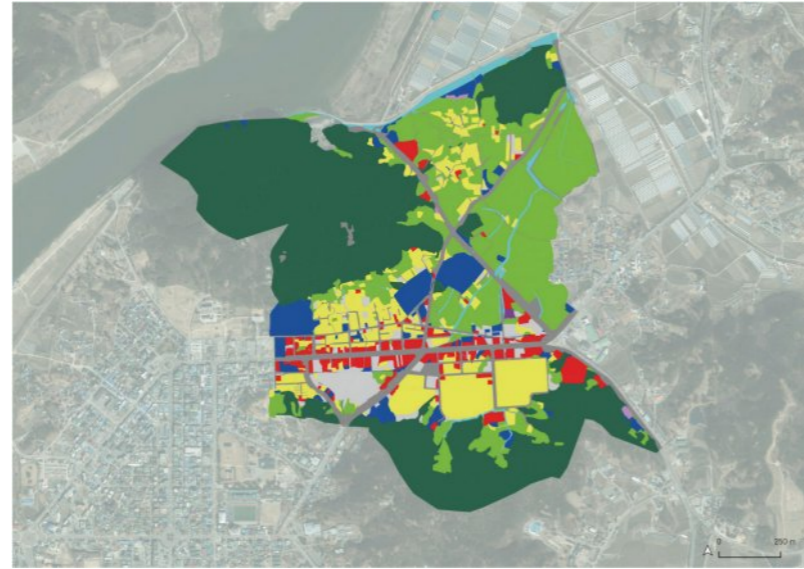


법정리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점·혼합형
생활기능중심지역

부여읍 쌍북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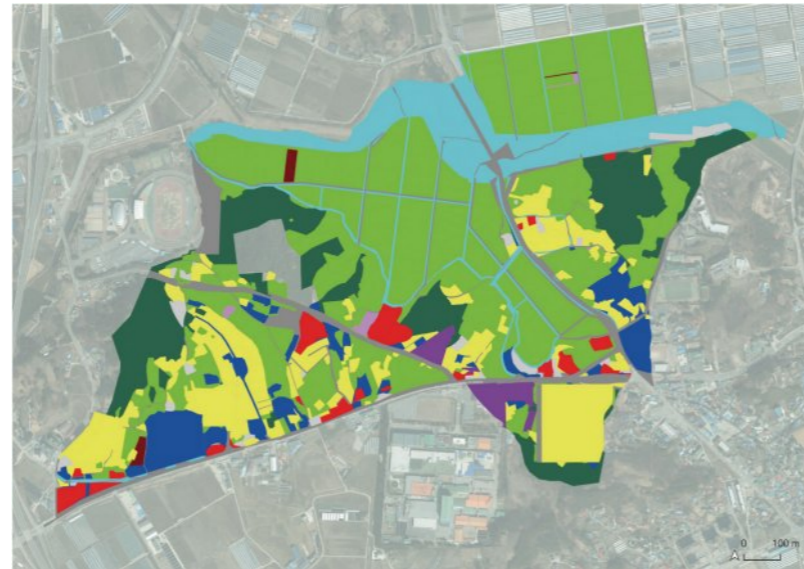
부여읍 쌍북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21.5%)과 농업용지 비율(22.8%)이 유사하며,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도 0.42로 높다. 남측 동서축 도로를 따라 주거, 상업·업무 및 공공·기타 기능이 대규모로 집적된 도시형 생활구조를 보이는 한편, 북서측의 임야와 북동측의 농업용지 및 주거가 혼재된 토지이용이 나타나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형태를 보인다.



점·혼합형
농지·공업·축사혼재지역

규암면 반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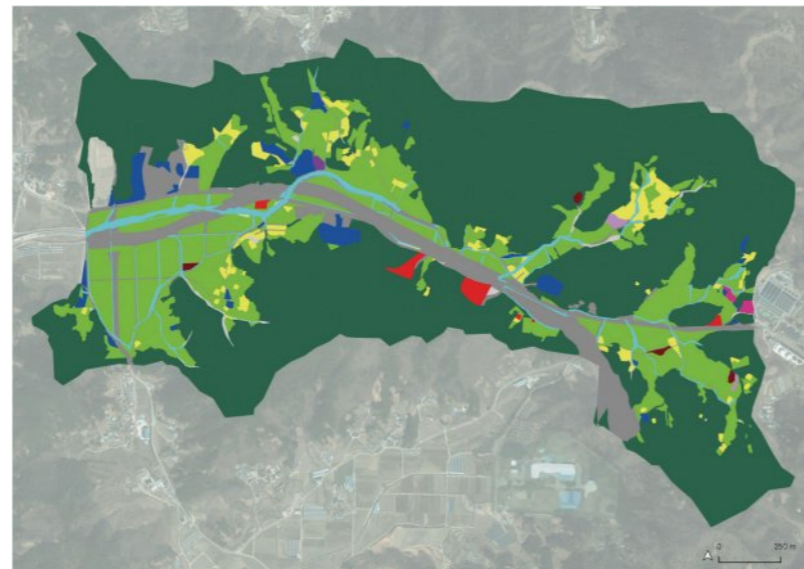
규암면 반산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22.6%, 농업용지 비율이 40.4%로 높게 나타나며,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 및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각각 0.32와 0.34로 확인된다. 북동측에는 경지 정리된 농업용지가 넓게 분포하는 한편 남서측에는 대규모 주거, 상업·업무 및 공공·기타 용지가 집적되어 있으며, 주거지와 농경지와 인접하여 일부 대규모 농업용지가 관찰된다.



점·혼합형
임야·농지·관광혼재지역

부여읍 능산리

부여읍 능산리는 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은 4.6%, 농업용지 비율은 19.2%로 나타난다. 동서축 도로를 따라 농업용지가 선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거지는 농경지 사이에 소규모로 산재해 자연 지형에 순응한 공간 구조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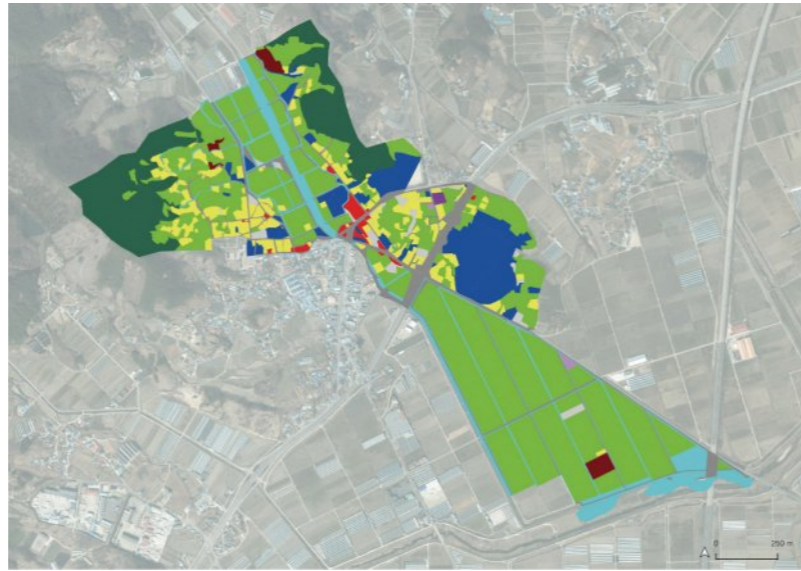


법정리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농업중심형
생활기능·농지조화지역

홍산면 북촌리

홍산면 북촌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17.7%, 농업용지 비율이 49.7%로 나타나 농업 중심 공간에 주거지가 결합된 구조를 보인다.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와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각각 0.35로, 주거지가 농경지와 인접해 집적된 형태를 보인다. 북측에는 임야와 주거지가 맞닿고, 남동측에는 경지 정리된 농업용지가 넓게 분포한다. 한편 중앙부에는 주거지와 대규모 공공·기타용지가 입지해 있다.



농업중심형
농지집중지역

구룡면 죽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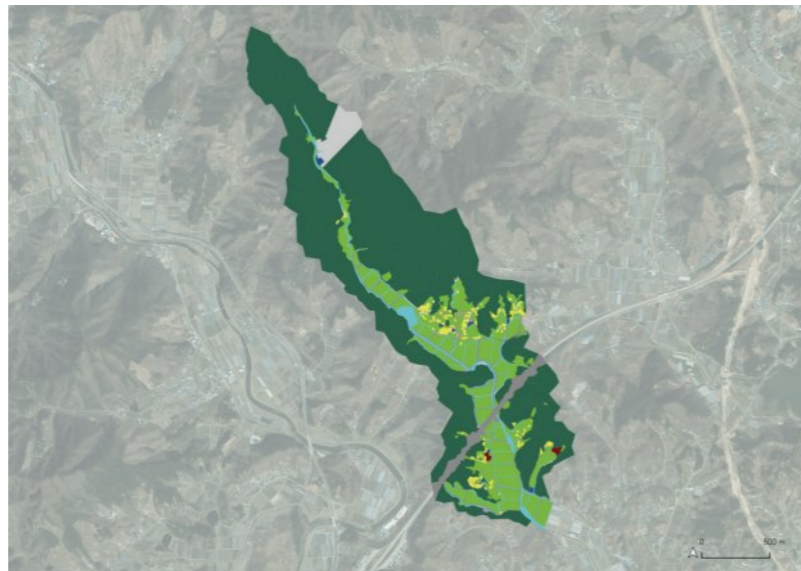
구룡면 죽교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4.8%로 낮은 반면, 농업용지 비율이 67.6%에 달해 농업 중심지의 특성을 보인다. 반듯하게 정리된 농경지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으며,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0.5로 농경지에 인접하여 소규모 취락이 분산 입지하고 있다.



농업중심형
임야·농지혼재지역

구룡면 현암리

구룡면 현암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2.1%, 농업용지 비율이 18.7%로 낮은 반면, 주거-농업 근접지수(0.4)와 주거-임야 근접지수(0.38)는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임야 사이에 농경지가 분포하고, 임야와 농경지가 맞닿는 지점에 소규모 주거지가 입지한 구조를 보인다.



감소형 자립도시
: 경북 상주시

상주시는 농업중심형 농촌(C)과 자연우세형 농촌(D)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농업·자연환경 중심의 내륙 농촌지역이다. 읍·면 지역 대부분이 넓은 농경지와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업이나 도시 기능보다는 전통적인 농업 생산을 토대로 한 공간구조를 보인다. 과수 농업과 논농사가 함께 발달한 농업 경관과 산지 중심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며, 전반적으로 도시화의 영향이 크지 않은 모습이다.

읍·면 지역 가운데에서는 함창읍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비교적 넓게 형성되어 생활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낙동면·청리면·공성면·화북면·화서면·모서면 등 일부 지역에서 주거지역이 관찰된다. 다만 이들 지역 역시 실제 시가지 규모는 크지 않고, 상업·서비스 기능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생활 거점으로서의 기능은 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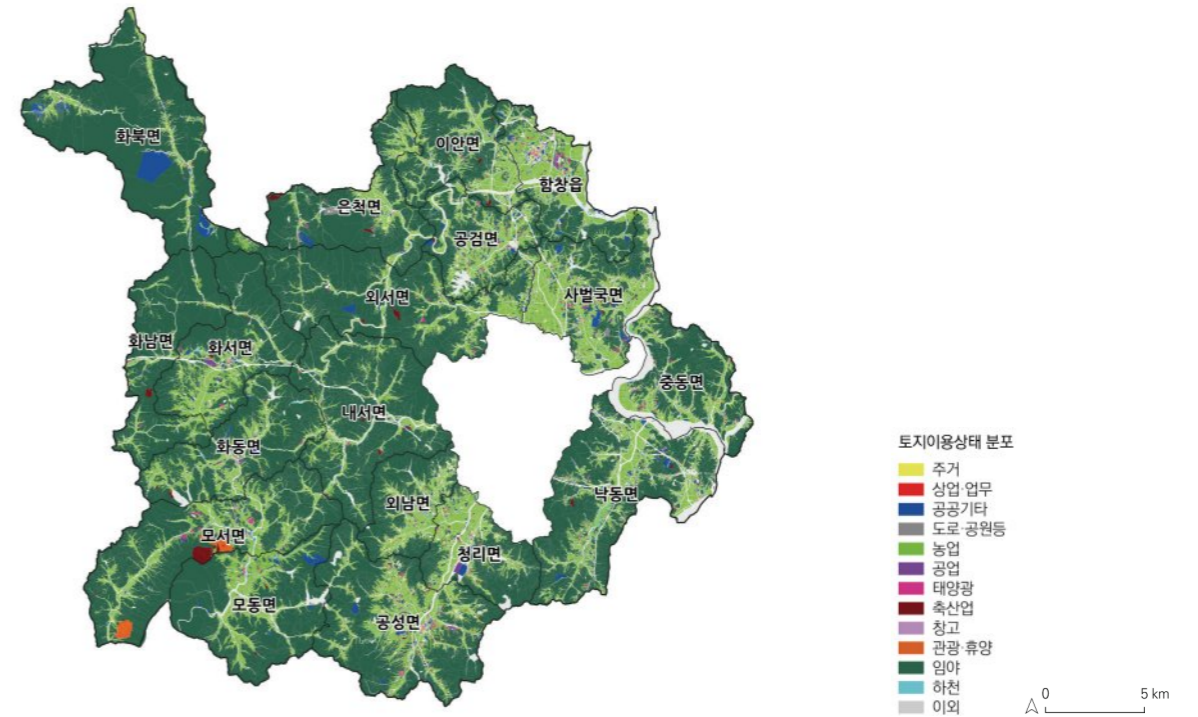
공업지역은 청리면과 은척면 등 일부 지역에서 관찰되며, 대규모 산업단지나 집적된 공업지역은 발달되지 못했다. 개별입지 공장이 들어선 공장용지도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대부분의 지역은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업·자연환경 위주의 토지이용 특성을 보인다.



함창읍·공검면·사벌국면 일대와 외남면·청리면·공성면 일대를 중심으로 비교적 넓은 농경지가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임야와 농경지가 반복적으로 펼쳐지는 산지형 농촌 경관이 관찰된다. 앞서 살펴본 다른 시·군과 유사하게, 상주시 읍·면 지역에서도 농경지 사이사이에 축사와 태양광용지가 점적으로 분포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특히 모서면·외서면·은척면 등 일부 지역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축산용지가 분포하는 등 축산업의 비중도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대규모 필지를 기반으로 한 택지개발이나 복합적인 도시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체로 농경지와 임야 사이에 소규모 농촌마을이 산재해 있는 농촌 취락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상주시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가운데, 농업 생산과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농업 기반 위에서 형성된 농업·자연환경 중심의 농촌공간을 비교적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읍·면 단위 농촌 유형과 지표 값 특성

경북 상주시는 농업중심형 농촌(15개 읍·면)과 자연우세형 농촌(3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농업 기반 지역으로서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지역위계

상주시 읍·면의 인구밀도와 고용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며, 지역 간 편차도 비교적 크지 않다. 다만 함창읍은 인구와 고용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지역으로 확인된다. 인구밀도는 평균 43명/km²로 나타나며, 함창읍은 143명/km²로 가장 높은 반면 화남면은 14명/km²로 가장 낮다. 고용밀도 역시 평균 12명/km²인 가운데, 함창읍이 49명/km²로 가장 높고 화남면은 1.7명/km²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생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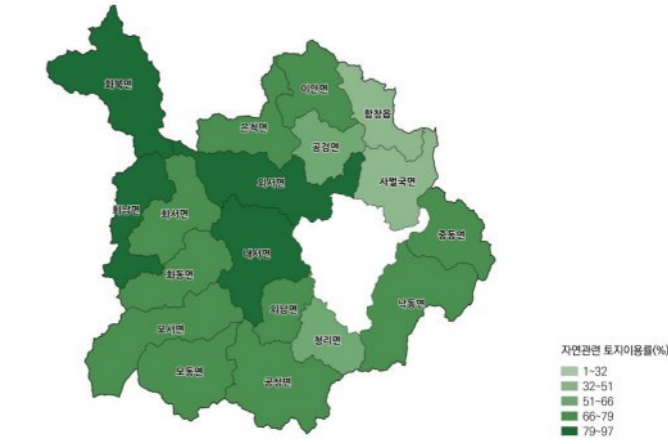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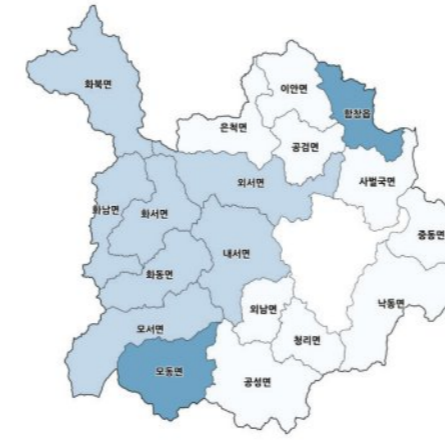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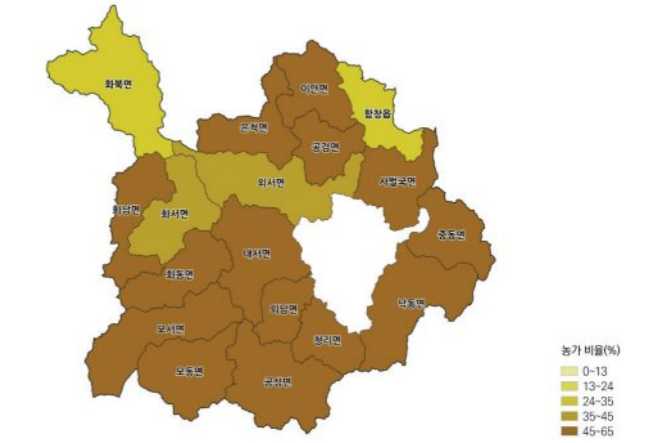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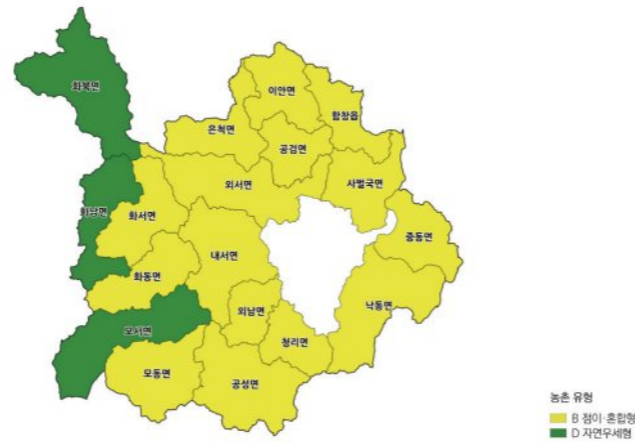
생활인프라와 행정서비스 접근성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생활인프라 접근성은 평균 8,533m로 나타나며, 함창읍은 4,689m로 가장 양호한 반면, 산간지역인 모서면은 12,186m로 접근성이 가장 취약하다. 행정복지센터 접근성은 평균 2,982m로, 청리면이 1,888m로 가장 가깝고 면적이 넓은 화북면은 4,817m로 행정서비스 이용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환경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40.2%~53.3% 범위로 나타나며, 함창읍과 모동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제조업종사자 비율은 내서면과 외남면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내서면은 43.9%로 가장 높아 산업 기능이 집중된 지역으로 확인된다. 반면 농가 비율은 함창읍(26.6%)과 화북면(34.5%)을 제외한 읍·면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중동면(65.1%)과 모동면(61.3%)이 특히 높아 농업 중심지로 확인된다.

자연환경

자연관련 토지이용률은 평균 70.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며, 화북면·화남면·외서면·내서면에서 특히 높은 비중이 나타난다. 산간 지대에 위치한 화남면은 89.1%로 가장 높은 반면, 평야 지대인 사별곡면은 41.3%로 가장 낮아 지형적 특성에 따라 토지이용 구조에 차이가 나타난다.



법정리 단위 농촌 토지이용 유형과 지표 값 특성

상주시 법정리는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C3 유형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동쪽에 위치한 함창읍·공검면·사벌국면·중동면·낙동면과 남서쪽에 위치한 외남면·청리면·공성면·모동면·화동면·화서면에서는 C1, C2 유형이 함께 나타난다. 한편 동쪽에 위치한 화북면·화남면·모서면은 D1, D2 유형으로 공존하는 특성을 보인다.

토지이용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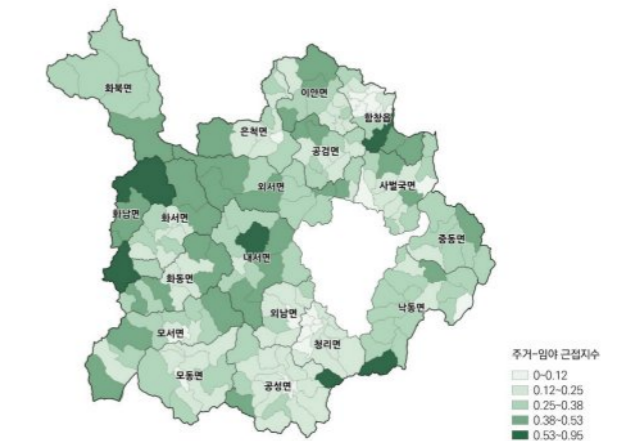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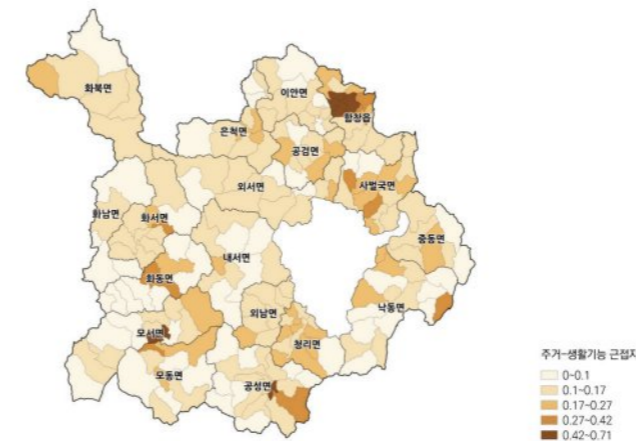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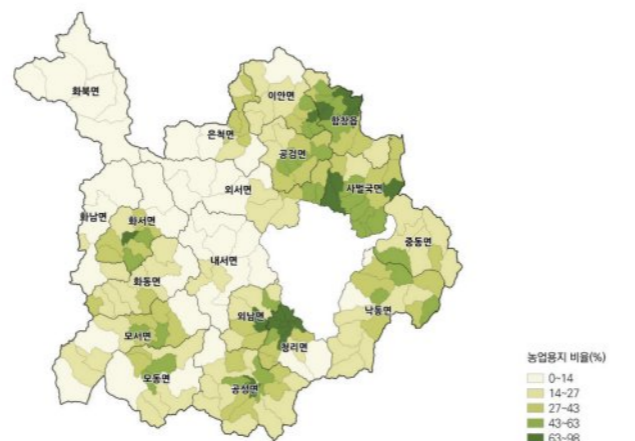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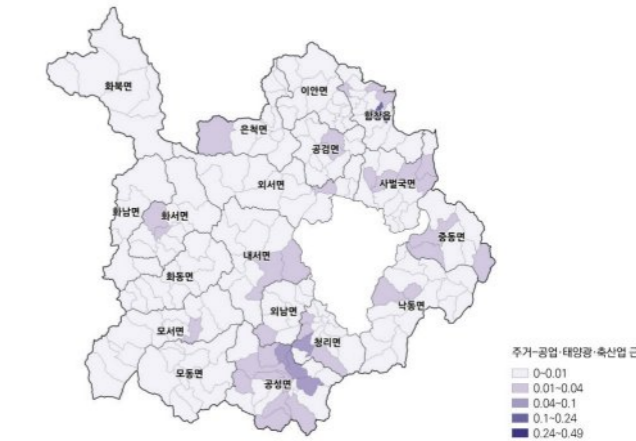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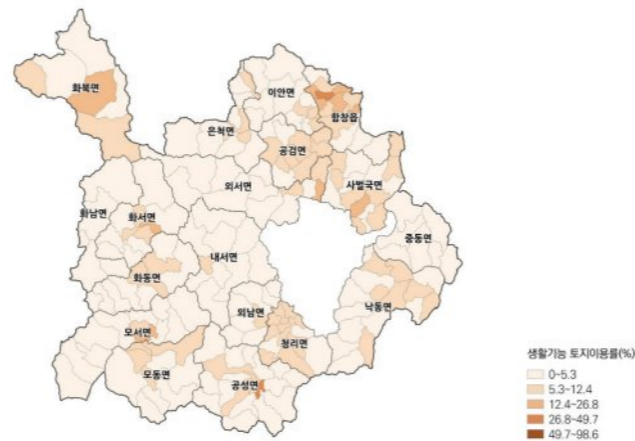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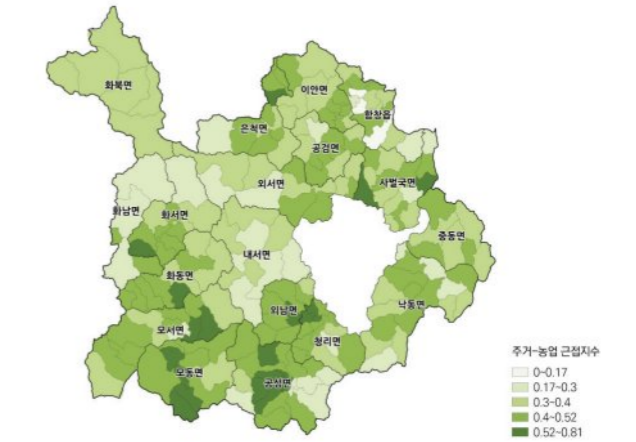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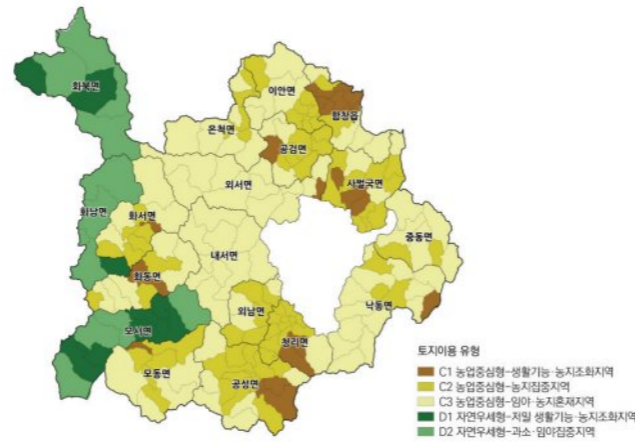
생활가능 토지이용률은 평균 5.3%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함창읍의 중심지인 구향리는 39.8%로 가장 높아 주거·상업 기능이 집적된 도시적 성격을 보인다. 농업용지 비율은 평균 32%로 나타나며, 북동쪽에 위치한 함창읍·공검면·사벌국면과 남서쪽의 외남면·청리면·공성면 일대 법정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이 가운데 사벌국면 원흥리는 농업용지 비율이 93%에 달해 대규모 농경지가 조성된 전형적인 농업 중심지로 확인된다.

공업용지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나, 함창농공단지가 입지한 함창읍 오동리는 9.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산업 기능이 집적된 양상을 보인다. 관광·휴양용지 비율 역시 대체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백화산 인근에 위치한 모서면 삼포리는 24.4%로 가장 높아 관광 기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토지이용혼재도

주거지와 인접한 토지이용의 특성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주거-생활가능 근접지수는 함창읍 구향리(0.59)가 가장 높게 나타나 생활 편의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확인된다. 주거-농업 근접지수는 농업용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특히 청리면 울리(0.67)는 농경지와 주거지가 밀접하게 배치된 특성이 두드러진다.

주거-공업·태양광·축산업 근접지수는 북동측과 남쪽에 위치한 일부 법정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는 가운데, 함창읍 태봉리(0.12)가 가장 높게 나타나 주거지와 생산시설 간 근접으로 인한 잠재적 갈등 발생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산림 비중이 높은 공성면 무곡리, 함창읍 신덕리, 낙동면 수정리는 주거-임야 근접지수가 0.59~0.61로 높아, 주거지와 임야가 인접해 형성된 산지형 정주 구조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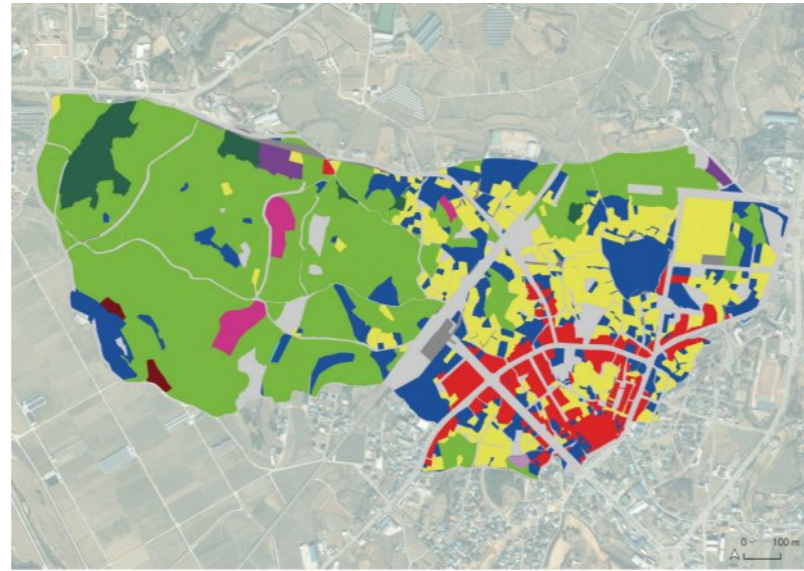


법정리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농업중심형 생활기능·농지조화지역

함창읍 구향리

함창읍 구향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39.8%, 농업용지 비율이 49.1%로 생활기능과 농업이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인다.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는 0.59로 매우 높아 주거와 상업·업무 및 공공·기타용지가 집적된 생활 중심지의 성격이 뚜렷하며, 일부 주거지는 배후 농경지와 인접해 분포한다. 한편 서측으로 농경지가 넓게 분포하며, 농경지 사이로 농업·태양광·축산용지가 일부 혼재된 양상이 나타난다.



농업중심형 농지집중지역

함창읍 대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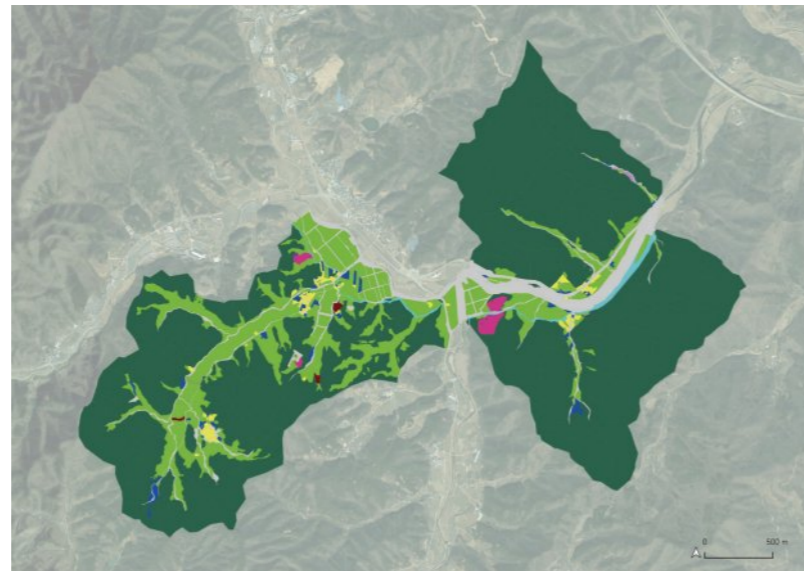
함창읍 대조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이 11.3%, 농업용지 비율이 61.7%로 농경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지집중지역이다. 북서측 일부에는 임야가 분포하며, 주거-농업 근접지수(0.5)가 높아 주거지가 농경지 사이에 소규모 취락 형태로 분포하는 구조를 보인다.



농업중심형 임야·농지혼재지역

내서면 평지리

내서면 평지리는 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은 1.9%, 농업용지 비율은 18%로 나타나 임야와 농경지가 혼재한 토지이용 특성을 보인다. 주거-농업 근접지수와 주거-임야 근접지수는 각각 0.4와 0.33으로, 주거지가 소규모 취락 형태로 농경지와 임야 인근에 입지해 있으며, 일부 농경지에는 대규모 태양광용지가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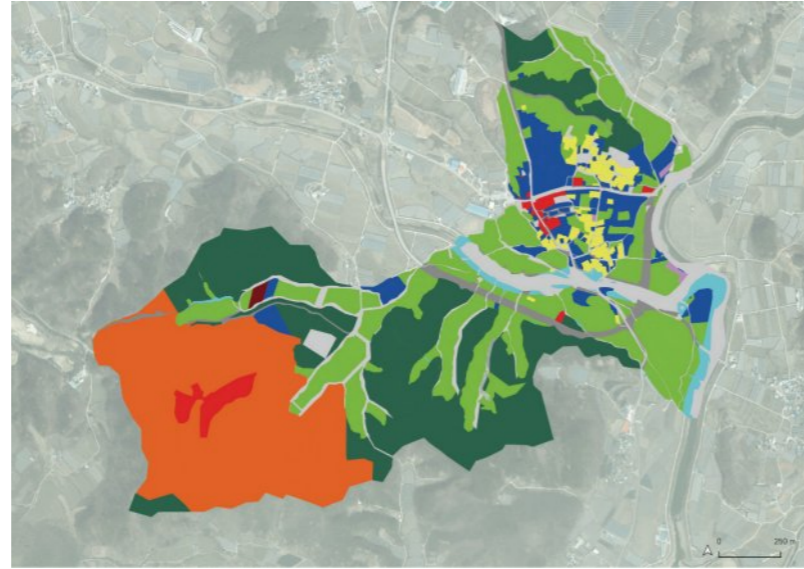


법정리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자연우세형
저밀 생활기능 농지조화지역

모서면 삼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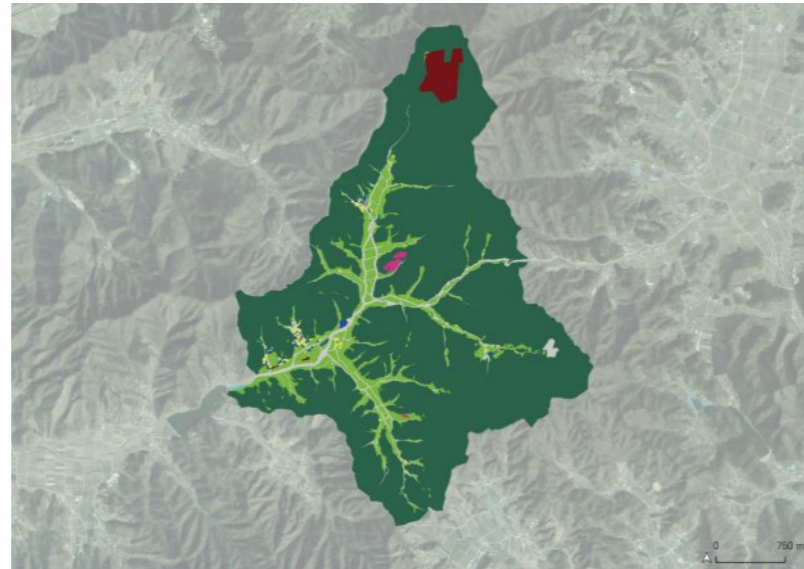
모서면 삼포리는 생활기능 토지이용률 14.9%, 농업용지 비율 28.3%, 관광·휴양용지 비율 24.4%로 나타난다. 주거-생활기능 근접지수는 0.47로 높아 북동측에 주거지와 상업·업무 및 공공·기타용지가 집적되어 있으며, 남서측 임야에는 골프장을 포함한 대규모 관광·휴양용지가 입지한 것이 특징적이다.



자연우세형
과소·임야집중지역

화남면 중놀이

화남면 중놀리는 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생활기능 토지이용률은 1%, 농업용지 비율은 10.7%로 낮게 나타난다. 주거-임야 근접지수가 0.54로, 주거지가 임야와 인접해 소규모 취락 형태로 분포하며, 북측에는 대규모 축산용지와 일부 태양광용지가 입지해 있다.



지도와 하늘에서 본 농촌 토지이용 유형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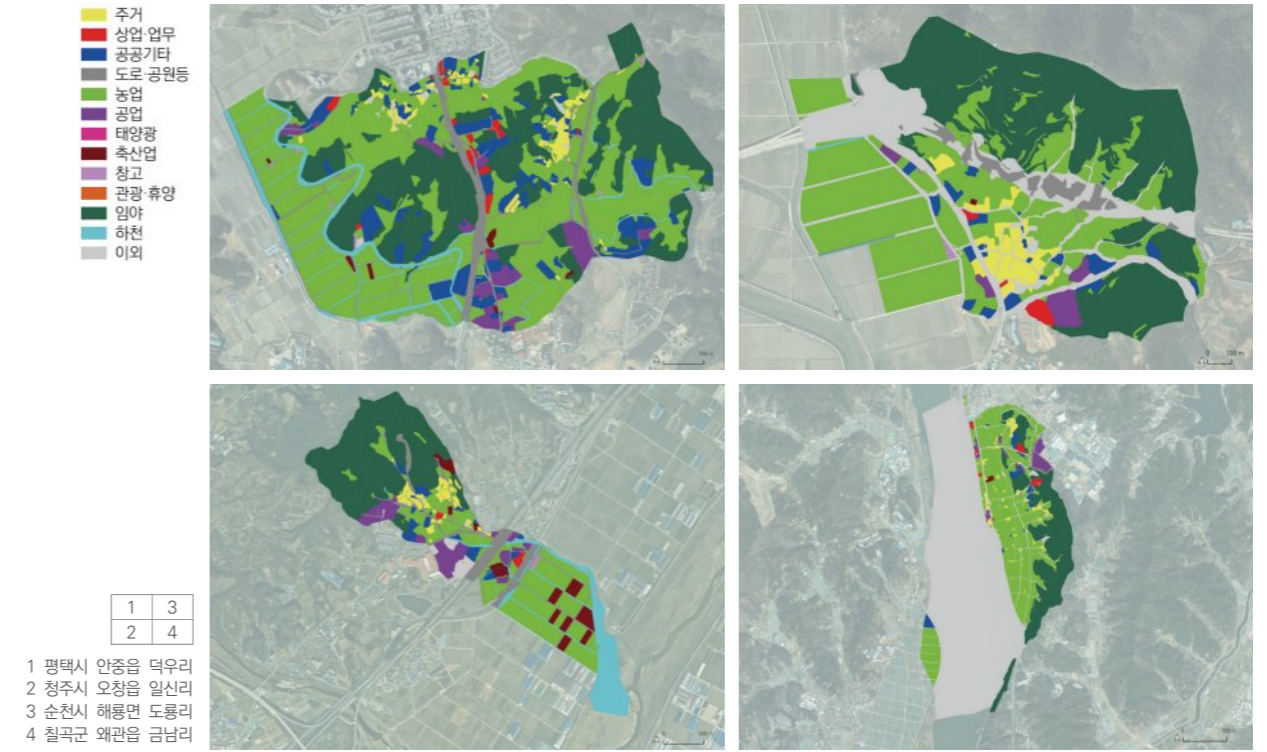
도시형 농촌
점·혼합형 농촌
농업중심형 농촌
자연우세형 농촌

도시형 농촌

A1 도시형_고밀 생활기능중심지역



A2 도시형_공업·농지집중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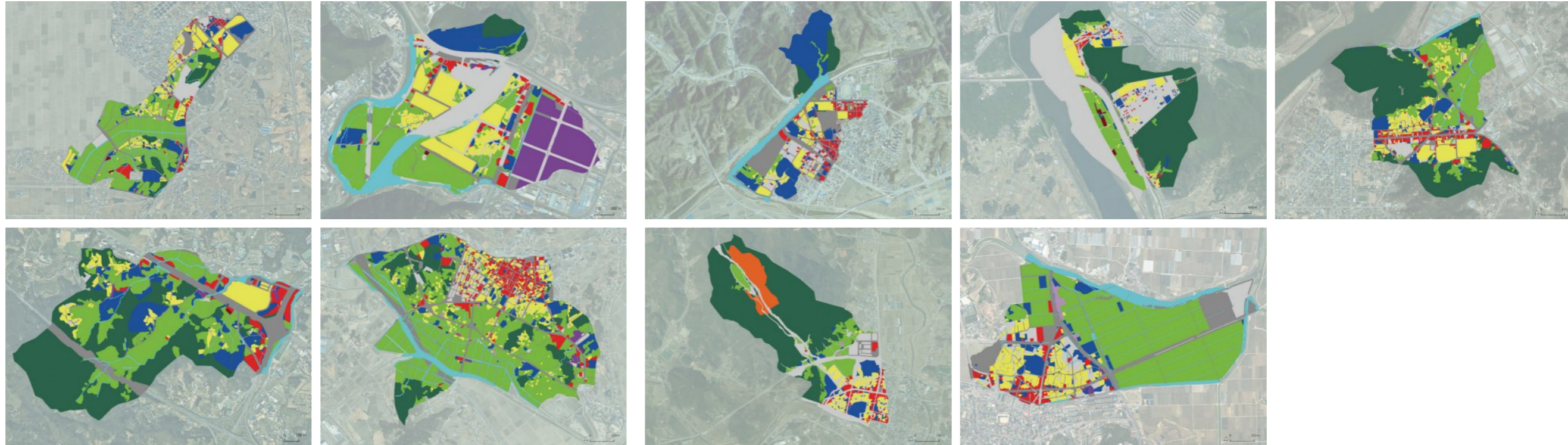
점자·혼합형 농촌

B1 점자·혼합형_생활기능중심지역

- 주거
- 상업·업무
- 공공기타
- 도로·공원등
- 농업
- 공업
- 태양광
- 축산업
- 창고
- 관광·휴양
- 임야
- 하천
- 이외

1	3	5	7	9
2	4	6	8	

- 1 평택시 평성읍 송화리
- 2 청주시 남이면 가마리
- 3 순천시 서면 선평리
- 4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 5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 6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 7 철곡군 석적읍 남월리
- 8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 9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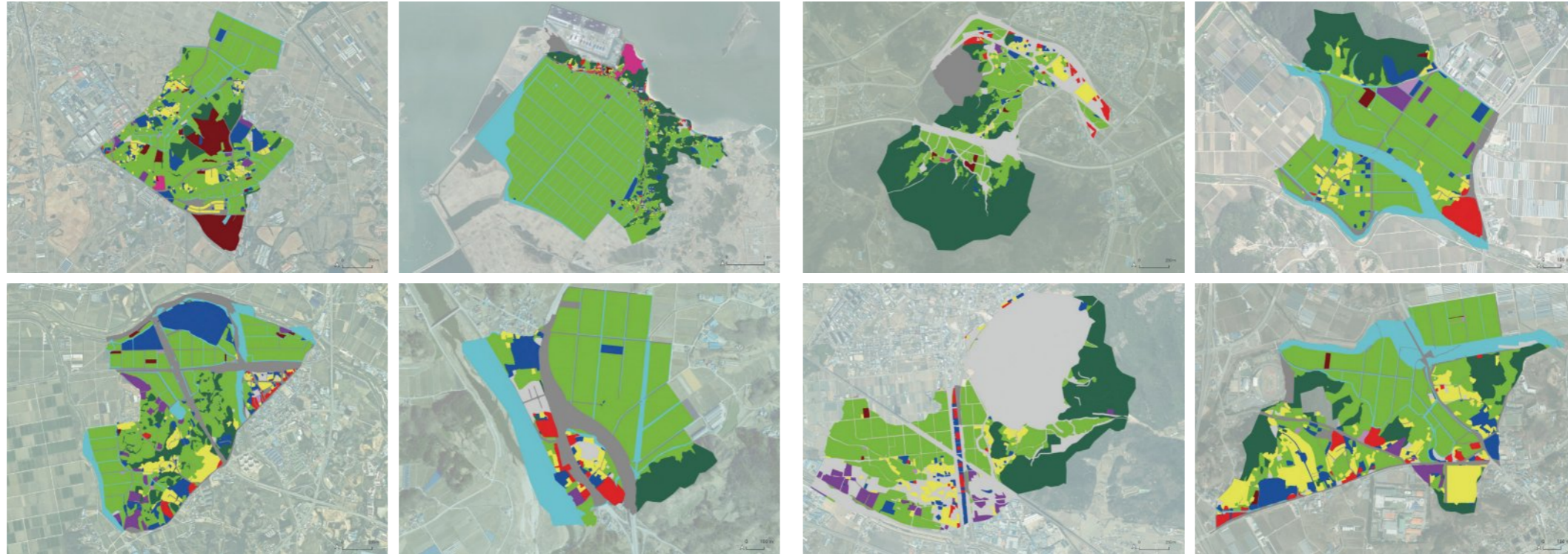


B2 점이·혼합형_농지·공업·축사혼재지역

- 주거
- 상업·업무
- 공공기타
- 도로·공원등
- 농업
- 공업
- 태양광
- 축산업
- 창고
- 관광·휴양
- 임야
- 하천
- 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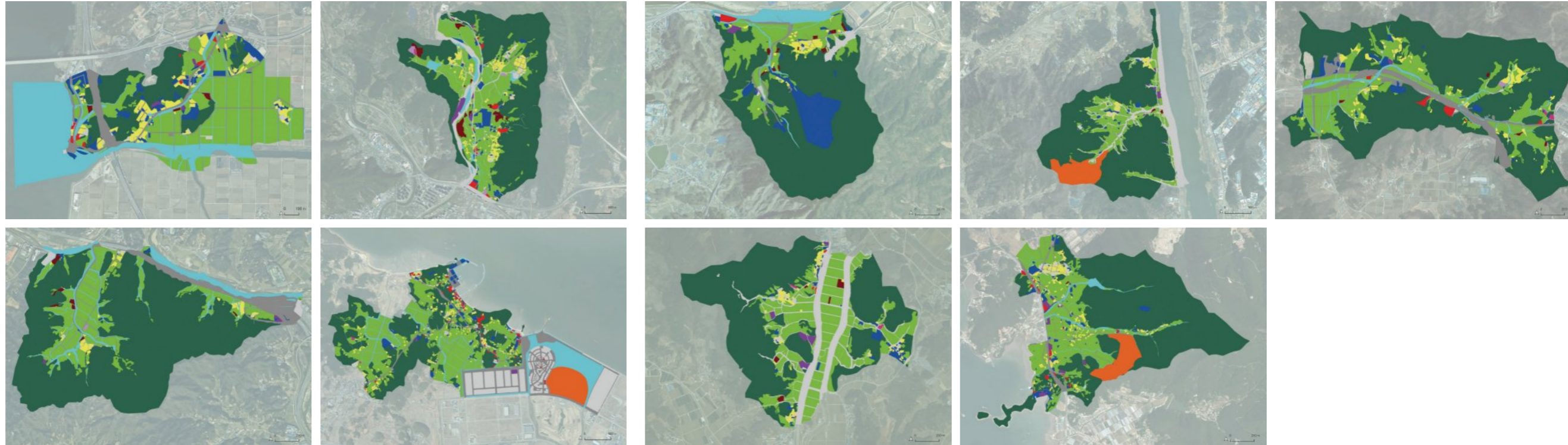
1	3	5	7
2	4	6	8

- 1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
- 2 청주시 내수읍 내수리
- 3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 4 황성군 황성읍 곡교리
- 5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 6 철곡군 북삼읍 울리
- 7 고성군 고성읍 대평리
- 8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



B3 점이·혼합형_임야·농지·관광휴먼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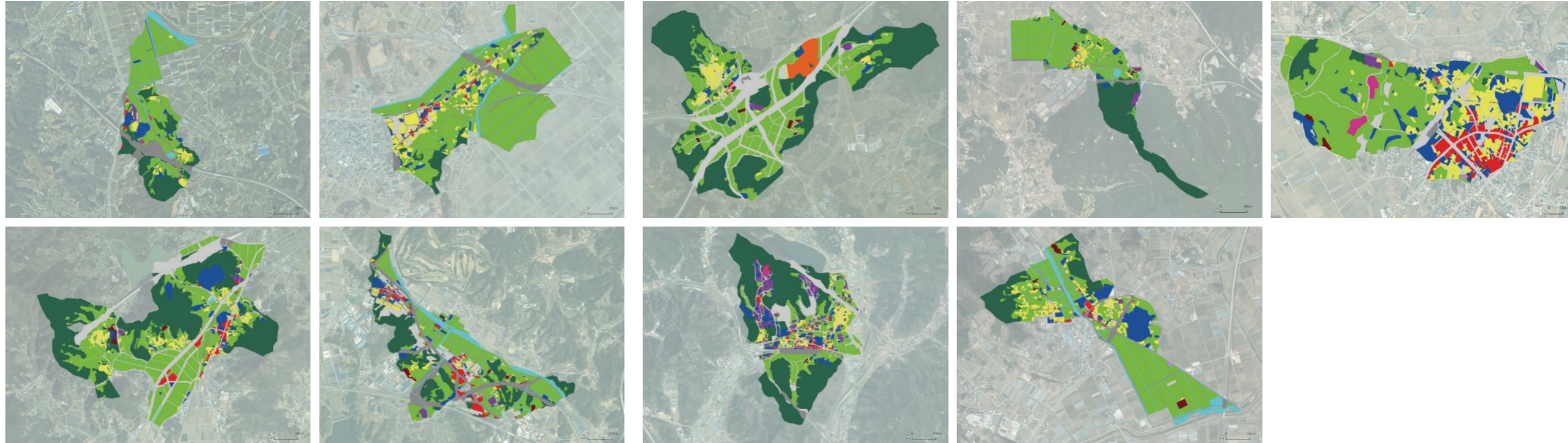
- 주거
- 상업·업무
- 공공기타
- 도로·공원등
- 농업
- 공업
- 태양광
- 축산업
- 창고
- 관광·휴양
- 임야
- 하천
- 이외



농업중심형 농촌

C1 농업중심형_생활기능·농지조화지역

- 주거
- 상업·업무
- 공공기타
- 도로·공원등
- 농업
- 공업
- 태양광
- 축산업
- 창고
- 관광·휴양
- 임야
- 하천
- 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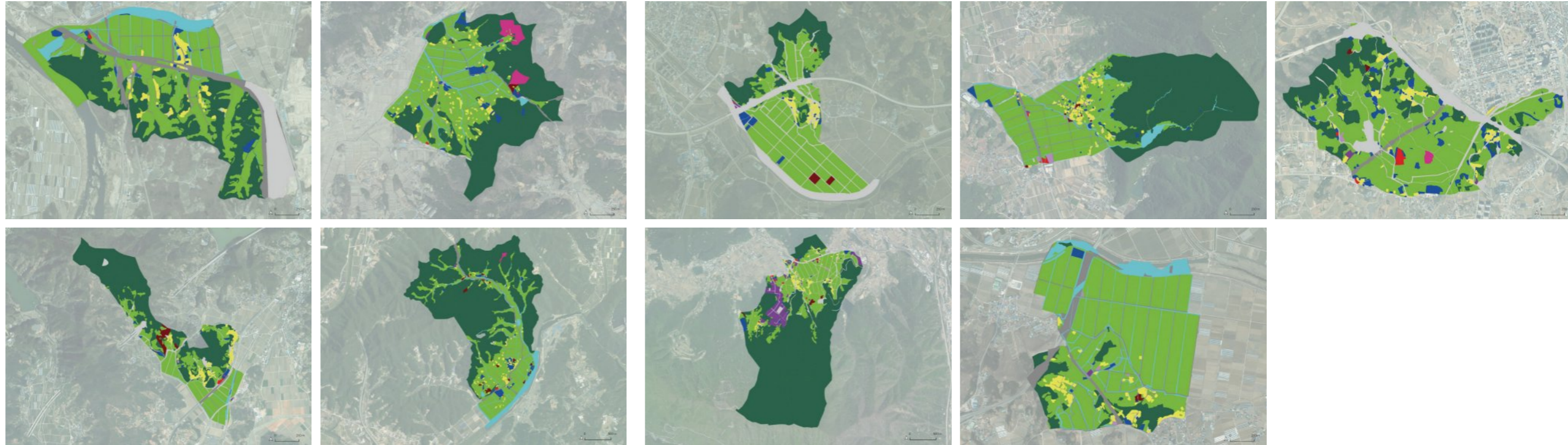
1	3	5	7	9
2	4	6	8	

- 1 청주시 가덕면 국전리
- 2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 3 당진시 우강면 창리
- 4 황성군 우천면 우항리
- 5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 6 철곡군 지천면 신리
- 7 고성군 거류면 용산리
- 8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 9 상주시 함창읍 구항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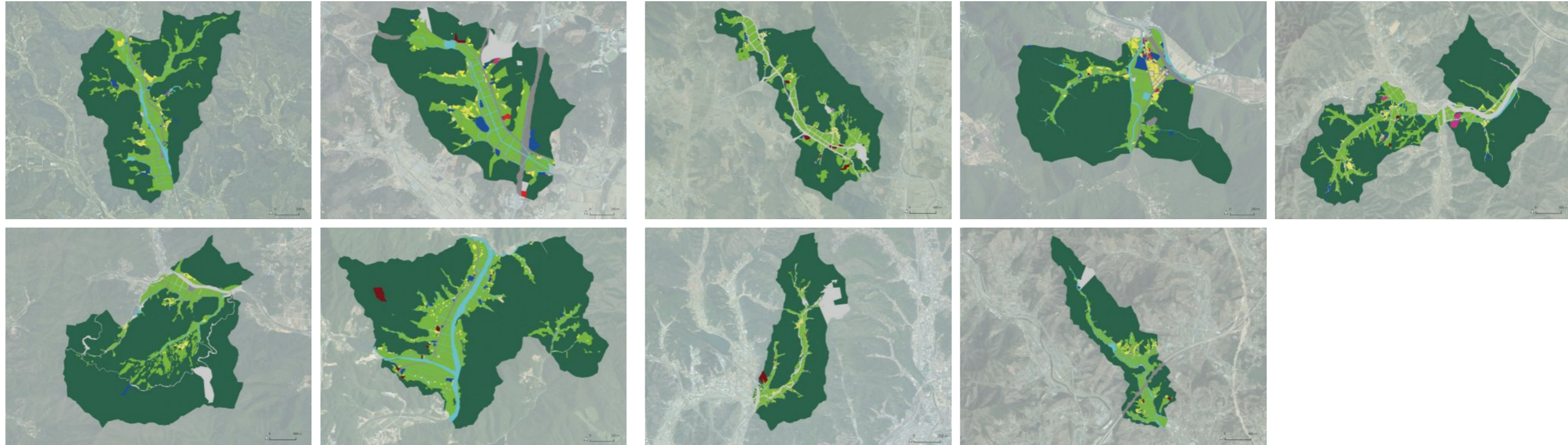
C2 농업중심형_농지집중지역

- 주거
- 상업·업무
- 공공기타
- 도로·공원등
- 농업
- 공업
- 태양광
- 축산업
- 창고
- 관광·휴양
- 임야
- 하천
- 이외



C3 농업중심형_임야·농지혼재지역

- 주거
- 상업·업무
- 공공기타
- 도로·공원등
- 농업
- 공업
- 태양광
- 축산업
- 창고
- 관광·휴양
- 임야
- 하천
- 이외



1	3	5	7	9
2	4	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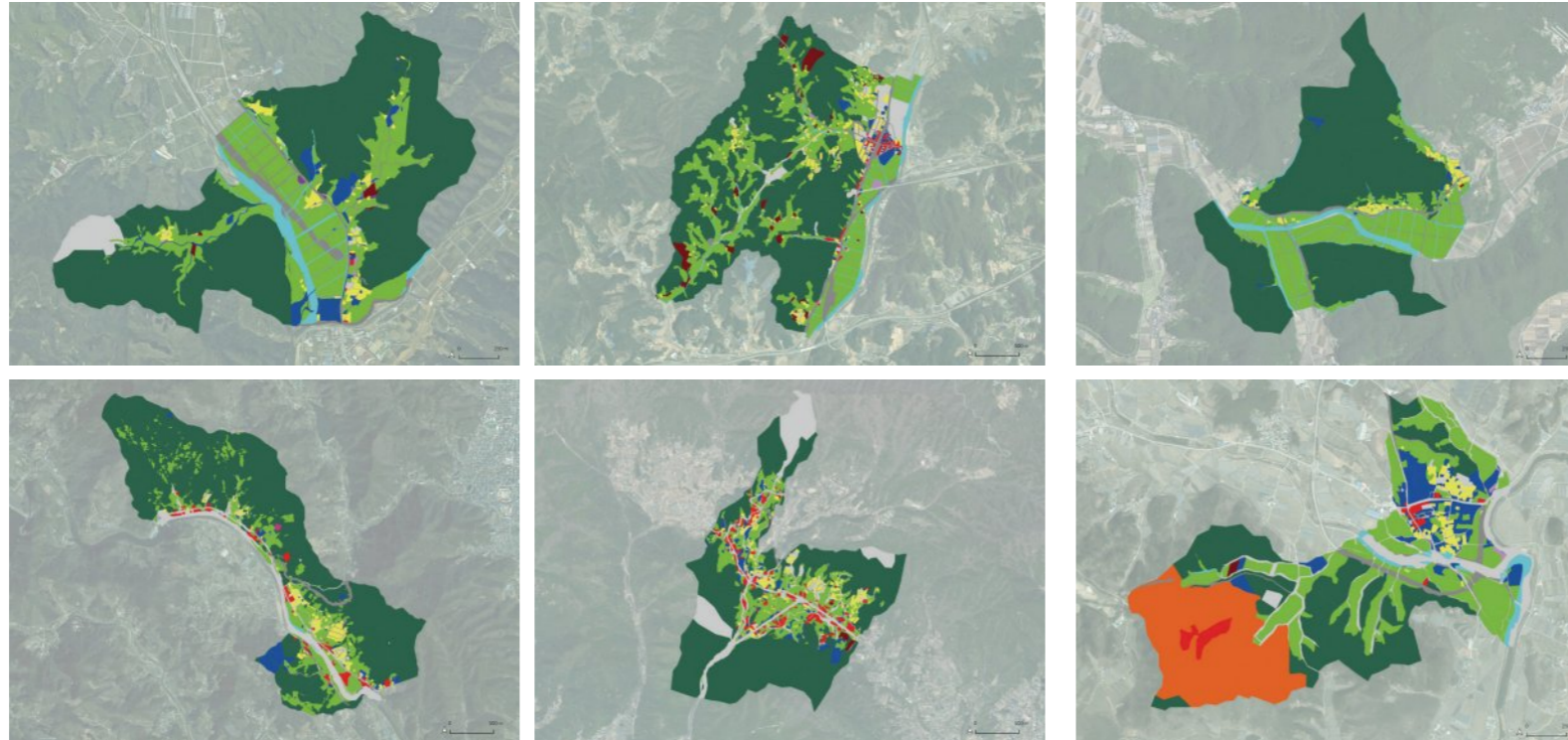
- 1 청주시 낭성면 문박리
- 2 순천시 주암면 비룡리
- 3 당진시 정미면 사관리
- 4 황성군 공근면 부창리
- 5 순창군 팔덕면 광암리
- 6 철곡군 지천면 심천리
- 7 고성군 상리면 척반정리
- 8 부여군 구룡면 현암리
- 9 상주시 내서면 평지리



자연우세형 농촌

D1 자연우세형_저밀 생활기능·농지조화지역

- 주거
- 상업·업무
- 공공기타
- 도로·공원등
- 농업
- 공업
- 태양광
- 축산업
- 창고
- 관광·휴양
- 임야
- 하천
- 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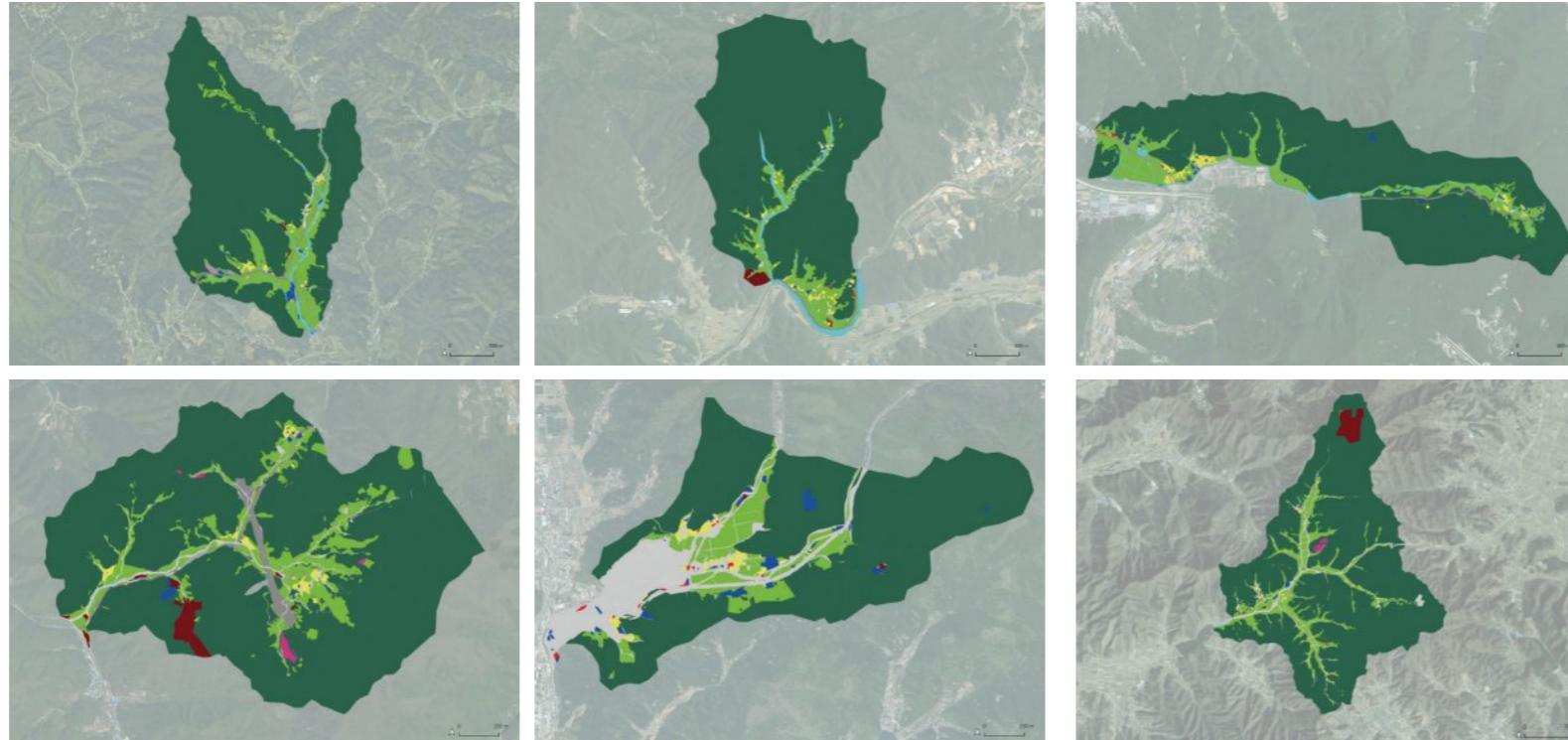
1	3	5
2	4	6

- 1 청주시 미원면 내산리
- 2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 3 황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 4 철곡군 동명면 가성리
- 5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
- 6 상주시 모서면 삼포리



D2 자연우세형_과소·임야집중지역

- 주거
- 상업·업무
- 공공기타
- 도로·공원등
- 농업
- 공업
- 태양광
- 축산업
- 창고
- 관광·휴양
- 임야
- 하천
- 이외



06

농촌공간 관리 방향

농촌 토지이용 유형을 활용한 공간 관리 방향 탐색

✓ 시·군의 전반적인 토지이용 특성에 기반하여 토지이용 관리 기본방향 설정

시·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농촌공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군별 농촌 토지이용 유형의 분포패턴을 활용할 경우,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토지이용 특성을 비교적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개별 지역의 토지이용 특성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한계를 줄이고, 전국 농촌 토지이용의 보편적 유형을 기준으로 각 시·군의 상대적 특성과 차별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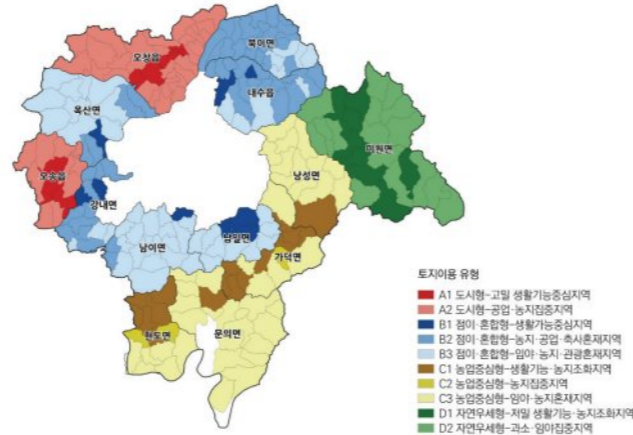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농복합시인 충북 청주시와 경북 상주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농촌 토지이용 유형의 분포패턴이 지역별로 얼마나 다른지 쉽게 알 수 있다. 인구 약 85.5만 명의 청주시에서는 10개 농촌 토지이용 유형이 모두 분포하며, 특히 동 지역과 인접한 읍·면에서 도시형 농촌의 A1, A2 유형과 점·혼합형 농촌의 B1, B2, B3 유형이 우세한 특징을 보인다.

청주시와 동일하게 도농복합시이지만 인구 규모가 약 9.1만 명에 불과한 상주시에서는 농업중심형 및 자연우세형 농촌의 5개 토지이용 유형(C1, C2, C3, D1, D2)만 분포하고 도시형 농촌과 점·혼합형 농촌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상주시가 전반적으로 농경지와 자연환경이 넓게 형성된 전형적인 농업 기반 지역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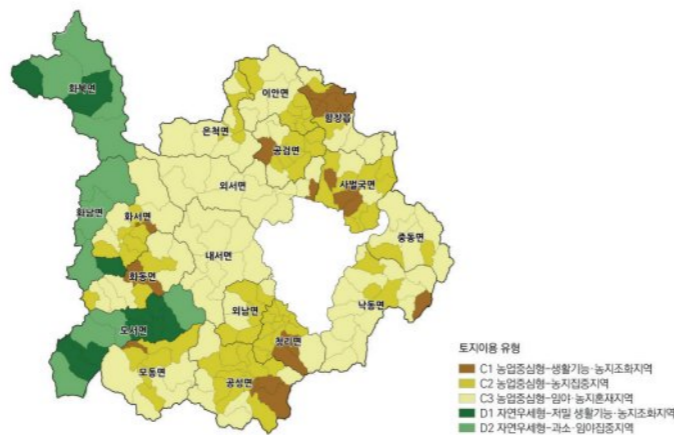
한편, 인구 약 2.7만 명 규모의 순창군에서는 점·혼합형 및 농업중심형 농촌에 해당하는 6개 토지이용 유형(B1, B2, B3, C1, C2, C3)이 분포한다. 점·혼합형 토지이용은 순창읍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반면, 그 외 지역은 농경지가 우세한 특성을 보인다.

상주시와 순창군의 토지이용 분포 특성을 비교해 보면, 상주시는 동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적 토지이용이 집약적으로 형성된 반면, 순창군은 읍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적 토지이용이 관찰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시·군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토지이용 유형의 분포패턴은, 향후 농촌공간 재구조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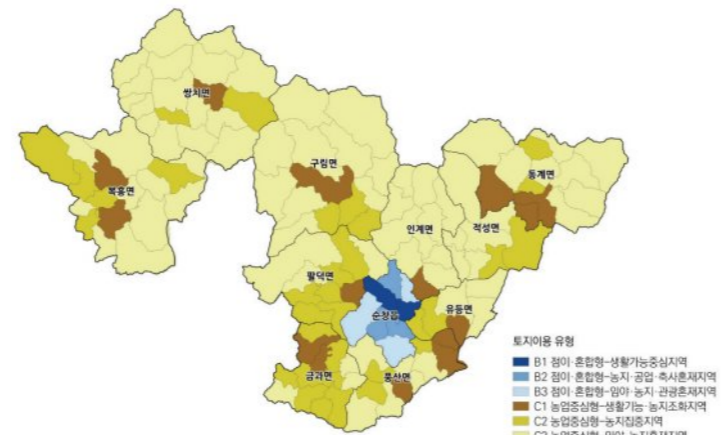
충북 청주시



경북 상주시



전북 순창군



✓ 농촌 토지이용 유형의 공간적, 기능적 특성을 토대로 지역별 토지이용 관리과제 발굴

농촌 토지이용 유형은 지역별 토지이용의 공간적·기능적 특성을 일반화하여, 시·군 담당자와 주민이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통의 이해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복잡한 토지이용 현황을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정책 대상 지역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줄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토지이용 유형의 공간적 특성

A1, B1 유형은 주거, 상업·업무, 공공·기타용지가 밀집되어 생활 편의성과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에 비해, B2, C1, C2 유형은 비교적 넓은 농업용지가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등 유사한 토지이용이 집중된 구조를 보인다.

A2, B2, B3, C2, C3 유형은 공업 또는 축산용지가 농업용지 및 주거용지 인근에 분산된 경향을 보이므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조에서 말하는 농촌 난개발 문제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D2 유형은 주거용지가 점(點)적 분포하여 마을 형태를 이루지 못하며, A2, B2, B3, C1, C2, C3, D1 유형은 농업용지 사이 또는 산자락을 따라 주거용지가 군데군데 모여 있는 분산형 집중 구조를 보인다. 주거나 여러 마을이 흩어져 존재하는 이러한 유형에서는 생활서비스 접근성과 이동성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지이용 유형의 기능적 특성

A1, B1 유형은 생활기능이 밀집된 농촌 중심지로서 도시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볼 수 있다. C1, A2, B2 유형도 생활기능이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A1, A2, B1, B2, B3, C1 유형은 생활기능과 공업용지 간 혼재, A2, B2, C1, C2 유형은 생활기능과 축산용지 간 혼재로 인해 지역갈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A2, B2, C1 유형은 공업용지와 축산용지가 모두 생활기능과 인접해 있어, 복합적인 토지이용 갈등이나 환경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농촌의 토지이용은 전반적으로 임야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특히 B3, C3, D1, D2 유형은 생활·생산 기능이 미약하고 임야가 지배적이다. 특히 C3, D2 유형은 임야가 70%~80% 이상으로 많고 생활·생산 기능이 낮아 소멸 위험이 클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농촌 토지이용 유형을 활용해 발굴한 토지이용 관리과제를 토대로 농촌특화지구 운용 필요 협의

농촌 토지이용 유형은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이는 토지이용 관리 방향 설정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의 난개발을 해소하고, 유사한 토지이용의 집적을 유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 과정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1 유형(도시형-고밀 생활기능중심지역)과 B1 유형(점아-혼합형-생활기능중심지역)은 인구·고용밀도가 높고 읍소재지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생활·생산기능이 강하므로, 농촌 정주체계에서 지속가능한 거점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함께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

A2 유형(도시형-공업·농지집중지역)과 B2 유형(점아-혼합형-농지·공업·축사혼재지역)은 상대적으로 생활기능 집중도가 높고, 공업이나 농업 등 생산 여건이 양호하여 농촌의 생활·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곳이다. 다만, 이들 유형은 생활기능과 공업·축산용지 간 혼재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난개발 문제를 확인하고 해당 용도의 재배치 및 입지 관리를 위한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

C1 유형(농업중심형-생활기능·농지조화지역)은 면소재지에 주로 위치하며, 생활기능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으나 쇠락 단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평가된다. C3 유형(농업중심형-임야·농지혼재지역)과 D2 유형(자연우세형-과소·임야집중지역)은 임야 비중이 높고 생활·생산기능 토지이용률이 매우 낮아, 인구 감소와 기능 약화에 따른 소멸 위험이 우려된다. 이러한 지역은 우선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필요한 난개발을 억제하는 한편, 농지 확대 또는 자연환경 회복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경관농업지구나 농업유산지구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



✓ 농촌의 고유한 토지이용 유형과 조화로운 개발행위 유도 및 농촌다운 토지이용 보호

토지이용이란 말 그대로 사람들이 토지를 이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곧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쉬고, 즐기는 삶의 방식이 공간 위에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토지이용은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양식, 산업구조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그릇으로서,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농촌공간을 이 책에서 제시한 10개의 농촌 토지이용 유형만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형은 앞으로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 가야 할 농촌의 모습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토지이용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해당 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위는 유도하되, 농촌의 경관과 기능을 훼손하는 조화롭지 못한 개발행위는 계획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앞으로 시·군이 농촌공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책에 제시한 10개 농촌 토지이용 유형이 지역의 토지이용 관리 방향을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유형별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별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농촌다운 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농촌다운 토지이용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여혜진·유광흠·한수경·진태승·변기영·심혜민·김영하. (202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방안 연구(1) - 농촌 토지이용
개편 검토기준. 건축공간연구원
- 여혜진·한수경·변기영. (2025). 농촌 토지이용 유형과 유형별 공간관리 방향. auri brief, 299.

농촌 토지이용 유형으로 본 우리나라 농촌공간

발행일 2025년 12월 31일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펴낸이 박환용
 지은이 한수경, 변기영, 여혜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전화 044-417-9600
 홈페이지 <http://www.auri.re.kr>
 제작 세일포커스(주)

ISBN 979-11-5659-525-0 (PDF)
 비매품

이 책의 저작권은 건축공간연구원에 있습니다.
 이 책은 건축공간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auri.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농촌 토지이용 유형으로 본
우리나라 농촌 공간

(auri)

